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창립심포지움

각 학문 영역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2012년 9월 22일(토) 12:30~18:00

서울대학교 규장각 강당

주최 :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한국젠더법학회(이상 가나다순)

주관 : 한국여성학회, 서울대 여성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문의 : 한국여성학회 02)880-6449, www.kaws.or.kr, kwss21@hanmail.net

프로그래램

일 시	내 용	
12:30~ 13:00	등 록	
13:00~ 13:15	개회식	
	사 회 신경아(한국여성학회 재무위원장, 한림대) 개회사 정진성(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회장, 한국여성학회장) 축 사 김명자(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옥라(한국여성학회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	
제1부 13:15- 14:55	제1부 인문학과 여성연구	
	사회	- 강영경(한국여성사학회, 숙명여대)
	발표	- 김혜숙(한국여성철학회, 이화여대) - 김양선(한국여성문학학회, 한림대) - 최기숙(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연세대) - 이귀우(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서울여대) - 이소희(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한양여대) - 정현백(한국여성사학회, 성균관대) - 박경미(한국여성신학회, 이화여대)
	토론	- 박정오(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명지대) - 홍인숙(한국여성고전문학회, 이화여대) - 김세서리아(한국여성철학회, 성균관대) - 임희숙(한국여성신학회, 성공회대)
14:55- 15:10	휴 식	

제2부 15:10~ 16:20	제2부 여성의 몸과 마음, 건강 연구	
	사회	- 진행미(한국여성체육학회, 경기대)
	발표	- 이경옥(한국여성체육학회, 이화여대) - 조동숙(여성건강간호학회, 을지대) - 박효정(대한여성건강학회, 이화여대) - 차지영(대한여성건강학회, 이화여대) - 이경숙(한국여성심리학회, 한신대)
	토론	- 남윤신(한국여성체육학회, 덕성여대) - 이은희(여성건강간호학회, 강릉원주대) - 양승애(대한여성건강학회, 성신여대) - 안상수(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20- 16:35	휴 식	
제3부 16:35~ 18:00	제3부 사회과학과 여성연구	
	사회	- 이재경(한국가족학회, 이화여대)
	발표	- 김혜경(한국가족학회, 전북대) - 백미숙(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서울대) - 김엘림(한국젠더법학회, 한국방송통신대) - 성효용(한국여성경제학회, 성신여대) - 이나영(한국여성학회, 중앙대)
	토론	- 양현아(한국젠더법학회, 서울대) - 이경숙(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고려사이버대) - 전선애(한국여성경제학회, 중앙대)
18:00~ 20:00	만찬 및 창립총회	

목 차

경과보고	v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회장단	vi

1부 인문학과 여성연구

▶ 김혜숙(한국여성철학회, 이화여대)	
“한국여성철학회: 철학하는 여성에서 여성 관점의 철학으로”	3
▶ 김양선(한국여성문학학회, 한림대)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한국여성문학학회”	15
▶ 최기숙(한국고전여성문학회, 연세대)	
“탈경계 이후의 도전: ‘여성-고전-문학-사’를 매개하는 ‘젠더 비평’의 학술사적 궤적과 방향”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학술사적 의의와 과제	25
▶ 이귀우(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서울여대)	
이소희(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한양여대)	
“영미문학 분야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47
▶ 정현백(한국여성사학회, 성균관대)	
“여성사연구의 현실과 과제-‘자리 잡기’와 ‘새판 짜기’ 사이에서”	61
▶ 박경미(한국여성신학회, 이화여대)	
“한국여성신학의 성립과 전개”	75

2부 여성의 몸과 마음, 건강 연구

▶ 이경옥(한국여성체육학회, 이화여대)	
“여성 체육인의 움직임을 통한 몸과 마음 건강 연구의 도전과 과제”	109

▶ 조동숙(여성건강간호학회, 을지대)	
“여성건강간호학에서의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127
▶ 박효정(대한여성건강학회, 이화여대)	
차지영(대한여성건강학회, 이화여대)	
“여성의 몸과 마음, 건강 연구: 대한여성건강학회”	137
▶ 이경숙(한국여성심리학회, 한신대)	
“한국여성심리학회 여성 연구”	151

3부 사회과학과 여성연구

▶ 김혜경(한국가족학회, 전북대)	
“한국가족학회지 『가족과 문화』와 여성주의”	165
▶ 백미숙(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서울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와 한국 언론학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	169
▶ 김엘림(한국젠더법학회,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에서의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한국젠더법학회의 성립과 현황 및 과제”	193
▶ 성효용(한국여성경제학회, 성신여대)	
“젠더연구와 한국여성경제학회”	213
▶ 이나영(한국여성학회, 중앙대)	
“한국 ‘여성학’: 역사적 궤적과 위치성”	233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정관	267

경과 보고

- 2012년 1월 정진성 한국여성학회장, 한국여성학회 이사회에서 ‘여성’과 ‘젠더’를 연구하는 학회들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2012년 2월-5월 한국가족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 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한국젠더법학회(이상 가나다순)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8개 학회가 모두 수락함.
- 2012년 4월 19일 (가칭)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제 1차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가족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 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한국젠더법학회의 8개 학회에서 학회장 또는 학회장의 위임을 받은 임원이 참석하여 협의회 조직을 결의하고, 9월 22일(토) 창립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결정함.
- 2012년 5월-6월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이상 가나다순)의 7개 학회가 협의회 참여를 수락함.
- 2012년 6월 26일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제 2차 운영위원회 개최
참여를 결정한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 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한국젠더법학회(이상 가나다순)의 15개 학회의 학회장 또는 학회장의 위임을 받은 임원이 참석함.
협의회 명칭을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로 확정하고 정관 초안을 준비함.
- 2012년 7월-8월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정관을 마련하여 각 학회에 회람 후 동의를 득함.
- 2012년 8월 10일 정관이 확정됨.
- 2012년 9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창립 심포지움 및 창립 총회 개최.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회장단〉

번호	학회명	회장단	소속
1	대한여성건강학회	서주태	관동대학교
2	여성건강간호학회	조동숙	을지대학교
3	한국가족학회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이상구	순천대학교
5	한국여성경제학회	성효용	성신여자대학교
6	한국여성문학학회	김양선	한림대학교
7	한국여성사학회	강영경	숙명여자대학교
8	한국여성신학회	정희성	이화여자대학교
9	한국여성심리학회	이경숙	한신대학교
10	한국여성철학회	허라금	이화여자대학교
11	한국여성체육학회	진행미	경기대학교
1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유세경	이화여자대학교
13	한국여성학회	정진성	서울대학교
14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이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	한국젠더법학회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1부 인문학과 여성연구

한국여성철학회: 철학하는 여성에서 여성 관점의 철학으로

김혜숙(한국여성철학회, 이화여대)

1. 서론: 학회 현황

한국여성철학회(이후 한여철로 약칭함)는 1997년 4월 19일 31인의 발기인 포함 80여명의 회원들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신옥희가 맡았고, 부회장에 이상화, 총무 이사에 김혜숙, 연구이사에 허라금, 편집이사에 김혜련이 참여하였다. 한여철은 발기문에서 “여성과 철학을 결합하는 것이 아직도 낯선 우리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철학하는 여성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여성의 관점에서 철학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치열한 사유의 장”이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기존의 철학이 보편성의 이름으로 간과해온 여성의 경험과 여성이라는 자리를 철학적으로 담론화 한다는 한여철의 창립 목적은 당시 철학은 보편적 인간을 다룬다는 생각이 편재한 상황에서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내심 “보편성을 지향하는 철학에 남성철학이 있고 여성철학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남성철학자들은 때로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대학에 속하는 여자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학회였기에 표면적 냉대와 같은 것은 없었다. 철학 안에서의 남성중심성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여철이 한국철학회의 분과학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저어함이 있기는 하였지만, 학회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분과학회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속에서 한국철학회 분과학회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여철은 현재 회원수가 준회원 포함 104명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2001년도부터 학회지 『한국여성철학』를 창간하여 연 2회씩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다. 창립 이래로 매년 봄 학술 심포지움을 갖고 있으며, 가을에 한국철학자대회가 열리는 경우 이에 참가하고 있다. 이외에 여름과 겨울 방학 중 다양한 주제 하에 합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월 월례 발표회를 갖고 있다. ‘탈북여성에 관한 연구’와 같은 형태로 소규모 특별연구회를 구성하여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회원들 간 공동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8월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철학대회(World Congress of Philosophy)와 세계여성철학자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Philosophers)에 참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다문화주의와 아시아 여성철학”이라는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또한 2006년부터는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사학회와 함께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를 2년에 한번씩 개최하여 2012년 현재 4회 학술대

회를 마친 바 있다. 학회의 연구 활동은 연구사 리뷰를 하는 3장에서 좀더 상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2. 학회성립의 배경: 분과학문으로부터의 독립 배경과 과정

한국에서 여성주의 철학 논의는 대체로 서구 여성주의 철학의 전개에 관한 것이거나 그 안에서 설정된 철학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철학을 하는 여성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은 한국 학계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내 소수자 위치로 인해 생겨난다. 철학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대표적 남성 담론으로 간주되어왔었다. 이성적, 논리적 사고 능력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생각, 여성이 무엇인가를 깊이 사유하고 논쟁하고 주장하는 일은 여성답지 않다는 일반적 생각은 여성 스스로도 철학을 기피하도록 만들었다. 1993년 전국을 통털어 대학에 여성 철학교수의 수가 열도 채 안되었을 당시 여성철학연구회를 만들어 독회를 시작한 것이 한여철의 출발이었다. 서구 여성주의의 연구가 사회과학, 문학을 넘어서 철학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여성철학자들 간의 친목 모임을 넘어서 여성주의 의식을 공유하는 철학연구자들이 모여 공부를 하지는 취지로 연구회는 만들어졌었고, 그런 취지 하에서 한동안 운영되었다. 그러다 1997년 4월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의 신옥희 교수를 회장으로 한국여성철학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철학을 전공하는 여성연구자들 중심으로 1993년 ‘여성철학연구회’가 출범했을 당시 연구회는 전통 철학 텍스트들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논의와 그러한 논의 안에 숨어있는 남성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했다.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참가자의 폭이 넓어졌으며 각 대학의 철학, 여성학, 언어학, 법학, 미술사 등의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논의의 성과는 『한국여성철학』(여성철학연구모임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5)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여성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철학은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남성 중심성이 매우 강한 학문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철학과가 생긴 것도 1974년의 일이다. ‘여자대학에 무슨 철학과인가’ 하는 생각이 암암리에 여자대학에서의 철학과 설치를 늦어지게 한 것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신옥희 교수와 동양철학 전공의 고려대 은정희 교수가 여성 철학교수로 활동한 것을 제외하고 한동안 전국 대학의 철학과에서 여성 교수는 찾기 어려웠다. 여전히 서울의 주요대학 철학과에서 여성 철학교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세월이 흘렀어도 철학하는 여성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여성 철학도들은 ‘여자가 무슨 철학을’이라는 세속의 편견 뿐만 아니라 대학 내 남성 철학연구자들의 편견도 마주해야 했다. 남성 철학교수를 포함한 남성 철학연구자들은 여성과 함께 진지한 철학논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낯설어했으며, 때로는 불편해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여성이 남성 교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듯,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기도 하였다. 학회에서 여성 연

구자가 질문을 하는 경우 가볍게 농담하듯 넘어가거나 성의없는 답변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여성 철학연구자들은 대학 내의 남성중심적 분위기 속에서 주눅 들어있는 편이었다. ‘이렇게 고고한 학문에 끼워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가 대학 내에도 있었다. 세속과 대학의 편견 뿐만 아니라, 여성 철학연구자들은 남성 중심 철학텍스트로부터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철학자로 만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의 정자 안에 작은 인간이 이미 형성되어있고 여성은 그것을 길러내는 단순한 질료로 봄으로써 여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차별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대한 철학자라고 사람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칸트 또한 여성의 철학적, 도덕적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퇴계는 글짓는 일은 창기나 하는 일이고 여자들은 옹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접고 술밥이나 의론하라고 말하였다. 대철학자들이 ‘철학적 진리’로 여성의 열등성을 정립해놓고 있는 텍스트를 여성으로 읽는 일은 때로 참혹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여성 철학자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외치며, 그들을 배제하고 있는 텍스트를 끌어당겨 읽을 때, 그것이 주는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거나 여성 자아를 외면하고 남성 자아를 가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남성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 안의 여성을 경멸하고 비웃으며, 자신이 아닌 남성 자아가 되기를 열망하게 된다. 철학하는 여성은 자기 자신에게도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한국인을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텍스트를 떠날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을 사랑해야 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는 비굴해지거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자기기만적이 되거나 이중적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철학이라는 거대 텍스트 안에서 여성들은 세속으로부터, 철학 자체로부터, 철학하는 남성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몇 중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소외는 암암리에 여성 철학자들의 정신적 성장을 방해한다.

한국이 강력한 가부장 사회임을 생각해보면 여성 철학자들이 겪는 자기소외의 정도는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매우 깊은 것으로 보인다. 답답함, 억울함, 화남, 불쾌함, 자존심 상함, 괴로움, 무기력감, 좌절감, 이러한 감정들이 많은 여성 철학연구자들을 지배하였고 큰 작든 이러한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여성 철학자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여성철학연구회의 저변에 형성되어있었던 이러한 유대감이 남성들과의 학회활동으로부터 독립해서 한국여성철학회를 조직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한국 사회가 많이 평등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학 내 여성 철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경우 위에서 나열한 부정적 감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철학연구회의 출발은 남성 중심성이 강한 철학계 안에서 여성철학자들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지는 취지 외에도, 당시 국내외 여성학 관련 담론이 비대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철학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기여했다. 한국의 여성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의 필요성은 여성철학자들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 현실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성찰하고, 우리의 현실을 분석·해석하는 작업을 해보자는 데로 의견들이 모아졌다. 이러한 작업을 하다보면 한국여성철학의 정체성 또한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대체적 생각이었다.

단순 연구회로부터 독립 학회로 발전하게 되면서, 각 대학 철학과와 여성교수 수를 늘리는 데 암묵적 압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여철 회원들이 지금까지 학회에 쏟았던 열의와 노력은 매우 진지하고 성실한 것이었으며, 학문적 성취에 있어서도 주목할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 초창기 회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한국여성철학회의 오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당시 회원들의 열의가 넘쳐났고,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다른 학회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주제들을 철학적으로 주제화하는 데 대한 기쁨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자기 시간 빼앗긴다는 생각도 없이 열심히 학회에 참석하여 밤늦도록 토론의 시간을 가졌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신옥희 교수는 1995년 은퇴 당시 학회의 발전기금을 기탁하였고, 다른 임원들과 회원들 또한 학회의 운영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여철의 창립은 동아시아 국가 안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것이었으며, 미국 철학계 내에서도 “Society for Women in Philosophy” 형태로만 여성철학자들의 모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성취라고 본다. 남성중심이 매우 강한 독일의 학계 내에서 여성철학자들이 유럽 지역의 여성철학자들을 주회원으로 하는 ‘국제여성철학연합(IAPh)’을 구성한 것과 달리 미국의 여성철학자들은 독립 학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이나 중국, 대만 또한 독립적 여성철학회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여성철학회가 아시아 지역 여성철학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지난 2007년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 여성철학자들 중심의 국제학술대회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연구사 리뷰

한여철의 활동은 월례 발표, 연례 학술대회, 워크숍, 소규모 독회 및 연구모임, 출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창립 이후 한여철 연례 학술대회 주제들이다. 괄호 안은 발제자들 이름이다.

- 1997: 여성철학을 위하여(신옥희, 허라금)
- 1998: 여성의 몸(김세서리아, 장영란, 허라금)
- 1999: 여성의 삶의 문맥에서 본 갈등의 문제(김선희, 김미영, 연효숙)
- 2000: 여성적 관점에서 본 공동체주의(조경란, 정연교, 이정은)
- 2001: 도발 담론에서의 페미니즘(안옥선, 이권, 김혜숙)
- 2002: 여성과 생명(한자경, 권복교, 공병혜)
- 2003: 여성과 과학(오세화, 황희숙, 김선희)

- 2004: 여성과 생명(김정희, 이해정, 엄영란)
- 2005: 여성주의와 동양철학(김세서리아, 강명희)
- 2006: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 근대를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시각(김혜숙, 김주현, 김정란)
- 2007: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다문화주의와 아시아 여성철학(사키코 키타가와, 에바 만, 차오주 첸, 이정은, 장영란, 김혜숙, 김미영, 연효숙, 김혜련, 황희숙, 윤혜린, 김세서리아, 허라금)
- ____: 〈한국의철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여성성 혹은 돌봄의 철학—생명과 철학의 화해를 위한 모색
- 2008: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 종교와 여성
- ____: 〈한국과학철학회와 연합 학술대회〉 여성주의 과학철학의 가능성과 한계
- 2009: 철학상담과 여성(노성숙, 홍경자, 김선희)
- ____: 〈제 8회 세계상호문화철학대회: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상호문화철학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독일 미쾨른 선교학 연구소 공동 주관〉 인간화된 삶으로서의 좋은 삶
- ____: 〈한국과학철학회와 연합 학술대회〉 여성과 과학기술
- 2010: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 4.19 혁명과 여성
- ____: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합〉 다문화사회에서의 여성 역량 강화에 관한 철학적 성찰
- 2011: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는 정의로운 사회(이정은, 김선희, 최훈, 권수현)

위의 학술대회 주제에서 보듯 한여철의 연구활동은 동서양 철학의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서양철학의 맥락 안에서 여성주의 철학은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미학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윤리학, 사회철학과 정치철학 분야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활발한 논의가 펼쳐져 왔다. 과학철학과 논리학 분야는 분야의 특성 상 젠더 관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윤리학 분야에서는 ‘관계 중심적 자아’나 ‘모성적 사유’, ‘돌봄과 배려의 윤리’와 같은 개념들이 핵심 논의들 안에 자리잡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철학의 바깥에 존재해왔던 가족, 사랑, 친밀감, 감정, 일상, 공예와 같은 주제들이 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들어왔다.

한여철은 창립 이후부터 여성철학의 한국적 맥락을 중시해왔으며, 이는 연구자의 주 전공이 무엇이건 한국의 철학적 맥락을 참고로 삼는 일반적 경향을 낳았다. 이런 경향은 여성철학연구회의 연구결과물로 출판된 『한국여성철학』에 잘 드러나 있다. 실존철학자인 신옥희는 “동양의 전통사상과 한국적 여성철학의 전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양적 전통사상이 드러내는 한계점, 즉 주체적 자아의식의 결여와 현실적 역사의식의 결여, 그리고 합리적 명석성의 결여 등에 대해서는 서양의 실존철학과의 사상적 대화

를 통해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서구의 여성철학자들이 그들의 서양사상의 한계와 약점을 동양사상에 의해 보충하고자 하는 것처럼 동양의 여성들은 동양의 전통적 사상에서 대립과 갈등을 초월하는 ‘관계’의 지혜를 습득하면서 그와 동시에 강력한 자아의 독립성과 투철한 역사의식의 확립을 위해 서양사상과의 대화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동서사상의 상호관계 속에서 참으로 자유롭고 자비로운 한국여성의 미래를 열어줄 한국적인, 참으로 한국적인 여성철학이 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신옥희, 1995: 22-23)

한여철에서는 다른 여타 학회와 마찬가지로 월례회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학회에 참여하는 여성철학자들이 대개는 여성주의 철학을 겸업 형식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즉 자기 전공 영역이 있는 한편으로, 개인적 관심 하에 과외로 여성주의 철학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상황이었다. 사회철학이나 윤리학을 전공하는 경우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일이 비교적 용이했으나, 분석철학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여성주의 철학을 처음부터 공부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성주의 철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도 몇 명 생겨났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학위논문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남성 중심성이 서양철학보다 더 강한 동양철학 영역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논문에 도입한 좋은 예가 성균관 대학에서 학위를 한 이숙인과 김세서리아이다. 김주현은 서양철학 전공자로서 여성주의 미학으로 박사논문을 썼다. 학위 논문 이후에 여성철학의 관점을 자신의 연구에 도입한 동양철학자로는 김미영이 있으며, 이외에도 젊은 여성철학자들이 자기의 주전공과 여성주의를 결합시켜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신의 세부 전공 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을 새롭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은 사실 많은 에너지와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미국의 경우, 여성철학 전공으로 교수를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러한 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한여철의 1세대 활동은 신옥희 교수가 실존철학과 종교철학, 포스트모더니즘(루스 이리가레이)의 맥락 안에서 여성철학을 수행했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여철의 지속적 회원은 아니었지만 여성철학 관점의 작업으로 정세화 또한 1세대 여성철학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교육이념연구』(성지출판사, 1993)는 ‘이기철학적 접근’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교육철학과 여성철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세대 연구자들로는 이상화, 김혜숙, 김혜련, 허라금, 서정신, 허란주, 한자경, 최순옥, 김선희, 이주향, 김미영, 연효숙, 김세서리아, 이숙인, 이정은, 안옥선, 노성숙, 장영란, 윤혜린, 황희숙 등이 있다. 이후 다양한 배경과 논의 맥락을 가지고 작업하는 3세대 젊은 여성철학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혜정, 권수현, 신정원, 김주현, 김애령, 김화경, 도승연 등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여철 내의 여성철학연구자들은 서구의 여성주의 인식론이나 여성주의 윤리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통의 유가, 불교, 도가(무가) 철학의 맥락 안에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김혜숙과 김세서리아는 음양론에 대한 철학적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신옥희, 안옥선, 한자경, 최인숙, 한성자, 조은수 등은 불교철학을 여성주의 시각 안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유가철학 맥락 안에서 여성주의 관점을 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자들은 김세서리아, 김미영, 이숙인, 이은선이 있

으나, 한국문화가 유교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성철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유가철학과 연관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석철학자인 김선희도 최근 유가철학의 맥락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허라금은 윤리학, 에코페미니즘, 생명철학의 맥락 안에서 한국여성철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황희숙은 인식론적 관심에서 이상화는 사회철학과 역사철학적 관심에서 여성철학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헤겔철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상 안에서 여성철학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철학자들로는 연효숙과 이정은, 도승연, 김애령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김혜숙과 허라금, 김세서리아, 신정원, 김화경 등은 탈북여성을 철학적으로 주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매매’, ‘4.19혁명과 여성’, ‘한국 근대 여성’, ‘탈북여성’ 등 한국의 현대사 맥락 안에서 드러나는 주제들을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한국여성철학이 지금 이 순간, 나와 우리의 사유 안에서 작동하는 가치와 해석의 틀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여성철학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지역(일본, 홍콩, 대만, 한국) 여성철학자들로 학술대회를 가졌으며, 2008년에는 세계여성철학자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세계여성철학자대회에서는 동양과 서양, 아프리카, 회교국가의 여성철학자들이 모여 상호적인 철학적 관심을 토로하고 논의하는 장을 가졌다. 주로 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기존 대회와는 차별성을 가진 대회로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국가를 막론하고 전 지구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자각을 갖게 하였다. 대회의 주제는 한국여성철학회가 제시한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Multiculturalism and Feminism)”로 결정되었었다. 우리로서는 동양과 서양의 여성철학자들이 함께 모이는 첫 번째 대회로서의 의의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아시아 여성철학자를 비롯한 비서구권 여성철학자들의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여성철학 논의를 다양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4. 여성(젠더)연구가 분과 학문에 끼친 영향

—젠더 관점의 연구가 각 학문에 기여한 내용¹⁾

서구 여성주의 철학의 출발은 Mary Wallstonecraft(1759-1797)의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1792)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평등권에 관한 주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유럽 사회에 인간 평등에 관한 사상을 유포시켰고, 인간 평등론은 당시의 신분질서 안에서 누리던 지배계층과 문화엘리트 계층, 남성 가부장의 우월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칸트와 같은 철학자도 집안 내 가부장의 우선적 권리

1) 이 부분은 『우리길벗』34호(2008, 가을)의 “여성과 철학-2008 세계여성철학자대회를 마치고”를 참조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를 논증하고자 애썼으며, 영국의 에드몬드 버크는 노골적으로 인간 불평등론을 펼쳤고 여성의 평등권을 부정했다. 버크와 같은 사람이 평등론의 확산으로 우려했던 것은 전통적 귀족 계층의 지적, 예술적 엘리트주의의 붕괴로 말미암는 문화의 후퇴였다. 이러한 경향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 급진주의 사회주의자들과 월스톤크래프트와 같은 여성이었다. 자유주의 여성주의 철학은 이렇게 인간평등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서구의 자유주의 여성주의 철학은 이후에 사회주의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등의 등장과 더불어 변화를 겪었다.

여성철학회의 월례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항상 갖게 되는 문제의식은 서구 여성주의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어떻게 한국 여성주의 철학의 입지를 만들 것인가로 집중되었다. 이 땅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하는 이들은 한국에서 서양철학을 연구하는 일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 이는 철학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철학자들에게 이 문제는 좀더 첨예하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여성주의 철학은 애초에 철학이라는 담론을 지배하는 남성 중심성을 극복하지는 것이고, 철학이 내세우는 인간 본성 및 세계에 관한 보편적 진리란 것이 사실은 남성 관점을 반영하는 반쪽 짜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 문제의식에 충실하자면 한국여성철학에서 ‘여성’철학도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지만 ‘한국’이라는 지형적 특이성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것이다. 즉 우리가 ‘철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실상은 ‘서양철학’으로서 서양철학자들이 설정한 문제와 연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철학자들은 이러한 이중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진리를 관점이나 인간 경험의 맥락과 연관시키고자하는 여성 철학 내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보았을 때,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한국여성으로서의 경험도 매우 중요한 철학적 출발점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여성철학은 단지 여성의 관점 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성철학회 회원들은 한국의 여성 삶과 연관된 한국문화의 맥락과 사상과 종교, 역사의 맥락을 철학적 방식으로 재사유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의 결과물들이 학회지와 학술대회 자료집의 형태로 나와 있으며, 2006년부터는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여성문화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여성주의 인문학 학술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2007년에 개최되었던 아시아여성철학자대회에서는 서구 여성주의 철학에 대해서 아시아 여성주의 철학이 가능할지, 아시아 여성철학자들 간의 공동 의제를 개발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아시아 여성들의 경험은 종교 전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술대회에서는 유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 전통 안에서의 여성 삶에 관한 철학적 반성이 이루어졌다. 근대 아시아 여성의 경험은 일본 제국주의의 발호와 그 피해자 국가 여성의 문제로 압축되는 것으로 보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여성 경험의 문제는 아시아의 현재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여성은 이 문제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다. 아시아 여성 경험을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아시아적임’, ‘아시아적 가치’

와 같은 개념 또한 많은 불분명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렵다.

2008년 7월의 세계여성철학자대회에서는 글로벌 페미니즘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하나의 관심 주제였다. 기조 강연자 중 한 사람이었던 로지 브라이도티는 부시 미대통령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여성철학자들 간의 연대를 통해 항의함으로써 의제에 따른 공동의 전선으로서의 글로벌 페미니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세계여성철학자대회는 국외에서 약 100명 정도가 참여하였고 국내에서 250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3일 간의 대회 기간 중 동시적으로 진행된 세션들 안에서 다양한 언어를 통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세션의 주제는 ‘지구화와 여성’, ‘전통과 현대’, ‘여성주의와 과학철학’, ‘과학기술과 여성’, ‘문화와 표상’, ‘여성의 자기이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 대회의 특징은 아시아, 아프리카, 이슬람과 같은 비서구권의 여성철학자들과 서구권의 여성철학자들이 만나서 지역을 넘어서는 여성 경험의 공통성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체로 세계 어떤 지역의 여성이든 그들의 경험에는 차별과 억압과 폭력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여성주의와 여성주의 철학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지만, 놀라운 것은 21세기라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억압이 도처에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의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리의 관념과 언어, 오래된 기억에 내재된 성별 정치학은 다양한 문화 안에서 매우 뿌리깊은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가족, 여성, 일’에 관한 세션에서도 확인되었다.

가족의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의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족 전통이 강한 아시아 여성철학자들 간의 철학적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동경대학의 기타가와 교수는 일본 문화 안에서 가족이 갖는 의미를 논하면서, 근대 일본에서 ‘가족’은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검토를 한다면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아시아 문화 내, 특히 유교 문화 내에서 가족은 죽은 자에 대한 경배와 제례 등을 통해 매우 강력한 종교적 이념들로 작용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성찰은 우리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과 결혼, 출산,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 경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는 것들이다. 이들에 관한 철학적 성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아시아 여성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여성철학의 논의들은 좀더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여성성과 여성의 존재에 관한 형이상학적 규정, 여성의 덕윤리, 아시아적 가치의 문제 뿐만 아니라 종교 전통과 여성, 오늘날 아시아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철학적 성찰, 전지구화된 환경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도 높게 성적 대상화되어가고 있는 아시아 여성의 상황 등도 공동의 의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 여성철학자들 간의 지적 연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랍,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비서구 문화권의 여성철학자들과

의 네트워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전지구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면 그 때에는 의미있게 '전지구적 여성주의 철학(Global Feminism)'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실제적 모습 또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여성철학자 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비서구권 여성철학자들 간의 대화'와 '동양과 서양 여성철학자들 간의 대화'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의 여성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각 지역에서 여성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주제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갖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 1세계의 여성철학자들의 관심과 제 3세계 여성철학자들의 관심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도 가난과 질병, 문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과 여성자의식의 고양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우리나라 60-70년대 여성들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이들 제 1세계와 제 3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세계 경험과 기억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 여성철학자들은 여성주의 철학 안에서 식민주의, 탈식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 지구화된 환경 안에서 자본주의와 포스트모던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인간 욕망과 몸의 문제를 주제화할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했다.

지난 20년 간, 학회 창립이후로 세면 15년 간 한여철의 학문적 노력은 의미깊은 것이었다고 본다. 한여철의 가시적 존재는 여성철학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지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으며, 이전의 남성중심적 학문 영역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주제들을 철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기존 학문 담론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남성 철학자들도 동서양 철학을 막론하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거나 경원시 하지 않는다. 한국연구재단 학문 분류표에 여성철학이 한 분야로 들어가 있는 점도 한국여성철학회 회원들의 치열한 학문적 노력 덕분이라고 본다.

인간의 몸, 가족, 사랑, 감정, 감성, 모성적 사유 등이 철학적으로 주제화된 데에는 여성철학의 노력이 크며, 과학철학과 같은 분야에서 여성주의 관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생기는 것도 여성철학적 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성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시도되지도 않았던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는 벌써 8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인문학이 전통적으로 여성 연구자들이 강세를 보였던 분야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연합학술대회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지니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한여철은 앞에서 언급한 『한국여성철학』 외에도 『여성주의 철학』 1, 2(서광사, 2005), 『여성의 몸에 관한 철학적 성찰』(철학과 현실사, 2000), 『혁명과 여성』(선인, 2010)을 펴낸 바 있다. 이 중에 『혁명과 여성』은 여성 인문학 연합학술대회의 성과를 묶은 것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로 출판되었다.

5. 여성연구자들의 지위

철학계 안에서 여성연구자들의 지위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주요대학 내 여성철학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희귀하다고 할 정도로 적다. 서울대에 불교철학 전공의 조은수가 있을 뿐,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철학과에는 여성 교수가 아예 없다. 경희대와 동국대에는 여성 교수가 일인이 있다. 일부 여성 철학연구자들은 연구 교수나 강의교수 등의 타이틀을 갖고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으나 대학들을 옮겨다니며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두 경우 모두 사실상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으며, 2013년부터 새로 바뀌게 되는 강사제도는 이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철학상담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노성숙은 상담대학원 대학의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선희는 자치단체와의 연결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인문 강좌 활동에도 여러 여성 철학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여철 학회 차원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를 자치단체와의 협력 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탈북여성을 위한 인문강좌를 기획함으로써 분단 한국의 현실 안에서 이념을 넘어서 여성의 인간적 삶을 위한 여성철학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여성철학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6. 향후 과제

한국여성철학의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이라는 텍스트 혹은 컨텍스트는 한국여성철학에는 하나의 도전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국여성은 강력한 가부장 이념이 지배했던 사회에서 지난 수 백년 간의 삶을 유지해왔으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식민지 여성으로서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근대화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늘날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사회 안에서 한국여성들의 삶은 또 다른 방식으로 위협받고 있다.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한 사회, 여성의 몸을 매우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사회 안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는 예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던져져 있다. 또한 한국철학계 안의 성차별적 관행과 임용 형태에 관한 교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철학은 한국여성들의 삶을 철학적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더욱 철저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역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일들은, 사실상 세계 어느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는 것들이다. 탈북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한국여성의 자아 이해와 자기정체성 확립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여성들 사이의 차이 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의 차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철학이 인간의 삶 전반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들의 삶을 그 전체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일은 철학의 중요한 몫이 될 것이다. 한국여성철학은 한국여성들이 처한 다층적 차원을 세밀하게 드러내어 그로부터 철학적 함축을 밝힘으로써 서구 중심의 여성철학의 성과와는 다른 고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여성철학회에는 동양철학, 서양철학 전공자들이 모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야 간, 전공 간의 융합적 작업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아시아 전통은 문학, 역사, 철학적 사유가 혼재되어있어 명확히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나아가 예술적 활동 또한 인문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전통을 고려해볼 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 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통 안의 여성 지식인들을 발굴해내고 그들의 사상적 연원을 밝히는 작업, 한국여성 경험이 지니는 다층성에 관한 작업, 한국여성경험이 어떤 의미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여성 일반의 경험을 대변하고 있는지, 현대 한국여성들의 삶의 이상은 무엇인지, 여성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삶은 어떤 것인지를 묻고 답하는 일은 한국여성철학회가 존속하는 한 다루어야 하는 주제가 되리라 본다.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한국여성문학학회

김양선(한국여성문학학회, 한림대)

1. 서론-학회 현황

〈한국여성문학학회〉는 1998년 12월 5일 창립되었다. 한국문학과 문화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보급, 교류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발전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회장 1인, 총무이사 1인, 편집위원회, 기획위원회 외에 연구, 정보, 섭외, 재정, 지역 각 부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현재 회원 수는 300여명에 이른다.

연 2회 학술대회 개최, 연 2회 학술지 『여성문학연구』 발간이 정기적인 사업이다. 그 외 여성문학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능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진행 중인 소규모 연구모임, ‘여성작가총서’를 비롯한 연구서 기획 발간 등 여성문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학술지의 경우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작가, 작품 및 제반 문화 현상을 연구한 논문과 서평, 기타 학술기획물을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소규모 연구모임으로는 여성이론 소모임, 번역역과 젠더 소모임이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소모임의 성과를 학회 학술대회나 단행본 출간과 연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간 연원 및 변천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2월 5일 ‘한국여성문학의 선 자리’라는 주제로 창립학술대회 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초대회장 이덕화 교수) 1999년 7월 30일 학회지 『여성문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12월 30일 『여성문학연구』 2호를 발간하였다. 이후 초기 몇 호를 제외하고는 6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2006년 12월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2000년 7월 5~6일 개최된 제4회 학술대회는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신여성문학’이었다. 정기학술대회를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대회 주제는 여성문학 이론, 여성의 몸, 여성의 눈으로 정전 해석, 잡지·매체·제도·일상문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 민족주의와 젠더 등 매 시기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다. 2006년 6월부터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사학회와 공동으로 2년에 한 번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부터 회원들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대 초기 매체에 나타난 여성 인식’,

‘전후 여성작가의 형성과 문학제도’ 등 다양한 소규모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운영하였다. 학회에서 기획한 도서로는 『한국 여성문학의 이해』(예림기획, 2003) 외에 『여원 연구-여성교양매체』(국학자료원, 2008)와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연구서인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소명출판, 2008)이 있다.

2. 아카데미 내부의 반/비 젠더의식에 대한 비판-학회 성립 배경

한국에서 페미니즘 문학 연구가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기를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80년대 중, 후반으로 보고 있다. 80년대 민족문학론의 분화과정 속에서 페미니즘문학론은 민족문학론과 자유주의 문학론의 ‘반여성성’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 특히 〈여성〉지 그룹과 〈또하나의 문화〉 그룹으로 불렸던 두 집단의 입장 차이는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 문제, 민족·계급·성 중 어떤 범주를 여성 억압의 주요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¹⁾ 초기 페미니즘 문학 연구가 뿌리내리는 데 실천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현장비평에서의 변화와 달리 국문학 아카데미에서는 90년대 이후 여성연구자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젠더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여성작가 연구나 여성문학적 관점의 문학사 연구는 남성 위주의 연구풍토에서 석, 박사 논문의 주제로 채택되기 힘들었고, 국문학과 커리큘럼에 여성문학 강좌가 개설된 사례도 거의 없었다.(여성문학 강좌는 현재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여성문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외부의 학술 연구단체를 모색하거나 자발적으로 연구 모임을 결성해야 했다.

90년대 초, 중반 국문학 연구 분야의 핵심 쟁점은 근대성, 민족(주의), 탈식민주의로 요약된다. 근대성에 대한 탐색은 자연스레 신여성 담론이나 신여성의 재현 등으로 연결되었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성의 시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80년대 후반 이후 영미나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이 번역되면서 ‘여성적 글쓰기’나 ‘여성성’ 개념이 고전-현대를 잇는 한국문학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행위를 재조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방법론으로 대두했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 했던 여성작가들의 글쓰기와 기존의 문학사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국문학 연구 분야의 새 의제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기존의 남성 위주의 연구풍토에서 여성문학 이론 및 방법론은 작가와 작품, 그리고 문학사의 전체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는 부차적인 연구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런 관행을 극복하고자 개별적으로 혹은 소모임 단위로 여성문학을 연구하던 여성연구자들이 독자적인 학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1) 〈여성〉지 그룹(나중에 〈여성과 사회〉로 발간지명이 바뀜)은 민족주의, 민중주의 문학론의 이념적 계보와 맞닿아 있었으며, 〈또하나의 문화〉 그룹은 민족이나 계급보다는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3. 여성문학·문화 연구 동향과 쟁점

〈한국여성문학학회〉는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따라서 학술대회 주제를 일람하면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추이와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는 아래와 같다.

- 1회: 한국여성문학의 선 자리, 갈 길(1998.12.5.)
- 2회: 한국여성문학과 여성담론-침묵 속의 목소리
- 3회: 한국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존재방식
- 4회: 한·중·일 국제 학술대회: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신여성문학
- 5회: 여성의 몸, 몸의 담론
- 6회: 여성의 눈으로 정전 다시 읽기
- 7회: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여성 수난
- 8회: 여성 자기서사체의 새로운 인식
- 9회: 진보적 민족문학에 나타난 여성상
- 10회: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
- 11회: 여성 문학사의 지평 확장을 위하여(1): 새로 읽는 여성 작가
- 12회: 근대 한국여성의 서양인식, 서양체험과 문학
- 13회: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여성
- 14회: 여성문학 공간과 '다른' 문학의 생성
- 15회: 여성문학 연구의 쟁점과 반성적 성찰
- 16회: 매체와 여성 문학, 여성 문화
- 17회: 5·18의 문학·문화적 재현과 젠더
- 18회: 전후 한국문화와 교양, 여성, 미디어의 젠더 정치
- 1950, 60년대 여성 잡지 『여원』의 문화담론
- 19회: 제2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여성과 종교
- 20회: 젠더와 양식(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21회: 여성, 1950년대 문화지형
- 22회: 여성,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사이
- 23회: 제3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4.19혁명과 여성
- 24회: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지성의 창출
- 25회: 한국 근대사와 박완서
- 26회: 21세기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쟁점과 전망
- 27회: 제4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여성과 문명, 젠더정치
- 28회: 젠더와 번역, 여성 지(知)의 형성과 변전(變轉)(2012.10.20일 예정)

지금까지 학술대회 주제는 국문학 분야에서 여성문학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근대성과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연구, 여성작가 재조명 내지 발굴, 여성의 시각에서 정전 재해석,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의 몸, 매체와 문화연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제도와 매체, 문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여성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기존의 문학 중심 연구에서 매체와 문화 연구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 「여원」과 같은 특정 잡지 분석, 특정 시대 문화지형에 대한 검토, 매체 및 문화 연구 방법론 모색이 이와 같은 연구 흐름에 해당한다.

우리 학회는 중간 중간 해당 시기에 쟁점이 되었던 한국 여성문학 연구들을 재점검하고 성찰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가져 왔다. 대표적으로 ‘여성문학 연구의 쟁점과 반성적 성찰’(2005년), ‘21세기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쟁점과 전망’(2011년)에서는 여성문학/문화 연구와 관련된 쟁점을 짚어내고, 전망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여성문학 연구의 쟁점과 반성적 성찰’의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고전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재고, 고전시가의 여성화자 문제, 현대 시 비평에 나타난 여성화 전략 연구, 민족과 젠더 연구의 동향과 쟁점, 몸 담론 연구의 동향과 쟁점. 학회가 출범한 후 중반부쯤에 이루어진 쟁점 분석에서는 주로 여성주의적 시각의 문제, 여성적 글쓰기, 민족과 젠더 연구, 몸 담론 연구 등을 다루었다.

‘21세기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쟁점과 전망’(2011)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진행된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성과들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성찰적 반성과 발전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문학·문화 이론, 여성주의 비평에 대한 성찰과 제언 및 ‘전통시기-근대전환기-식민지 근대’문학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여성문학의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제1부 결핍과 과잉, 여성주의 이론의 도약을 위하여〉의 소주제는 불/가능한 싱글 라이프: 섹스앤더씨티와 맥도널드 할머니 사이의 삶, 젠더 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여성문학 연구의 이론과 실천, 곤경에 처한 21C 여성주의 비평으로 이루어졌다. 이천 년대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여성주의 이론과 비평, 문학연구가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곤경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성주의(문학) 연구, 나아가 여성주의 이론 생산 주체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제2부 문학, 문화 연구의 현황과 비평 정신의 회복〉의 소주제는 고전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시서화(詩書畵) 문화, 1900년대 신문 매체에 나타난 여성-가족 내러티브 분석-〈제국신문〉을 중심으로,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2008)에서는 그 동안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 중 여성문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과제를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제1부 총론 - 여성문학비평론〉에서는 여성주의 인식론이나 미학의 문제,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 젠더 연구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짚었다. 〈제2부 근대성, 민족, 여성〉에서는 근대성 담론,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와 여성(성)간의 경합과 배제

의 동학을 규명하였다. <제3부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작가의 탄생>에서는 여성적 글쓰기와 관련된 이론 및 텍스트 적용 가능성, 그리고 근대문학 제도 형성과정에서 여성작가의 존재를 규명하였다. <제4부 젠더, 섹슈얼리티, 문화>에서는 여성주의 문화, 섹슈얼리티의 재현 등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그간 우리 학회는 기존 문학사의 남성중심적 시각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민족(주의) 담론과 젠더 정치학 간의 관련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부터, 여성문학이 탈민족 담론으로 정도되는 것을 경계하는 연구까지 상이한 입장들을 수렴하기도 했다. 초기의 ‘문학’에 정향된 연구에서 중반 이후에는 ‘문화’ 분야까지 확대되었고, 특히 최근 몇 년 간 잡지, 신문 등 매체연구, 문학제도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눈에 띈다.

4.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문학 연구를 젠더화하기(gendering)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여성문학 연구는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국문학 연구 방법론을 혁신하고, 문학사적 시각을 교정하고 넓힐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근대 비판과 근대 이후를 모색하는 움직임들 속에서 여성문학론은 탈근대 기획을 대표하는 문학이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탈근대 담론은 동일성보다는 차이,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빛어내는 틈과 균열에 주목했고, 그 외중에 여성문학론은 탈근대담론이 내세우는 차이의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여성문학이 나름의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근대/탈근대(주의) 담론 연구, 탈식민주의 이론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여성문학 연구는 문화 연구, 문학제도 연구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추세다. 1990년대 여성문학 연구가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 여성작가들의 작품 발굴과 재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여성문학 연구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수렴하면서 문학제도사와 일상사, 문화사 등 학제 간 연구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식민지 시기와 전후 여성작가들의 등단과정에 대한 연구, 『여자계』, 『신여성』, 『여성』, 『여원』 등 여성잡지 연구, 여성교양 담론에 관한 연구 등이 이런 연구 경향의 산물이다. 또한 근대성, 민족주의, 식민주의, 파시즘 등을 젠더 정치학이나 젠더 위계질서와 관련하여 조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여성문학 연구가 남성 중심의 문학 제도와 이른바 정전(正典)으로 불리는 남성 작가 위주의 작품으로 기술되어 있는 문학사 서술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는 본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인 연구방식이 기실은 남성중심의 젠더정치학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관점에서 이론을 재입론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문학 연구에서도 젠더에 무관심한(gender indifferent) 기존 연구 태도에서 벗어나 젠더에 민감한(gender sensitive) 연구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민족문화사강좌』 1995년 판에서는 여성문학과 관련된 장이 별도로 없고, 일반적인 시대순 문학사 서술의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2009년 개정판에서는 여성문학 장이 별도로 추가되었다.('여성문학의 전개와 여성의 목소리'·김동준, '여성의 관점에서 본 근·현대문학사의(재)구성'·김양선) 비단 여성문학뿐만 아니라 아동, 대중문화, 풍속 등으로 국문학 연구의 주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여성문학 역시 기존 국문학 연구의 협소한 틀과 방법론을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발견되었다.

또한 신진 여성연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국문학 분야에서 여성(주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비주류임을 자청하는 것”이라는 이전 세대 여성연구자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 일단 대학에서의 국문학과와 같은 아카데미 제도의 교수진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신진 여성연구자들이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태도(?)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학이나 문화, 담론 분석과 젠더 연구 간의 경계를 횡단하면서 새로운 연구성과물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성문학 연구의 독자적 존립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된 것, 신진 여성연구자의 증가 등은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관철된 소중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문학 강좌에서 여성문학, 여성문학 연구자는 여전히 주류로 취급되지 않는다.(주류, 비주류를 나누는 것 자체가 여성주의 관점과 상치된다고 발표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 비주류란 국문학 분야의 세부 연구주제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학계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도 여성문학 방법론이나 여성주의적 관점은 여전히 하위 주제 중 하나로 배치된다. 간헐적으로 특정 작가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더라도 여성작가에 대한 재조명은 여전히 여성연구자들만의 '리그'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특히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남성연구자들이 여성작가나 여성의 글쓰기, 문화를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인 데 반해, 현대문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여성문학, 여성작가 연구는 여성연구자들이 담당하는 성별 분리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5. 소수자의 위치에서 연구와 교육하기

어문학 분야에서도 국문학 분야는 유독 '교수-선배-후배' 위계질서가 강한 곳이었다. 위계질서의 기준점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더욱이 이 여성연구자가 여성문학 연구를 한다는 것은 '소수의 소수'임을 자처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보수적인 분위기 탓에 여성연구자들의 현실적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국문학 분야의 여성 전임 교수 비율은(공식적인 통계 수치는 없으나) 여대를 제외하면 한 과에 1~2명 정도로(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교적 여교수 비율이 높은 연세대의 경우 19명 중 7명이 여교수인데,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극히 작다. 최근 각 대학에서 글

쓰거나 발표와 토론, 인문학 교양 등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힘입어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강의 전담이나 비정년 트랙 교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연구자들이 이 쪽 분야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강의 전담이나 비정년 트랙 교수 전체 비율 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교수신문〉 기사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된 여교수 435명 중 188명(43.2%)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었다.)은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여성을 배치하는, 또 다른 젠더 위계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문학 연구자의 경우 강의 현장에서는 글쓰기나 토론 등을 가르치면서 이외는 별개로 개인 연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신분의 불안정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학회 인력의 지속적인 재생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여성문학 연구자이기 때문에 국문학계 내부에서 소외되는 상황, 연구 시간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문학과 관련된 의제 창출 및 기획, 실무 등을 담당할 충분한 이웃웃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여성문학 연구의 곤경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권명아에 따르면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은 그만(no more feminism)”이라는 집단 정서와 “또 다른 페미니즘”을 향한 시도 사이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학문장 내에서 페미니즘 연구가 하나의 권력이나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보고 있다.²⁾ 발표자는 페미니즘 연구가 국문학 연구 영역 내에서 권력화될 만큼 담론적, 실천적 힘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페미니즘 연구가 제도화되거나 ‘새로운’ 문학연구방법론 중의 하나로 소비되면서 90년대 이전의 현장 비평이나 페미니즘 연구의 미래에 대한 성찰과 같은 실천적 맥락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천 년대 이후 탈구조주의, 탈중심성이 문학 장에서 강조되면서 여성문학이 탈근대, 탈중심 담론의 일종으로 주목을 받기는 했으나, 이후 중심/주체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여성, 여성성, 여성문학이라는 ‘젠더’가 기입된 명칭은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고, 그저 무한한 차이’들’ 중의 하나로서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문학 연구의 제도화와 페미니즘 문학론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이 모호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게다가(인문학 분야 연구자들의 위치가 대개 그렇겠지만) 여성문학 연구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 여성문학을 연구하려는 신진연구자들이 부족한 상황, 학회 중심의 닫힌 연구풍토 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방략은 없는 것인가?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문학 연구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성찰, 재정립이다. 여성문학(연구)

2) 권명아, 「불/가능한 싱글 라이프: 섹스앤더씨티와 맥도널드 할머니 사이의 삶」, 『여성문학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97면

는 남성중심의 문학(연구) 장에 대한 도전이라는 강력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탈식민주의, 탈구조주의와 같은 ‘탈중심’ 지향의 문학 연구가 대두하면서 중심과는 거리가 멀었던 여성문학(연구) 역시 주목을 받았다. 이천 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성문학 연구는 앞서 기술한 여러 주요한 의제들을 창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학 연구는 다양한 ‘차이(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거나, 최근 문학연구의 경향인(잡지, 신문 등에 나타난 여성들의 글쓰기, 흔적을 찾는 등) ‘자료’의 숲에 갇혀 ‘여성적 시각’이라는 본래적 의미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대체 여성문학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왜’ 해야 하는지 발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연구자들 사이에 확산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문학 연구 영역의 확장이다. 지난 13년 동안 〈한국여성문학학회〉는 근대성, 민족주의, 탈식민주의와 여성성, 정전, 제도와 양식의 문제, 여성작가 발굴 및 재조명, 여성의 글쓰기, 여성주의 문화론 등 여성문학/문화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주제들을 제시해 왔다. 독자적인 여성문학사 서술, 여성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여성적 감성 구조 규명, 장르/양식과 여성 간의 관계, 우리 현실에 적합한 여성문학 이론 정립 등으로 연구영역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부수적으로 최근 인문학 연구 분야의 주 흐름인 잡지, 신문 등 매체 연구, 제도 연구, 일상성 연구에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철학이나 역사학, 언론학, 문화학, 사회학 등에서 여성의 역사와 일상, 문화에 주목하는 것과 문학 연구 간의 차이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물론 특정 영역의 게토화는 경계해야 하며 학제 간 융·복합이라는 근자의 학문 흐름과도 상반된다. 하지만 비슷한 자료, 비슷한 방법론과 서술태도로 비슷한 결론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기왕에 여성문학연구가 ‘차이’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그 ‘차이’를 여성문학 연구 내부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신진연구인력의 양성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가 여성문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학회의 연구 인력 재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 여성문학론은 새로운 의제를 창출하지 못 하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여성 연구자라 하더라도 여성문학 연구에 집중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우리 학회 이사진이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연구자들(특히 이 중 다수는 80년대-90년대 초반 학번으로서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 문이론의 세례를 받았거나 집단적인 연구 경험이 있던 세대라고 범박하게 말할 수 있다.)은 여성문학의 독자성 및 필요성을 체득한 세대이다. 하지만 학회 연구나 기획과 같은 실무가 이들에게 쏠리고, 90년대 후반 이후 세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여성문학 연구의 쇠신은 더 난망해질 것이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 신진 여성문학 연구자를 발굴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킹을 조직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넷째, 여성문학 교재 발간 및 여성문학 강좌 개설이 시급하다. 이천 년대 이후 각 대학에서 그나마 있던 여성문학 강좌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성인지적 관점이나 장기적으로 여성문학 연구를 담당할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문학 강좌 개설은 필수적이다. 학회 차원에서 요구할 사안은 아니지만 가령 국문학 제도 및 정책과 여성문

학 간의 관련성을 학술대회 주제로 기획해서 의제화 하는 방안 등은 모색해 볼 수 있다.

여성문학 교재의 경우 여성문학 이론 번역서(그것도 시기가 좀 지난), 개인적으로 작업한 여성작가 선집 몇 권이 전부이다. 여성문학 강좌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대학 학부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교재를 학회 차원에서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재 진행 중인 여성작가 연구 선집의 출간을 끝맺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학회는 해방 후 여성작가 선집을 전30권으로 기획,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현재 최정희, 한말숙, 김승희 연구서가 발간되었다.)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여성문학 연구자 풀을 거의 가동한 이 기획은 연구서보다는 논문 1편을 더 쓰는 게 유리한 현재 연구력 평가 시스템에서 연구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고, 때문에 발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획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교양 인문서의 성격을 지향함으로써 아카데미즘의 틀을 벗어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문학 장이라는 국지적 맥락을 벗어나 보편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고, 여성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여성작가 작품선집의 기획도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여성작가 작품선집은 식민지 시기에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 『여류단편결작집』(두 권 모두 조선일보사에서 기획성으로 발간한 것이다.), 1960년대 ‘한국여류문학인회’에서 주도한 『한국여류문학전집』, 그리고 2002년에 발간된 『페미니즘 소설 정전 읽기』가 손에 꼽힌다. 이 선,전집의 경우 여성작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특정 매체에서 상업적으로 기획되거나(식민지 시기), 특정한 선별 기준 없이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기획된(1960년대, 2000년대) 경우여서 여성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거나, 작품에 대한 해석이 미흡하거나, 여성문학사나 여성문학 장에 대한 총체적인 조감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있다. 제대로 된 여성문학 선집을 내놓기 위해서는 여성문학 이론이나 여성문학사에 대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준거나 방법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섯째, ‘국문학’ 연구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 여성문학, 영미 여성문학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교착 양상(식민적 상황에서 비롯된 비동시성의 동시성), 식민성과 탈식민성, 여성 글쓰기의 열악한 환경 등 한국문학과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기 영미 페미니즘 문학이론(일레인 쇼월터의 「황무지에 선 여성문학」, 버지니아 울프의 「자신만의 방」, 산드라 길버트, 수잔 구바의 「다락방의 미친 여자」 등)이나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이론이 한국 여성문학 연구에 끼친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국 여성문학 이론은 서구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경험과 ‘다른’ 점, 예컨대 여성작가의 글쓰기 환경, 여성으로서의 글쓰기, 여성의 고유한 말하기 전략, 여성문학의 정치성과 같은 쟁점에 대해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의 질문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여성문학과의 공통향을 탐색하는 것, 영미 여성문학을 수동적으로 되받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탈)식민적’인 ‘여성주체’의 맥락에서 전유하는 것은 지역별, 민족별로 ‘같으면서도 다른’ 여성문학의 쟁점 및 전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탈경계 이후의 도전: ‘여성-고전-문학-사’를 매개하는 ‘젠더 비평’의 학술사적 궤적과 방향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학술사적 의의와 과제

최기숙(한국고전여성문학회, 연세대)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의 성립과 문제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2000년 1월 29일에 ‘고전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회로서의 사회적 출발을 시작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99년 여름으로, 10월 8일에 발기인 대회를 거쳐 첫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학회의 창단을 공식화했다. 이 학회는 여성을 문학(사) 독해의 시작이자 방법으로 삼는 연구 기획으로부터 출발한 이래로 현재까지, 13년의 학술사를 추적해 오고 있다. 1대 회장을 맡았던 이해순(전 이화여대 교수) 교수를 비롯하여, 창간호에 원고를 제출했던 1세대 연구자의 일부가 대학이라는 제도적 학술장에서 퇴임하는 역사를 거칠 정도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다각도의 연구 방법론이 시도되고 다양한 차원의 의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젠더적 시각(초기의 ‘페미니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학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발표는 10여년의 연구 이력을 지닌 ‘여성고전문학연구’가 사실상 ‘여성-고전-문학-사’를 어떻게 매개하고 규정해 왔는지, 또한 그 관계들을 둘러싼 학술장의 제도적 변화와 문화사적 역할에 어떠한 비전을 제출하면서 ‘통제/관리/조율/확산’해 왔는지에 관해, 학회와 학술지의 학술사적 역할이라는 차원에 주목하여 살펴본다.¹⁾ 나아가 인문학 자체에 ‘젠더적 시각’에 관한 어떠한 문제의식과 응답을 추동해 왔는지에 관해,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성찰적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이 연구에서는 개인 연구자의 연구 성향을 드러내어 특화하기보다는, 연구 주제나 범주, 관점에 주목하여 발표문을 서술하고자 했다. 따라서 연구자의 활동 정도나 논문 게재 빈도, 성비 등 개인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체적인 통계 수치로만 드러내었음을 밝힌다. 이는 학회 및 학술사 연구가 자칫 개인의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으로 초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4장 2절), 최소한의 사례 서술을 제시했음을 밝힌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고려한다.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기존의 ‘고전문학’의 범주를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해 왔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인가?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기존의 ‘문학사’의 범주와 영역을 재구성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방향과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국문학’과 어떠한 연계 방식을 채택했으며, 기존의 ‘고전문학’ 연구에 어떠한 연구사적 비전을 제시했는가? 나아가 ‘한국’이라는 장소성과 지역성의 의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의 의제와 방법론을 제출했는가? 이는 기존의 연구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며 그 변화의 지향성은 무엇인가?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학제간 연구방법론을 어떻게 수립해 왔으며, 학제간 교섭을 통해 어떠한 지속적 성과를 이루었는가? 그로 인해 달라진 문학연구사의 지형은 무엇인가?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에 투고 형식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의 성비는 어떠하며, 이것은 (고전) 문학연구자의 사회적 위상에 따른 젠더 인식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대변해 줄 수 있는가?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는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어떠한 인식론적 사유 구조를 형성해 왔으며, 사회에 어떠한 연구의 비전을 제출해 왔는가? 사회와 학문(인문학)의 관계에 있어 ‘젠더적 관점’이 시사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제안했는가?

2. ‘여성고전문학연구’의 학술사적 전개:

연구 아젠다 기획과 학회 운영 방식 재점검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에서는 한국고전여성문학의 개념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공론화된 토의와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초창기부터 연구와 학술에 관한 ‘기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여성 관련 이슈를 학술 의제로 공공화하는 일종의 학술기획 학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운영해 왔다.²⁾

2) 물론 여기에는 초기 학회장이자 학회를 창립과 관련해 준비위원회로서 중심 역할을 한 초기 멤버들이 다수 관여되어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라는 대학 제도의 특성 및 해당 대학이 ‘여성성’ 의제에 관해 일정 정도의 문화 권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점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성 학자의 인력풀과 네트워크의 이점을 살려 학회의 창립과 학회지 창간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해당 학회가 학회로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신학교·현 소속·지역·세대·성별·전공 영역 등을 고려하여 발표자를 구성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1) 학술기획을 통한 ‘고전-여성-문학’의 학술적 공론장 마련

해당 학회에서 기획한 학술기획은 콜로키움, 학제간 하계 워크숍, 그리고 학술대회의 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콜로키움은 학회가 창립한 이래로 2007년 12월까지 총 8년간 47회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2006년을 제외하고(5회), 2007년까지 매년 6회의 콜로키움을 기획·운영하였으며, 여기에 참여한 발제자로는 고전문학 전공자가 32명, 역사학 전공자가 10명(서양사 1인 포함), 미술 전공자가 2명, 역사·철학·영화 전공자 각 1명으로, 총 47명이 참여하였다. 발표자 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전문학만의 게토화된 영역을 넘어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고, 공통의 학술 의제를 발굴하고 상호 소통하며 연구 영역을 형성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가 관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³⁾

특히 학회 설립의 초창기에는 학계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성고전문학’ 연구의 개념을 확립해가고, 공동의 학술 의제를 제출하여 토론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었다. 그에 따라 고전문학 전공자 중에서 여성적 시각에 관심을 둔 연구자를 네트워킹하는 적극적인 학적 모색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의제에 대한 여타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을 견인하여 이론을 보완하고, 의제를 공유하는 학술 교류를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국문학 중에서 고전 문학 연구자가 중심이 되었지만 인접 분야의 전공자들이 페미니즘, 여성주의, 젠더 관련 이슈로 발제에 참여함으로써, 고전문학연구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이를 이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콜로키움은 2007년 이후로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학술적 이유는 그간 운영된 콜로키움을 통해 소규모의 학제간 기획 의제를 축적한 것을 바탕으로, 중대형 단위의 학술 의제를 학회 차원에서 수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는 매년 단위의 하계 워크숍 개최 형식을 통해 이월되었다. 한편으로는 2007년 이후 관련 학회의 수가 증가하고 학술대회 개최가 빈번해짐에 따라, 다양한 연구자 풀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 따라서 형식화된 콜로키움 개최를 지양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콜로키움의 운영을 완료했다. 바꾸어 말하면 8년간의 기획 연구를 통해 학회의 학적 정체성(대상, 시각, 문제의식 등)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매년 하계 워크숍을 기획하여 젠더 이슈와 관련한 학제간 연구를 도모한 학술제도를 운영해왔다. 하계워크숍은 2012년 현재까지 총 13회가 개최되었다. 하계 워크숍에서의 학제간 논의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학제간 기획 특집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일종의 학회 차원의 연구사적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학술지에 실린 특집 기획 논문이 모두 74편인데, 이 중에서 ‘고전문학’이 아닌 전공자의 논문은 총 16편으로 기획 논문 전체의 22%에 해당한다. 이러한 하계 워크숍 기획은 젠더적 차원에서 ‘문학-사’ 연구에 관한 학술 교류 및 아젠다 재정립의 기회를 마련하는 학

3) 고전문학연구자 중에서도 ‘문학’이 아니라 ‘회화’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고전문학연구자가 학제간 연구와 접속하여 젠더 이슈를 수행한 경우도 있다(47회 콜로키움).

적 공론장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철학·역사학·심리학·미술사·신문방송학·의생활학·중문학·의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문학주의를 극복하고, 인문학 영역과 젠더적 시각에서 인접 학문에 문제의식을 제출하는 적극적인 학제간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제간 연구의 경우, 초기에는 전공이 다른 학자들이 젠더와 관련한 공통의 학술 주제로 모여 대화하고 토론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으나, 점차 학자 개인이 연구 방법론으로서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고, 나아가 복합학제간 연구(multidisciplinary approach)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방향에서의 소통 지향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고전여성문학회의 학술성과가 축적되면서 학문 문화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론에서도 변화가 모색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획된 학술주제를 중심으로 여성주의적 고전문학 연구의 의제와 방향을 선정하여, 연구자에게 다양한 젠더 연구에 관한 학적 실험의 장을 제공해 왔다는 점이다. 정기 학술대회는 매년 2-4회 개최되었는데, 제도적으로 기획한 대규모 학술대회는 동계 학술대회다. 여기에는 기획 발표와 자유 발표가 혼용되었으며,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에는 자유발표를 공모, 또는 기획하여 안정적인 학술 운영을 제도화했다.

개인 연구자가 참여하는 자율 주제 형식의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문학(사)’를 여성적 시각에서 독해하고 재구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문제제기를 구체적인 고전문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실험적 모색의 형식으로 시도하는 학술장을 제공해 왔다. 이는 한국고전문학연구에 ‘여성적 시각’이 갖는 학술적 의의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해당 학회는 학술기획을 통해 젠더적 관점에서 문학사를 ‘다시 읽는’ 방법과 더불어 ‘학제적 관점’에서의 젠더 연구의 성과를 문학·사 연구의 방향 설정에 참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2012년 현재까지 총 38차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에서 기획 발표가 마련된 것은 총 10회다. 이러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학술대회 기획 현황

회차	하계워크숍 (학술대회 기획) 주제	개최년	학술지 특집 기획주제	게재 권호(출간년월)
1 (1) ⁴⁾	Feminisms(고전여성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 (2000)		1집(2000.10)
2 (4)	중국 여성문학사 워크숍/ 한중 고전 여성문학에 나타난 여성 재현 양상/ (동아시아 고전여성문학)	2001 (2001)	동아시아의 고전여성문학	2집(2001.06)
3 (7)	일본 여성 문학사 워크숍 (문학에서의 화자와 여성)			3집(2001.12)
			문학에서의 화자와 여성	4집(2002.06)
				5집(2002.12)

			여성 생활과 여성 문화	6집(2003.06)
4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과 한국고전여성문학	2003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과 고전 여성 문학	7집(2003.12)
5 (13)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과 한국고전여성문학(근대전환기 여성 담론)	2004 (2004)	근대 전환기 여성담론	8집(2004.06)
				9집(2004.12)
6	가족의 경계에 선 여성	2005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10집(2005.06)
				11집(2005.12)
(19)	(고전문학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 연구)	(2006)		12집(2006.06)
7	이미지와 표상으로서 여성성의 형성과 재구	2006	이미지와 표상으로서 여성성의 형성과 재구	13집(2006.12)
			모성 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 고대에서 근대전환기까지 모성 담론의 문화적 조명	14집(2007.06)
8	역사의 허구화 과정과 젠더: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2007	역사의 허구화 과정과 젠더: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15집(2007.12)
9	조선시대 여성의 어문 생활	2008		16집(2008.06)
(25)	(여성의 욕망 구조와 표현 방식)	(2008)		17집(2008.12)
(28)	(여성 문학/문화의 차이성 I: 서 울과 근기 지역을 중심으로)	(2009)		18집(2009.06)
10	여성과 법·제도	2009	여성과 법·제도	19집(2009.12)
(31)	(여성 문학/문화의 차이성 II: 지역성으로서의 여성문학)	(2009)	여성 문학/문화의 차이성 II	20집(2010.06)
11	여성과 몸	2010	여성과 몸	21집(2010.12)
(34) (36)	(여성과 힘)(여성, 글쓰기, 그리고 문학)	(2011) (2011)	여성과 힘	22집(2011.06)
12	여성의 잘 나이 들기- 여성의 나이 들기에 관한 문화사회적 접근 /여성의 나이 들기를 둘러싼 문학적 재현과 상상의 지평	2011	여성의 잘 나이들기	23집(2011.12)

2) 저널의 기획 주제를 통한 ‘고전-여성-문학’의 담론화 선도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라는 저널의 발간이다. 해당 학회는 개인 연구자가 젠더적 관점에서 ‘한국문학사’를 재해석한 논문 발표의 장을 제공해 왔을 뿐더러, 학회 자체에서 젠더 관련 학술 아젠다를 기획하여, 연구의 관점과 영역에 관한 학술적 공론장을 마련하는 학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해당 아젠다에 관한 검증된 학술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특집 기획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저널에 투고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러한 모색은 창

4) 괄호 밖의 숫자는 하계워크숍의 회차를 의미하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정기 학술대회의 회차에 해당한다.

간호부터 발견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특집 기획 논문이 실리기 시작한 것은 2집부터로, 3·5·9·11·12·16-18집을 제외하고는 매년 특집 기획란을 마련하여, 여성고전문학과 관련한 젠더 이슈를 개발하고 토론하는 담론화를 선도해 왔다. 해당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학술지 특집 기획 현황

권호(출간년월)	기획주제	기획 논문 편수 (타전공 논문수)	전체 논문수	워크숍 개최
2집(2001.06)	동아시아의 고전여성문학	6(2)	10	
4집(2002.06)	문학에서의 화자와 여성	6	11	
6집(2003.06)	여성 생활과 여성 문화	6	13	
7집(2003.12)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과 고전 여성문학	5(1)	13	○
8집(2004.06)	근대 전환기 여성담론	5	10	
10집(2005.06)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6(1)	16	○
13집(2006.12)	이미지와 표상으로서 여성성의 형성과 재구	4(3)	12	○
14집(2007.06)	모성 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고대에 서 근대전환기까지 모성 담론의 문화적 조명	7(1)	16	○
15집(2007.12)	역사의 허구화 과정과 젠더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6(2)	11	○
19집(2009.12)	여성과 법·제도	5(4)	11	○
20집(2010.06)	여성 문학/문화의 차이성 II	5	11	○
21집(2010.12)	여성과 몸	4(1)	10	○
22집(2011.06)	여성과 힘	4	12	
23집(2011.12)	여성의 잘 나이들기	5(1)	12	○
총 계		74편	168편	

해당 학회의 특집 기획은 기존에 장르나 시대구분으로 세부 전공을 나누던 연구의 관행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고전여성문학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동아시아 시각’(2집)과 ‘여성 화자’(4집)의 문제에 천착한 점이다. 한국이라는 특정한 장소성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여성고전문학의 범주와 영역을 고찰함으로써, ‘고전-여성-문학’이라는 개념의 ‘보편성’을 확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문학의 창작자(작가)와 수용자(독자/청자)의 양차원에서 ‘여성 주체’라는 관점을 부각하여 ‘기록’ 중심의 ‘사대부 남성’ 중심의 문학사를 재편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관점을 문학 연구의 일반화된 시각으로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적 시각이 문학 텍스트에 대한 독법을 어떻게 바꾸고 문학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기 위해 ‘여성 화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기존의 문학에 대한 정의로 해결되지 않는 ‘여성 문학’의 영역을 재규정하기 위해, ‘생활과 문화’(6집)라는 관점을 도입했다. ‘문자’와 ‘기록’ 중심의 문학사적 지형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이자 역사의 주체이며, 문학

의 주체로 살아왔던 여성의 존재를 ‘역사화된 문학’이라는 영역 속에서 재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사’ 또는 ‘생활사’라는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과 더불어 콘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고전 문학의 형성 배경이자 향유 문맥에 해당하는 문화사적 독해를 시도하는 방향에서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향후에도 젠더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 의제를 개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⁵⁾

둘째, 여성의 역사적 지위와 사회적 역할이 문학적 재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해명을 통해 여성 문학을 주요하게 범주화할 수 있는 경역을 다지고자 했다. 전근대 여성의 절대적인 사회적 장소이자 정체성 형성의 경역이었던 ‘가족’(10집)과 여성의 관계를 고찰한 것, ‘여성 문학/문화의 차이성’을 지역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두 차례의 학술대회와 그 성과를 특집 기획으로 수렴하여 게재한 것(20집) 등이 그 예다.

셋째, 한편으로는 그간의 페미니즘 이론의 성과를 수렴하여 고전문학을 독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과 고전여성문학’(7집), ‘이미지와 표상으로서의 여성성의 형성과 재구’(13집), ‘모성 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14집), ‘여성과 몸’(21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그간 젠더적 시각에서 심리학·철학·문학·역사학·문화학·사회학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학적 성과를 ‘고전-여성-문학-사’를 매개로 재조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마련된 것이다. 해당 의제들은 여성적 시각이 고전텍스트의 독해 방법과 문학사의 지형을 어떻게 쇄신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케이스 스터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고전여성문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의 문학사 시대구분을 재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점이다. 종래의 문학사에서 ‘전근대-근대’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근대전환기(8집)’를 ‘여성 담론’의 차원에서 재독해함으로써,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문화적 지위 변동과 문학에서의 담론화 지형에 미치는 상호적 영향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단지 근대-전근대라는 시대구분의 이분법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거나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타진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해당 의제에 관한 지속, 또는 심화된 연구를 학회 차원에서 기획하여 연구하려는 모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이나 몇몇 연구자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거시적 차원의 퍼스펙티브를 통해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점만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여성의 문화사적 지위를 재점검함으로써 문학과 권력, 문학과 제도의 관계를 재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색을 보여주었다. ‘여성과 법·제도’(19집), ‘여성과 힘’(22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19집에서는 법학과 역사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여성과 법, 여성과 제도의 관련성을 학제적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사’나 ‘생활사’ 차원에서의 젠더 이슈가 주로 ‘여

5) 이 글의 11쪽 [표 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사’ 또는 ‘문화사’와 관련하여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전체의 9%를 차지한다.

성과 일상'의 문제로 한정된 것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 권력과 여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개방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는 문학사가 결국은 '존재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회화·역사화 과정과 관련된다는 인식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이러한 시각이 전제된 연구 의제를 통해 젠더 이슈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는 판단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모색은 '고전문학'을 여성적 시각에서 재독해하는 작업이 문화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요구하는 역사성이나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므로, 법학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높은 '학제간 협력 연구(academic collaboration)'가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학회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장기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제도와 자본의 차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여섯째, 현대사회의 이슈를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여성적 시각을 통해서 연계함으로써, 고전문학의 현대적 가치를 재규정하고자 시도한 것을 들 수 있다. 최근에 마련된 '여성의 잘 나이들기'는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나이듦'의 문제를 노인 문제가 아닌 인간문제라는 차원에서 조명하고, 특히 동안 신드롬이나 외모 담론으로 고착되는 여성의 나이들기 문제를 '잘 나이들기'라는 성찰적 차원에서 재점검함으로써, 고전과 현대, 문학과 사회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는 문학 연구가 대학 중심의 제도권으로 한정되거나, 국문학, 나아가 고전문학이라는 분과 학문 체제 내부의 작업으로 게토화되는 것을 경계하여, 인문학 본래의 '소통성'과 '성찰성'을 되살려,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공감하며 해결하려는 연구 태도와 시각의 학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여성고전문학연구에서는 그간 의미 있는 기획 특집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옴으로써, '고전-여성-문학-사'를 연계하는 학술 담론을 선도하는 연구사적 개척의 길을 성찰적 관점에서 마련해왔다.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모든 과정을 조망해 본다면, 장기 지속적 프레임 속에서 체계화된 연구 기획을 유지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학회의 운영상 2년 단위로 소위 회장단(회장과 임원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학회 운영이 2년 단위의 기획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5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3. 필자의 참여도로 본 연구자 집단의 젠더 차이와 학술사회사적 위치 변경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에 참여한 연구자의 참여도나 성별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집계 가능한 학회지의 필자를 중심으로 한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필자별 투고 회수 및 성별 구분

필자별 투고 회수 및 성별 구분			
권호(출간년월)	필자 성별		총 필자수
	남	녀	
1집(2000.10)	5	9	14
2집(2001.06)	5	5	10
3집(2001.12)	1	7	8
4집(2002.06)	4	8	12
5집(2002.12)	2	8	10
6집(2003.06)	5	8	13
7집(2003.12)	5	8	13
8집(2004.06)	1	9	10
9집(2004.12)	6	4	10
10집(2005.06)	4	12	16
11집(2005.12)	5	6	11
12집(2006.06)	4	8	12
13집(2006.12)	4	8	12
14집(2007.06)	6	10	16
15집(2007.12)	3	8	11
16집(2008.06)	4	9	13
17집(2008.12)	2	10	12
18집(2009.06)	7	9	16
19집(2009.12)	2	9	11
20집(2010.06)	2	9	11
21집(2010.12)	4	6	10
22집(2011.06)	2	10	12
23집(2011.12)	3	9	12
총 계	86명	189명	275명

[표4] 학술지 총권호 필자 수 및 성비

필자 성별	권별 필자 수	퍼센트
남	86명	31%
녀	189명	69%
총 계	275명	100%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에 투고된 총 논문 편수는 274편이며, 총 투고자(중복 포함)는 275명이다(1편의 논문은 2명의 공동 집필임). 동일한 필자가 권호를 달리하여 중복 투고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 중에서 필자의 남녀 성비는 남성 필자가 86명으로 총 31%를 차지하며, 여성 필자는 총 189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여성 필자의 수치가 남성 필자의 2배를 상회하는 압도적 비율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여타의 고전문학 관련 학회지에 비한다면 이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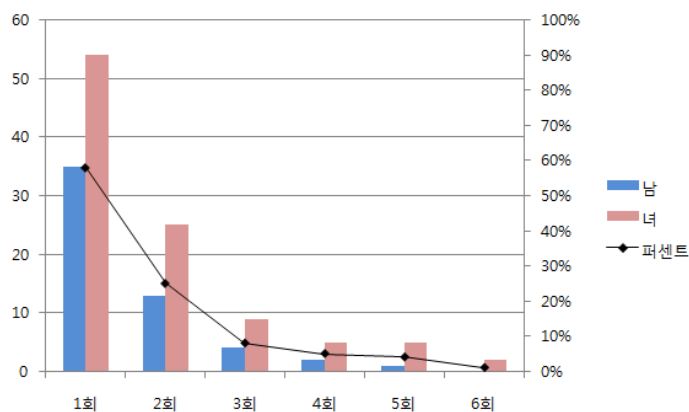
연구자의 차원에서 해당 학회지는 여성 연구자의 연구 참여를 제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더러, 연구자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학술 연구에 반영하거나 적극적인 사유의 매개로 삼을 수 있는 확장적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남성 연구자로 하여금 젠더적 시각에서 한국고전 문학을 독해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젠더 연구’를 하나의 연구사적으로 유효하고 정당한 방법론이자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게재된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동일 필자의 중복 투고 회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지난 13년간 23집의 논문집을 발행하는 동안, 실제로 참여한 필자수 및 남녀의 성비를 고려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 필자별 투고 회수 통계 및 성비(퍼센트)

필자별 투고 회수 통계 및 성비					
투고 회수	필자 수	퍼센트	성비		총 논문 편수
			남	녀	
1회	89명	58%	35명	54명	89편
2회	38명	25%	13명	25명	76편
3회	13명	8%	4명	9명	39편
4회	7명	5%	2명	5명	28편
5회	6명	4%	1명	5명	30편
6회	2명	1%	0명	2명	12편
총 계	155명	100%	55명	100명	274편

[그림 1] 필자별 투고 회수 통계 및 성비(그래프)



동일한 필자가 여러 호수에 걸쳐 투고한 것을 고려한다면, 23집(2011.12)까지 참여한 총 필자수는 155명이다. 이 중 남성 필자는 55명이고, 여성 필자는 100명이다. 게재 논문의 필자별 남녀 성비는 35% : 65%다.

논문 투고 회수별 비율은 1회 참여한 필자가 총 58%(89명)으로 가장 높으며, 최다 투고는 6회를 투고한 2명으로 하위 1%를 차지한다. 2회 이상의 투고를 기준으로 젠더적 관점에서의 ‘고전문학(사)’에 대한 독해를 연구자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총 투고자 중에서 42% 정도의 연구자가 고전문학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주요한 연구의 시각이자 영역으로 간주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1회를 게재한 58%의 필자 중에서 현재 제도적인 학술장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향후 2회 이상 논문을 투고할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제 여성고전문학연구는 실질적으로 주요한 ‘고전문학’ 연구의 ‘영역화’를 성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고전문학의 세부 전공을 ‘고전산문-고전시가-구비문학-한문학’으로 구분해온 기존의 학적 관행을 재정찰하고, 학문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이해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으로는 고전여성문학에 관한 연구사가 축적되면서, ‘여성연구’가 특정 전공으로 영역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하는 ‘고전문학’ 연구자들의 일반화된 학문 연구의 시각이자 방법론, 나아가 연구 분석에서 최소한의 ‘고려사항’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여성문학연구가 일종의 ‘특화된 전공’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여성문학연구가 고전문학연구의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될 정도의 학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제도화된 영역에서 여전히 고전산문·한문학·고전시가·구비문학으로 4분화된 전공 영역에서 ‘여성고전문학’의 영역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제도적 실패 요인으로 해석될 요지 또한 다분하다. 고전산문과 한문학, 또는 고전시가와 한문학의 경계 구분이 불분명하고, 구비문학과 고전산문의 경계 구분이 배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은 여전히 전공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학술장에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고전여성문학은 학적 영향력이나 학술적 지위에 맞는 제도적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이는 대학에서의 교수 채용에서 여전히 ‘고전여성문학’을 특화하지 않는 관행으로 유지되는 차원을 통해 입증된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의 분과 학문 체제에서의 전공 구분은 여전히 학문 ‘대상’이나 ‘영역’, ‘범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방법론이나 시각에 대한 ‘전공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적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전문학에서 ‘여성적 시각’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고전문학 연구의 전공으로 분류되지 않던 새로운 문학사 연구의 가능성을 배태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한다.

4. 젠더적 시각으로 고전문학사 읽기: 경계의 이월과 해체, 또는 재구성의 여정

젠더적 시각에서 ‘고전-문학사’를 다시 읽는 작업은 그간 ‘고전문학’ 또는 ‘국문학사’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틀을 어떻게 해체하거나 재배치했으며, 또는 균형점을 흔들어 새로운 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개방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에 투고된 1호-23호

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주와 영역을 분류해 보았다.

[표6] 학술지 투고 논문의 연구 분야별 현황

필자 전공/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총
고전서사	2	5	2	3	2	2	3	5	4	7	3	2	4	5	1	4	2	4	2	4	2	7	2	77
한문학	6		2	3	3	3	3	1	1		6	1	2	4	1	1	4	4	3	2	2		2	54
구비문학	2	1	2	1	1	2	2		1	2	1	2	1	2	2	2	3	3	2	1	4	2	3	42
고전시가	3			4	1	2	3		2	1	1	3		3		5	1	1			1	1	1	33
문화사	조선	1	1		2	4		1				2	1			1		1		2		1	2	19
	근대							2	1	1			1					1						6
근대문학									1	2				2	1			1		1		1		9
국문 글쓰기			1				1	1				1					2	1		1				8
문화콘텐츠															5									5
문학이론					1		1					1												3
비교문학										2														2
문학사																						1	1	1
중국문학		3	1																					4
역사학										1									3					4
철학													1								1			2
심리학																						1	1	1
법학																			1					1
미술													1											1
의상학													1											1
언론학															1									1
총 계	14	10	8	11	10	13	13	10	10	16	11	12	12	16	11	13	12	16	11	11	10	12	12	274

[표7] 학술지 투고 논문의 연구 분야별 통계

필자 전공	총 필자 수	퍼센트
고전서사	77	28%
한문학	54	20%
구비문학	42	15%
고전시가	33	12%
문화사	조선	19
	근대	6
근대문학	9	3%
국문 글쓰기	8	3%
문화콘텐츠	5	2%
문학이론	3	1%
비교문학	2	1%
문학사	1	-
중국문학	4	2%
역사학	4	2%

철학	2	1%
심리학	1	-
법학	1	-
미술	1	-
의상학	1	-
언론학	1	-
총 계	274	99%

위의 표는 한국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문학’으로 영역화된 학문 범주 가운데, 소위 ‘연구재단’에서 세부 전공으로 분류하고 있는 연구의 관행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투고된 논문의 양적 비중을 계측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따르면 ‘고전서사(고전산문) ≫ 한문학 ≫ 구비문학 ≫ 고전시가 ≫ 문화가 ≫ 근대문학 ≫ 국문 글쓰기 ≫ 문화 콘텐츠 ≫ 문학이론 = 비교문학’ 등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고전여성문학연구’가 그간의 ‘고전문학사’연구의 지형과 어떻게 교섭하고, 해당 연구의 경계를 이월, 또는 해체, 재구성했는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전공 구분’에 대한 학문 관행을 넘어서는 젠더 연구의 영역화

학술저널 『한국고전여성문학』에 투고된 연구 대상별 분류에 대한 통계 수치는 첫째, 연구자 인력풀의 전공 선택에 대한 현황과도 관련된다. 둘째, 이는 연구 대상과 여성성의 관련성 여부에 연계되며, 셋째, 연구 대상에 대한 근접성과 자료 활용의 수월성과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고전 서사’ 분야는 사실상 ‘고소설’로 대표되는데, 이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은 것은 현재 고전문학 연구자 중에서 고소설 연구자의 비중이 높다는 가능성을 환기함과 동시에, 연구 대상인 고소설의 주요 독자층이 여성이라는 점, 고소설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연구의 여지가 많다는 요소 등이 관여되어 있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한문학’의 경우는 여성 작가의 문헌 자료가 희소하지만, 조선시대 문학 자료의 대부분이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한문학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구의 축적에 따라 여성 작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며, 최근의 생활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 연구의 가능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구비문학과 고전시가의 경우는 여성이 주요 담당층으로 작용한 설화·민요·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투고된 논문의 양적 비중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젠더적 시각’을 고려한 결과, 새로운 문학 연구의 지형이 발굴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이는 앞에서 지적했던 ‘문화사’ 연구이며, 둘째, 기존의 학문 분과에 해당하지 않는 ‘국문 글쓰기’가 새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비록 비중이 적지만 젠더적 관점에서 ‘고전문학’을 독해하는 것을 ‘이론화’하려는 모색이 제시되었다는 점도 주요하게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젠더적 관점에서 한국의 고전문학을 연구할 때, 기존의 분과학문 체제나 전공분야의

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며, 또 과연 그러한 구분 자체가 갖는 타당성을 현시점의 문학/문화 연구에서도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⁶⁾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젠더적 관점에서의 고전문학 연구 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각 논문의 전공 분야가 사실상 경계 구분의 배타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래의 학적 관행대로, 논문 필자가 박사학위를 받아 그 제도적 전문성이 검증된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논문의 연구 분야를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구자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에서의 주로 연구 분야나 대상을 통해 부여받은 학적 정체성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결과로서 해당 논문이 연구/집필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환원주의적 시각’은 젠더적 시각에서 ‘고전-문학-사’를 해체·변경·재구성하려는 노력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환원성으로 환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젠더적 관점에서 ‘고전-문학-사’를 연구할 때, 기존의 학문 관행에 따라 자료의 해당 범주를 구분하고, 연구의 경계를 구분 짓기보다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주제(의제) 및 목적에 초점을 두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한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젠더와 관련한 문화사적 접근을 한 경우, 이는 ‘한문학’ 연구라기보다는 ‘문화사’ 연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망탈리테(mentalité) 연구’에 포함될 충분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형적인(또는 연구 관행적인) 한문학 연구 방법론에 따르면서(물론 이 또한 부동불변의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적 관점을 포함한 경우는 한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편으로는 필자의 전공이 본래부터 역사학인 경우가 아니라, 문학 전공자이면서 문화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장르를 포괄하여 연구하거나, 단일한 장르를 다루되 문화사적 해명에 초점을 둔 경우 또한 문화사 분야에 포함시켰다. 물론 엄밀히 말해 전공/비전공이라는 개념이나 경계 설정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필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분야나 경계를 나눌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한 것은, 여성문학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각 필자들이 논문의 표제나 구성의 차원에서 장르적 경계보다 젠더적 관점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가 많았고, 이는 자신의 연구에 젠더 연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의식적 노력의 소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이 고전문학 연구에서 갖는 연구학적 지위와 의의를 부각하기 위해서 젠더적 관점을 장르 구분보다 우선적인 판단 요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해당 저널에 실린 연구 논문 중에는 국문학 내부의 세부 전공을 넘나드는 연구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전문학 내부의 세부 전공을 넘나드는 것

6)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50년대 대학의 국문학 강독 강좌와 학회지를 통해 본 국어국문학 고전연구방법론의 형성과 확산 -고전 텍스트 연구로서의 ‘이본’ 연구와 ‘정전’ 형성의 맥락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 2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와 「1950년대 대학의 ‘국어국문학’ 과목 편제와 ‘고전강독’ 강좌의 탄생」, 『열상고전연구』 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을 참조.

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배타적으로 분리하던 학문 관행을 넘나들어 시기를 가로지르는 연구 행위로 구분된다.

예컨대, 해당 저널에는 고전 소설 전공자가 한문 산문을 다룬 논문을 게재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구 영역의 의도적 확장이라기보다는 연구 과정상에서 문제의식의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이어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몇몇의 특정 연구자로 제한되지 않았다. 예컨대 고소설 전공자의 경우 한문 산문, 한문/언문 글쓰기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한편으로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기존의 전공 영역을 넘나드는 연구 방식은 불가결해진 측면이 있었다. 이때 젠더는 기존에 배타적으로 분리된 '제도화된' '전공'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방법론적 매개로 작용했다. 그러나 '젠더'를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고전산문', '고전시가', '한문학', '구비문학'이라는, 이른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하는 '제도화된 전공 구분'의 배타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타당적 전제는 '젠더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해체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민요' 전공자가 구비문학 전공자인가, 고전시가 전공자인가 하는 '경계 구분'의 모호성과 더불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명확히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만(예컨대 대학에서의 교수 채용시 해당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예컨대 '근대 계몽기/근대 전환기/개화기'로 호명되는 1900-1910년대의 경우 바로 그러한 고전과 현대의 '경계 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공의 경계 구분이 모호하며(그러나 이는 관례적으로 '현대문학'으로 범주화되고 있음), 그 결과 현대문화적 연구의 배경 지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의 경우, 현대문학 연구의 시야에서 원천적으로 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사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근대 계몽기/근대전환기/개화기'에 '고전문학' 쪽에서의 접근이 불가피해지게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양자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으로 전공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여 '학문의 제도적 안착'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예컨대 대학의 채용 시스템에서 소외될 위험 부담을 연구자 개인이 감당해야 함), 이에 관한 자발적 연구가 수행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고전여성문학이나 젠더 스터디와 관련한 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전-문학-사'의 영역 자체에서 의도적이고, 그리고 반성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젠더 이슈를 통한 학제간 연구와 '고전-문학-사' 연구의 경계 확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가 여타의 한국고전문학 관련 학회지 및 학회 활동과 차이점을 지닌다면, 첫째, 학회 및 학술지의 정체성이 전공 분야나 연구 대상(장르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방법론'에 있다는 점이며, 둘째, 보다 효율적인 젠더 연구를 위해 '학제간 연구'를 지향해 왔다는 점이다. 첫 번째에 관해서는 앞의 2장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특히 두 번째 특징, 다시 말해 학제간 연구와 관련하여 이것이 어떻게 '고전-문학-사' 연구의 경계를 확장해

왔는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해당 학회에서 학제간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수행되었다. 첫째, 학회 차원에서 공동의 의제를 선정하고 비문학 전공자를 초빙하여 ‘고전·여성’을 매개로 한 연구를 의뢰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주로 ‘하계 워크숍’의 기조 발제자로 초빙하는 형식이거나, 학제간 연구를 고려하여 발표를 의뢰하는 ‘학술 기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고전문학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학제간 의제를 선택하거나, 학제간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여 새로운 연구 의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이 두 가지 방식은 상호 배타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교차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회 차원에서 학제간 의제와 방법론을 의식적으로 강조한 연구 기획을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일종의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한 젠더 스테디의 방법론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해당 학회에서는 학제간 연구자와의 연계를 통해 젠더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술적 교섭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 예컨대, 해당 저널 15집(2007)에 실린 ‘역사의 허구화 과정과 젠더·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를 표제로 한 특집 기획 논문 6편은 모두 학제간 연구에 해당한다. 이는 고전의 현대화에 과정을 다루면서 고전문학 내부의 세부 전공의 연구자가 현대적 미디어로 재현된 고전문학 텍스트의 ‘컨텐츠화’ 과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기획 특집 의제에 맞게 연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제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학제간 연구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고전과 현대의 학적 소통과 교섭을 고려할 때, 학제간 연구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고전 연구자는 현대화된 ‘컨텐츠’의 텍스트적 ‘기원’에서 전공 정체성을 찾고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이 전제되었으며, 학술장에서도 이를 이의 없이 용인하는 학적 관행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영화 〈장화홍련〉을 다룰 경우, 콘텐츠로서의 영화 ‘장화홍련’의 서사적 기원이 고소설 〈장화홍련전〉에 있다는 ‘텍스트적 귀속’의 논리가 작동했으며, 이를 고소설 연구자가 연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위로 용인하는 학적 동의의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때 ‘젠더적 시각’을 매개로 하는 작업이 ‘고전’과 ‘현대’를 잇는 과정에 대한 ‘해석적 준거’로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젠더적 관점이 고전을 현대적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영향력 있는 문화적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둘째, 고전문학 연구자의 학제간 방법론 선택을 통한 고전의 현대화 및 소통 의제 개발에서 젠더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사적 관행을 극복하는 확장적 관점을 확보했다. 예컨대, 그간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 중심의 연구가 주로 문학사 서술을 상층 사대부 중심으로 한정하거나, 남성 중심의 연구 시각을 ‘일반화’하고 ‘전범화’하는 경향성을 지녔다면, 문학의 ‘창작/수용’의 주체로서 여성을 고려하고 ‘여성적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한자가 아닌 언문 기록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기록된 결과물로서의 ‘텍스트’에 주목하기보다는 ‘글쓰기’라는 ‘과정’ 및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사회적 힘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아가 기록 자체가 불가능한 구술문학 및 문학

적 경험을 문학사 서술에 포함하는 문화사적 문맥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문학사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셋째, 한국고전여성문학회에서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워크숍, 이를 기반으로 한 저널 발간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고전문학 전반의 연구 영역·주제·방법론의 차원에서 ‘젠더 이슈’가 학술 테제의 주요한 의제이자 보편적 가치로서의 의의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해당 학회나 저널에 발표와 토론, 투고의 형식으로 참여한 학자들이 인접 학회나 관련 학회지에 젠더 이슈와 관련된 학술 논문을 발표/투고하는 학술 활동의 저변 확대라는 현상을 통해 입증된다.

예컨대, 현재 한국고전문학의 대표적 세부 전공 학회 중의 하나인 ‘고소설학회’에서는 『고소설과 섹슈얼리티』(보고사, 2009)⁷⁾를 출간함으로써, 젠더 이슈를 본격적인 고소설 독해의 방법론으로 간주한 학적 성과를 제출했다. 1년 뒤에는 『다시 보는 고소설사』(보고사, 2010)⁸⁾에서 여성 관련 테마를 ‘17~18세기 고소설과 생활사’라는 항목에 포함시켜 다루었는데, 이는 여성 문학이 텍스트 분석의 경역을 넘어서 ‘생활사’나 ‘일상문화’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이미 학적 설득력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고소설학회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문학 연구를 시작한 것이, 반드시 고전여성문학학회로부터의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고전여성문학회의 창립 이전에 이미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텍스트를 독해한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⁹⁾ 그 이전에도 ‘애정’이나 ‘가문’ 등을 매개로 고소설의 형성과 수용의 문제에 접근한 연구가 존재할 뿐더러, ‘육망’의 문제를 남/녀 인물의 관계론이나 지향가치를 통해 분석해온 연구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단행본의 필자 중 일부는 여성고전문학연구에 투고나 발표를 해왔던 회원으로서, 사실상 전공 영역이 중복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젠더 이슈의 쟁점화 및 일반화 과정은 고전문학연구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해당 학회의 활동이 학적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학적 현상들은 그간 ‘젠더 이슈’와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고소설 연구의 주요 영역이자 시각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넷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전-문학-사’를 독해하는 방법을 이론화함으로써, 문학과 문학사

7) 해당 학회에서는 2009년 이전에 총 6권의 총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섹슈얼리티’를 표제로 내세워 고소설 독해의 적극적인 방편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해당 저서는 ‘섹슈얼리티와 고소설의 양식·등장 인물의 성·사회 규범’, ‘섹슈얼리티와 고소설의 작품 형상’, ‘섹슈얼리티와 고소설의 인접 장르’의 3부로 구성되었으며, 총 12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8) 이 책의 다른 챕터는 ‘초기 소설사의 역동’, ‘고소설과 근대성’이다. 젠더 이슈를 포괄한 ‘17~18세기 고소설과 생활사’에는 총 7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여성 관련 토의를 다룬 것이 4편으로 50%를 선회하고 있다. 이는 젠더 이슈가 고소설을 문화론적 관점에서 독해하는 유력한 연구방법론으로 승인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9) 비교적 초기의 『고소설연구』에 수록된 여성주의적 시각의 논문으로는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정창권, 4권, 1998), 「〈숙녀지기〉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우정」(김명순, 6권, 1998), 「고소설의 성애 양상과 그 사회적 성격」(신태수, 8권, 1999) 등이 있다.

연구의 지형을 재성찰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업의 비중은 텍스트 연구나 케이스 스터디에 비해 미미하다. 현재, 필자의 판단으로 볼 때, 해당 학회지에 투고된 이론 연구는 3편으로, 전체 투고 논문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론 연구는 바로 이러한 연구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만 유효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진전된 이론 연구가 가능하다고 전망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젠더 스터디를 통해 고전문학 연구를 수행한 결과, 문학주의를 벗어나 문화연구, 또는 생활사 연구 분야와 문학의 소통적 연구, 또는 확장적 연계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문자 중심의 문학사 연구에서 벗어나 구술 문화를 포용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회화나 음악 등의 문화예술은 물론 기생이나 가죽 등 제도적 문제, 나아가 지역성에 대한 연구 등을 포괄함으로써, 보다 ‘고전’과 ‘문학’의 경계를 확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며, 가속화되었다.¹⁰⁾

5. ‘방법’을 넘어서 ‘태도’로: 학회 차원의 장기지속적 젠더 연구·학회 간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킹·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태도로서의 젠더 연구

이상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와 해당 학회의 학술 활동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여성-고전-문학-사’를 매개하는 ‘젠더적 관점’의 학술사적 궤적과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해당 학회 및 학술지의 의의에 관해서는 앞에서 상세한 분석적 논의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반성과 전망이라는 시각에서 결론을 대신하여 몇 가지 안건을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문자와 ‘기록’ 중심의 문학사 이해가 사대부 남성이 한문으로 쓴 문자 문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점을 자각하고, 생활사와 문화사라는 관점을 끌어들이어 구술적·경험적·묵언적 문학/문화 주체로 존재해온 여성 문학의 존재를 부각시켜 문학사를 재독해하고 그 범주와 영역을

10)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연희, 「조선시대 열녀도 고찰」, 2집, 2001,
강명관, 「『삼강행실도』 - 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5집, 2002.
최기숙, 「여성성의 재발견: 이성·지혜·성공의 탈영토화」 6집, 2003.
최미정, 「직업을 가진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방법 고찰」 3집, 2003.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6집, 2003.
장유정, 「20세기 초 기생제도 연구」, 8집, 2004.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 (II)」, 10집, 2005.
이정원, 「관소리 문학에서 삼강행실도의 수용 양상」, 14집, 2007.
홍인숙, 「첩’의 인정투쟁-근대계몽기 매체를 통해 본 ‘첩’ 재현과 그 운동성」, 19집, 2009.
홍학회, 「17~18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송준길 가문 여성의 삶」, 20집, 2010.
장유승, 「조선후기 서북지역 여성의 지역성」, 20집, 2010 .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죽음의 의미화 방식 연구」, 23집, 2011. 등

제규정한 것은 여성고전문학회의 주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해당 학회는 ‘여성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문학사적 의무에 긴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성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일정 부분 보류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가부장제’나 ‘사대부 남성의 문화 권력’이라는 일반화된 시선에서 벗어나, 신분과 세대에 의해 차별화되고 위계화된 전근대 사회를 젠더적 시각으로 독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적이고 중층적 시선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남성성’의 특징이나 구성 방식, 사회적 승인 내역 및 변형에 관한 보다 풍부한 연구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학회가 ‘여성 문학’ 연구에서 나아가 ‘젠더 연구’로 전환할 필요를 제기한다. 남성성 연구를 포괄하는 젠더 스타디를 통해서만이 ‘페미니즘적 시각’의 복원이나 전파라는 관점을 넘어서, 온전히 균형 잡힌 젠더 연구의 방법과 시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초창기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동아시아 차원의 연구 시각이나 영역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로 ‘조선시대 연구’로 연구의 범주를 제한해 온 점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문헌 자료의 대부분이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 집중되었다는 자료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관행은 자칫 고전문학을 ‘시기’의 문제로 귀속하거나 ‘조선/한국’이라는 ‘지역성’의 문제로 한정하는 편향성을 지닐 수 있고, 이는 ‘비/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근대적 민족주의의 ‘국문학’ 개념과 접속할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고전-여성-문학-사’를 매개하는 거시적 차원의 장기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장기 지속적인 학술 기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학회는 초창기에는 학회 정체성을 구성-확산-홍보하고,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여 학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 8년간 47차에 걸쳐 지속된 학술 기획인 ‘콜로키움’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이후에 어떠한 장기 지속적인 학문 공동체 사업(연속 세미나나 기획 포럼 등)이 기획된 바 없다. 이러한 장기 지속적 학술 기획의 부재는 비단 해당 학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전문학’과 관련된 학회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물론, 문제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 지속적 학술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해당 학회에서 마련된 제도화된 기획이란 ‘학술대회 특집 기획’과 ‘하계 워크숍 기획’으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것도 매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술대회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여타의 학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따라서, 학계간 연구의 장기 지속적 연구 과제 개발 및 현실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학문 시스템 속에서 사실상 장기 지속적 펀딩이 가능한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장기 지속적인 중대형 지원 시스템은 오직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학회 차원의 연구 기획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대학이나 분과학문별 연구의 편중성과 편향성을 극복하고 학적 공론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연구 재단 중심의 연구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학회가 대학 중심의 연구 성과를 수렴하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 다시 말해 대학 중심의 연구 성과를 학회라는 장에서 발표하고 저널에 투고하는 ‘보조 역할’로 제한된 것이다. 이는 학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한 연구사적 ‘위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의제가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편당이 되지 않는 연구 기관에 연구자들의 관심과 열정, 학적 아이디어를 모아 의미 있는 학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자 개인의 열정이나 학회의 일방적인 투자나 봉사만으로 중요한 학적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거의 무모한 희생이자 불가능한 도전에 가깝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회들은 그러한 역할을 기꺼이 하는 학술적 역할을 담당했다. 바꾸어 말하면, 학회의 독립성보다는 대학제도에 종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거의 전부가 대학에 소속을 둔 연구자 중심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으로도 입증된다.)¹¹⁾

따라서, 젠더 관련 학회가 그간 자율적으로, 또한 다소간 의식적으로 축적해 온 연구의 성과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재조직하고 응집시키며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감으로써 학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문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과 개편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적 성과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지점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쟁주의 일로와 대학평가제로 상징되는 학자에 대한 통제(등급화된 논문 쓰기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는 곧 인문학에 대한 국가적 통제로 이어짐)¹²⁾로 인해, 연구자 개개인이 자신의 학술제도적 조건에 맞는 ‘연구 의무’를 초과하여 학회 차원에서 연구-협력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인이 ‘정신적-신체적’ 여력을 내기 어렵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요건들은 소위 ‘편당이 되지 않는’ 학회 차원에서, 오직 연구자 개인의 열정과 관심에 기대어 성립하는 순수한 인문 정신의 발로에서 우러난, 자발적이고 장기지속적인 ‘학파’나 학술기획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사적이고 제도사적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과제들은 단지 특정 학회의 역량이나 개인 연구자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에 조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회 간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와 해결을 위한 협력과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젠더 연구가 그간 연구 방법론으로서 학제간, 또는 복합학문적 연구를 지향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면, 이제는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제도 차원에서도 학회 간, 학문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인문학 연구의 본원성을 회복하고, 젠더 연구의 출발에서 적극적인 비판과 반성의 대상으로 삼았던 연구 환경이나 제도에 대한 반성과 전망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네트워킹(networking)을 실천할 때, 주제나 방법에 갇혀 있던 젠더 연구가 나

11)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글쓰기의 사회인문학」(『사회인문학이란 무엇인가』, 한길사, 2011)을 참조.

12)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위의 글을 참조.

아가야 할 도약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괄하여 제기하고 싶은 것은, 향후의 젠더 연구는 단지 연구 영역이나 방법론으로서의 개념과 역할로 제한되지 않고, 여성적 시각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인문학 연구의 ‘태도’란 무엇인가라는 사회·문화적 실천의 내용과 접합하려는 학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젠더 연구가 기존의 분과학문 체제에서 제출된 연구 영역이나 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 젠더적 관점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새로운 연구의 영역과 관점을 제출하는데 제 몫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철저하게 학술 제도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대학제도라는 특권적 분야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문학의 본령에서 사고한다면 젠더 연구가 학술 제도권 안에서 게토화된 채로 연구 영역이나 관점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만으로는 학술적 의무에 충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젠더적 차원에서 제기하고, 또 이에 대한 저항과 대안의 방법론을 제출하기 위한 사회적 모색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의 가속화 속에서 물질화·동물화·기계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한 이를 위해 어떠한 사회적 의제를 제출하고 해결을 위해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다시 ‘방법’으로서의 젠더를 넘어서 ‘태도’로서의 젠더에 대한 학적 실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이 자리를 빌어 ‘돌봄’이나 ‘배려’, ‘공생’ 등, 21세기의 젠더 연구에 ‘고전-여성-문학-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인접 학회와의 대안적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해 보는 것이다.

영미문학 분야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이귀우(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서울여대)

이소희(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한양여대)

I.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의 창립

영미문학 분야에서의 여성주의 문학비평 연구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1970년대 후반 이래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1978년 일레인 쇼왈터(Elaine Showalter)의 『그들만의 문학』(*A Literature of Their Own*) 및 1979년 산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잔 구바(Susan Gubar)가 발간한 『다락방의 미친 여자』(*Madwoman in the Attic*) 이래로 18세기 이후 영문학 분야에서의 여성 작가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이제까지 남성중심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문학비평 연구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탐색하는 등 1980년대 들어와 영미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서서히 중요한 연구 분야로 평가받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한 국내 영문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영미문학 분야에서의 여성문학비평 및 여성주의 연구방법론을 접하게 되었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시작할 때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되었다.

한편, 1992년 즈음하여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The English Literature and Language Association of Korea)는 2,000여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 학회로 성장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학술 활동을 위하여 전문화된 연구 분야별로 소규모 학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기획, 실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KAFSEL: The Korean Association for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는 1992년 9월 5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약 20여명의 회원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서지문 회장을 비롯하여 이귀우 총무이사, 고갑희 연구이사, 오정화 재무이사로 구성된 제 1대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그러므로 영미문학 분야에서 여성주의 연구를 지향하는 본 학회는 국내외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왔다.

II. 학회의 발전과 활동

1992년 학회 창립 이후 초창기 연구 활동은 주로 정기 월례 학술모임 및 정기 독회 운영, 또 연 1회 개최되는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를 통하여 영미문학 분야 내에서 여성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 학술활동을 전개해왔다.

1. 정기 월례 학술모임 및 정기 독회 운영

창립 초기에 모여 활동한 영문학자들도 여성주의 관점을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드물었기 때문에 영미 여성주의 이론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학회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독회와 월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창립후 처음 2년 동안은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들(예를 들어 Mary Wollstonecraft로부터 시작하여 John Stuart Mill, Virginia Woolf의 저서, 프랑스 페미니즘, 프로이트와 라캉의 저서들)을 같이 읽고 토론하였다. 그 다음 2년 동안은 여러 이론을 개별 문학작품에 적용하여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는 정기 학술 모임을 가졌다. 그 후에도 이론과 작품 분석을 번갈아하며 1998년 까지 7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었던 독회와 월례발표회의 내공이 쌓여 2000년 『페미니즘 - 어제와 오늘』을 출판할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 저서는 영미 여성주의 이론을 한국에 소개하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학문 공동체” 전통은 계속 유지되어 두 번째 페미니즘 이론서인 『페미니즘 - 사이와 차이』 출판하기 전에도 2008년부터 1년 반 동안 수차례의 콜로키움과 발표회를 거쳐 단행본으로 출간 할 수 있었다.

2. 국제학술교류

본 학회는 한국영어영문학회 산하 여타의 다른 전문 학회들과는 차별화된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국제적인 학술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제적인 연구 활동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당시 국내 연구 환경에서 영미문학 분야에서의 여성주의 연구는 매우 생소하고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구 동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 학자들만의 독특한 연구관점을 형성해 낼 수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4년 12월 USIS에서 Telepress Conference System을 이용하여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Judith Sensibar 교수와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1999년 이후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는 점이다.

학회 설립 이후 수년간 축적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1999년 11월 5일(금)-6일(토)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The Location of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주제로 영국과 미국, 인도 학자들을 초청하여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개최된 영문학분야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초로 국내 여성학자들이 힘을 모아 재정, 기획, 운영까지 모두 진행했던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였으며 국내 학자들 포함 총 4개국 11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후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2002년 10월 24일(목)-26일(토) 서강대학교에서 “Feminist Literary Studies: Gender, Nation, and Difference” 주제로 7개국 16명의 외국 및 국내 학자들이 참여한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Dame Gillian Beer 교수가 Plenary Speaker로 참여하여 “Empathy, Evolution, and Satire: Women Writers and Intellectual Change”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5년에는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Women's World Congress) 내 “젠더와 문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전 세계에서 참여한 여성문학 및 여성 글쓰기 관련 분야 발표자들을 초청하여 “Feminist Literary Studies: Gender, Culture, and Creativity” 주제로 제3회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국제학술대회를 6월 20일(월)-22일(수)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 때 1997년 *Comfort Woman*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한국계 미국 여성작가 Nora Okja Keller가 참여하여 “Writing the Womb, Mothering the Story” 제목의 주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학술대회에 논문 발표자로 참여한 케냐, 터키, 필리핀, 트리니다드 토바고,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영국 등 10개국 35명의 학자들은 이후 본 학회와 학술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2007년에는 “(Post)Feminisms” 주제로 6월 8일(금)-9일(토)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발행한 학술대회 논문자료집은 당시 SCI 저널 선정 및 평가기관인 Thomson의 인문학 분야 Conference Proceedings List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 때 Plenary Speaker로 영국 카디프대학교의 Chris Weedon 교수가 참여하여 “Changes, Breaks, Continuities: Feminist Theory and Cultural Analysis from the Second Wave to the Present”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하였으며 일본, 인도, 스페인, 대만, 미국 등 총 6개국 19개 논문과 차세대 연구자들을 위한 발표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대학원생 논문 8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9년 6월 12일(금)-13일(토) “Women, Displacement, and Cultural Identity” 주제로 이화여대에서 제4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작가와 비평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Plenary Lecture를 진행하였다. 작가 그룹의 강연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 여성시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SUNY Buffalo에서 가르치고 있는 Myung Mi Kim이 “Diaspora, Gender, and the Translingual Condition”이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또 미국에서 젊은 한국계 미국 여성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Min Jin Lee가 “Reticence and Field Work: On Writing the Sexual Lives of Asian Women: or How I Learned to Tell the Truth through Fiction”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비평가 그룹의 강연으로는 멀티에스닉학회(MESEA: The Multi-Ethnic Studies in Europe and the Americas)의 부회장인 Rocio Davis 교수가 “Academic Autobiography and Women of Color Feminism: Narrating a Critical Practice” 주제의 강연을, 또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의 김현미 교수가 “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derized Citizenship in South Korea”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특히 유럽과 미국 학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MESEA와 공동 주최함으로써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KAFSEL)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일본과 대만 외에도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도 참여하여 총 7개국 18명의 외국학자가 참여하였으며 국내학자들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중 대학원생 논문 7편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본 학회는 지속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외국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학문 교류 활동은 그동안 발간된 본 학회의 학술지를 통하여 꾸준히 발표되어왔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2012년 올해에는 6월 8일(금)-9일(토) “Feminisms and Queer Sexualities: Intersections in Text and Context” 주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제6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본 학회는 이미 2011년 4월 16일 봄 학술대회 주제를 “페미니즘과 퀴어”로 선정하여 미리 국내 학자들끼리 이 분야 연구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6월초, USC의 Judith Halberstein이 Plenary Speaker로 초청된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페미니즘과 퀴어 섹슈얼리티 분야의 국내 외 학문적 담론의 현재 좌표를 짚어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본 학회의 특성상 가장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본 학회가 해외 작가 및 비평가를 초청한 특강 진행 프로그램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1983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흑인여성작가 앨리스 위커(Alice Walker)의 “Writing the Unspeakable” 특강(2004년 5월)과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의 저자 토릴 모이(Toril Moi) 교수의 특강(1998년 5월)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2012년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것은 본 학회의 회원들이 직접 해외에서 개최되는 관련 분야 국제학술대회에 학회 차원에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제까지 외국 학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수동적인 형식의 국제 교류 학술활동에서 벗어나 국내학자들이 주체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거 그룹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해외 학술대회에 참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 여성학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 여성작가들을 국제적인 여성문학 연구 분야에 끼워 넣기 위한 색다른 형태의 국제 교류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현대여성글쓰기학회(Contemporary Women's Writing Association)의 제4차 정기학술대회는 주로 영국과 미국, 유럽학자들로 구성된 이 학회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개최한 최초의 국제학술대회였는데 본 학회는 이 학술대회에 한국학자 19명이 대거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여성문학 및 여성적 글쓰기 분야의 수많은 외국 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제 바야흐로 본 학회의 국제 교류 학술활동은 쌍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회 발전 측면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3. 학술지

본 학회의 학술활동을 기록하는 장으로서의 학술지 발간 역시 1995년 6월 제1권이 창간된 이래 지속적으로 연 2회(6월 30일(한글)/ 12월 31일(영문)) 발간해 왔으며 2011년 이후 연 3회(4월(영문)/9월(한글)/12월(영문)) 발간으로 전환하여 매년 영문 2회, 한글 1회 발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발전적 변화는 국제적인 학술 교류 및 해외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문판의 발간 횟수를 늘린 것이며 지난 20년 동안 본 학회의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지 교류를 통하여 해외 학자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문학 및 여성적 글쓰기 분야 학자들과 FSEL Global Network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본 학회의 학술지는 영문학 분야의 전문 학회들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1999) 및 등재(2001) 학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초창기부터 게재논문의 질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해 왔으며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영미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본 학술지의 논문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학술지 계속평가 중 주제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질적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평판은 1999년 6월 미국의 현대어문학 분야 등재지인 MLA Bibliography에 선정되었고 2000년 이후 British Library Catalogue 등을 통하여 해외 학자들에게 본 학술지 게재논문의 제목과 초록이 공개됨으로써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해외로부터의 개별 구입 및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 기획되는 단행본에 게재논문들의 재수록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연구 활동의 연장선에서 본 학회는 2005년 이후 A&HCI 저널 선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학술활동 및 학술지를 국제화하려는 학회차원에서의 노력은 2012년 현재 Routledge와 같은 국제적인 출판사로부터 출판 및 배포에 관한 제안을 받고 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외국의 관련 분야 국제적 저명학술지인 *Positions* 및 *Contemporary Women's Writing*과 학술지 교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2003년 12월에 발행된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제11권 2호(영문호)부터 일본의 아시아계 미국문학학회(AALA: The Asian American Literature Association)와 저널 교환을 진행해 오고 있다.

4. 사회와의 소통

본 학회는 단순히 상아탑 내에만 머무는 학술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사회적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확산하고 관련 분야 차세대 연구자 육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 이후부터 써머 캠프 개최 및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단행본 출판 작업을 진행해 왔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여름 2-3일간 <페미니스트 써머 캠프>를 개최하여 페미니즘 문학 분야 관련 지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여성문학 및 페미니즘 이론 분야를 국내에 소개하

고 이러한 취지를 더욱 널리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총 16개의 개별논문으로 구성된 『페미니즘 - 어제와 오늘』(민음사)을, 2011년에는 총 18개의 개별논문으로 구성된 『페미니즘 - 사이와 차이』(문학동네) 등 단행본 2권을 발간하였으며 2권 모두 해당연도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III. 연구동향

1992년 학회 창립 당시 본 학회가 지향했던 연구활동의 방향과 목표는 국내외 관련 연구 분야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즉 여성작가들의 글쓰기에 관한 미시적 연구방법론에서부터 시작된 영미문학 분야에서의 여성주의 연구는 차츰 개별 텍스트의 글쓰기를 분석하는 문학연구 방법론에서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포괄하는 문화연구 방법론으로, 또 젠더 중심의 연구로부터 섹슈얼리티 관련 분야 연구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트랜스내셔널 관점에서의 연구로부터 글로벌차원의 거시적 연구방법론으로, 또 인문사회분야에서 생체의학 분야까지 아우르는 학제간 융합 연구방법론으로 빠르게 변화 및 발전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IV. 향후 과제

본 학회는 지금/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서있는 한국사회/한국문화/한국문학에 대한 여성주의 및 젠더 관점에서의 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앞으로의 과제는 기존의 전공분야인 영미문학/영어권 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방법론과 더불어 한국문학 내의 여성문학 연구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영미문학 학자로서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앞에 명기한 지난 7월 11일-13일, 대만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현대여성글쓰기학회(CWWA)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학자들의 논문 대부분이 한국 여성작가들에 대한 논문 발표였으며 2005년 세계여성학대회 “젠더와 문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된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도 3개의 패널에서 발표된 9개의 논문은 한국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논문들이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연장선에서 2012년 3월부터 본 학회는 한국여성문학학회 회원들과 함께 <근/현대 한국여성문학선집> 한국어판과 영어판 발간을 위한 초기 작업을 위해 현재 매달 모임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연구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페미니즘 내부에서 다양한 입장차이가 노출되면서 페미니즘의 경

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여성”이라는 개념이 포스트페미니즘의 대두로 흔들리고,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는 글로벌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기반이 약화된 것이다. 성차에 대한 관심의 약화, 여성 내부의 계급적 인종적 차이와 성적 소수자의 대두, 다양한 젠더“들”의 출현, 초국가적인 이주와 이산의 다문화 사회에서 여성들이 더 이상 “여성”이라는 범주 하나로 결집되는 힘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젠더에 의한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페미니즘 시각은 유용하며, 이러한 시각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며 한국사회/한국문화/한국문학과 영미문학/영어권 문화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과제일 것이다.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FSEL) 연혁]

2011~2013	2012. 09.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 『영미문학페미니즘』 제20권 2호 발간
	2012. 07.	제4차 CWWA(The Contemporary Women's Writing Association) Conference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자 19명 참가 “(Wo)Man and the Body”(11-13 July 2012,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ROC)
	2012. 06.	제 6차 및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Feminisms and Queer Sexualities: Intersections in Text and Context” (8-9 June 2012, New Millennium Hal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2. 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 (in English), Vol.20, No.1 발간
2009~2011	2011. 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 (in English), Vol.19, No.3 발간
	2011. 1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2011. 10.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9권 2호 발간
	2011. 07.	『페미니즘 - 사이와 차이』 발간 (2012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11. 04.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 (in English), Vol.19, No.1 발간

2011. 04. 제17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과 퀴어”(4월 16일,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회의실(6층))
2010.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18, No.2 발간
2010. 1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2010.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8권 1호 발간
2010. 04. 제16차 국내학술대회
“포스트페미니즘, 대중문화, 신보수주의”
(4월 17일, 연세대학교 연희관 이만섭 홀)
2009.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17, No.2 발간
2009. 1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2009.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1호 발간
2009. 06. 제5차 국제학술대회
“Women, Displacement, and Cultural Identity”
(12-13 June 2009, ECC Room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2006~2008
2008.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16, No.2 발간
2008.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6권 1호 발간
2008. 04. 제15차 국내학술대회
“Feminist Pedagogies: 페미니즘과 인문학 교육”
(4월 19일, 경희대학교 청운관 620호)
2007.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15, No.2 발간
2007. 1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2007. 10. “(Post)Feminisms” *FSEL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가 Thomson
인문학분야 Conference Proceedings List 등재
2007.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5권 1호 발간
2007. 06. 제 4회 및 창립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Post)Feminisms”(8-9 June 2007,

- The International Studies Hal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06.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14, No.2 발간
2006. 10. 제14차 국내학술대회
“젠더와 18세기 영문학”
(10월 14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
2006.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4권 1호 발간
2006. 06.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 2002~2005
2005.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13, No.2 발간
2005. 10. 제 13차 국내학술대회
“젠더, 몸, 디아스포라”
(10월15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
2005.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3권 1호 발간
2005. 06. 제 3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 9차 세계여성학
대회(Women's World Congress) 35편 발표
“Gender, Culture, and Creativity”
(20-22 June 2005, Posco Building,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5. 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연찬회
2004.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12, No.2 발간
2004. 10. 제 12차 국내학술대회
“여성의 몸: 담론과 내러티브”(10월 16일,
홍익대학교 인문관 C동 526호)
2004.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2권 1호 발간
2004. 05. Alice Walker 초청 특별 강연
“Writing the Unspeakable”
(5월 29일, 홍익대학교 인문관 C동 526호)
2003.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11, No.2 발간
일본 AALA(The Asian American Literature Association)와

		Journal Exchange (AALA Journal, No.7, 2001부터 시작)
2003. 10.	제 11차 국내학술대회	“여성/신화”(10월 18일, 홍익대학교 인문관 C동 526호)
2003.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1권 1호 발간	
2003. 04.	제 10차 국내학술대회	“젠더와 성의 정치학 읽기”(4월 26일,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402호)
2003. 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2002. 1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 (in English), Vol.10, No.2 발간	
2002. 10.	제 2회 및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Gender, Nation, and Difference” (24-26 October 2002, Matthew Hall,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2. 08.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0권 1호 발간	
2002. 04.	제 9차 국내학술대회	“여성과 문화”(4월 13일,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502호)
2002. 02.	<i>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i> , (in English), Vol.9, No.2 발간	
2002. 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2000~2001	2001. 11.	제 8차 국내학술대회 “기독교, 여성, 문학”(11월 3일,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502호)
	2001. 09.	『영미문학페미니즘』 학진 등재학술지 선정
	2001. 08.	『영미문학페미니즘』 제9권 1호 발간
	2001. 06.	2001 페미니스트 썸머캠프 “에코 페미니즘- 그 이론과 실천” (6월 28일-29일, 난향원, 성신여자대학교)
	2001. 05.	제 7차 국내학술대회 “기독교, 여성, 문학”(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406호)

2001. 0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8, No.2 발간
2001. 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2000. 11. 제 6차 국내학술대회
“여성의 몸”(11월 4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406호)
2000. 08. 『영미문학페미니즘』 제8권 1호 발간
2000. 06. 2000 페미니스트 썸머캠프
“여성의 몸”(6월 29일-7월 1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2000. 04. 제 5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 문학의 다양성”
(4월 22일, 국민대학교 2호관 시청각실)
2000. 03. 『페미니즘 - 어제와 오늘』 발간
(2001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00. 0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7, No.2 발간
외국인 편집위원 구성
2000. 02. 한국여성철학회와 공동 정기독회 모임
2000. 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
- 1997~1999
1999. 11. 제 1회 국제학술대회
“The Location of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5-6 November 1999,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999. 09. 『영미문학페미니즘』 학진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1999. 07. '99 페미니스트 썸머캠프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양상”
(7월 1일-7월 3일, 이화여대 인문관 110호)
1999.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7권 1호 발간
1999. 06. MLA Bibliography List에 등재
1999. 04. 제 4차 국내학술대회
“여성,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4월 17일, 이화여대 인문관 111호)

1999. 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998.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6, No.2 발간
1998. 11. 제 3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의 다양한 목소리”
(11월 14일, 이화여대 인문관 110호)
1998.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6권 1호 발간
1998. 06. 정기 독회모임 시작
1998. 05. Toril Moi(Duke University) 특강
1998. 04. 제 2차 국내학술대회
“페미니즘의 이론과 그 적용”
(4월 18일, 이화여대 인문관 109호)
1997. 12.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5 발간
1997. 11. 제 1차 국내학술대회
“19세기 이전 영문학의 페미니즘적 수용”
(11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0호)
1997.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4권 발간
1997. 03-10. 정기월례학술모임
1997. 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 1992~1996
1996.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3권 발간
1996. 04.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in English), Vol.2 발간
1996. 02-12. 정기월례학술모임
1995. 06.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권 창간호 발간
1995. 02-12. 정기월례학술모임
1995. 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1994. 12. USIS Telepress Conference
on Edith Wharton with Judith Sensibar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1994. 09. 정기총회 및 제2대 임원진 선출
특별강연: 성욕의 내용과 언어
정대현(이화여대, 철학과)

- 1994. 03-11. 정기월례학술모임
- 1994. 02.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 1993. 02-12. 정기월례학술모임
- 1993. 01.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 겨울연찬회
- 1992. 12. 정기월례학술모임
- 1992. 10. 정기월례학술모임
- 1992. 09. 창립총회 및 제 1대 임원진 선출
 (9월 5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1대 임원진 회장: 서지문(고려대)
 총무: 이귀우(서울여대)
 연구: 고갑희(한신대)
 재무: 오정화(이화여대)

여성사연구의 현실과 과제-‘자리 잡기’와 ‘새판 짜기’ 사이에서

정현백(한국여성사학회, 성균관대)

I. 글머리에

2004년 9월 18일 한국여성사학회가 창립되었다. 1945년 12월에 역사학회가 창립되었고, 2000년을 넘어서면서 분과사학회나 지역사학회가 분화되고 활발해졌다. 역사 관련 학회가 100개를 넘어서는 현실에 비추어보자면¹⁾, 여성사학회의 창립은, 상당히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의 여성사학회 창립에 비교해서도 여성사의 제도적 정착은 지연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한국여성사학회는 창립 8주년을 넘겨, 곧 10주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다. 한국 여성연구학회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여성사연구의 조직화와 학문적 성과를 성찰하는 것은 여성사학회 10주년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사전정비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그간의 여성사연구가 전체 역사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숙고해보고, 과연 여성사연구자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전체 역사학연구에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한국여성사학회의 성립배경과 제도적 발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그간의 여성사연구 성과를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사와 역사학계와의 관계를 검토해보고, 결론적으로 그간의 여성사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짚어볼 것이다.

II. 학회의 성립과 발전

1) 성립배경

한국여성사학회의 성립배경은 외부적인 자극에서 연원하였다고 생각된다. 세계여성사대회(International Federation for Research on the History of Women)와 국제적으로 활발해진 여성사연구에서 자극을 받았다. 5년에 두 번 개최되는 세계여성사대회가 2003년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개최되었을 때, 정현백이 개인적으로 참가하였고, 200여 명 이상의 발표자들이 세션을

1) 박찬승, 「분단시대 한국사학계의 동향」,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경제 역사 영어영문학』, 2000, 136쪽

구성하여 발표하는데, 한국발표자는 단 1명이었다. 거기에다가 일본은 이미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공동연구를 한 후에 거의 15명의 발표자가 대회에 참여한 점을 확인하면서, 정현백은 당혹감을 느꼈다. 귀국한 이후 이화여대에서 여성사연구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이배용교수와 상의하여, 여성사학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보다 중요한 원인은 그간 늘어난 여성사 연구자들이 여성사학회를 출범시킬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점이다.

그간 여성사학회 구성이 늦어졌던 이유는 소규모이나마 명맥을 이어온 여성사연구가 각기 다른 연구중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연구중심으로 제도적인 교육기관인 이화여대 여성연구원이나 사학과를 중심으로 여성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여성사를 주제로 많은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고, 학과나 연구원 차원에서 여러 개설서를 출간되었다. 1972년에는 이화여대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여성사』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연구중심으로 우리는 1985년 창립한 여성사연구회를 들 수 있다. 초기부터 역사학 전공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이후 한국여성연구회로 개칭하였고, 자체 내에 여성사분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다.²⁾ 진보성을 표방하는 소장 여성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었던 한국여성연구회는 초기에는 『여성』, 나중에는 『여성과 사회』를 출간하였다.³⁾ 이 단체의 여성사 분과모임은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하고, 1992년부터 ‘한국여성사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정리하여 발간하였을 뿐 아니라, 자체의 발간매체를 통하여 논문이나 단행본의 출간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화여대 사학과나 그 산하 연구소가 제도적인 인프라가 있는 만큼 여성사연구의 확산에 훨씬 용이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한국여성연구회는 이런 약점을 창작과 비평사의 지명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사 관련 연구의 출간과 대중화를 통해 보완하려 하였다.

제도적 기구를 중심으로 한 관행적인 연구나 자신의 연구중심과 함께 동인모임 형식의 자족적 활동에 열중해있던 집단들이 한국여성사학회라는 ‘학회’의 틀을 갖추게 된 데에는 변화하는 학술환경이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 한편으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통제와 지원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의 발전과 다양화,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역사학계에서는 각 분야에서 분과학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학회들은 사상사학회, 문화사학회, 과학사학회, 도시사학회 등의 분과사학회에서부터 부산사학회, 대구사학회, 전남사학회 등의 지역사학회, 나아가 서양사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대상국가 별로 미국사학회, 독일사학회, 영국사학회 등 100여 개 이상의 학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학회 활동이 규모가 큰 역사학회나 서양사학회 등 보다는 작은 분과사학회를 중심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이런 학술환경의 변화도 여성사학회의 설립을 추동하는 데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여성사학회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여성사 연구인력과 한국여성연구

2) 한국여성연구회는 다시 명칭을 한국여성연구소로 개칭하였고, 2001년부터 『페미니즘 연구』를 발간하면서,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3) 이 단체는 1989년까지 무크 『여성』을 3권 발행한 후, 당국의 탄압으로 명칭을 바꾸어 1990년부터 여성과 사회를 16집(2005)년까지 발간하였다. 이후 『페미니즘 연구』가 반년간지로 지금까지 발간되고 있다.

회의 분과모임 구성원들이 기본축이 되어 조직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제도적 발전과 활동

약 10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여성사학회는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대로 인맥 중심의 연구모임들이 제도적인 뼈대를 갖추는 것을 통해서, 앞의 소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연구자들을 모을 수 있게 하였고, 정제화된 발표와 출간작업을 통해서 학술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설립년도의 연말에 학술지 〈여성과 역사〉를 창간하였고, 반년간지로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고, 2008년 1월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출범 이래로 여성사학회는 연간 8회의 연구발표회 그리고 방학을 기해 연간 1-2회의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학술토론과 더불어 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사학회는 학술대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였고, 주제의 폭도 상당히 넓었다. ‘한국전쟁과 서울 여성의 삶의 변화: 구술로 풀어보는 상경 여성들의 서울 정착기(2007)’, ‘강원여성에 대한 여성사적 조명(2004)’, ‘전통과 근대적 사회변화 속의 서울여성(2004)’과 같은 지역여성사를 다루는 주제에서부터 ‘여성 이주의 역사와 경험(2011)’,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활동(2008)’,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취급하기도 하였다. 이런 기획들은 여성사연구를 여성이 처한 현실의 개혁과 연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지원으로 ‘광복60년,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와 의식변화’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⁴⁾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문화유산과 관련된 학술회의는 여성문화해설사 협회와 공동개최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대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문화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⁵⁾

여성사학회는 독자적인 연구나 출판활동 이외에도, 국내의 다른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제적 연구활동을 펼쳤다. 우선 2006년부터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철학회와 공동으로 격년마다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간 4회에 걸쳐 ‘근대를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시각’, ‘종교와 여성’, ‘4.19혁명과 여성’, ‘여성과 문명, 젠더정치’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4.19혁명과 여성’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⁶⁾

여성사학회의 학술연대활동의 한 축이 여성인문학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학제적 연구라면, 또 다른 축은 다른 역사관련 학회들과의 연대이다. 이미 역사학계는 매년 전국역사학대회를 개최하여, 역사학 관련자들이 총집결하여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성사학회도 2007년부터 역사학대회에 패널을 구성하여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6월1일 역사학대

4) 『여성과 역사』, 3집, 2005. 12, 235-236쪽. 발표된 논문들은 『여성과 역사』 4집(2006. 6)과 5집(2006. 12)에 게재되었다.

5) 신남주,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연구동향」, 『여성과 역사』, 10집, 2009. 6, 251-272쪽 참조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19 혁명과 여성

회를 주관하는 협의체인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의에 가입승인을 얻어 17개 주관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⁷⁾ 100여 개가 넘는 역사학 관련 학회 중에서 규모 면에서는 협의회 가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협의회 내에 여성사 존재의 필요성 혹은 역사학대회협의회의에 여성사학회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명분론이 가입을 도운 것 같다. 여성사학회가 설립된 후 5년만이어서, 비교적 빠른 진출이라 말할 수 있다.

여성사학회는 출범 당시부터 국제 학술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창립 다음 해인 2005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여성학대회에서 여성사패널을 조직하여, 큰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틀에 걸쳐 6개의 패널로 구성된 이 회의에서는 조선시대 여성과 유교, 신여성, 해외한민족 여성실태라는 대주제로 23개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사학회의 보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해외 학술활동은 세계여성사대회(International Federation for Research on the History of Women)에 가입하여,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는 5년 마다 열리는 세계역사학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Historical Sciences)의 마지막 날부터 2일간 열리고 그 중간에 한 번은 독자적으로 개최하였는데, 그래서 여성사학회 회원들은 이 회의와 세계역사학대회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2005년에 호주 시드니 그리고 2010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하였고, 2015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한국 여성사학자들의 대거 참석이 기대되고 있다. 세계여성사대회는 미국의 여성 역사가들도 참여하지만, 주로 유럽의 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는 이 회의에서 아시아의 참가자나 발표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대체로 회의가 서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비용문제로 아시아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계기로 이런 문제점이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여성사연구가 제도적으로 혹은 연구인력의 양적인 규모에서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저조한 참여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출로 모색이 필요하다.

국제적 협력과 관련하여 여성사학회가 더 기대를 거는 사안은 한국, 중국, 일본과의 연대활동이다. 2011년 8월에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Herstory를 만들어낸 동아시아 여성들: 역사속의 여성 리더십”은 3국의 여성사연구자들의 공동작업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일본 총합여성사연구회 회장 스가노 노리코와 한국 측 이송희 회장 그리고 북경대 등소남의 발표가 포함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3국간의 긴밀한 협력활동과 학술대회의 정기적인 공동개최를 사실상 합의하였다. 그 결과로 2013년 일본에서 열리는 총합여성사연구회의 학술회의에 한국 측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였다.⁸⁾ 또한 세계여성사대회의 참가도 3국이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 국제 학계에서 아시아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연대활동의 의미 있는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7) 한국여성사학회, 2010년 총회보고서 참조

8) 『여성과 역사』 15집, 2011. 12, 284-286쪽; 한국여성사학회, 2012년 총회 자료, 8쪽 참조

III. 여성사연구 동향과 쟁점

우리가 배워온 역사에서는 걸출한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모습이나 역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여성사 연구나 서술이 부재했던 탓이다. 조선에서 여성사연구는 1926년 이능화의 『조선여속고』의 출간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⁹⁾ 이후 1960년대에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가족, 여성운동, 여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약간 있었지만¹⁰⁾, 1972년 전시대를 통사체제로 정리한 『한국여성사』가 나오기까지는 여성사연구는 오랜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근까지도 한국의 여성사연구는 낙후되어 있었고, 연구 성과도 적었다.¹¹⁾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 혹은 친족이나 가족문제처럼 여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채 분석된 경우가 많았다.

여성사연구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외부로부터의 자극, 즉 주어진 현실적 조건의 변화나 운동의 역동적 발전이 늘 자극제가 되었다.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제3세계여성해방이론이 국내로 소개되고, 1977년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면서, 여성지위의 향상에 여성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근대 시기의 여성교육과 여성운동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근대부문에서는 사회사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어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여성사 분야의 성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¹²⁾

1980년대 말 이후 여성운동의 급격한 성장, 여성학의 확산 그리고 민중사 연구의 출현 등에 영향을 받아, 여성사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새로이 등장한 민중사 연구와 민중여성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운동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민중 여성에 대한 역사연구가 활발해진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 시각에 입각한 여성사연구를 표방하기 시작한 점이다.¹³⁾ 민중지향적 여성운동에 자극을 받아, 이에 준하는 모델로 1920년대 (사회주의)여성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여성관/여성의식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신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들의 연애나 결혼문제, 사회인식 혹은 역할갈등 등에 대한 연구가 그 좋은 예이다.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30년대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변모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¹⁴⁾

1990년대는 1980년대 여성사의 연구경향과 문제의식이 연장되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

9) 이능화는 조선의 여성습속에 대한 미국인의 왜곡된 서술이 그에 대한 저술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위의 책을 집필하였다고 하니, 여성에 대한 관심은 서구의 영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순구, 「전근대사 여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연구원 편, 『한국사 연구 50년』, (해안, 2005), 429쪽

10) 이송희, 「한국 근대 여성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여성과 역사』 6집, 2007. 6, 53-54쪽; 이송희, 근현대 여성사연구 50년, 한국문화연구원 편, 472-473쪽

11)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전근대편」, 『여성과 사회』 3, 1992, 315쪽

12) 같은 글, 316쪽; 이송희, 2007, 56-58쪽

13) 이송희, 2007, 57쪽

14) 같은 글, 57-58쪽

기 시작하였고, 기성 역사학계에서 여성사가 ‘가시적’이 되어 갔다. 여성들의 집단작업과 토론의 결과로 한국여성연구회가 펴낸 『한국여성사-근대 편』과 앞의 단체의 후신인 한국여성연구소가 출간한 『우리 여성의 역사』가 나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94년 한국사 시민강좌가 15집에서 여성사를 기획논문으로 다루었고, 역사학보 150집도 여성사를 특집으로 실으면서, 여성사는 역사학계에 공식적으로 입회원서를 낸 셈이다.¹⁵⁾ 이 시기의 연구는 식민지 시대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를 통해서 여성의식의 변화나 여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어났다. 또한 군 위안부 연구나 식민지 시대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1980년대 말, 1990년대에 이르는 시기동안 여성사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가족연구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제도나 가족생활을 구명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가족 안에서 여성이 지니는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성 역사학계에서 여성사를 가족사나 친족사와는 독립된 하나의 계통사로 인정하게 만드는 토대를 제공하였다.¹⁶⁾ 또한 섹슈얼리티 문제도 자본주의 경제나 식민지국가의 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여성운동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도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을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던 것이다. 즉 여성이 참여한 운동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현실을 개조하고자 한 집단적 움직임으로 재규정하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여성노동에 있어서도 가사노동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다층적인 개념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사연구는 여전히 여성교육과 여성운동 연구에 집중되었고, 생활상태, 여성노동, 여성의식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는 새로운 여성사의 시작이나 관점을 강조하였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한 연구가 산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¹⁷⁾

또한 여성사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사연구방법론의 개발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연구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시각을 체득하고, 이를 정교하고 세련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사연구를 곤란하게 하는 자료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군위안부 연구를 통해서 구술자료를 사료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여성사연구의 큰 성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쓰여진 기존의 문헌자료를 비판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사연구자들의 치열한 자기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간 활용되지 않았던 일기, 그림, 노래, 이야기, 광고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¹⁸⁾

2000년대에 들어오면, 여성사 연구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사회적으로는 2001년 여성부가 설치되고, 여성인권이 향상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더불어 성주류화정책에도 박차가 가해졌

15) 장병인, 「조선시대 여성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역사』, 제6집, 2007. 6, 29쪽

16) 같은 글

17)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의 연구동향과 과제-근대 편」, 『여성과 사회』5, 1994, 창작과 비평사, 319-320쪽

18) 같은 글, 320쪽

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성사 연구발표의 공간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존재해온 여성학회지 『한국여성학』 외에도, 2001년 한국여성연구소가 『페미니즘 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 새로 창립된 한국여성사학회가 『여성과 역사』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서 여성사연구자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현저하게 늘어났고, 이는 여성사 연구 성과의 양적 증대를 담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역사학회는 2년에 한 번 씩, 〈회고와 전망〉이라는 기획을 통해서, 역사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을 총망라해서 『역사학보』에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분류되고, 다시 그 안에서 고대-중세-근대-현대로 나누어지거나 혹은 지역에 따라 나뉘어 있어서, 여성사 관련 논문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어느 분과에서도 여성사 분야를 따로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8년 동안 16집까지 발간된 『여성과 역사』를 예로 들자면, 그간 한국사관련 논문은 총 60편, 동양사는 10편, 서양사는 16편이 발간되었다. 이론이나 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사연구 현황, 여성사교수법,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연구동향, 역사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총 5편의 논문이 출간되었다. 외국의 사례에 비하자면, 절대적으로 적은 생산량이지만, 과거에 비한다면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서양과 동양여성사의 양적 부족인데, 특히 동양사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¹⁹⁾ 시대별로 분류하자면,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가 24편, 근현대가 39편이다. 서양사의 경우, 전근대가 1편이나 근현대는 15편이다. 중국사는 전근대가 4편, 근, 현대가 5편이다. 『여성과 역사』에서는 중국사에서 전근대와 근, 현대의 비중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중국여성사 연구는 근, 현대사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²⁰⁾ 한국사나 서양사의 경우에도 근, 현대 여성사가 절대적으로 많다.

『여성과 역사』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를 살펴보자면, 과거의 연구처럼 어떤 경향성을 띄우기 보다는 상당히 다양해졌다. 가장 빈번히 연구되는 주제가 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동시에 여성사학회 창립이후 연구의 조직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현실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성찰결과 해답을 찾으려는 문제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사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고찰, 여성리더십, 4. 19혁명과 여성, 여성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등에 대한 학술대회나 특집 기획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여성사 연구 내에서 연구주제의 협소화나 문제의식의 부재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사연구 동향에서 드러나는 큰 문제점은 치열한 논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²¹⁾ 이는 여전히 여성사 연구가 소집단이어서 그 안에서 어떤 치열한 논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다

19) 이는 국제회의의 “중국부녀를 통하여 본 중국역사”에 참석한 어느 외국인 학자가 “한국학계의 연구정도는 중국본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일본과 대만과 비교해도 2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는 참관기에서 잘 드러난다. 이선이, 「한국의 중국여성사 연구 현황과 과제」, 『여성과 역사』 6집, 121쪽에서 재인용

20) 같은 글, 106쪽

21) 이송희, 2007, 80쪽 참조

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여성사연구가 다양하면서도 산재된 협소한 주제를 다루면서, 큰 문제를 향한 질문을 던지지 않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치열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른 쟁점 두 가지는 전근대사 연구분야에서는 역사연구와 페미니즘 시각의 결합문제, 그리고 근현대사에서는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이순구는 조선의 가족질서와 관련하여 여성사기들은 여성의 열악한 처지를 강조하고, 마치 남성들이 여성 억압을 위해 가부장제를 창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가부장제는 당시 사회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틀’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억압만을 지적하는 것은 여성에 대해 아무 것도 분석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여자들이 가부장제를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는가 혹은 그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질문해야, 진정한 실제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순구는 페미니즘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여성사를 성공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았다.²²⁾

이에 대해 장병인은 페미니즘 시각에서 접근했던 연구들이 남녀평등 실현에 대한 강한 열망이나 전통시대 여성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의 상대적 지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고 본다. 또한 이런 서술이 ‘근대사회가 저야할 성차별의 책임을 전통사회에 전가하는 역기능’을 불러올 뿐 아니라 보수주의적 여성들의 반발을 불러 온 점도 지적하였다. 장병인은 또한 전통시대 지배층의 명망가여성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서 스스로의 재능을 드러내고 주도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간 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배층 이념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모범이 되었던 여성들의 행동이 “당대의 모순을 자각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과 대결하고자 했던,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장병인은 바람직한 역사서술 방법이라면 ‘시대를 고쳐하며 해당시대의 근본적 모순을 폭로하고 맞서려 한 여성들의 삶과 활동’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에 들어서 일본군 성노예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1993년부터 정신대연구소에 의해 증언집이 발간되고 일본군 성노예문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이 논쟁에서 하나의 입장은 조선인 성노예 문제를 제국주의·민족·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하여 성 변수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가 식민지적 관계와 성 착취의 중층적 착종을 주장한다면, 후자는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의 여성정힘의 특수성이나 천황제적인 가부장제를 강조하면서 전자가 이 문제를 민족문제로 보편화시켰다고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서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관계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여성사학계 내에서는 그다지 큰 견해차나 논쟁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입장의 차이는 여성학 연구자와 여성사 연구자 사이에 드러나는 편이다. 여성사학계 내에서는 한국의 페미니즘이 민족문제를 거부할수록 국민국가 내에서 여성은 영속적으로 소외될 수

22) 이순구, 448-450쪽

23) 장병인, 44-45쪽

있고, 특히 식민지 혹은 포스트식민지 국가에서 페미니즘은 민족주의 현실과 담론에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에 더 지배적이다.²⁴⁾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적 조건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가부장제를 중층적으로 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IV. 여성사와 역사학: 주변화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실증적인 여성사연구가 늘어나면서, 기성 역사학계에서 가족사나 친족의 역사에서 독립된 하나의 분류사로 여성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²⁶⁾ 1994년 한국사시민강좌가, 1995년 역사학보가 여성사를 기획특집으로 다룬 것은 여성사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고, 몇몇 남성 역사가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기획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2007년에는 역사학대회에서 여성사학회가 세션을 열게 되고, 2010년 역사학대회 조직위원회에 해당하는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에 참여가 결정되면서, 이제 여성사는 역사학계에서 그 시민권을 얻게 되면서, 그 일원이 되었다. 이제 여성사연구는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서구의 국가들, 혹은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인정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공인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사연구가 역사학계에서 얼마나 무게 있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기왕의 역사연구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질문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여성사가 역사학의 한 부문으로 들어가는 문제, 다시 말해서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배제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사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거시적으로는 기왕의 역사연구에 여성사가 포함될 경우, 전체 역사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기성 역사학계는 달라졌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한국역사학은 여전히 성 맹적(sex-blind)이다. 여성사에 대한 공인은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페미니스트 역사가들의 높아진 목소리에 비추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역사가 일반의 여성문제, 혹은 젠더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제로에 가깝다. 역사학계의 업적을 2년 단위로 정리하는 〈회고의 전망〉란을 보면, 여성사의 약진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선 범주가 한국사나 동양사는 시대별로, 서양사는 지역별로 정리되어 있어, 하나의 범주로 여성사를 넣기는 어렵다. 그러나 2년의 연구 성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총론에서, 혹은 한국 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50년을 정리하는 도입부 논문에서도 여성사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언급은 찾기 어렵다. 연구업적을 정리하여 평가하는 글에서도 여성사 단행본에 관한 언급

24) 김은실,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10집, 1994, 40-43쪽;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2003, 46-47쪽 참조.

25) 이송희, 2007, 70-72쪽

26) 장병인, 29쪽

은 종종 생략되고 있다.²⁷⁾

섹스나 젠더에 대한 기성 역사학계의 무관심은 그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사회과학계와의 교류나 사회과학 이론이나 방법론의 원용도 드문 편이다. 여전히 사회과학에서 연구의 세 가지 기본 축으로 설정되는 계급, 인종, 젠더 체계에 대한 언급을 역사이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여전히 역사학은 정치화를 피해야 하고, 그리고 계급분석을 통한 역사연구는 ‘정치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힌다.²⁸⁾ 광복 60주년 기념역사학회 특별심포지엄의 결과물로 출간된 『한국 역사학의 성과와 과제』의 도입부 논문에서는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늘 사용해오던 계량화나 정성분석 외에도 철학, 비교사 등에 관심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⁹⁾ 이런 제언은 21세기의 과제와 시대정신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학계의 문제의식은 다른 인접 인문사회과학 분야, 예를 들면 어문학이나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에 비해 현저히 뒤진 것이다.

남성 중심의, 엘리트에 의해 서술된 기성 역사학은 젠더의 잣대를 통해서 새로운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통해서 역사학은 그 통사에서부터 재해석과 재서술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학은 사회과학과의 소통이나 교류를 강화하고, 학제적인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방법론의 정교화를 시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역사서술의 젠더화(gendering)문제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V. 여성사연구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 너머

초기의 여성사연구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일반사의 한 부문으로서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시작되었다. 또한 여성사 연구자의 숫자도 많지 않은 상황까지도 작용하여, 여성사연구는 역사학의 주변부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고립되어 안고 있었다. 여성사연구는 기껏해야 그간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을 다시 역사 속으로 복귀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역사학이 지닌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한 여성사 연구에서 가부장제가 규정한 여성의 역할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허다하게 발견되었다.³⁰⁾ 또한 근대여성사 연구의 경우, 6, 70년대 근대화론이 한국의 지성계를 풍미하면서, 주로 여성교육과 부르주아 여권운동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계급이나 계층에 따른 여성운동이 활발해지고 민중여성

27) 차하순, 「한국 역사학의 유산과 21세기의 과제」, 역사학회 엮음, 『한국 역사학의 성과와 과제』, 일조각, 2007, 17-40쪽; 김두진, 「한국 역사학의 연구성과와 과제」, 같은 책, 41-63쪽; 김영한, 「한국의 서양사 연구 60년 성과와 과제」, 292-329쪽 참조

28) 차하순, 33쪽; 김두진, 59-60쪽

29) 차하순, 57-60쪽

30) 장병인, 29쪽

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기층 여성의 일상적인 삶이나 경험 혹은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 연구도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³¹⁾ 이런 문제의식은 2000년대 까지 이어지고 있고, 한국여성사학회의 창립이나 여성관련 학술지가 늘어나면서, 발표지면도 확대되었다. 더불어 여성사연구의 양적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오면, 그 이전 십여 년에 비해 연구주제도 매우 다양해지면서, 연구의 쏠림도 완화되었다. 여성사의 큰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동연구도 활발해졌다. 또한 한국여성사학회가 역사학대회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사는 역사학계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0년 사이에 여성사연구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런 미비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사의 향후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여성사의 개념과 범주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여성사로 보는 경향이 있고, 사회구조적 조건이나 맥락에 대한 분석 없이 물역사적으로 혹은 통시대적으로 정리하는 낙후한 방식을 차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맥락에서 페미니즘과 여성사와의 관계 혹은 여성사 연구의 시각을 둘러싼 논의가 좀 더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가 새로운 문제의식이자 연구의 범주로 떠오르면서, 여성사연구에서 젠더사 연구로 진화해가고 있다.³²⁾ 이미 여성학이나 사회과학 연구자 사이에서는 젠더 범주가 분과학문 연구의 핵심기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에서는 이런 경향이 약한데, 이는 전통학문의 방법론을 고수하면서, 사회과학의 이론이나 방법론의 원용을 등한시하거나 거부하는 현실과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이다.³³⁾ 이런 현실에서는 여성사연구가 오히려 젠더사 연구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으로 변화를 꾀리는 기존 역사연구에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사 연구자들의 공세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또한 여성사연구가 일반사와의 접맥을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이나 생산노동에서의 젠더화

31)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1994, 298쪽

32) Joan Wallach Scott, *Gender and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1988; 정현백, 『여성사 다시 쓰기. 새로운 여성사의 재구성을 위하여』, 당대, 2007, 22-28쪽 참조

33)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역사학에 사회과학 방법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198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나 주류를 형성하였고, ‘역사적 사회과학’을 표방하는 이들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구조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포스트 모던 사조의 비판도 거셌지만, 여전히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하나의 전체라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조지 이거스, 임상우/ 김기봉 옮김,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1998, 111-113쪽; Hans-Ulrich Wehler, ed., *Historische Sozialwissenschaft und Geschichtsschreibung. Studien zu Aufgaben und Traditionen der deutschen Geschichtswissenschaft*, Göttingen, 1980 참조

(gendering)를 구명한다면, 이를 통해서 젠더의 역사는 역으로 일반사의 전통적인 해석을 뒤엎고, 나아가 한국 역사학의 성 맹성(sex-blindness)을 비판하고 극복해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에는 주로 남성연구자에 의해 쓰인 남성사 관련 글들이 나오고 있다.³⁴⁾ 이들과 연대하면서 공동연구도 함께 진행한다면, 젠더의 역사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사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 민속학적 자료의 활용방안, 구술사의 방법론적 정교화, 새 사료발굴과 사료비판의 방식 개발 등은 여전히 여성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관이고, 이를 극복하지 못 하는 한 여성사 연구의 심화발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특히 여성사의 경우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문헌자료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이 필수불가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좀 더 엄격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젠더의 역사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방식의 새로운 착안과 새로운 해석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사연구자들의 집단적인 협업과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사연구는 실증적인 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 여성사의 통사 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연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의식주생활이나 가족구조, 혼인관계 그리고 계급별 삶의 양태 등이다.³⁵⁾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증적인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해야 하고, 이에 못지않게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연구의 효과적인 조직화가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여성사 연구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여성사연구 인력은 다른 분과사학에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 타 학문에 비해 더 보수적인 역사학계에서 여성이 전임교원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특히 여성사 연구회에서 중진 전임교원의 부족은 연구의 조직화나 물질 기반의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할당제가 위헌판정을 받은 독일에서는 여성사 연구를 진작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사학과는 여성사 담당 정교수직을 배치하는 것이 관행상의 의무로 되어 있다.³⁶⁾ 그래서 큰 대학의 사학과에는 여성사 관련 교수가 한 명씩 있고, 이는 여성사 연구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사를 진작하는 바람직한 사례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34) 토마스 쿨네, 조정식·박은주 옮김, 남성의 역사, 솔, 2001; 나인호, 남자와 여자 개념으로 본 근대의 병리 현상-19/20세기 전환기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105호, 73-103쪽 참조

35) 이승희는 1980년대 이후 민중여성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실제로 민중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여성사연구는 부르조아 여성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승희, 2007, 81쪽

36) 이런 조치에 따라 1986년 아네테 쿤(Annette Kuhn)이 처음으로 본 대학에 여성사 정교수직을 얻게 되었다. 보통 정교수직은 교수 1인, 비서, 박사학위 과정 조교 1-2인, 석사과정 조교 3-4인을 동시에 포괄하는 것이어서, 여성사연구로서는 큰 원군을 얻은 셈이었다. <http://de.wikipedia.org/wiki/Frauengeschichte> 참조

또한 학문분야에 야심을 가진 여성연구자일수록 여성사 연구를 주 전공으로 하기를 기피한다. 그러다보니 여성사 연구를 부전공쯤으로 다루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사연구의 조직화, 즉 여성사학회 관련 활동이나 공동연구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근년에는 남성연구자 중에서 여성사 관련 논문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지만, 이들은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고, 아니면 이는 사회경제사의 관점에서 가족이나 생산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지적 욕구의 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전히 여성사연구나 젠더사 연구는 여성들만의 잔치이기 쉽다.

다섯째, 여성사 연구 내의 협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역사학 연구에서 고질적인 삼분법(三分法)을 지적해야 한다. 서구 역사학의 전통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의해 주조된 한국사-동양사-서양사로의 분할은 분과학문 내에서 경직된 구획화를 가져왔다.³⁷⁾ 사실상 연구에 필요한 언어에서부터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른 분과학문으로 간주될 정도의 생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역사학 내에서, 여성사 연구자들도 서로간의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아시아 여성사 혹은 한국여성사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전이된 서구 여성사의 전유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 역시 현재의 삼분법 안에서 그 성취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역사학계 내에서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삼분법의 극복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공고해진 역사학의 체질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앞에서 여성사연구의 여러 한계점을 지적하였지만,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여성사는 지난 20여 년 사이에 꾸준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는 앞으로의 발전에도 낙관적 전망을 갖게 한다. 또한 여성사연구의 현실과 과제를 성찰하는 이런 발표기회를 통해서, 여성사 연구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한 새로운 사고가 배태되리라 생각한다. 부족한 이 글은 이런 도약을 위한 사고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성사연구의 발전은 젠더사 연구로 이전해가야 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사 연구는 역사 해석의 기존 패러다임 전체에 도전하고, 재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역사를 망각한 그 왜곡된 역사를 온전한 역사로 바꾸어내는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하고, 여기에 여성사 연구자들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짐도 무겁다.

37) 신주백, 「한국 현대 역사학의 3分科制度 형성과 역사인식·역사연구방법」, 『동방학지』 149, 2010; 최갑수, 「한국의 서양사학과 근대성의 인식」, 『서양사론』 95, 2007. 12, 55-58쪽 참조

한국여성신학의 성립과 전개*

박경미(한국여성신학회, 이화여대)

I. 한국 여성신학의 성립과 한국여성신학회의 창립

우리나라에서 여성신학이 하나의 이론분과로서 성립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였다. 이것은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신학과 교회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과 반성이 시작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서구 기독교 신학에서 여성신학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였다.¹⁾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과 유럽에서는 68혁명을 겪으면서 서구 사회를 휩쓸었던 반전운동, 반문화운동 등 다양한 변혁운동과 대안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페미니즘의 물결이 일어났고, 이것이 기독교 신학과 교회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서구사회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은 신학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전통적으로 신학이 신중심적인 언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학에서도 인간 경험의 차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하나님 말씀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이 설득력을 잃고 해방신학, 흑인신학, 정치신학, 세속화 신학 등 인간 삶의 구체적이고 치열한 문제들을 신학의 직접적인 주제로 삼는 새로운 신학적 조류가 생겨났다. 여성신학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일찍이 1960년에 나온 발레리 세이빙(Valerie Saiving Goldstein)의 “인간상황: 여성의 관점에서”(The Human Situation: A Feminine View)는²⁾ 여성신학 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이 글에서 발레리 세이빙은 “죄” 개념을

* 이 글은 2003년에 발표된 필자의 “한국 여성신학 20년”이라는 논문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초기 한국 여성신학의 성립과 전개를 일부 수정하여 기술하고, 거기에 한국 여성신학회의 창립과정과 현황, 최근 10여년 간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여 종합한 것임을 밝혀둔다. 박경미, “한국여성신학 20년”, 『신학 연구 50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서울: 해안, 2003).

1) 물론 19세기 유럽과 미국 전역에 걸쳐 활발하게 펼쳐졌던 여성참정권 운동에는 여성신학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참정권운동은 그들이 속해 있던 서구사회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문제삼는 문명비판적인 요소를 지녔고, 그 점에서 서구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근저에 깔려 있는 기독교와 성서를 문제삼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여성운동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던 Mary Wollstonecraft, *A Vindication of the Right of Women*(London: Penguin Books, 1992); Elizabeth Cady Stanton, *The Women's Bible: The Original Feminist Attack on the Bible*(Edinburgh: Polygon Books, 1985)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실천과 이론을 아우르는 하나의 의식적인 신학운동으로서 여성신학이 가시적으로 등장했던 것을 M. Daly, E.S. Fiorenza 등 여성신학자들의 신학작업이 붓물 터지듯이 터져나왔던 1970년대로 보았다.

2) Valerie Saiving Goldstein, “The Human Situation: A Feminine View”, *Journal of Religion*, vol. 40,

비롯한 기독교 신학의 주요 개념들이 남성들의 경험만을 반영하고 있음을 분석해냈고, 신학에서 “여성의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 후 1968년 메리 데일리(Mary Daly)는 『교회와 제2의 성』을³⁾ 통해 기독교의 남성중심적인 신개념이 가부장주의를 내면화시키고 작동시키는 핵심적인 장치임을 폭로하고 대안적인 존재론적 신개념을 제안했다. 이러한 선구적인 여성신학 작업을 필두로 1970년대, 80년대 서구 신학계의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신학운동의 한 흐름으로서 여성신학이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 여성신학은 신에 대한 인간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여성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⁴⁾ 여기서 여성의 관점이란 어떤 추상적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차별과 주변화의 고통을 받으며 동시에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투쟁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관점이다. 여성신학은 이러한 여성들의 억압과 해방의 경험에 근거하여 전통신학과 교회에 도전하고 영향을 주면서 그 관점이나 영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고, 오늘날은 한국신학의 전 분야에 걸쳐 분명하게 가시적 현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신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신학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초기 교회와 신학에서 여성해방적 함의를 지니는 사건들은 있었다. 특히 1930년대 벌어졌던 여성안수를 둘러싼 논쟁은 성차별적인 교회의 관행과 신학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의지를 보여주며, 가부장적 구조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맥아를 보여주지만⁵⁾ 의식적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이 교회와 신학의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여성신학을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탐구하는 집단이 생겨난 것은 1980년대,

no.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3) 메리 데일리/황혜숙 옮김, 『교회와 제2의 성』(서울: 여성신문사, 1997).

4) 손승희, “여성신학과 한국 교회”,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4집(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15에서 여성신학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5) 감리교는 미국보다 먼저 1931년 여목사안수제도가 성립되었고, 1953년 한국인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최덕지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장로교의 경우 1934년 여전도회가 총회에 여목사 안수를 청원했다. 이 때 여성목사 안수허용을 지지하던 김춘배 목사의 글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반대하던 박형룡 목사와 논쟁을 벌였다. 결국 김춘배 목사가 총회에서 사과하고 징계는 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장로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로 갈라졌고, 이중 소수파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57년부터 여목사안수를 총회에 청원하여 1974년 허락받았다. 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측은 16번이나 부결되었다가 가장 큰 교단인 통합측은 1996년에 통과되었다. 이것은 교회여성지도자들과 한국 여성신학자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성서적, 교회사적 근거를 제공하며 투쟁한 결과였다. 1934년 김춘배 목사 사건이 있던 지 62년만이었다. 여목사 안수제도를 둘러싼 여성들의 투쟁 이전에도 여성신학적 단초들은 존재한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그것은 여성들로부터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유교적 가부장주의에 억눌려 지내던 조선 여성들은 기독교 복음을 통해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들의 자각은 성서해석이나 자기고백, 교회를 통한 여성운동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서울: 기독교문사, 1990); 이덕주, 『한국 감리교 여성교회 역사』(서울: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1991); 양미강, “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6호,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7); 양현혜,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여성과 교회”, 『교회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참조.

구체적으로는 1980년 4월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의 창립이 그 계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신학을 전공한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교회현장과 신학에서 여성억압의 문제를 느끼고, 교회 내 여성운동과 여성신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아시아 교회여성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 16개국의 신학을 전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모인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를 발족시키게 되었다.⁶⁾

이 점에서 한국 여성신학의 첫 출발은 소위 주류 학계의 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현장에서 이름 없이 일하면서 성차별의 문제를 온 몸으로 느꼈던 평신도 여성 지도자들, 여성 목회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사실은 이후 한국 여성신학이 실천적이고 경험중심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여신협 발족을 계기로 각 신학대학, 종합대학 내 신학과, 또는 기독교학과에서 일하는 여성 신학자들을 초대하여 여성신학의 이론화와 동시에 대중화작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초기 여신협의 여성신학 작업의 목표는 전통 신학에 대한 여성해방적 관점에서의 문제제기, 교회 내의 여성 목회자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억압적 현실에 대한 도전이었다.⁷⁾ 박순경, 안상님, 정숙자, 장상, 손승희, 이우정, 주선에 등에 의해 이루어졌던 여신협의 첫 공개강좌들에서는 가부장적 남성들이 지배하는 교회와 신학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⁸⁾ 그 동안 억압되었던 교회 여성들의 경험들이 토로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구 여성신학 서적들의 번역서들도 봇물 터지듯 출간되기 시작했다.⁹⁾ 말하자면 교회와 신학 속에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교회 여성들에게서 구 여성신학의 등장은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개념화하고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6) 1979년 1월 22-23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 모임의 결과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이것이 1980년 4월 20일 출범한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의 모체이다. 1981.4.7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보』 제1호; 『여성신학과 인간화』(서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87), 6 참조.

7) 이 시기 여신협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편, 『여신협 20년 이야기』(서울: 여성신학사, 2000); 김애영, “80년대 한국여성신학의 평가와 전망: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여성신학 10년, 여신협 7차 정립협의회 보고서』, 여신협 창립 10주년 기념강연(서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0); 권미경·이숙진, “한국여성신학의 전개과정에 대한 일고찰”, 『여성·평화 1』,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편(서울: 평화사, 1990) 참조.

8) 이 때 강연 제목들을 보면 박순경, “신학과 여성”, “여성해방의 신학과 과제”, “한국여성신학의 과제”; 이우정, “우리의 현장과 여성신학”, “평화에 대한 여성신학적 해석”; 안상님,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성차별”, “어머니 같은 하나님”; 정숙자, “하나님이 여성에게 말씀하셨다”; 장상, “여성신학과 창조신앙의 의의”, “성서와 여성”, “성서를 바탕으로 한 여성신학”; 김옥라, “여성신학의 성서적 근거”; 주선에 “여신학사의 현장”, “한국교회사 측면에서 본 여성신학” 등이 있다.

9) 이 무렵 번역된 여성신학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레티 러셀의 『여성해방의 신학』(안상님 역, 1979), 『해방의 말씀』(김상화 역, 1980), 『파트너쉽과 교육』(손승희 역, 1982), 『파트너쉽의 미래』(김상화 역, 1983); 로즈마리 류터의 『새여성 새세계』(손승희 역, 1980), 『메시아 왕국』(서남동 역, 1982), 『성차별과 신학』(안상님 역, 1985); 에디드 딘의 『성서로 본 여인의 지혜』(이우정, 안상님 역, 1981); 폴트만 벤델의 『예수 주변의 여인들』(김희은 역, 1982); J.M. 할케스의 『여성신학 입문』(안상님, 김희은 역, 1983) 등이 있다.

계기가 되었고, 여신협이 창설과 활동은 그러한 인식의 적극적인 표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순경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이때 한국 여성신학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지만, 실천적으로 한국여성신학의 현실적인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여신학자협의회”의 창립은 사실상 “한국여성신학의 시작을 공고히 한 신호”¹⁰⁾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여성신학회는 1985년 3월 29일 여신학자협의회 회원 중 신학 분야에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신학회는 처음부터 한국 기독교학회의 가입을 염두에 두고 그 자격요건을 정하고 조직과 형식을 갖추었으나, 기독교학회 가입과정에는 한 차례 어려움이 있었다. 1986년 10월 경주에서 있었던 한국기독교학회 총회에 가입을 신청하고 낙관하고 있었으나, 1차 시도에서 보수적인 남성 학자들의 비토로 가입이 좌절되었다가 이듬해인 1987년 10월 유성에서 있었던 기독교학회 총회에서는 여성신학에 동의하는 몇몇 남성 신학자들의 협조를 얻어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당시 적극적으로 여성신학회 활동을 하던 회원들 대부분이 교수나 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기독교 여성운동을 하던 교회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한국 여성신학회는 1987년 한국 기독교학회 소속 분과학회 중 하나로 정식 가입했으며, 2012년 8월 현재 127명의 회원이 있으며, 그 중 50여명은 활발하게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신학회는 초창기에는 인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안상남, 정숙자, 최만자, 김윤옥, 유춘자 등 열정적인 교회 여성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지속되었다. 창립 초기 10여년 동안에는 주로 회원들의 집에서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으나 그 후 각 대학에 속해 있는 여성신학자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연 4회 전회원이 모이는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을 지속하고 있으며, 석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의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년에 한 차례씩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단행본 『여성신학사상』을 지금까지 9집까지 출간했다.¹¹⁾

한국 기독교학회는 여성신학회를 포함해서 12개의 지학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신학회 회원들은 신구약 성서학회나 조직신학회, 교회사학회 등 자기 전공분야와 관련된 지학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여성신학회에 가입하여 이중으로 활동하고 있다.¹²⁾ 여성신학회 초기

10) 박순경, “여성신학, 교회개혁, 사회개혁”, 『한국여성신학』 2000년 6월 42호, 38-9.

11) 여성신학사상 제1집 『한국여성의 경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제2집, 『성서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제3집, 『교회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제4집, 『영성과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제5집, 『성과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제6집, 『민족과 여성신학』(서울: 한들, 2006); 제7집, 『다문화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제8집, 『선교와 여성신학』(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0); 제9집, 『미디어와 여성신학』(서울: 동연, 2012).

12) 한국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고, 교회가 가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 나뉘어져 있다면, 학회 역시 한국기독교학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로 나뉘어져 있다. 여성신학회는 이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학회에 속해 있다. 예전에는 개별 신학자들 자체도 둘로 나뉘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수진영에서도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취득한 소장학자들을 교수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실제 개별 신학자들 차원에서는 그러한 차이의 격차가 많

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여성으로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강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고, 남성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성신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 개별 지학회에서 여성신학적 주제를 다룰 기회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여성신학적 주제는 여성신학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소지한 여성 신학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각 지학회에서 여성신학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최근 약 10년 동안은 여성 신학자도 많아지고, 여성신학 관련 논문들도 양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해졌는데, 여성신학회 자체는 초창기에 비해 열기와 활력이 떨어졌다. 여성신학은 상대적으로 풍성해졌는데 역설적으로 여성신학회는 빈곤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초창기에는 여성 신학자의 수도 적고 독립적인 신학의 한 분과로서 여성신학의 존립 자체가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여성신학회라는 깃발 아래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절박했고 또 전략적으로 주효했으나, 이제는 깃발 없이 각 지학회에 소속해서 여성 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학계나 일반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결집된 힘으로서 여성적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여성신학자들에게는 이중의 과제가 부여된다. 각 지학회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여성신학회라는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일종의 문명비판, 기독교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의 선봉으로서 여성신학의 자기 목소리는 신학의 각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여성신학회의 결집된 목소리로 들려질 필요가 있다.

II. 한국 여신학자협의회의 활동과 초기 한국 여성신학(1980-90년)의 특징

1980년대 초기 한국 여성신학은 서구 여성신학의 비판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여성신학적 주제로 발전시켰다. 이 초기 여성신학 활동에 대해서 정현경과¹³⁾ 김애영은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정현경은 초기 한국 여성신학이 서구 여성신학을 소개하는 데 머물렀다고 평가한 반면, 김애영은 박순경의 작업을 예로 들면서 통일문제, 민족문제, 민중문제 등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여성신학적 성찰의 주제로 삼았다고 주장했다.¹⁴⁾ 여기에는 여성신학에 대한 상이한 전제

이 해소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신학대학에서도 사회적 변화의 조류를 그들 나름대로 받아들이며 여성신학의 비판적 요소를 누그러뜨린 채 교회와 기독교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소수이지만 여성 교수를 임용하기도 했다. 또한 각 신학대학 내에는 보수 진보를 망라하여 자발적으로 여성신학 공부를 하는 모임들이 존재한다.

13) 정현경은 현경과 동일인이다. 1996년 정현경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2000년경부터 현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14) 정현경, “여성신학의 유형과 한국적 수용 및 비판 1”, 『기독교사상』 1989년 11월, 통권 371호; 김애영(1990), “80년대 한국여성신학의 평가와 전망: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여성신학 10년, 여신협 7차 정립협의회 보고서』 참조.

가 깔려 있다. 정현경은 한국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가 전면
에 부각된 경우를 한국 여성신학이라고 본 반면, 김애영은 여성신학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특수
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결부되어야만 한국 여성신학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두 여성신학자들은 각기 상이한 입장의 끝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여성신학의 전
개와 비교해 볼 때 이 시기 여성신학이 특히 박순경의 영향 아래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와
통일문제에 집중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신학의
전개라고 보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초창기 한국 여성신학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는 1983년 제1차 여성신학 정립협
의회 때 한국 여성신학 정립을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여성신학적인 성서해석과
여성의 인간성 회복, 둘째, 교회공동체의 민주화의 과제, 셋째, 민족분단의 문제와 통일의 과제,
마지막으로 아시아 교회여성과의 연대가 그 네 가지 과제였다. 이렇게 초기에 설정된 과제들은
그 후 여신협의 활동만이 아니라 여성신학자들의 연구작업에서 계속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여성신학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이론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초창기에는 이 네 가지 과제 모두가 기독교 여성운동이라는 실천적 맥
락과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초기 한국 여성신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이 시기의 한국 여성신학은 비판신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여성신학은 여성해방론
을 그 근저에 깔고 있으며, 여성해방론은 단순히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세계 안에서 여성들
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관과 새로운 사회질서를 요청한
다. 여성신학 역시 여성해방론의 하나로서 가부장적 세계관에 근거한 전통신학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을 한다. 여성신학은 새로운 교회질서를 추구하며, “탈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비전과 그러한
비전에 비추어 신과 인간,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성신학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다.¹⁵⁾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이 시기 여성신학의 특징은 실천중심적이라는 점이다. 이 당시 여신협
을 중심으로 한 신학작업들을 보면, 신학교육, 목회현장에서의 여성현실에 대한 관심, 교회변혁,
교회 안의 성폭력, 나아가서 민중, 통일 등 한국사회 전반의 큰 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것은 ‘여신학자’라는 개념 정의에서도 나타난다. 여신협은 이미 설립 당시
‘여신학자’라는 말을 정의할 때 교수나 신학전문가가 아니라, 억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3세
계 교회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학을 규정하면서도 초대 회장이었던 박순경은 이렇게 말한
다. “종래의 특수층의 작업을 지양하고, 교역자, 기관실무자들이 실천적 차원에서 신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신학의 실천적 차원이란 교회가 교회현장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행위하고 사
회문제를 짊어져야 하고 사회를 변혁시켜야 하므로 사회가 곧 신학의 현장이다.”¹⁶⁾ 이것은 여성

15) 손승희(1997), “여성신학과 한국 교회”,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12.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개방성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여성신학에서 여성의 경험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해석학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에 신학이 성서나 교리와 같은 텍스트에서 해석의 출발점을 찾았다면, 여성신학은 여성의 경험을 해석학적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이 해석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한국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열린 관심을 들 수 있다. 민중신학자 서남동의 ‘두 이야기의 합류’에 나타나는 해석학적 통찰의 영향을 받아 한국 여성 민중전통과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만남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이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후일 선순화,¹⁷⁾ 이은선, 최만자, 김윤옥 등이 발전시킨다.

네 번째로 성서해석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성의 의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서이고, 바로 이 성서에 대한 해석을 남성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독점하고 남성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대안적 해석이 시도되었다. 장상, 안상남, 정숙자, 이경숙 외에도 젊은 여성신학자들이 참여하여 여성신학 교재를 발행하였고, 피오렌자, 트리블 등 서구 여성신학자의 해석학과 성서해석 등이 활발하게 소개되었다.

다섯 번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은 한국 여성신학이 처음부터 아시아 여성신학과의 연대 내지는 아시아 신학으로서의 자의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이다. 여신협의 1,2차 여성신학정립협의회 의 공식명칭은 ‘아시아 여성신학 정립협의회’였고, 창립 당시에 설정한 과제 중에도 아시아 교회 여성과의 연대라는 항목이 있었다. 특히 이것은 아시아 여성신학 자료센터의¹⁸⁾ 대표로 활동했던 이선애, 아시아 여성신학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던 정현경¹⁹⁾ 등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했던 여성신학자의 작업을 통해 진전되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한국 여성신학의 중요한 특징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신학적 개방성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민중, 통일신학과의 연대로 나타났으며, 단순히 민중신학, 통일신학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동시에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박순경, 김애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작업들에서 나타난다.

16) 박순경, “신학과 여성”, 『신학과 여성, 강연 제1집』(서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82), 이 글에서 박순경은 여신학자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강단이나 연구실에서 작업하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잘못이다. 신학자라는 말은 새로운 사상적 추세에 따라 재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교역자, 선교교육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실무자, 가정살림에 종사하는 교회 여성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앞의 논문 5-6.

17) 선순화, “한국의 민간신앙에 나타난 여신상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 『여신협 제10차 총회보고서』(서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90).

18) Asian Women's Resource Center에서는 격월간지로 *In God's Image*라는 여성신학 잡지를 출간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선애를 비롯해서 이우정, 최만자, 박경미 등 한국 여성신학자들의 성서해석 및 여성신학 논문들이 실렸다. 또한 여기서 출간한 단행본 *Women of Courage*에도 한국 여성신학자들의 논문이 실렸다.

19) 아시아 여성신학을 주제로 한 정현경의 미국 유니온 신학교 박사학위논문은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박재순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1990)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III. 한국 여성신학의 전개: 여성신학연구의 주제와 쟁점들

1. 여성신학적 성서해석

우리나라 여성신학 운동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행해졌던 것은 여성해방적 성서해석이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성서가 차지하는 신앙적, 정치적 위상 때문에 다른 어떤 과제와 관련해서든 기초적인 신학작업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초기에 장상, 정숙자, 김옥라 등은 처음으로 서구 여성신학자들의 성서해석을 소개하고, 거기에 비추어 한국 교회의 여성억압적 관행과 설교 등을 비판했다.²⁰⁾ 초창기 여성해방적 성서해석은 전문적인 학술논문의 형태라기보다는 쉬운 에세이 형태로 성서에서 감추어진 여성 지도자나 그냥 지나쳤던 여성억압의 사례들을 찾아내어 비판적으로 성찰했다. 이러한 여성해방적 성서해석은 여신도회를 중심으로 여성리더쉽훈련 등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지니는 해석학적 의미는 컸다. 축자영감설이나 성서본문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에 익숙했던 교회 여성들에게 여성해방적 관점에서 성서 본문 자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의심의 해석학’은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경이로운 것으로 여겨져 여성해방적 성서읽기 그룹이 생겨나고, 기독교 여성운동 집단 안에서 창세기나 출애굽기 등을 새롭게 읽어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90년대에 들어 이러한 논의는 전문적인 여성 성서학자들에 의해 여성해방적 성서해석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과 역사비판적, 문학비판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 이론화 작업으로 이어졌다. 여성신학회에서는 『성서와 여성신학』²¹⁾이라는 주제로 학술논문집을 발간했고, 대학에서 성서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여성 성서학자들에 의한 성서해석 저서들이 출간되었다. 이경숙의 『구약성서의 여성들』,²²⁾ 최영실의 『신약성서의 여성들』,²³⁾ 최만자, 박경미의 『새하늘, 새땅, 새여성』,²⁴⁾ 2000년대 들어서는 김호경의 『여자, 성서 밖으로 나오다』, 최영실의 『성서와 여성』, 이영미의 『아시아의 구원신학: 여성 시온 은유를 중심으로』²⁵⁾ 등 여성신학적으로 신구약성서를 해석하는 단행본들이 나왔다. 이밖에도 이와 여성신학연구소에서는 영국 셰필드 대학 출판부와 공동 편집하여 한국 여성신학자들의 현장과 경험에 근거한 성서해석 단행본이 출간되었다.²⁶⁾ 그 외 『신학사상』, 『기독교사상』 및 신구약 성서학회 학회지에 김판임, 윤소정, 김성희 등의 여성신학적 성서해석

20) 정숙자, “하나님이 여성에게 말씀하셨다”; 장상, “여성신학과 창조신앙의 의의”, “성서와 여성”, “성서를 바탕으로 한 여성신학”; 김옥라, “여성신학의 성서적 근거” 강연자료들.

21) 한국여성신학회 편, 『성서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22)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3) 최영실, 『신약성서의 여성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24) 최만자, 박경미, 『새하늘, 새땅, 새여성』(서울: 생활성서사, 1994).

25) 김호경, 『여자, 성서 밖으로 나오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최영실, 『성서와 여성』(성남: 민들레책방, 2004); 이영미, 『아시아의 구원신학: 여성 시온 은유를 중심으로』(서울: 맑은올림, 2004).

26) *Korean Feminists in Conversation with the Bible, Church and Society*, ed. Kyung Sook Lee, Kyung Mi Park(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논문들이 다수 실렸고, 여성신학회에서 2년에 한 권씩 발행한 여성신학 학술논문집에도 각 주제와 관련한 신구약 성서해석 논문들이 실렸다.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여성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주류 성서학계의 성서해석 방법인 역사비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성서가 역사적인 문헌이라는 역사비판적 방법의 대전제를 여성주의적 관점과 접목시키면 성서는 역사적 문헌으로서 남성들에 의해 쓰여졌으며, 가부장적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고, 따라서 남성중심적 성격을 반영하며, 남성중심적으로 왜곡되고 편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역사비판을 여성주의적으로 확대 심화시킨 대표적인 학자로 피오렌자를 들 수 있는데, 한국 여성 성서학자들은 피오렌자가 제시한 네 가지 해석학적 원리들을 중요하게 사용했다.²⁷⁾ 이러한 여성해방적 성서해석은 필연적으로 성서의 경전성과 여성해방적 원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을 요구한다. 특히 해석학적으로 여성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피오렌자의 성서해석 모델을 따를 경우 성서의 경전성과 여성해방적 원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한 해석학적 논쟁이 우리나라 여성신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여성신학이 단순히 이론적인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파고들어가 교회 여성들을 각성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고 할 때 성서의 경전성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곤란한 해석학적 문제에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곧바로 본문을 해석하는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다.

성서의 경전성을 둘러싼 해석학적 문제를 직접 돌파해나가지는 못한 대신 한국의 여성신학적 성서해석은 한국 여성의 경험과 성서의 여성들의 경험을 해석학적으로 관련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역사비판과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서구 여성신학자들의 해석학적 원리에 한국 여성의 삶이라는 소재를 적용하여 해석의 내용을 채워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석방법에서는 문학비판이나 수사학비판보다는 역사비판, 이데올로기 비판을 철저하게 수행한 여성신학자들의 작업이 영향을 끼쳤다. 신학적으로는 메리 데일리나 케롤 크리스트 류의 탈기독교적, 여신숭배적 관점에서 성서 본문을 보다 급진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류터나 리셀, 트리블 등의 해방신학적, 신정통주의적 입장에서 성서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서 본문을 ‘신화적 원형’이 아니라 ‘역사적 모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오렌자의 주장은 성서 본문에 대한 혁명적이고도 비판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한국의 여성해방적 성서해석에서는 성서본문의 남성중심성을 밝혀내는 작업 정도로 구체화되는 데 머물렀고, 성서의 경전성과 관련하여 그 선언이 지니는 해석학적 함의가 충분히 발전되지는 못했다. 특별히 여성해방적 성서해석의 비판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서구 여성신학자들의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성서학계에 기왕에 사용되었던 성서해석 방법들, 즉 역사비판, 사회학적 방법 등이 유효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아마도

27) 즉 “의심의 해석학”, “여성해방적 선포의 해석학”, “회상의 해석학”, “창조적 재현의 해석학”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우정 편, 『여성들을 위한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91-118에 나오는 피오렌자의 논문 “여성해방을 위한 성서해석 방법” 참조.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근본주의적,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의 망령을 몰아내는 데 그러한 방법론들이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만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 여성의 성서해석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성찰하고, 한국 여성의 해방경험과 관련하여 성서해석의 새로운 원리들을 발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신학’이라는 주제에 좀 더 다가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구체적인 본문해석으로 들어가보면, 여성해방적 성서읽기 작업은 신약성서의 여성 관련 본문들에 대한 남성 학자들의 왜곡된 해석을 비판하는 작업과 함께 성서 본문 자체 안에 들어와 있는 가부장적 성격 비판, 그리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한국 여성의 삶에 비추어 본문을 해석하는 상황적 해석 작업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찍부터 신약성서의 다양한 본문들이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창조설화와 출애굽 사건,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구원사건들에서 여성의 역할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신약성서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당시 가부장적 유대교의 일반적 관행에 비추어 얼마나 파격적이고 여성옹호적이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일차적이었다. 그리고 예수 주변에 있던 여성들과 그들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예수의 하나님나라 선교운동의 조역이 아니라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성서기자와 남성 해석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가려졌으며, 침묵 당해왔다는 것이다. 다음에 바울과 관련해서는 흔히 바울이 반여성적이었다고 비판받는 주요 구절들을 재해석함으로써 바울을 여성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여성들을 침묵시키고 성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바울이 쓴 편지이므로 바울 당시의 시대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 본문들을 재해석함으로써 바울에게 씌워졌던 여성억압의 혐의를 벗기고, 바울을 여성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더 나아가서 특정 본문들은 편집비평을 통해 바울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 가부장주의적이고 교회주의적인 편집자의 글로 배제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울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여성 예언자들, 선교자들의 모습을 발굴하고 되살려놓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구약성서의 경우는 주로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지도자들, 가령 드보라를 위시하여 한나, 미리암 등을 여성 주체적인 관점에서 되살렸으며, 더 나아가서 기왕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치부되었던 여성들, 가령 와스디나 하갈 같은 인물들을 성서의 구원사적 맥락이 아니라, 여성해방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작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분단과 계급차별, 성차별의 질곡 속에서 고통 당해온 한국 현대사 속의 여성의 경험과 관련하여 성서의 여성들을 해석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여성신학의 성서해석 작업을 추동시킨 현실적 관심사는 여성성직, 안수 문제 같은 교회 내의 여성문제에서부터 구체적인 오늘의 여성들의 복잡한 삶의 차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정신대 여성,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고통,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민중 여

28) 최만자, “한국 그리스도교 여성의 경험에서 본 성서해석”, 『성서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42-143.

성의 문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 그리고 일제시대에서 6.25, 군사정권, 광주 민중항쟁, 오늘의 지구화 시대, 생태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역사를 추동하는 끈질긴 생명력이 되어온 한국 여성들의 삶 그 자체가 성서해석 작업을 가능하게 한 내적 동력이자 성서 본문을 상황화 시키는 동기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실천적 학문으로 출발한 한국 여성신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학계의 여성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업들뿐만 아니라, 대학 밖에 여성교회나 여신협, 기독교 여성단체들에서 현장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성서해석 작업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³⁰⁾

한편 2000년대 이후 여성해방적 성서해석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김성희, 박혜정, 배현주³¹⁾ 등의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의 여성주의적 성서읽기 작업이 두드러진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며, 성서해석의 주제들이 훨씬 더 다양화 되고, 젠더 이슈들이 계급문제나 통일문제에 비해 전면에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1980-90년대에는 예수나 바울의 여성관, 구약에서는 여성 리더십을 위한 롤모델 발견 등으로 제한되었다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좀 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변화를 반영하는 주제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여성주의 리더십의 모범을 성서에서 발견한다 하더라도 김호경의 『여자, 세상 밖으로 나오다』(2006), 구미정의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성들』(2012)은 문제나 성서의 여성에게 투영시킨 문제의식 자체가 좀 더 가볍고 발랄하다. 과거 1980-90년대의 사회정치적 색채는 후퇴하고, 대신 성서의 여성을 살아 있는 욕망의 주체로, 육체와 감정을 가진 한 개인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달라진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회민주화와 여성교회론

여성신학적 측면에서 교회론과 목회에 접근한 것으로는 여신협 목회연구위원회의 『한국여교역자 실태보고서』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여성안수문제, 여교역자의 현실에 대한 조사활동을 했고, 이것이 주요 교단의 여성안수와 여교역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발한 실천운동을 뒷받침하는 여성신학 이론화 작업으로 이어졌고, 이런 노력이 밑받침이 되어 1989년 제1차 한국여성목회자대회가 개최되었고, 여교역자 연합회도 창립되었으며, 예장 통합 측에서 여성목사 안수가 통과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주기도문’을 남성중심적인 언어로 다시 번역하려는

30) 정숙자 외, 『생존과 해방을 위한 여정』(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안상남, 『여성신학 이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편,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기독교여민회 신학위원회, 『성서가 보는 여성 여성이 보는 성서』(서울: 독두, 1994) 등.

31) Seong Hee Kim, *Mark, Women and Empire: A Korean Postcolonial Perspective*(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Seong Hee Kim(2011), “Our(Neither) Mother and(Nor) Father in Heaven: A Postcolonial Reading of the Lord’s Prayer”, *Korean Feminists in Conversation with the Bible, Church and Society*.

시도에 대해 NCC 여성위원회, 여신협, 여성신학회, 세 단체가 함께 저지하고 양성평등적인 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여성교회론과 관련하여 여러 여성신학자들의 논문들과 저서가 나왔다. 이중 여성교회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책은 1997년 여성신학회 논문집으로 나온 『교회와 여성신학』이다.³²⁾ 이밖에도 『한국여성과 교회론』³³⁾, 1997년 한국기독교학회의 총회 주제로 채택된 『여성신학과 한국교회』³⁴⁾ 중심으로 신학의 각 분야에서 쓰여진 다양한 논문수록집, 김정숙의 『여성목회와 권위: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에서 논하는 권위의 문제』가 있다.³⁵⁾ 교회론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여성신학적 접근의 핵심은 기존의 교회론과 교회 관행에 대한 여성신학적 비판과 여성교회 개념의 정립, 그 성서적, 신학적 근거 찾기, 그리고 새로운 여성신학적, 대안적 교회모델 제시에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교육과 근본주의, 세계화 시대 기독교교육의 문제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임희숙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교육』은 기독교교육이라는 교회의 실천적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분석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여성교회론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⁶⁾ 손승희,³⁷⁾ 이경숙, 양현혜³⁸⁾ 등은 각기 성서와 교회사, 한국 교회 속에서 남성중심적 신학과 교회의 가부장주의적 구조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을 밝히고 그 속에서 억눌리고 감추어졌으나 여성들이 이어간 교회의 역사의 흔적을 찾고자 했다. 이밖에 여성평신도로서, 목회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교회의 남성중심적 관행을 비판하고 평화공동체로서 여성교회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들도 있다. 김윤옥은 설교에 나타난 성차별적 언어와 이미지, 논리들을 분석했고, 정숙자는 여성교회 목사로서 목회한 경험을 통해 여성예배의식, 여성목회의 실천적인 대안들을 찾고자 했다.³⁹⁾

본격적으로 여성 교회론의 신학적 기초를 세우는 작업으로 박순경의 “하나님나라와 여성교회”라는 논문을 들 수 있다.⁴⁰⁾ 박순경은 이 논문에서 성서적 개념인 하나님 나라에 기초해서 여성교회론의 신학적 토대를 설정하고 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비유, 혹은 표징으로서의 공동체이며, 여성교회와 여성신학의 목표는 남녀평등의 새로운 교회구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의로운 주권을 세계와 역사에 증언하는 것이다. 또한 박순경은 교회의 본질을 성령에 힘입어 새 사람의 탄생을 매개하는 성모 마리아와 관련시킴으로써

32) 한국여성신학회 편, 『교회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33)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 편, 『한국여성과 교회론』 여성신학논집 제2집(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4) 한국기독교학회 엮음, 『여성신학과 한국교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35) 김정숙, 『여성목회와 권위: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에서 논하는 권위의 문제』(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36) 임희숙, 『기독교 근본주의와 교육』(서울: 동연, 2010).

37) 손승희(1997),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35.

38) 이경숙(1997),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아웨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 『교회와 여성신학』, 19-41; 양현혜(1997),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여성과 교회”, 같은 책, 136-168.

39) 김윤옥(1997), “한국교회 설교에 대한 여성신학적 문제제기”, 앞의 책, 230-247; 정숙자(1997), “한국 여성교회 현장과 그 신학”, 앞의 책, 248-263.

40) 박순경, “하나님 나라와 여성교회”, 『기독교사상』, 1993년 1월, 통권 409호, 183-196.

교회를 어머니 공동체라고 묘사했다. 이 때 교회의 어머니 됨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해서 인간성 전체를 대표하는 여성 인간성이다. 이러한 어머니 공동체로서 여성교회는 종말적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비유며, 형상이라는 것이다.⁴¹⁾ 이밖에도 “여성신학, 교회개혁, 사회변혁”이라는 논문에서 박순경은 “여성신학적 교회개혁의 요청과 여성해방은 계급해방과 민족, 민중의 해방을 요청하는 세계 사회의 변혁운동들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⁴²⁾ 박순경에 의하면 교회개혁은 필연적으로 현대 세계 사회의 변혁운동들과 피억압자의 해방이라는 주제와 연결된다. 박순경은 세계사회의 문제를 자본주의 지배세력의 문제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혁명은 복음의 혁명적인 성격을 파악하도록 각성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박순경은 서구와 우리나라 기독교사상에서 이러한 대립을 넘어서는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의 흐름을 짚고, 오늘날의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를 넘어설 민중 여성해방의 비전을 제시한다. 민중 여성해방은 그러한 완성의 척도이며, 교회여성의 해방은 세계 사회의 민중해방과 인류공동체의 종말론적 완성을 담지하는 표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박순경은 교회 공동체의 근원으로서 구원의 어머니 성령을 언급하고, 기존의 삼위일체적 성령론을 재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성서와 삼위일체론에서의 아버지-아들 칭호들은 단순히 가부장적 남성언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와 세계 사회의 공동체적 관계, 혹은 인간의 부자관계나 모녀관계 등 인간의 원초적인 사회성의 근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격적 자유와 사랑의 관계의 근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⁴³⁾ 또한 이러한 신적 칭호들은 신의 여성적 차원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성령론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론을 여성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의 남성중심적 언어는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도 여성해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그 언어 매체 자체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여성해방적인 의미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⁴⁴⁾ 강남순은 위의 박순경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를 비판했다. 첫째, 강남순은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 상징의 문제를 지적했다. 성령을 여성적으로 언급하면서 기존의 가부장적 삼위일체론적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보충적 성차별주의적 신학”(sexist theology of complementarity)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 성령의 상징은 가부장제적 문화에서처럼 아버지인 하나님을 보조하는 역할인 어머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가부장적 하나님 상징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강남순은 과연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여성해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강남순은 박순경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 자본주의가 제도교회로 영입됨으로써 복음정신을 상실하였다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해방은 사회개혁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강남순은 마르크스적 분석

41) 앞의 논문, 193, 196.

42) 박순경(2000), “여성신학, 교회개혁, 사회변혁”, 『한국여성신학』, 40.

43) 앞의 논문, 45-61.

44) 강남순. “여성신학, 교회개혁, 사회개혁에 대한 논찬”, 『한국여성신학』, 2000년 6월, 42호, 68-79.

이 여성 억압의 깊이와 범주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동조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억압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되는 여성들의 억압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석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해방을 위한 비전 제시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한계를 지적했다.⁴⁵⁾

박순경의 논의에 대한 강남순의 비판은 실제로 더 논쟁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서 여성주의 이념과 여성신학에서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박순경의 경우 바르트 좌파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적 계시뿐만 아니라 기존의 삼위일체론적 언어까지 인정한다. 따라서 여성교회론을 전개할 때도 그리스도 계시의 역사성과 종말론적 성격이 지니는 사회변혁적 성격, 불의한 기존체제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의 성격을 여성해방적 차원으로 확대, 재해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경우 그리스도 계시와 하나님을 서술하는 기존 언어들의 남성중심적 성격이나 계시의 변혁적, 종말론적 성격을 기술하는 술어로서 마르크시즘이 지니는 남성중심주의는 시야에 중요하게 들어오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서의 그리스도 사건이 지니는 종말론적이고 변혁적인 차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긍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지니는 여성해방적 함의를 기술하다보니 실제 교회와 신학의 역사에서 왜곡되고 때가 많이 탄 언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이데올로기 비판이 불철저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이렇게 계시사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성신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의 경험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는 새롭고도 혁신적인 언어가 여성신학의 핵심적 술어로 전면에서 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박순경의 여성신학 방법론은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여성신학 전반의 암묵적인 합의와도 다른 지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순경의 여성교회론은 교회와 전통 기독교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본래의 성서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에 터잡게 함으로써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목표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논의들은 이론적으로 성서와 교회사에서 여성 교회론의 근거를 찾고, 대안적인 교회론으로서 여성교회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제도와 관행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개된 여성 교회론의 일반적인 경향은 박순경과 같이 사회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기존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분리주의적 형태로 전개되기보다는 기존 교회 형태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지닌 가부장적이고 여성억압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 동안 한국 여성교회론은 탈기독교적 이념적 과격성보다는 성서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여성의 사회정치적 경험과 여성신학

1985년 발간된 『한국기독교여성백년사』와⁴⁶⁾ 이우정의 『한국기독교여성백년의 발자취』⁴⁷⁾를 필

45) 앞의 논문, 70-79.

46)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여성분과위원회 편,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한

두로 양미강, 양현혜, 서현선의 지속적인 한국 교회사 속의 여성 발견 작업은 남성들이 기록한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감추어져왔던 초기 한국 교회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재현해놓았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독립운동, 군사정권 시절의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성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여성들의 모습에 견줄 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초기 한국 교회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되살려 놓았다.

1994년 여성신학회에서는 『한국 여성의 경험』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하였고, 여기에는 여성의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이해를 비롯하여 각 시대별로 한국 여성들의 경험을 다루는 논문들, 그리고 한국 여성의 종교경험과 한국 여성의 경험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편의 논문들이 실려서 한국 여성들의 경험의 보편적인 특징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 책의 편집자들은 한국 역사 속에 나타난 한국 여성의 경험은 민족모순, 계급모순, 성모순이라는 삼중적 모순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았고, 일제하 정신대 여성의 문제야말로 이런 삼중적 억압을 받은 대표적인 한국 여성의 경험이라고 했다.⁴⁸⁾ 이러한 인식은 80년대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사회구성체 논쟁과 여성학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결론들을 별다른 이론적 반성 없이 그대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와 그 속에서의 여성들의 삶을 기술하고 억압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세 가지 모순을 그냥 그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호 간의 우선관계 규명이 필요했고, 1980년대 사회과학 이론과 여성학 이론은 사회구성체 논쟁과 여성해방 이론 투쟁을 통해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논쟁의 과정에서 계급모순, 민족모순, 성모순이라는 추상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이론투쟁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관념적인 이론투쟁으로 흐른 측면이 있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긴장의 원인으로 민족모순, 또는 계급모순을 지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환원주의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한국 여성신학계에서는 이러한 논쟁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 입장에 서지도 않았으면서 별다른 이론적 성찰 없이 그 논쟁에서 사용되었던 ‘모순’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어서 한국여성의 경험을 서술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민중신학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민중, 혹은 여성들의 ‘사회전기’라는 말이 그 책에 실린 내용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에 더 맞지 않았나 생각된다.⁴⁹⁾ 실제로 한국 여성신학자들은 한국 여성들의 억압과 해방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서 언급한 책들만이 아니라 각 교단에서 발간한 한국 교회 여성운동사⁵⁰⁾,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증언과 여성들

국기독교여성백년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47) 이우정, 『한국기독교여성 백년의 발자취』(서울: 민중사, 1985).

48) 한국여성신학회 편, 『한국여성의 경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20, 234.

49) 통일 문제에 대한 보다 실천신학적인 접근으로는 정희성, “남북한 여성의 치유적 선교를 위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1집, 2001, 313-341.

50)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성교회의 역사』(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1991); 이우정, 이현숙 공저, 『여성도회 60년사』(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도회 전국연합회, 1991); 주선애, 『장로교

자신이 쓴 『나의 이야기』⁵¹⁾, 분단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증언한 여성들의 이야기⁵²⁾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기술해왔다.

한국 여성의 근현대사 경험과 관련한 신학적 작업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족의 통일과 관련하여 전개된 여성신학 작업이다. 박순경은 일찍부터 동학, 실학사상 등 근대 민족의 위기극복과 관련하여 등장한 주체적 한국 종교, 철학사상과 그 의의에 주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민족해방을 위한 담론으로서 기독교와 사회주의 운동의 대화와 접목 가능성에 대해서도 성찰했다. 이러한 이론작업은 현재 한국이 처한 민족분단의 위기 속에서 통일을 민족사적 절대절명의 과제로 파악하고, 분단으로 인한 좌우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민족해방으로 인도할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사상적 탐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관된 노력이었다.⁵³⁾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통일의 미래를 향하여 민족을 이끌고, 이를 위한 산고의 노력을 하는 새로운 여성상으로 ‘민족의 어머니’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박순경과 그 뒤를 이은 김애영의⁵⁴⁾ 여성신학 작업은 무엇보다도 한국 여성신학의 맥락으로서 ‘민족’을 발견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민족주의는 우익의 이념으로서 그것이 여성주의와 접목된다는 것은 서구 여성신학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분단상황에서 민족통일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는 좌파사상으로 낙인찍혀왔다. 박순경은 1980년대 엄혹한 상황에서도 이 주제를 놓지 않았고, 주체사상까지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주제는 늘 국가주의의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국가주의의 일차적 희생자였다. 자본주의 국가든 구 사회주의 국가든 국가는 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불공정의 제도화’를 확고히 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억압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순경이 제시한 모성성의 원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성원리는 그 동안 국가가 자기확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때 흔히 사용해왔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순경에 의하면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반동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해 책임적이고 주체적으로 응답하는 인간의 전형이자 상징이다. 박순경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도 어떻게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있을지는 문제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여성의 희생을 요구할 때 주로 사용되어온 모성 이데올로기를 새삼스럽게 여성신학에서 사용할 때 본래의 의도대로 여성의 주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민족의 실체로서 여성민중을 부각시키고, 분단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신학작업의 중심적 주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박순경과 김애영의 이론작

여성사』(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978).

51) 김옥라 외, 『나의 이야기』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편(서울: 여성신학사, 1995).

52)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제 4.5.6차 여성신학정립협의회 보고서』(서울: 여성신학자협의회, 1989).

53) 박순경, 『한국민족과 여성신학의 과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박순경,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미래』(서울: 대한기독교출판부, 1984); 박순경, 『민족통일과 기독교』(서울: 한길사, 1986); 박순경, 『민족통일과 여성의 과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박순경, 『통일신학의 미래』(서울: 사계절, 1997).

54) 김애영, 『한국여성신학의 지평』(서울: 한울, 1995).

업은 보기 드물게 진지한 것이었다.

이외에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의 연계를 모색하는 작업도 있었다. 이론적 차원에서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의 관계에 대한 고찰, 그리고 대화를 위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손승희, 김애영, 김희은, 박경미 등이 이 작업을 했다. 손승희는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이라는 논문에서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이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특별히 자신의 지속적인 관심 주제였던 ‘몸’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성신학을 이해하고, 민중신학과의 대화를 시도했다.⁵⁵⁾ 이 밖에 박경미는 서남동, 안병무를 중심으로 한 민중신학 초기 이론들에 나타나는 여성신학적 단초들을 발견하고자 했으며,⁵⁶⁾ 김애영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민중신학이 지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한계를 지적했다.⁵⁷⁾ 이러한 논의들은 민중신학 자체 안에 있는 여성신학적 동기를 발견하고, 민중신학이 지니기 쉬운 가부장적 독단주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여성신학이 견지해야 할 해방적, 민중적 관점의 심화를 위해 상호 발전적으로,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이념적 편향성을 배제한 채 한국 여성의 경험과 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여성신학회에서는 한국 민중 여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비문학과 한국 전통 종교들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경험과 내면세계를 발굴해내는 작업을 했으며,⁵⁸⁾ 여신협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성해방과 민중해방을 위해 땀흘리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기록인 『나의 이야기』와 김혜원, 유춘자, 이호순, 정숙자의 『네 여성신학자 이야기』를⁵⁹⁾ 출간했다. 이 책들은 기록된 역사뿐만 아니라 구비문학, 인터뷰, 개인적인 삶의 고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되살려놓고 있다. 이 기록들은 개인적인 고백과 회고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험난했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들어서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삶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기술을 넘어서서 한국 근현대 민중여성의 사회전기라고 할만하다.

이밖에 김윤옥은 기독교 여성평화 연구원을 설립하고 기독교 여성 평화운동, 환경운동의 현황을 보고하고 이를 신학화하는 무크지 『여성 평화』를 발간했으며, 풍부한 여성평화운동, 교회 여성운동,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운동 경험에 근거하여 기독교여성운동과 여성신학을 관련시키는 여러 편의 논문들을 썼다.⁶⁰⁾ 여성교회 목사로서 문혀 있던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하

55) 손승희, “여성신학과 민중신학- 몸을 긍정하는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여성신학의 이해』(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56) 박경미, “민중신학과 여성신학”, 『여성 평화 생명』, 이우정 선생 교회기념 논문집 편찬위원회(서울: 경세원, 1993).

57) 김애영(1995), “여성신학과 민중신학”, 『한국여성신학의 지평』, 200-223.

58) 한국여성신학회 편, 『한국 여성의 경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59) 김옥라 외, 『나의 이야기』,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편(서울: 여성신학사, 1995); 김혜원, 유춘자, 이호순, 정숙자, 『네 여성신학자 이야기』(서울: 여성신학사, 2010).

60) 김윤옥, “197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 여성운동”,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편, 『생존과 해방을 향한

고 이를 신학화하며, 현장에서 여성주의적 성서해석 작업을 펼쳤던 정숙자와⁶¹⁾, 안상님의⁶²⁾ 작업 또한 한국 여성의 경험을 신학화한 작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신들의 여성해방운동의 경험들을 보고하고 이를 신학화하고 있는 이현숙,⁶³⁾ 김정수⁶⁴⁾, 임희숙,⁶⁵⁾ 유춘자,⁶⁶⁾ 한국염,⁶⁷⁾ 그리고 여신협 현장신학화 작업반의 작업들이 이 방면의 중요한 연구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980-90년대의 여성신학 작업이 사회경제적 현상 자체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면, 2000년대 들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경험과 관련한 여성신학적 작업은 그러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경험을 하는 여성의 내면세계로 집중한 경향이 있다. 박순경, 김애영이 여성신학적 민족담론을 전개했다면, 이숙진은 개신교 민족담론이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다루고 있다.⁶⁸⁾ 여성신학회에서 출간한 『다문화와 여성신학』에 실린 논문들도 자본주의 세계화 과정과 다문화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은 건너뛰고, 성서와 오늘날 한국에서의 다문화 여성들 개인에 집중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목회, 다문화 사회에서의 세대간 갈등 문제 등 구체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다. 오현선의 논문 “육구와 통제 사이: 여성이주민의 현실과 여성신학의 과제”⁶⁹⁾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여성신학회에서 발간한 『미디어와 여성신학』에 실린 논문들도 대중매체와 대중적 신앙서적, 자기계발 담론, 드라마 등을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다.⁷⁰⁾ 특히 기독교윤리학을 전공하는 백소영, 이인정은

여정』(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김윤옥, “서남동의 생태학적 신학과 생태학적 여성신학” 축제 서남동목사 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편, 『전환기의 민중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김윤옥, “한국 여성신학의 해석학: 신앙, 경험, 실천과 신학”, 『신학하며 사랑하며-한국 기독교의 거듭남을 위하여』(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김윤옥, “21세기 기독교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여성신학』 2000년 9월 43호, 154-164; 김윤옥, “행동하는 여성신학의 힘”, 『한국여성신학』 2009년 7월 69호, 148-154; 김윤옥, 『빛장을 풀다 평화를 살다: 김윤옥 회고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61) 정숙자(1999), “해방공동체와 이스라엘 왕국에서의 파트너십-아시아 여성의 눈으로 보는 구약성서 해석의 모델”, 『여성목회와 여성교회』,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정』; 정숙자, “교회와 코이노니아-여성신학적 입장에서”, 한국기독교학회 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 『교회와 코이노니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62) 안상님, 『여성신학 이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63) 이현숙, “분단 후 민중여성의 고난과 한국 교회 여성운동”, 『전환기의 민중신학』, 축제 서남동 목사 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116-138; 이현숙, “아시아 여성, 우리는 누구인가?”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정』(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64) 김정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 신학적 성찰-다름과 차이의 긍정과 화해에 대하여”, 2000년 5월 한국 여성신학회 제9회 심포지엄 발제 자료집.

65) 임희숙(1993), “평화통일과 회전에 대한 여성신학적 반성과 전망” 『여성 평화 생명』.

66) 유춘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성해방의 영성”,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편 『여신협 20년 이야기』(서울: 여성신학사, 2000).

67) 한국염, “한국 역사에 나타난 여성차별” 『기독교사상』 1991년 5월; 한국염(1999), “아시아 여성과 마리아”,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정』.

68) 이숙진, “한국 근대 개신교 민족담론과 여성”, 『민족과 여성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6).

69) 한국여성신학회 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 2007. 5. 12. 이외에도 “이주민과 다문화주의의 정의로운 공존을 위한 하나의 대안”, 『다문화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대중매체를 비롯한 문화현상과 모성 이데올로기, 생명윤리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여성신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서 2000년대 들어 젊은 여성신학자들의 작업은 그야말로 다양화와 다변화, 각개약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⁷¹⁾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작업 중의 하나는 생태여성신학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면에서는 구미정과 김은혜의 작업이 두드러진다. 구미정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인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에서 현대문명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주의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억압과 자연억압이 하나라는 생태여성주의의 통찰을 기반으로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를 접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⁷²⁾ 김은혜는 『생명신학과 기독교문화: 생명 문화 여성』에서 오늘날 세계의 반생명적인 문화현상을 분석하고 문명전환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생명신학과 생태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⁷³⁾

4.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여성신학적 해석

1980년대 초부터 이우정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여성과 민중의 모습을 중심으로 여성과 민중의 지혜를 발굴하고 이들을 역사의 주체로 해석했으며, 여성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한국 전통문화와 여성신학”이라는 논문에서 이우정은 민중여성의 전통문화에 나타난 고난과 항거의 역사를 밝히고, 한국 민중여성이야말로 역사의 주체라고 했다.⁷⁴⁾ 이우정은 한국의 무가, 신화, 전설 등에 나타나는 한국의 여신상을 언급하며, 한국에는 남신들보다 여신들이 훨씬 많이 있었으며, 남신은 대식가이며 육식을 하고 남의 것도 분수없이 먹어버리는 미련한 침략자의 모습인 반면, 여신은 땀흘려 농사를 짓고 그 노동의 대가로 열매를 거두며 침략을 모르는 신으로 묘사된다고 말한다.⁷⁵⁾

이처럼 한국민중여성 문화의 살아 있는 산물인 무가, 신화, 전설 등에 나타난 여성의 지혜와

70) 이인경, “대중매체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서바이벌 방식의 TV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숙진, “대중적 신앙서적과 성별화된 자기계발 담론”; 백소영, “여성신학적 시각에서 본 한국 드라마”, 『미디어와 여성신학』(서울: 동연, 2012).

71) 백소영, 『엄마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21세기 한국 개신교 기혼여성의 ‘모성’경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백소영, “19세기를 사는 21세기 그녀들 -개신교 도시 미혼여성의 신앙, 젠더의식과 문화 혼종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vol. 68, 2010; 백소영, 『드라마틱: 예수님과 함께 보는 드라마』(서울: 꿈꾸는터, 2010); 백소영, “평등한 창조를 부정하는 순종론을 깨라”,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는 기독교 이야기』 13장(서울: 자라; 내일을 여는 책, 2012); 이인경, “여성의 희생과 교회의 폭력에 대한 여성신학적 분석”, 『한국여성신학』 2002년 12월 51호, 48-57; 이인경, 『에큐메니칼 페미니스트 윤리』(서울: 한들, 2005); 이인경, “생명공학 시대의 모성에 대한 페미니스트 윤리적 분석: 출산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삶, 죽음 그리고 기독교윤리』(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이인경, “기독교 여성담론의 주체와 주제”,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vol. 1, 2008.

72)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서울: 한들, 2005).

73) 김은혜, 『생명신학과 기독교문화: 생명 문화 여성』(서울: 쿠파, 2006).

74) 이우정(1983), “한국전통문화와 여성신학”, 『한국 여성신학의 과제』.

75) 앞의 논문, 72-74; 이우정에 대한 평가는 최영실(1998). “한의 질곡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한국 여성신학”, 『신학사상』 100호, 126-7 참조.

끈기, 해학에 대한 이우정의 연구는 비록 여성신학적으로 충분히 해석되거나 발전되지 못했고, 우선 발굴하고 여성들의 지혜에 감탄하고 탄복하며, 찬양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했어도 한국 여성신학의 중요한 소재와 성찰의 지점을 선구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이우정의 작업은 선순화의 한국 무속에 대한 여성신학적 연구, 1997년 여신협 한국여신상연구반에 의해 연구된 ‘한국 민간신앙에 나타난 여신상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에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민간신앙에 나타난 여신들이 어떻게 섭리를 주관하며 인간 생명창조를 주관하는 신으로 부각되는지를 밝히고 있다.⁷⁶⁾ 한국의 기층 여성 종교문화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을 할 경우 한국 무속과 만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종교학자 차옥송의 연구들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⁷⁷⁾

이러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여성신학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민중신학자 서남동의 작업이 많은 통찰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영향을 끼쳤다. 서남동은 기존 신학적 해석학의 텍스트와 콘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물구나무 세워서 오늘의 한국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사건이 텍스트이고, 성서나 교리, 기존의 신앙고백은 콘텍스트로서 한국 민중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해방 역사를 증언하기 위한 한 전거일 뿐이라고 말했다.⁷⁸⁾ 여기서 유명한 그의 ‘두 이야기의 합류’ 방법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한국 민중전통에 나타나는 민중의 사회전기와 성서 전통에 나타나는 민중의 해방사건이 오늘 민중의 삶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학이 할 일은 성서 밖의 한국 역사와 종교 문화 전통에 나타난 민중의 사회전기를 기술하고, 성서의 민중 해방사건을 전거로 삼아 오늘의 민중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해방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고난받는 민중의 눈으로 성서를 보면 성서의 이야기들도 민중의 사회전기로 읽힐 수 있으며, 당시 서구에서 다양하게 발전되었던 사회경제사적, 사회학적 성서해석 방법을 통해 그것을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두 이야기의 합류” 방법은 특별히 최만자에 의해 여성신학적 해석학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으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고난과 해방의 경험들을 재기술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해석학적 틀로 사용되었다.

한편 한국과 동아시아의 사상적 전통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 재구성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한국 유교사상과 관련해서 이은선의 작업과 도교와 관련해서 강남순의 작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은선은 1997년에 나온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 여성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을 유교 사상에 근거하여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여성조직신학 탐구: 聖·性·誠의 여성신학』(2004), 『한국 생물 여성영성의 신학: 종교성 여

76)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신상연구반 편 『한국 민간신앙에 나타난 여신상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 (서울: 여성신학사, 1992); 최영실(1998), 127 참조.

77) 차옥송, 『무교』(서울: 서광사, 1997); “무(巫)에서 살펴본 한국 여성의 종교경험”, 『한국여성과 교회론』, 이화여성신학연구소 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신종교와 무속 ; 신종교와 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종교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vol. 9, 2003; “젠더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무(巫)”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연구』 vol. 22, 2012.

78) 서남동, “두 이야기의 합류” 『민중신학과 한국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271-2.

성성 정치성의 한몸짜기』(2011)에서도 계속 발전되었다. 이은선은 유교적 그리스도론의 탐색은 유교적 에토스의 현실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그 에토스가 방향지어질 수 있을가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은선은 유교적 원리로써 적극적으로 여성신학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다. 가령 유교가 중시하는 관계성의 원리는 남녀간의 대립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동양과 서양, 자연과 인간, 인간과 신 등이 관계성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 되는 것”을 꿈꾸는 여성신학적 비전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지적한다. 그밖에 유교 전통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예(禮)의 실행을 통한 단련과 성숙의 의미’, 공동체주의를 들고 있다. 이은선은 오늘날 파편화되고 분절화 된 삶과 윤리에서 나타나는 무의미와 혼돈은 근대 자유주의 윤리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교적인 공동체주의 윤리를 제시했다.⁷⁹⁾

이처럼 이은선이 유교의 ‘효’ 개념에 근거하여 전통 그리스도론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유교윤리의 주요 개념들을 여성윤리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데 반해, 강남순은 기독교와 유교의 구원 교리에 나타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도교를 통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여성신학의 평등주의적 유토피아를 모색하고자 한다.⁸⁰⁾ 강남순은 『현대여성신학』에 실린 논문 “기독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와 여성신학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에서 기독교와 유교에 가부장적/계급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요소가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고자 하는 유토피아로서 유교에 대해서는 도교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여성신학의 시도를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가부장적이고 계급주의적 구조를 가진 유교와는 대조적으로, 도교는 창조적 힘을 표현하는 데 여성적인 상징을 사용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대립물의 평등과 조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여성신학이 기독교와 유교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도교와 현대 여성신학자들의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발굴해서 여성신학의 이론적인 토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위의 이은선과 강남순의 시도는 한국문화의 근저에 깔려 있는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근거들을 문제삼고 있다. 여성신학이 근본적으로 놓칠 수 없는 이데올로기 비판과 새로운 유토피아적 논의형성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은 새로운 통찰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이라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와 무관한 형이상학적 논의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고, 지배이념으로서 민중과 여성의 삶을 통제해왔으며, 동아시아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윤리적 관념과 가치관으로 내면화되었다. 이 점에서, 유교건 도교건, 그리고 서구 여성신학자들이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어떠한 여성신학적 통찰을 얻건 간에 한국인, 아시아인에게는 현실적 영향력을 지녔었고, 지금도 지니고 있는 사상들이다. 따라서 여성신학적으로 이러한 사상들을 재구성하고, 이로부터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이

79) 이은선,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여성신학』(왜관: 분도출판사, 1997), 51, 73, 102, 205-211, 212.

80) 강남순, 『현대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58-281.

사상들의 영향사와 그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이 보다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신학의 실천적 지향성과는 거리가 먼 막연한 논의가 될 우려가 있다.

5. 여성의 성, 여성의 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여성신학

여성성, 여성의 몸의 경험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강조하는 여성신학자로는 손승희를 들 수 있다. 손승희는 기독교교육학자로서 인간의 인지적, 도덕적, 종교적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들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험과 발달단계가 남성 학자들이 세워놓은 발달단계의 틀과 맞지 않으며, 여성 나름의 고유한 발달의 과정이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여성 고유의 인식론적, 윤리적, 종교적 발달의 특성을 발견하려고 했다.

서구여성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실을 인식하는 방식이나 가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남성과 여성에 차이가 있다. 손승희는 “여성의 인식방식과 선택방식”이라는⁸¹⁾ 논문에서 인간발달에 관한 중요한 이론은 모두가 남성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 행해진 실증적 연구의 조사표본도 주로 남성이었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발달이론은 주로 남성의 경험과 능력을 기초로 한 것이고, 여성의 지적 발달이나 도덕 발달에 관한 이론은 사실상 발달이론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다는 것이다.⁸²⁾ 손승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여성학자들의 작업들, 예를 들어 캐롤 길리건의 “여성의 도덕비판의 발달에 대한 조사연구”(1982), 노라 리용의 “여성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1983), 메리 블랭키를 비롯한 몇몇 여성심리학자들의 “여성의 인식방식에 관한 조사연구”들은 심리학과 인간발달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해와 연구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인간발달에 관한 이론체계나 이에 관한 기본가정을 형성하는 일에 여성의 소리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승희는 가령 장 삐아제, 로렌스 콜버그, 윌리엄 페리 등의 연구에 전제되어 있는 기본가정을 비판하고, 남성중심적, 우월주의적 이론에 대칭되는 새로운 이론을 위한 기반으로서, 지금까지 발달의 요인으로 규정되어왔던 합리성, 자율성, 독립성, 객관성을 넘어서서 직관 상상력, 경험 상호의존성, 상황적 고려 등의 요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⁸³⁾ 가치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도 위 남성학자들이 원칙윤리나 분리-자율의식을 택했다면 길리건, 리용, 블랭키 등은 상황윤리나 관련의식을 택했다. 발달의 구조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것보다는 통합적 방식, 원칙적이고 분리적이기보다는 상황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 페미니스트 발달론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에 근거하여 손승희는 여성들의 고유한 인식론적 특징, 도덕발달, 윤리 발달의 특징들을 규명하는 논문들을 썼다.⁸⁴⁾ 여성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는 이러한 연구는 백은미에 의해 특히 여성의 몸과 여성의 몸을 통한

81) 손승희, “여성의 인식방식과 선택방식”, 『신학사상』 61, 1988, 466-492.

82) 앞의 논문, 468.

83) 앞의 논문, 470.

84) 손승희, “여성의 도덕성”, 『기독교사상』 461, 1997, 113-118. 손승희, “돌봄과 길리건의 여성윤리”, 『기독교사상』 462, 1997, 109-125.

인식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⁸⁵⁾ 이 방향의 연구에 대해 여성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탈역사적이고 여성신비주의적인 이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오늘날 점점 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토대를 놓는 연구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정현경은 논문뿐만이 아니라 공연형태로 했던 캔버라 WCC 총회에서의 강연과 자서전⁸⁶⁾,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슬람 여성들과의 대담집을⁸⁷⁾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이 방향의 여성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에서 아시아 여성신학의 다양한 전개양상을 분석했던 정현경은 여성신학자로서 자신의 지난했던 인생 여정을 회고하면서 해방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구원의 여성상을 여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 여신은 내 밖에서 나를 이끌고 내게 힘을 주는 객관화되고 외화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나의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기도 하며, 억압당했던 성적 자율성과 생명력, 사랑의 능력을 구현하고 분출시킴으로써 에로스에 충일해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여신의 모습은 생명 에너지로 충만한 나 자신일 뿐 아니라 바로 여성성 그 자체의 구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현경의 신학 작업은 무엇보다도 신학적 진술의 방법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이러한 신학작업은 신과 인간, 주관과 객관의 이원론적 경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의 전통적 경계를 넘어서는 신학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현경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도발적인 주장들을 학술적이고 난해한 신학적 언어를 통해 논쟁을 건 것이 아니라,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형태로 펼쳐 보이고 있다. 어쩌면 대중문화와 몸의 언어가 지배하는 오늘의 시대에 여성신학이 실천적 지향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방식의 신학적 자기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밖에 여성성을 탐구한 여성신학 작업으로 한국 여성신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집 『성과 여성 신학』을 들 수 있다.⁸⁸⁾ 이 책에서는 신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여성의 성에 대한 언급들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성과 관련한 여성상담,⁸⁹⁾ 사이버 시대의 여성의 성,⁹⁰⁾ 성폭력 문제⁹¹⁾, 성에 대한 생태신학적 접근⁹²⁾ 등 오늘날 여성의 성의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신학화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암세포가 잠식해 들어가는 자신의 몸을 통해 생명의 소생을 느껴가는 과

85) 백은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인격적 성숙과 영적 성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9, 2000; *Women's Embodies Spiritual Growth: Learning Through Narrative research, Teaching Through Narrative Education* A Dissertation to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999.

86) 정현경,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WCC 캔버라 제7차 총회 강연”, 『기독교사상』 388, 1991; 『결국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1-3』(서울: 열림원, 2002);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박재순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1994).

87) 정현경,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웅진씽크빅, 2011).

88) 한국여성신학회 편, 『성과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89) 정희성(2001), “혼외 성관계와 여성주의 목회상담의 실제”, 앞의 책.

90) 백은미(2001),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 앞의 책.

91) 한국연(2001), “교회 내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앞의 책.

92) 구미정(2001), “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앞의 책.

정을 서술한 선순화의 감동적인 신학적 성찰 역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다.⁹³⁾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성,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주제는 여성신학이 다루어야 할 고유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신학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민족, 민중, 여성의 삶의 현실을 여성신학의 콘텍스트로 삼아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가 너무나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던 탓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여성신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성적 존재로서, 그리고 몸을 가진 존재로서 여성 스스로의 성적 자기인식, 자기발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신학적 작업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이 분야의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것은 아마도 목회상담, 예배학 등 실천신학 분야에서 여성신학자들의 활약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김필진,⁹⁴⁾ 정희성,⁹⁵⁾ 최재락,⁹⁶⁾ 김명실⁹⁷⁾ 등이 이 대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서분야에서는 유연희가 퀴어비평을 소개하고, 에스겔 16, 23장과 아가서를 포르노그래피라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⁹⁸⁾ 이밖에도 이은애가 구약성서에서 여성의 아름다움 개념,⁹⁹⁾ 또한 조직신학 분야에서는 김수연이 여성의 몸과 성육신 개념을 연구했다.¹⁰⁰⁾ 또한 백소영은 도시 미혼여성의 신앙과 젠더의식을 분석했고, 21세기 한국 기혼 전문직여성으로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젠더 관점에서 솔직하게 에세이 형태로 기술해서 일반 교회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¹⁰¹⁾ 이외에도 2000년대 이후 여성의 몸과 심리, 치유 등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은 보다 많은 여성신학자들과 교회 여성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IV. 맺는말: 한국 여성신학의 공헌과 과제

지금까지 1980년 여신협 창립을 출발점으로 약 30년에 걸친 한국 여성신학의 다양한 전개양

93) 선순화, 『공명하는 생명신학』 선순화 신학문집 출판위원회 편, (서울: 다산글방, 1999).

94) 김필진, “여성의 전인치유를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vol. 8, 2006.

95) 정희성, “관계적이고 애매모호한 자아와 하나님: 교회 여성 성폭력의 목회 신학적 이해”,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vol 43, 2006.

96) 최재락, “여성의 자아상실에 대한 목회상담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52, 2007.

97) 김명실, “하나님의 성서적 여성 이미지와 예배자의 자기 정체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8, 2010.

98) 유연희, “퀴어비평: 성서를 되찾기”, 『다문화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7, 2010.

99) 이은애,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아름다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74, 2011.

100) 김수연,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본 몸 그리고 성육신”, 『조직신학논총』 vol. 23, 2009.

101) 백소영, “19세기를 사는 21세기 그녀들 -개신교 도시 미혼여성의 신앙, 젠더의식과 문화 혼종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8, 2010; 『엄마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21세기 한국 개신교 기혼여성의 ‘모성’경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상을 기술했다. 그 전개과정을 돌아볼 때 초창기 여성신학의 방향설정이 매우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여성신학 전개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식민지 경험과 이념갈등, 분단, 독재정권의 억압으로 이어져온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신학적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민중신학, 통일신학의 신학적 모티브는 한국 여성신학 안에서도 중요하게 전개되었으며, 박순경, 김애영 등의 작업은 민중신학과 통일신학 안에 여성주의적 검열기제를 장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급진적이고 탈기독교적 여성신학을 전개한 경우는 예외적이고, 대개는 교회와 기독교신학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여성신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술적인 형태로든, 대중적인 형태로든 여성해방적 성서해석과 여성해방적 교회론은 한국 주류 신학계 안에서 비판신학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탈기독교, 탈신학의 형태로 신학의 경계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 안에서 비판적인 해석학적 아르키메데스의 점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 여성신학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강단 신학자와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여성신학자들 사이에 신학적 관심의 공유, 그리고 대화와 협동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여신협과 여성신학회, 기독교여성평화 연구원, 아시아 여성문화 자료센터, 이화여성신학연구소 등과 같은 여성신학 유관 단체들을 장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며, 한국 여성신학이 실천적인 관심을 놓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점에서 민중신학, 통일신학과 함께 한국 여성신학은 한국신학의 현장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했다. 넷째로 서구 여성신학 이론의 소개와 적용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다. 비교적 길지 않은 여성신학의 역사와 관련해서 볼 때 서구 여성신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거의 대부분 소개되었으며, 실험되었다. 특히 여성해방적 성서해석, 여성생태주의, 여성윤리 등과 관련해서는 구미에 알려진 대부분의 중요한 여성신학자들의 이론들이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신학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섯째로 한국의 문화 전통과 기독교 전통을 매개시키려는 해석학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특히 성서해석과 관련하여, 그리고 한국의 전통 종교에 대한 여성신학적 접근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¹⁰²⁾ 이 점에서 한국 여성신학은 문화신학과 그 주제를 공유하며, 기독교 신학 안에서 배타주의적 계시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한국 여성신학의 전개양상은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친 신학작업으로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2000년대로 이어지는 여성신학의 전개과정은 그 주제의 넓이나 다루는 깊이 면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게 전개되어왔다. 90년대에 이르면 여성신학의 일차적인 장이 한국 교회와 사회라는 인식, 그리고 여성신학의 사회적 책무의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서 여성들 자신의 내면과 몸을 성찰하는 경향이 보다 두드러지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틀에서 벗어나 종교신학을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것

102) 후자와 관련해서 한국 무속에 관한 선순화의 연구작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선순화, 『공명하는 생명신학』 제3부 무속, 종교, 신학, 선순화 신학문집 출판위원회(서울: 다산글방, 1999).

은 한편으로 보면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민중운동, 통일운동 등 기층 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 퇴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한국 여성신학 자체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한국 여성신학이 스스로의 고유한 영역을 돌아보고, 전열재정비를 하며 다양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창기 여성신학회가 한국 기독교학회에 가입하기조차 어려웠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격 세지감이 느껴진다. 진보든 보수든 주요 각 신학대학에서는 여성신학이라는 교과목이 채택되어 많은 학생들이 여성신학을 이수하고 있고, 신학을 연구하는 여성 학자들의 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나 주요 신학대학에 성서나 조직신학같은 기초 이론신학 분야만이 아니라 기독교교육, 특히 목회상담 같은 실천신학 분야에 여성 교수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여성신학이 신학의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신학의 전분야에 걸쳐 해석학적 전환을 요청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성서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등 기존 신학의 전통적인 각 분야들마다 여성 신학적 작업들이 각개 약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의 분야로서 독립된 '여성신학'을 고수하는 것이 전략적인 교두보로서 필요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신학의 각 분야에서 여성신학적 통찰이 인식론적 전환과 지적인 회심의 경험을 일으키는 자극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대학을 삼켜버린 신자유주의적 '시장전체주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자각이 여성신학 연구자들에게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오늘날 산업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대학사회 전반을 잠식해들어옴으로써 자유로운 지적 활동에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개인의 자율성, 주체성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공리주의적 담론이 지배하게 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신학, 인문학이 담당했던 위치와 역할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무엇보다도 대학과 그 주변에 속한 연구자들 개개인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논문제조기계'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신학 관련 논문과 연구자들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초기 여성신학이 지녔던 생동감, 도덕적 정당성의 무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상 근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현실일 것이다. 한국 여성신학자들은 자신의 신학작업을 통해 이러한 현실과 비판적으로 대면해야 하며, 자신의 신학작업이 그러한 현실인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끊임없이 비판적인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21세기도 10년이 넘게 지났고,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첨단 지식 산업과 영상매체, 대중문화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기존의 문자언어 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신학적 표현 방식이 요청된다는 점 역시 여성신학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폭발과 같은 생태적, 전지구적 위기는 상존하고 있으며, 급진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여성을 포함한 민중의 자율적이고 자치적, 자급적인 삶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여성신학은 현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과 삶의 다채로움을 긍정하고 축하하며 성찰하는 신학에 머무를 수 없으며, 오늘의 전지구적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성찰의 시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서 우

리가 속해 있는 한국 여성의 삶의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절박하고 지속적인 신학적 성찰의 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학화할 수 있는 언어와 자원을 한국의 종교와 사상 전통에서 발견함으로써 경험과 실천을 중시하는 여성신학의 원리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와 살을 지닌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_____. “‘여성신학, 교회개혁, 사회개혁’에 대한 논찬”. 『한국여성신학』. 2000년 6월, 42호, 68-79.
-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 서울: 한들, 2005.
- 권미경·이숙진. “한국여성신학의 전개과정에 대한 일고찰”. 『여성·평화 1』.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편. 서울: 평화사, 1990.
- 기독교민회 신학위원회. 『성서가 보는 여성 여성이 보는 성서』. 서울: 녹두, 1994.
- 김명실. “하나님의 성서적 여성 이미지와 예배자의 자기 정체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8, 2010.
- 김수연.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본 몸 그리고 성육신”. 『조직신학논총』 vol. 23, 2009.
- 김애영. “80년대 한국여성신학의 평가와 전망: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여성신학 10년, 여신협 7차 정립협의회 보고서』. 여신협 창립 10주년 기념강연. 서울: 한국여신학자협의회, 1990.
- _____. 『한국여성신학의 지평』. 서울: 한울, 1995.
- 김옥라 외. 『나의 이야기』.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편. 서울: 여성신학사, 1995.
- 김윤옥. “서남동의 생태학적 신학과 생태학적 여성신학”. 죽제 서남동목사 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편. 『전환기의 민중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_____. “한국 여성신학의 해석학: 신앙, 경험, 실천과 신학”. 『신학하며 사랑하며-한국 기독교의 거듭남을 위하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 _____. “21세기 기독교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여성신학』 2000년 9월 43호. 154-164.
- _____. “행동하는 여성신학의 힘”. 『한국여성신학』 2009년 7월 69호. 148-154.
- _____. 『빗장을 풀다 평화를 살다: 김윤옥 회고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김은혜. 『생명신학과 기독교문화: 생명 문화 여성』. 서울: 쿠파, 2006.
- 김정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 신학적 성찰-다름과 차이의 긍정과 화해에 대하여”. 2000년 5월 한국여성신학회 제9회 심포지엄 발제 자료집.
- 김정숙. 『여성목회와 권위: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에서 논하는 권위의 문제』. 서울: 한국기독교

- 연구소, 2007.
- 김필진. “여성의 전인치유를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vol. 8, 2006.
- 김혜원, 유춘자, 이호순, 정숙자. 『네 여성신학자 이야기』. 서울: 여성신학사, 2010.
- 김호경. 『여자, 성서 밖으로 나오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데일리, 메리/황혜숙 옮김. 『교회와 제2의 성』. 서울: 여성신문사, 1997.
- 딘, 에디드/이우정, 안상님 옮김. 『성서로 본 여인의 지혜』. 서울: 종로서적, 1981.
- 러셀, 레티/안상님 옮김. 『여성해방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 _____/김상화 옮김. 『해방의 말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_____/손승희 옮김. 『파트너쉽과 교육』. 서울: 현대사상사, 1982.
- _____/김상화 옮김. 『파트너쉽의 미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류터, 로즈마리/손승희 옮김. 『새여성 새세계』. 서울: 현대사상사, 1980.
- _____/서남동 옮김. 『메시아 왕국: 메시아회망에 대한 서구의 체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_____/안상님 옮김. 『성차별과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박경미. “민중신학과 여성신학”. 『여성 평화 생명』. 이우정 선생 고회기념 논문집 편찬위원회. 서울: 경세원, 1993.
- _____. “한국여성신학 20년”. 『신학 연구 50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서울: 혜안, 2003.
- 박순경. “신학과 여성”, 『신학과 여성, 강연 제1집』. 서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82.
- _____. 『한국민족과 여성신학의 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_____.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미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부, 1984.
- _____. 『민족통일과 기독교』. 서울: 한길사, 1986.
- _____. 『민족통일과 여성의 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_____. “하나님 나라와 여성교회”. 「기독교사상」 1993년 1월, 통권 409호, 183-196.
- _____. 『통일신학의 미래』. 서울: 사계절, 1997.
- _____. “여성신학, 교회개혁, 사회개혁”. 「한국여성신학」 42, 2000.
- 백소영. 『엄마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21세기 한국 개신교기혼여성의 ‘모성’경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_____. “19세기를 사는 21세기 그녀들 -개신교 도시 미혼여성의 신앙, 젠더의식과 문화 혼종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8, 2010.
- _____. 『드라마틱: 예수님과 함께 보는 드라마』. 서울: 꿈꾸는터, 2010.
- _____. “평등한 창조를 부정하는 순종론을 깨라”.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기독교 이야기』. 서울: 자라: 내일을 여는 책, 2012.

- 백은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인격적 성숙과 영적 성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9, 2000.
- 벤틀, 몰트만/김희은 옮김. 『예수 주변의 여인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서남동. “두 이야기의 합류”. 『민중신학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선순화. “한국의 민간신앙에 나타난 여신상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 『여신협 제10차 총회보고서』. 서울: 한국여신학자협의회, 1990.
- _____. 『공명하는 생명신학』. 선순화 신학문집 출판위원회 편. 서울: 다산글방, 1999.
- 손승희. “여성의 인식방식과 선택방식”. 『신학사상』 61(1988), 466-492.
- _____. “여성신학과 민중신학- 몸을 긍정하는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여성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_____. “돌봄과 길리건의 여성윤리”. 『기독교사상』 462(1997), 109-125.
- _____. “여성의 도덕성”. 『기독교사상』 461(1997), 113-118.
- _____.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4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안상남. 『여성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양미강. “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6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유연희.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7, 2010.
- 유춘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성해방의 여성”.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편. 『여신협 20년 이야기』. 서울: 여성신학사, 2000.
-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이덕주. 『한국 감리교 여선교회의 역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1991.
- _____.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이영미. 『이사야의 구원신학: 여성 시온 은유를 중심으로』. 서울: 맑은울림, 2004.
- 이우정. 『한국기독교여성 백년의 발자취』. 서울: 민중사, 1985.
- _____. 이현숙 공저. 『여신도회 6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1991.
- 이은선.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여성신학』. 왜관: 분도출판사, 1997.
- 이은애.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아름다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74, 2011.
- 이인경. “여성의 희생과 교회의 폭력에 대한 여성신학적 분석”. 『한국여성신학』. 2002년 12월 51호, 48-57.
- _____. 『에큐메니칼 페미니스트 윤리』. 서울: 한들, 2005.
- _____. “생명공학 시대의 모성에 대한 페미니스트 윤리적 분석: 출산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삶, 죽음 그리고 기독교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_____. “기독교 여성담론의 주체와 주제”.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vol. 1, 2008.
- 이현숙. “분단 후 민중여성의 고난과 한국 교회 여성운동”. 『전환기의 민중신학』. 죽제 서남동

- 목사 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_____. “아시아 여성, 우리는 누구인가?”.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 편. 『한국여성과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임희숙. “평화통일과 회년에 대한 여성신학적 반성과 전망” 『여성 평화 생명』. 이우정 선생 고
회기념 논문집 편찬위원회. 서울: 경세원, 1993.
- _____. 『기독교 근본주의와 교육』. 서울: 동연, 2010.
- 정숙자. “교회와 코이노니아-여성신학적 입장에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 『교회와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_____. 외. 『생존과 해방을 위한 여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정현경. “여성신학의 유형과 한국적 수용 및 비판 1”. 『기독교사상』 1989년 11월, 통권 371호
- _____/박재순 옮김.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왜관: 분도출판사, 1990.
- _____.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WCC 캔버라 제7차 총회 강연”. 『기독교사상』
388, 1991.
- _____. 『결국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1-3』. 서울: 열림원, 2002.
- _____.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웅진씽크빅, 2011.
- 정희성. “남북한 여성의 치유적 선교를 위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1집. 2001, 313-341.
- _____. “관계적이고 애매모호한 자아와 하나님: 교회 여성 성폭력의 목회 신학적 이해”. 『한국
기독교신학논총』 vol 43, 2006.
- 주선애. 『장로교여성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978.
- 차옥승. 『무교』. 서울: 서광사, 1997.
- _____. “무(巫)에서 살펴본 한국 여성의 종교경험”. 『한국여성과 교회론』. 이화여성신학연구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신종교와 무속 ; 신종교와 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종교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신종교학
회 「신종교연구」 vol. 9, 2003.
- _____. “젠더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무(巫)”.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연
구」 vol. 22, 2012.
- 최만자, 박경미. 『새하늘, 새땅, 새여성』. 서울: 생활성서사, 1994.
- 최영실. 『신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_____. “한의 질곡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한국 여성신학”. 『신학사상』 100(1998), 126-7.
- _____. 『성서와 여성』. 성남: 민들레책방, 2004.
- 최재락. “여성의 자아상실에 대한 목회상담적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52, 2007.
- 피오렌자, 엘리자베스, “여성해방을 위한 성서해석 방법”. 이우정 편.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
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91-118.

-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여성분과위원회 편.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한국기독교여성백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한국기독교교회 연합.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한국여성신학회 여성신학사상 제1집. 『한국여성의 경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_____. 제2집. 『성서와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_____. 제3집. 『교회와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_____. 제4집. 『영성과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_____. 제5집. 『성과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_____. 제6집. 『민족과 여성신학』. 서울: 한들, 2006.
- _____. 제7집. 『다문화와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_____. 제8집. 『선교와 여성신학』.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0.
- _____. 제9집. 『미디어와 여성신학』. 서울: 동연, 2012.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보』 제1호. 1981.
- _____. 『한국여성신학의 과제: 아시아 여성신학 정립협의회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가정생활 협회, 1983.
- _____. 강연 제2집. 『여성신학과 인간화』. 서울: 한국여신학자협의회, 1987.
- _____.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제 4.5.6차 여성신학정립협의회 보고서』. 서울: 여신학자협의회, 1989.
- _____.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_____. 한국여신상연구반 편. 『한국 민간신앙에 나타난 여신상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 서울: 여성신학사, 1992.
- _____. 『여신협 20년 이야기』. 서울: 여성신학사, 2000.
- 한국염. “한국 역사에 나타난 여성차별”. 『기독교사상』 1991년 5월.
- 할케스, J.M./안상님, 김희은 옮김. 『여성신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Eun Mi Paik. *Women's Embodies Spiritual Growth: Learning Through Narrative research, Teaching Through Narrative Education*. A Dissertation to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999.
- Goldstein, Valerie Saiving. “The Human Situation: A Feminine View”. *Journal of Religion*, vol. 40, no.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Korean Feminists in Conversation with the Bible, Church and Society*. ed. Kyung Sook Lee, Kyung Mi Park.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 Seong Hee Kim. *Mark, Women and Empire: A Korean Postcolonial Perspective*.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 _____. “Our(Neither) Mother and(Nor) Father in Heaven: A Postcolonial Reading of the

- Lord's Prayer". *Korean Feminists in Conversation with the Bible, Church and Society*, 2011.
- Stanton, Elizabeth Cady. *The Women's Bible: The Original Feminist Attack on the Bible*. Edinburgh: Polygon Books. 1985.
- Wollstonecraft, Mary. *A Vindication of the Right of Women*. London: Penguin Books, 1992.

제2부 여성의 몸과 마음, 건강 연구

여성 체육인의 움직임을 통한 몸과 마음 건강 연구의 도전과 과제

이경옥(한국여성체육학회, 이화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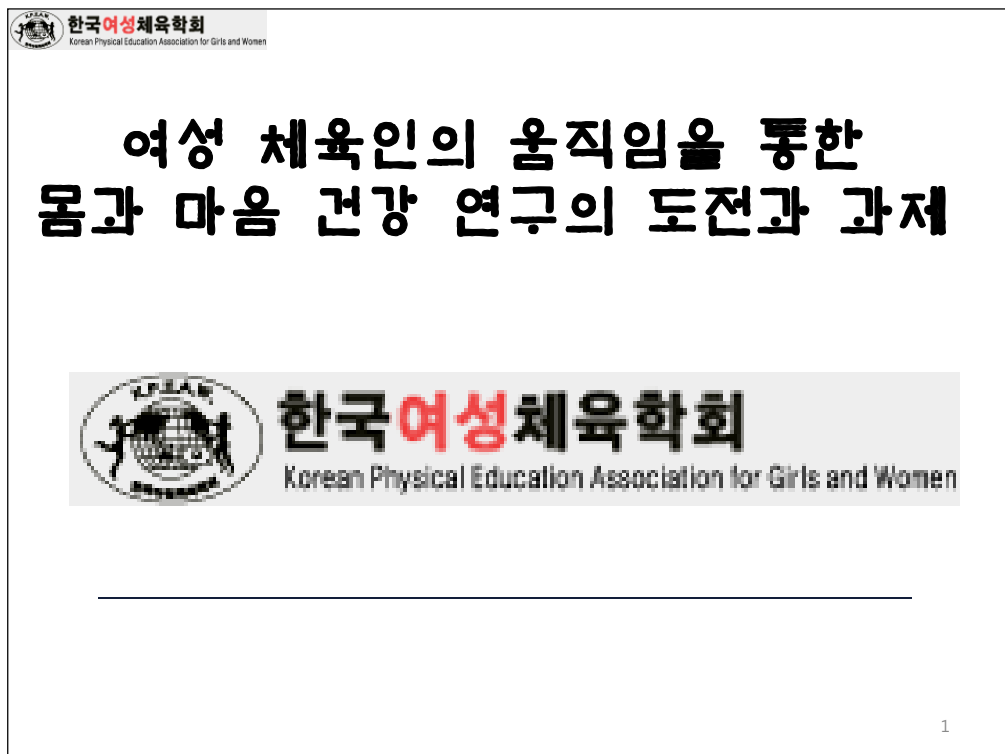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 I. 설립취지
- II. 목적
- III. 주요사업
- IV. 한국여성체육학회 창립 후 사업

I. 설립취지

**여성 체육인의 학문적 발전과 지위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1954년도에 발족.**

배경

전국 학교체육현장,
생활체육 현장지도자의 많은 수가
여성이며,
엘리트 체육에서도 여성체육인의 활
약이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
고,
또한 전국 각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
하는 여성체육학자 수도 점차 증가
하고 있으나

여성체육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음.

주요활동

여성체육인의 전국적 저변확대
지부 개설.

전문 여성 체육지도자를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 하였음.

학술발표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
여 국내,외 체육교류 활성화에 기여
함.

여성체육인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가치관정립과 실력연마에 공헌함.

목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여성체육인으로서 여성체육의 중요
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육과 관련
된 여성전문 인력들이 모여

연구하고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창
구 역할을 통해 효과적인 역할 수행
을 목표로 함.

“여성체육인의 발전은 곧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

Table of Contents

- I. 설립취지
- II. 목적
- III. 주요사업
- IV. 한국여성체육학회 창립 후 사업

4

II. 목적-교육, 재교육, 연구, 봉사, 교류, 지원

1	여성체육인의 가치관 정립
2	여성체육지도자 및 교사 재교육
3	여성체육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4	체육현장지도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참고서적 발간
5	여성체육 현장에서의 여성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
6	본과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7	정부 및 사회에 대한 여성체육인의 의견 반영
8	기타 국내외 체육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 교환

5

Table of Contents

- I. 설립취지
- II. 목적
- III. 주요사업
- IV. 한국여성체육학회 창립 후 사업

6

III. 주요사업

1	초,중,고등학교 교사 체육관련 기관 지도자 강습회 개최(년 2~4회)	가) 중고등학교 체육교재 및 교육방법 연구 나)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창작 교육방법
2	체육전문 분야별 지도자 양성	다) 민속무용 연구지도 라) 재즈체조 지도자 양성
3	사회 체육지도자 양성	마) 리듬체조 지도자 및 심판 양성 바) 우리나라 민속놀이 개발 및 보급
4	스포츠 과학 세미나 및 체육논문 발표회	사) 창작 및 현대무용 지도자 양성 아) 마스게임 연구지도
5	회원의 학술 연구 및 발표	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지도자 양성 차) 신체장애자 프로그램개발 연구지도
6	국내 체육단체 및 기관과의 유대강화	카) 에어로빅 댄스 지도자 양성 타) 댄스 스포츠 지도자 양성
7	정부 및 사회에 대한 여성체육인의 의견 반영	파) 노인운동 지도자 양성 하) 노인 수중 운동 지도자 양성
8	국제여성체육단체 활동 교류	
9	올림픽 관계 지원, 지도자 훈련 및 간담회	
10	간행물	가) 한국여성체육학회지 발행(정기) 나) 전공 실기 지도서 발간

7

Table of Contents

- I. 설립취지
- II. 목적
- III. 주요사업
- IV. 한국여성체육학회 창립 후 사업

8

IV. 한국여성체육학회 주요 사업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회의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지도자 양성	실기강습(무용, 리듬 체조 등)	실기강습(무용, 리듬 체조 등)	실기강습(체육, 에어로빅, 민속 무용 등)	실기강습(체육, 에어로빅, 민속 무용, 싱크로나이즈드 등)	실기강습(체육, 에어로빅, 한국 무용, 리듬체조 심판 등)	실기강습(초종교 무용 지도자 실기)
학술강연 및 세미나	세미나 강연회, 학술 논문발표(노쇠와 운동에 관한 연구)		심포지엄(88년 올림픽과 우리의 역할)	86년 아시아 게임, 88년 올림픽 마스게임 방향 모색	체육세미나, 장애자를 위한 세미나	지도자 강습
국제관계	해외연수 및 국제회의 참가(1회)	국제연수(1회)		국제세미나, 비교체육연수, 동독 청소년 체육대회, 체조 총회(4회)	LA 올림픽 대회 연구 조사단 연수(1회)	국제회의보고, 국제회의 참석(2회)
출판	학회지 발간		여성체육 학회지 발간			
특별행사					84년 LA 올림픽 여자선수단 환영식	우리나라 민속놀이 작품제정 특별위원회 구성(11종목 발표)
분과활동 및 지도자 강습						분과활동 시작(민속 무용, 재즈체조, 마스게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지부활동						전북, 부산, 대전, 운영 지부 활동 시작
올림픽						
문화행사						
교육사업						
연구사업						
기타					한국여성 체육학회를 사단법인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 논의	

9



IV. 한국여성체육학회 주요 사업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회의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지도자 양성	실기강습(초중고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학술강연 및 세미나	학교무용교육				
국제관계	국제회의의 참석(2회)	국제회의의 참석(10회)	국제회의의 참석(1회)	국제회의의 참석(8회)	국제회의의 참석(8회)
출판			학회지 발간	학회지 발간(2권)	학회지 발간(4권)
특별행사	우리나라 민속놀이 강습회				
분과활동 및 지도자 강습	무용교육 분과위원회 시작	특수체육관한 연구, 중등교육 연강계획안 작성		국민학교 무용교육책 출판 준비	민속무용, 체조, 무용, 마스게임, 특수체육
지부활동		부산, 전북 지부 세미나 및 강습회	부산, 전북 지부 세미나		울산지부 초중고 지도자 강습
올림픽			개폐회식 행사, 문화행사, 경기종목별 활동		
문화행사					ADF 서울개회
교육사업					
연구사업					
기타					

10



IV. 한국여성체육학회 주요 사업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회의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지도자 양성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학술강연 및 세미나				특수체육분과 세미나	
국제관계	국제회의의 참석(6회)	국제회의의 참석(1회)	국제회의의 참석(13회)		
출판	학회지 발간(5권)	학회지 발간(5권)	학회지 발간(7권)	학회지 발간(8권)	
특별행사					
분과활동 및 지도자 강습	민속무용, 체조, 무용, 마스게임, 특수체육	민속무용, 체조, 무용, 마스게임, 특수체육	민속무용, 체조, 무용, 마스게임, 특수체육	무용, 체육, 학술분과	
지부활동	대구, 경북지회 창립	제주도 지회 결성		전북, 경북, 경남 지회	강원도 지회보 창간
올림픽					
문화행사					
교육사업					
연구사업					
기타					

11



IV. 한국여성체육학회 창립 후 사업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회의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지도자 양성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실기강습(체육, 무용 지도자 실기)	직무연수		
학술강연 및 세미나	학술세미나		특수체육분과 세미나		2000년 아시아 여성 체육 학술대회	여성체육학회 학술 세미나(여성스포츠와 삶의 질)
국제관계						
출판		학회지 발간(11권), 학회 소식지 발간, 강습회 자료 발간	학회지 발간(11권), 학회 소식지 발간, 강습회 자료 발간	학회지 발간(13권), 학회 소식지 발간, 강습회 자료 발간	학회지 발간(14권), 학회 소식지 발간, 강습회 자료 발간	학회지 발간(15권), 학회 소식지 발간
특별행사						
분과활동 및 지도자 강습	무용, 체육, 학술분과	무용, 체육, 학술분과	민속무용, 무용, 댄스스포츠 제 1회 전국학생 초·중·고대 체육무용경연대회 개최	무용, 댄스스포츠	무용, 댄스스포츠	
지부활동		울산, 경남 지회				
올림픽						
문화행사						
교육사업				초·중등 체육무용교사 이론 및 실기	초·중등 체육무용교사 이론 및 실기	댄스 스포츠, 포크댄스
연구사업						
기타			한국학술단체연합회 가입, 서울시 교육청 특수분야 연구기관 지정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연구사업(여성건강 체력평가)

12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2011년	2012년
회의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
지도자 양성	댄스 스포츠 지도자 강습회	댄스 스포츠 지도자 강습회	댄스 스포츠 지도자 강습회	노인 운동 지도자 강습회, 노인 수중운동 지도자 강습회	포크 댄스 지도자 강습회	
학술강연 및 세미나	2001아시아스포츠 과학학술대회 참가	*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활성화 방안 모색 * 제 42회 체육주간 기념 한국여성체육학회 학술강연회 (국제 스포츠의교와 여성체육인의 역할) * 국민정책으로서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세미나	한국여성체육학회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및 한양순 교수 추모기념 행사	선진한국체육과 여성체육	* 대한민국의 미래, 글로벌 스포츠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체육인의 역할과 전망 * "여성 체육 전문인 교육의 방향과 과제" 낙산관련 여성 노인 성질환과 통합기능 체력운동	* 중·고령자 여성 건강수명 연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 및 영양학 통합전략
국제관계	The 5th ICHPER-SD Asia 학술대회 참가	아테네 프레올림픽 학술대회 참가	2006.05. 4th World Conference on Women and Sport (세계여성스포츠 컨퍼런스) Kumamoto, Japan	베이징 프레 올림픽 학술대회 참가	2010. 05 5th World Conference on Women and Sport Sydney, Australia	영국 프레 올림픽 학술대회 참가
출판	학회지 발간	학회지 발간	학회지 발간	학회지 발간	학회지 발간	학회지 발간
특별행사						
분과활동 및 지도자 강습	체육, 무용 학술분과	체육, 무용 학술분과	댄스 스포츠 지도자 강습회	댄스스포츠 지도자 강습회	포크 댄스 지도자 강습회	
지부활동						
올림픽						
문화행사						
교육사업						
연구사업						
기타						

13

21세기 여성 스포츠의 발전 방향

한국 여성 체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

14

Table of Contents

I. 스포츠와 젠더

II. 교육

III. 정책



15



I. 스포츠와 젠더 - 여성스포츠 연구의 발달 과정과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1970년대 - 스포츠 내에서 남녀 평등을 찾는데 관심이 모아졌으며,
1980,90년대 -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한 토론과 더불어 실제 평등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음.

시기

내용

1 1970년대

70년대 초 몇몇의 여성 연구자들에 의해 여성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함.
- 목적은 체육학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더욱 중심적 소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함
- 기존 여성 스포츠에 대한 문헌이 거의 없어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가 중심을 이룸

심리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여성 선수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보를 생산했지만, 연구의 깊이는 빈약했고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적이었음.
사회학적 모델은 스포츠에서 성차별 구조를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초보적 수준이었음.

2 1980년대

80년대 이후 여성 스포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급진적 페미니즘 관점을 취하고 있음.
- 스포츠와 여성 연구에서 Sex보다 Gender의 개념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됨.
- 남성성, 여성성, 가부장주의에 대한 스포츠와 이데올로기적 개념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려는 연구가 중심을 이룸.
- 승리와 경쟁, 엘리트즘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둘러싸인 남성 스포츠 모델은 여성들에게 부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대안적 모델을 제시함.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성과 스포츠를 가부장적 질서 속의 파워관계로 파악하며, 스포츠 구조의 변형과 변화를 주요 관심사로 들.

3 1990년대

90년대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조직 스포츠가 남성적, 여성적 행위의 사회적 건설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증가된 관심을 보임. 하지만, 80년대와 대조되는 점은 몇몇 남성학자들에 의한 그들의 스포츠 경험이나 연구대상들을 토대로 스포츠를 통해 남성성이 형성되는 과정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임.

스포츠에서 남성참가가 가부장적 파워를 유지하는 방식과 억압적인 젠더 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방식의 연구가 나타남.

16



I. 스포츠와 젠더 - 여성스포츠 연구의 발달 과정과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시기

내용

4 2000년대

스포츠 사회학 분야 - 여성 운동선수를 중요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매스미디어와 젠더에 관한 연구가 중심, 최근에는 여성 운동선수의 성차별, 성폭력 실태,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심.

스포츠 교육학 분야 - 체육교육과정과 체육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가 중심.

체육철학 - 스포츠와 젠더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관심이 미비한 실정으로 주목의 대상이 안되고 있음.

국제 스포츠 학회지에 게재 된 성 관련 연구 논문 중 15~20%가 스포츠와 젠더에 관한 연구였으며 이것은 스포츠사회학 분야 다 음으로 관심도가 높은 편임.

2000년대 이후 국내 체육관련 학회지나 학위 논문에 게재 논문 중에서는 스포츠와 젠더 관련 연구 8편, 성차별 연구 2편, 성폭력 관련 5편 정도로 구성됨.

연도별 분류 현황

표1. 연도별 분류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편	2편	1편	3편	4편	2편	2편

표2. 주제별 분류 현황

성차별	성폭력	젠더
2편	5편	8편 (스포츠교육 관련 5편, 매스미디어 관련 2편, 이론 적 접근 1편)

17



I. 스포츠와 젠더 - 성(性) 평등을 위한 장(場)으로서의 스포츠 변화

1972년 미국의 Title IX(정부예산을 받는 교육기관은 남녀에게 동등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

- 학교 스포츠프로그램에서 남녀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
- 여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촉진 균등한 기회의 추구
- 근대 올림픽의 발전과 함께 여자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증가와 여자 종목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음.

올림픽 여자 선수 참여 현황

표 1. 역대 하계올림픽 여자선수 참여 현황

년 도	여자선수 수	여자선수 비율(%)	년 도	여자선수 수	여자선수 비율(%)
1896	-	0.0	1956	384	16.1
1900	10	1.6	1960	610	11.4
1904	6	0.9	1964	683	13.3
1908	36	1.8	1968	781	14.2
1912	57	2.2	1972	1058	14.8
1920	77	2.9	1976	1247	20.7
1924	136	4.4	1980	1125	21.5
1928	290	9.6	1984	1567	23.0
1932	127	9.0	1988	2186	25.8
1936	328	8.1	1992	2708	28.8
1948	385	9.4	1996	3626	34.2
1952	518	9.4	2000	4069	38.2

출처: IOC(2003). www.olympic.org

표 2. 역대 동계올림픽 여자선수 참여 현황

년 도	여자선수 수	여자선수 비율(%)	년 도	여자선수 수	여자선수 비율(%)
1924	12	5.0	1968	211	18.2
1928	26	5.6	1972	206	20.5
1932	21	8.3	1976	231	20.6
1936	80	12.0	1980	233	21.7
1948	77	11.5	1984	274	21.5
1952	109	15.7	1988	313	22.0
1956	132	17.0	1992	488	27.1
1960	143	21.5	1994	523	30.0
1964	200	18.3	1998	788	36.2
			2002	886	36.9

출처: IOC(2003). www.olympic.org

18



I. 스포츠와 젠더 - 성(性) 평등을 위한 장(場)으로서의 스포츠 변화

한국의 결과: 1936년 베를린 올림픽(한국 최초 참가 올림픽)

남: 금1 은0 동1

여: 없음

년도	종목	성별	금	은	동	성명
1936 베를린(11회)	마리톤	남	1			손기정
	마리톤	남			1	남승룡

한국의 결과: 2012년 런던 올림픽

남: 금8 은7 동6

여: 금5 은1 동1

년도	종목	성별	금	은	동	성명
2012 런던(30회)	권투	남	1			김현우
	사격	남	1			김홍우
	사격	남	1			김홍우
	사격	여	1			김창미
	양궁	남	1			오인혁
	양궁	여	1			기보배
	양궁	여	1			여자단체
	유도	남	1			김재범
	유도	남	1			송대남
	태권도	여	1			황경선
	펜싱	남	1			남자단체
	펜싱	여	1			여자단체
	체조	남	1			양학진
	복싱	남		1		한준철
	사격	남		1		김종현
	사격	남		1		최영래
	수영	남		1		박대환
	수영	남		1		박대환
	탁구	남		1		남자단체
	태권도	남		1		이경훈
	펜싱	여		1		여자단체
	배드민턴	남			1	남자복식
	양궁	남			1	남자단체
	유도	남			1	조준호
	축구	남			1	남자단체
	펜싱	남			1	정진선
	펜싱	남			1	최병철
	펜싱	여			1	여자단체

19

I. 스포츠와 젠더 - 성(性) 평등을 위한 장(場)으로서의 스포츠 변화

이러한 여성의 엘리트 참여 증가는 ‘스포츠에서의 남성 독과점 현상’ 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생활 체육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져 선진국에서는 남녀간 스포츠 참여에서 동등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간 스포츠 참여 비율

호주의 생활체육 참여율

(주 150분 이상 운동 참여)

성	1997	2000
남자	63.4%	57.6%
여자	61.1%	56.0%

Australian Sports Commission(2001). Trends in population levels of reported physical activity in Australia.

한국의 생활체육 참여율(주 2회 이상)의 남녀비교

성	1997	차이	2000	차이
남자	46.7%		37.8%	
여자	30.0%	▽16.7%	28.9%	▽8.9%

문화관광부(1997, 200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Title IX 이전과 이후의 미국 고등학생의 스포츠

참여자 수와 남녀 비율

년 도	남학생	여학생	남녀 비율
1971	3,666,917	294,015	12.5:1
1979-80	3,517,829	1,750,264	2.0:1
1986-87	3,364,082	1,836,356	1.8:1
1990-91	3,406,355	1,892,316	1.8:1
1995-96	3,634,052	2,367,936	1.5:1

Sage (1998). Power and ideology in American sport. p.69에서 재인용

Table of Contents

I. 스포츠와 젠더

II. 교육

III. 정책



II. 교육 - 여자 청소년 체육교육 · 스포츠에서의 현황

학교체육에서 이미 젠더의 구분은 ‘여학생의 신체 능력은 남학생보다 낮다’ 라는 가정이 제도화되어 있고 체육의 여성과 남성 버전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체육 교육에서 성의 구분을 엿볼 수 있는 요인들

A 교사의 언어 합리화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교사의 대표적인 젠더 관련 언어의 예
ex) 여학생: 팔의 힘이 없다. 내숭이다. 남학생처럼 잘 해봐라.
남학생: 남자가 왜 그렇게 힘을 못써! 여학생처럼 창의적으로 해봐.
남자니까 꼭 ~해라. 남자니까 더 많이 해야지.
=> 교사의 언어는 스포츠교육에서 젠더 공평을 위한 중요한 신호이다.

B 학생 역할 실천

체육교육에서의 역할이 남·녀의 성별로 명확하게 구분됨
ex) 남학생: 모듬지기(주장), 코치, 심판
여학생: 알리미, 기록원
=> 학생의 성 역할 의식은 체육교육에서도 잠재적으로 고정화 되어 있음.

C 수업 운영

체육 수업 공간 사용에서 젠더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지게끔 제공됨.

(성별에 따른 운동장 사용 예시)



22

II. 교육 - 여자 청소년 체육교육 · 스포츠에서의 현황

학생들의 생리적인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능중심이나 체력중심의 체육교육에서 벗어나 생리적 차이가 최소화되거나 고려되지 않는 통합적 체육교육을 실시해야 함.

항목

내용

1

적절한 환경을
조절

*함께 스포츠 취미를 나누고 감정과 친밀감을 교감할 수 있는 동료이자 운동하는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스포츠 관련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

2

시설물 활용과
공간 확보

*여자 청소년들의 스포츠 시설물 이용은 극히 제한적
*공공이용물에 다수가 원하는 남자 청소년들이 공간 확보 및 시설물 이용에 적극
*여자 청소년들에게도 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배려 필요

3

스포츠 규칙 및 규정
의 간단한 변화를
통한 재미를 충족

여성에게 적합하게 스포츠 규칙 및 규정의 변화를 통해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작업이 필요.

4

여자청소년을 위한
지도방법 마련 및
보급

*교사 및 스포츠지도자의 역할이 청소년들에게 크게 작용함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을 고려하는 지도방법이 마련되고 보급되어야 함
*또한 여자 청소년을 위해 스포츠의 특정종목에 대한 독특한 특성을 응용한 다양한 기술 개발 요구.
*즉 구기종목의 경우 힘과 스피드한 체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적 기술의 동작 및 공과의 친밀감을 통해 더욱 재미를 충족시킬 수 있음.

23

Table of Contents

I. 스포츠와 젠더

II. 교육

III. 정책



24

III. 정책

-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한국여성체육정책 방향

글로벌 거버넌스란?

지구적 공치(公治) 또는 협치(協治)

글로벌 즉, 세계화로 대변되는 20세기 말의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등장과 관계가 있음

1 전세계 여성 정책

UN의 세계여성회의는 성평등을 전 지구적 차원의 의제가 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동시에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발전계획과 여성통합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과 미래계획을 채택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침.

1 한국의 여성 정책

- *현재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성과로 성 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
-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의 여성 인권 보호 기반강화,
-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추진되었음.

*우리나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추진되었지만 현재 체육계의 양성 평등 문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 *체육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여성의 참여 매우 적었음
- *체육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체육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음.

*또한 여성운동선수의 성폭력 피해와 인권 침해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조차도 미비했음.

*이는 한국 체육계를 성 불평등의 대표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과마저 낳았음.

*최근 국가인권위로부터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 결과는 없는 상태임.

25

III. 정책

- 한국 여성체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

- *196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의 사회적 조류와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 *그리고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게임 등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여성 스포츠에 대한 차별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가 확대

여성발전기본법의 이해

-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제 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제 297조를 근간.
- *이를 기반으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 구현을 위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인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정책기본계획

6대 기본전략 아래에 20대 정책 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체육분야에서의 남녀평등 구현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목 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하위목표	- 남녀평등의 촉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복지증진	
기본전략 (6대)	1.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4. 다양한 여성,가정 복지서비스의 확충 5.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6.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26

III. 정책

- 한국 여성체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

한국 여성체육 정책의 추진 방향

1	양성평등관점 통합부문	체육분야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성차별 제거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양성평등적 관점 통합을 위한 중장기 사업 등 보다 근본적이면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2	여성정책결정 부문	체육정책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체육국에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을 위한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등의 도입이 필요함
3	여성인적자원 육성 부문	체육에서 여성인적자원을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선수과 지도자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제도구축이 필요함
4	여성경제 부문	남녀의 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퇴한 여성 선수를 여성스포츠 종목의 감독 및 코치로 일정 비을 채용하는 목표제 도입이 필요함
5	여성문화 부문	여성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6	여성건강 복지 부문	여성의 체육활동에 대한 요구분석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과 여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체육정책 개발이 필요함.
7	여성 인권 부문	여성운동 선수의 폭력과 성희롱, 성폭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8	평등문화 확산 부문	체육교육과정의 양성평등성 강화와 성 차별적 스포츠 보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7

한국여성체육정책 현황

- 우리나라 체육부처의 여성체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 매우 낮음
- 중앙정부 체육정책을 개발하는 체육과학 연구원의 여성정책 관련 연구과제 없음.
- 체육단체나 연맹 등에서도 직원 채용 시 여성비율을 고려하지 않음
- 체육분야의 성인지적 인식은 매우 낮음.

28

1. 생활체육 분야 -생활 체육 참여율-

- 생활체육 참여율-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임(김 양례 보고서 참고)
- 이와 관련된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 참여의 질 제고를 위한 대안 모색 필요

29

-여성 생활체육 지도자-

- 정부에서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여성 지도자가 남성지도자보다 비율 높음
 -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가 낮음
 - 1년 단위 재계약
 - 직업 안정성 낮음
 - 호봉 적용 안됨
 - 1년차 지도자와 10년차 지도자의 월급이 같음.
 - 남성 지도자의 경우 이직율이 높음
 - 여성지도자의 경우 직업선택이 폭이 적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로 남는 경우 많음

30

2. 전문 체육

-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우리나라 여성선수가 좋은 성적 거둠
- 세계적인 수준의 여성선수들을 국가대표 혹은 기타 운동부 팀의 감독으로 채용하지 않음
- 남자감독을 채용하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 이는 스포츠에 남성중심적인 가부장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임

31

3. 학교체육(엘리트 학교체육)

- 여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강화 필요
- 운동부의 감독이 대부분이 남자
- 훈련과정에서 운동특성상 신체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
- 그리고 운동부의 경우 감독이 경기출전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대한체육회에서 선수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스포츠를 넘어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함

32

은퇴 후 진로모색

- 학령기 훈련으로 인해 학업 기회 제한
- 졸업/은퇴 후 진로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됨.
- 학생선수의 학업 기회 보장
- 학력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운동선수 최저 학력제 등이 도입 및 운영되고 있음
- 여자운동선수가 은퇴 후 성공적 사회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학령기 때부터 모색되어야 함

33

학교체육(생활체육)

- 우리나라 10대 여학생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노인보다 더 낮게 나타남.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의 체육수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 이러한 것들이 체육수업은 물론 생활체육 참여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청소년기 여학생이 체육수업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체육수업 전후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 구비 필요
- 체육수업 참여 후 머리손질 등 외모를 관리할 수 있는 여유시간 필요

34

여성건강간호학에서의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조동숙(여성건강간호학회, 을지대)

I. 서론

여성건강간호학회(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현황 소개는 회원구성, 회장과 임원진, 주요 사업, 학술지 발간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성건강간호학회는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http://www.women-health-nursing.or.kr>이고, 영문 홈페이지는 <http://kjwhn.org> 를 2012년 4월 26일(주)아이 네임즈에 도메인 이름 등록을 완료하였다. 본 학회의 학술지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학술지의 전문을 접할 수 있는 open access이다.

1. 회원 현황

여성건강간호학회는 2012년 9월 1일 현재 정회원수가 298명이다. 정회원은 정관에 의해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한다. 본회 회원은 한국간호학과 학회 회원이 되고, 평생회원과 년 회원으로 구분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년 회원은 1년간의 회비를 납부한다. 정회원 298명 중 평생회원은 261명(87.6%)이고, 년 회원은 37명(12.4%)이다. 평생회원 261명의 소속은 현직 대학교수가 191명(73.2%), 퇴직교수 18명, 해외 4명, 병원근무자 27명(10.3%), 기타 4명, 미확인 17명이다.

2. 회장, 임원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2년 전에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2년간 부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다 전임 회장의 업무를 인계하게 된다. 학회 소재지는 회장의 근무지로 하고 회장은 임원진을 구성하여 학회를 운영하게 되며 회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전국을 5개 지역(수도권, 영동, 영서, 호남, 영남)으로 나누어 20명 내외의 지역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본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실행이사회를 두며 임원은 총 10명으로 학회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과 학회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실행하고 제반 실천사항을 총회에서 보고한다. 실행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학술위원장 1명, 출판위원장 1명, 정보위원장 1명, 총무이사 1명, 회계이사 1명, 서기이사 1명,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역대 회장은 1대부터 10대까지로 정관에 의해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여성건강간호학회 정회의원의 거주지, 근무지, 활동지역은 전국적이므로 회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회장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표1 참조).

표1. 여성건강간호학회 역대회장

임 기	이 름	소 속	소 재 지
1대 1995	장순복	연세대학교	서울
2대 1996-1997	최의순	가톨릭대학교	서울
3대 1998-1999	이경혜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4대 2000-2001	정문숙	경북대학교	대구
5대 2002-2003	박영숙	서울대학교	서울
6대 2004-2005	박재순	가톨릭대학교	서울
7대 2006-2007	이영숙	전남대학교	광주
8대 2008-2009	박영주	고려대학교	서울
9대 2010-2011	이혜경	강원대학교	춘천
10대 2012-2013	조동숙	을지대학교	성남
11대 2014-2015	이은희	강릉원주대학교	원주

3. 여성건강간호학회 주요 사업

여성건강간호학회는 여성건강 간호학의 발전과 학문적인 연구에 관한 활동, 타 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주요 사업은 연구 활동, 국내·외 학술 활동 및 교류, 홍보 활동, 교육 및 훈련, 학회지 및 기타 출판 사업, 기타 사항으로 구별한다.

1) 연구 활동

연구 활동은 회원 개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회에서는 회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학술연찬회시에 연구발표와 연구물의 심사를 통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2)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학술활동과 교류는 학술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학문발전을 위한 계획을 기획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산사협회와는 출산교육전문가과정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고, 병원간호사회 여성건강간호사회와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한국모자보건학회와는 본회 정회원들이 다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3) 홍보 활동

홍보활동은 학회의 업무를 알리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홍보위원회에서 회원들 개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학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 홍보위원회에서는 국문홈페이지와 영문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

4) 교육 및 훈련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는 학술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있다. 본회 정회원은 간호사로 의료인이므로 의료법에 의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어, 학술연찬회 내용에 간호사 보수교육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의 요구와 여성건강의 시대적 주요 이슈를 담당하는 인력을 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여 왔다.

5) 학회지 및 기타 출판사업

출판위원회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하고,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관리하며, 논문심사를 위해서 30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정회원과 국외 여성건강간호 전공 학자들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기타 간호사 국가시험을 위한 모성간호학 문제지를 발간하고 있다.

4. 학술지 발간 현황

학술지 발간 현황은 학술지 명칭과 국제화 노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학술지 명칭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1995년 3월 창간호에 논문을 8편 게재(총 130쪽)하였고 400부를 발행하였다. 학술지 국문제호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로 2010년 9월호까지 변함없이 사용하였는데 학술지의 영문표기명은 학회 영문 표기의 변경에 의해, 국제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어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하기로 하고 2010년 12월호부터는 국문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KJWHN(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는 1995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권 1호를 출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SSN 1225-9543을 부여받아 2010년 9월호까지 사용해 왔다. 이후 온라인 출판을 위해 2010년 12월에 eISSN 2093-7695을 추가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학술지명 변경에 따라 2012년 5월 1일부터 pISSN 2287-1640을 부여받아 사용하게 되었다(표2 참조).

표2. 여성건강간호학회 학술지 명칭 변경

발행일	권, 호	학술지 표지	학술지 영문 표기	국제표준연속 간행물번호
1995년 3월	1, 1	여성건강간호 학회지	<i>The Journal of Korean Women's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i>	-
1995년 9월	1, 2	상동	상동	ISSN 1225-9543

2000년 7월	6, 2	상동	<i>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i>	상동
2001년 9월	7, 3	상동	<i>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i>	상동
2010년 12월	16, 4	KJWHN	상동	pISSN 1225-9543 eISSN 2093-7695
2012년 6월	18, 2	상동	상동	pISSN 2287-1640 eISSN 2093-7695

2) 학술지 국제화 노력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학술지 질적 향상과 출판물의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에 의해 산출된 Impact factor가 2007년 0.250, 2008년 0.382, 2009년 0.238, 2010년 0.485, 2011년 0.410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본 학술지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재학술지이며, 2008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었다. KoreaMed Synapse에는 2008년 12월호부터 참여하고, 본회 학술지에서 인용 한 참고문헌들은 타 연구자들이 주요어로 검색하여 연동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용도를 높이기 위해 DOI/CrossRef(<http://dx.doi.org/10.4069/kjwhn>.)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Google Scholar에 참여하고, EBSCO CINAHL에 전문 제공(2009년 6월호부터 등재)을 시작하였다.

정보화 추세에 의해 on-line 논문투고시스템을 도입하여 2009년 9월호(15권 3호)부터 <http://whn.medicallove.com> 온라인 논문투고를 시작하였다. 이어 2012년 4월 국제학술지 등재를 목표로 영문투고자를 위한 영문홈페이지를 제작 오픈하기에 이르렀으며 국외 논문 심사자를 다수 초빙하였다.

II. 학회의 성립 배경

여성건강간호학회 발족과 학술활동 시작, 총회 그리고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여성건강간호학회 발족

여성건강간호학회는 1970년 4월 대한간호학회(현, 한국간호과학회)의 분과학회인 모자간호학회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4년간 모자간호학회로 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영역이 어머니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 고유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관한 간호학적 접근을 모색하던 중모자간호학회의 활동을 두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나누는 것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분리 당시 모자간호학회 회원들은 각자의 연구와 관심에 따라 여성건강간호와 아동간호 영역 중 1개 영역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어 1994년 5월 23일 오후 2시 이화여대 국제회의실에

서 모자간호학회(회원 157명)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성건강간호학회와 아동간호학회로 학회 명칭을 정하고 분리하였다. 이어 모자간호학회 회계분리(1994년 7월 15일)를 하여 경상비 750,000원과 적립금 1,532,544원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 운영을 시작하였다.

2. 여성건강간호학회 학술활동 시작

여성건강간호를 발전하기 위해서 모자간호학회로부터 분리된 해인 1994년 12월 9일 오후1시 연세대 의대 종합관 508호에서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총회 시 여성건강간호학회 정회원은 89명이었다. 1994년 12월 9일 여성건강간호학회 총회에서 1995년도 사업으로 여성건강간호학의 교과내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하계연찬회시 회원들과 함께 토의하기로 하고 “여성건강간호 curriculum study group” 위원(연구 책임자, 이정혜,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14인을 구성하였다. 이어 1995년 5월 27일 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여성건강간호학의 교과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로 정의, 범위, 철학 그리고, 여성건강간호학 교육목표와 여성건강간호학 교과개발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의 전망을 Elizabeth Choi(미국 George Mason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여성건강간호교육의 발전과정, 여성건강간호연구의 발전과정, 여성건강간호사업의 발전과정, 여성건강간호의 미래방향을 토의하고 회원 모두 여성건강간호학에 관한 일원화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여성건강간호학회 총회, 학술대회

여성건강간호학회는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다. 1994년 5월 23일부터 2011년 12월 16일까지 창립총회, 18회의 정기총회, 4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년 2-3회 춘계, 하계, 추계로 나누어 관심 분야와 회원들의 학술적 탐구 요구를 반영하면서 1994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52회의 학술대회를 실시하였다.

4. 학술대회 주제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학술대회 주제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고, 여성건강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개념, 방향설정을 모색하면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과정을 년차적으로 꾸준히 개설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성적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표3 참조).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학술대회 주제는 여성건강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주제가 많았다. 특히 사회적 문제인 저 출산을 비롯하여 성기능 장애, 폐경, 요실금, 불임, 여성 생식기암, 피임, 사춘기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접근법을 모색하였다(표4 참조).

표3. 여성건강간호학회 학술대회 주제(1994년-1993년)

일 자	장 소	주 제
1994. 7. 4-5	충남 유성 흥인호텔	21세기 간호사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
1994. 12. 9	연세대 의료원 종합관 508호	여성건강간호의 역사적 조명
1995. 4. 20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 교수 연구동 103호	학위논문 6편 발표
1995. 5. 27	연세대 의대 131호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의 전망-교육, 연구, 사업-, 여성건강간호학 교과모형개발 결과보고
1995. 12. 1	연세대 의료원 종합관 508호	여성건강간호와 질적 연구
1996. 5. 3	서울대학병원 A강당	학위논문 2편 발표
1996. 7. 4-5	부산 은혜의 집	21세기 여성건강을 위한 실습교육방안
1996. 11. 30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201호 강의실	태아건강사정의 최신 경향
1997. 5. 2	중앙대학교 대학원관 국제회 의실	학위논문 4편 발표
1997. 6. 23-24	서소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모성간호학 교육내용 평가를 위한 문항개발
1997. 11. 29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201호 강의실	한국 여성건강현황과 정책과제
1998. 4. 24	한양대 백남음악관	학위논문 4편 발표
1998. 6. 30-7. 2	고려대 의대 제1회의실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교육과정 I
1998. 12. 21-23	용인 대한간호협회(KNA)연수원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문항개발 워크숍
1999. 1. 25-29	이대 인문관 111호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교육과정 II
1999. 6. 4	한양대 동문회관	학위논문 6편 발표
1999. 7. 29-30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1호	여성과 어린이 건강정책 방향 및 여성건강간호 학 학습목표
1999. 12. 18	이화여대 헬렌관 1층 대강의 실	남,녀 성차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2000. 1. 10-15	이화여대 헬렌관 대강의실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교육과정 III
2000. 7. 4	대구 팔공파크 호텔	PBL의 간호교육 적용 및 학습목표에 따른 문항 개발 워크숍
2001. 4. 27	연세대 간호대학	논문 9편 발표
2001. 7. 3	가톨릭대 의과학 연구원 1002 호	산전태아검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방향
2001. 12. 14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1002호	불임의 이해
2002. 5. 10	경희대 의학관	논문 구두 5편, 포스터 2편 발표
2002. 6. 20-21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	유전상담 전문 간호사 기초과정
2003. 4. 25	경희대학교 의학관	논문 구두 6편, 포스터 7편 발표
2003. 7. 1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	유전상담 전문 간호사 상급과정
2003. 12. 17	서울대 간호대학 101호	임부상담과 태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연구논문 분석 및 발전방향

표4. 여성건강간호학회 학술대회 주제(2004년-2011년)

일 자	장 소	주 제
2004. 5. 21	서울대 문화관	논문 구두 12편, 포스터 6편 발표
2004. 6. 17	가톨릭대 의과학 연구원 1층	여성건강 간호와 간호전문화
2004. 12. 17	강남성모병원 2층 대강당	The Curricula and Clinical Components for Advanced Nurse Practitioner in Women's Health Nursing
2005. 5. 27	가톨릭대 의과학 연구원 1002호	저출산에 따른 모자보건 정책방향 및 전망,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의 실제
2005. 6. 24	강남성모병원 2층 대강당	여성생식기 검진 및 수술방법, 여성생식기 종양 검진방법
2005. 12. 13	가톨릭대 의과학 연구원 1002호	성기능 장애 진단 및 치료의 최신지견
2006. 5. 26	순천향대 소화기병센터	여성건강과 임상실제
2006. 6. 30	경희대 청운관 B117호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초음파 검진과 실제
2006. 10. 19	전남대 본부 2층 용봉홀	폐경기 여성에서 호르몬 요법의 최신지견
2007. 5. 22	경희대 청운관 B117호	요실금 치료의 최신지견 및 임상사례
2007. 6. 19	경희대 청운관 B117호	불임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최신지견과 실제
2007. 10. 26	경희대 청운관 B117호	변화하는 사회와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8. 5. 29	고려대 인촌기념관 2층 회의실	여성생식기 암관리의 최근 경향
2008. 5. 30	고려대 인촌기념관 2층 회의실	사춘기 여성의 건강관리 I:폐임
2008. 12. 11	고려대 인촌기념관 1층 회의실	사춘기 여성의 건강관리 II:성(Sexuality)
2009. 5. 21	고려대 인촌기념관 2층 회의실	주산기 간호의 최근 경향
2009. 5. 22	고려대 인촌기념관 2층 제1회의실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 I: 고위험 임부
2009. 12. 11	고려대 자연계캠퍼스 하나스퀘어 강당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 II: 고위험 산부관리 및 모성간호학 학습목표 검토
2010. 5. 27	성신여대 성신관 1층 강당	간호학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방법의 적용
2010. 5. 28	성신여대 성신관 1층 강당	폐경기 여성건강관리
2010. 12. 10	성신여대 성신관 110호 강당	여성생식기 암의 최근치료동향
2011. 5. 27	순천향대 서울병원 동은 대강당	여성건강간호학 실습교육에서 시뮬레이션 활용
2011. 12. 16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Simulation-Based Training for women's health nursing
2012. 5. 18	서울대 간호대학 본관103호	여성건강간호의 지평: 근거중심 연구, 실무와 교육
2012. 5. 19	서울대 간호대학 연구동 2층 강당	국제 저명 저널 논문게재 워크숍

III.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 연구사 리뷰

여성건강간호학 관련 박사학위논문은 1980년 초반부터 발표되었는데, 그 후 3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방대한 양의 석·박사 논문이 발표되었다. 여성건강간호 연구 동향은 본 학회의 학술지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와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1995년 창간호(1권 1호)가 발간된 이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16년간 총 61호의 학회지가 발간되었고, 총 598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598편의 연구 논문 중에는 학위논문이 20개교에서 66편(석사 41편, 박사 25편)이 축약 게재되었다.

1. 여성주의 관련 연구의 기준 준수 노력

여성건강간호학회는 학회 발족 시 여성건강간호학 연구를 시작하면서 여성주의 관련 연구의 기준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첫째, 연구책임자가 여성임. 둘째, 여성주의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함. 셋째, 연구 참여자의 유익성을 강화하여야 함. 넷째, 연구 주제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중시함. 다섯째, 연구목적이 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섯째, 여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성주의 문헌을 제시하며, 성차를 나타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2. 여성건강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주요어

여성건강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주요어들을 분석한 결과 598편의 논문에서 총 898종의 주요어가 사용되었다. 주요어의 사용 순위는 1위가 여성, 2위는 우울, 3위는 지식, 4위는 스트레스, 5위는 태도, 6위는 중년여성, 7위는 모유수유, 8위는 불안, 9위는 여성건강, 10위는 삶의 질로 나타났다. 598편의 게재 논문에서 표 5에 제시한 10위 이내의 주요어를 사용한 연구는 365편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5. 여성건강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주요어(1995년 3월호 - 2011년 12월호) N=898

순위	주요어	n
1	여성(women)	74
2	우울(depression)	52
3	지식(knowledge)	40
4	스트레스(stress)	37
5	태도(attitude)	34
6	중년여성(middle-aged women)	33
7	모유수유(breast-feeding)	28
8	불안(anxiety)	26
9	여성건강(women's health)	23
10	삶의 질(quality of life)	18
	기 타 주요어	533

3. 여성건강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연구대상

여성건강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598편의 연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종설, 개념 연구 등을 연구한 45편의 논문을 제외한 553편의 연구 대상자는 사회적 이슈로 분류될 수 있는 대상자, 건강문제를 지닌 대상자를 돌보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 건강문제를 지닌 환자대상 연구, 여성생애주기별로 구별할 수 있었다. 사회적 이슈는 21편이었다. 건강문제를 지닌 대상자를 돌보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7편이었다. 환자대상 연구는 64편이었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대상자를 연구한 연구논문은 416편이었다. 여성 생애주기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자 1위는 성인초기인 대학생 집단이었다. 2위는 중년여성이었고, 3위는 출산기 여성, 4위는 임신기, 5위는 분만기 여성이었고, 6위는 성인기이었다(표6 참조).

표6. 여성건강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연구대상자(1995년 3월호 - 2011년 12월호) N=598

구분	순위	대상자	n*
비인간		종설, 문헌고찰, 개념분석, 자료 분석 등	45
사회적 이슈		이주여성, 근로여성, 가정폭력, 학대	21
대상자를 돌보는 인력		간호사, 조산사, 의사, 가족, 배우자 등	57
건강문제를 지닌 환자		암, 수술, 관절염, 골다공증, 유산, 불임 등	64
여성생애주기별 대상자	1	성인초기(college students)	68
	2	중년기(middle-aged women)	60
	3	출산기(postpartum mother)	59
	4	임신기(pregnant women),	44
	5	분만기(labor women)	36
	6	성인기(adult)	34
	기타	양육기, 사춘기, 결혼기, 폐경기, 노인기, 아동기	115

* 연구대상자가 2개 이상인 연구논문 포함

IV. 여성(젠더) 연구가 분과학문에 끼친 영향

여성의 건강문제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통찰하고 여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어 간호의 대상자를 질병중심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인간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강조되고, 여성주의와 대상자 중심의 간호가 강조되면서 모성간호의 대상자인 여성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관심의 초점을 바꾸는 변화는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여성만이 갖는 독특한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을 간호학에서 채택하게 되면서 “여성건강간호학”으로 학문의 명칭을 바꾸는 과정 중에 있다(이경혜, 1998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4권 1호, 36-46쪽).

V. 여성연구자들의 status

여성건강간호학회 정회원 대부분이 대학과 병원 현장 근무자이므로 대상자인 여성의 전인적인 건강과 생식건강간호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향상하고자 대상자와 계속 교류하면서 현재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실무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VI. 향후 과제

여성건강간호학회 정회원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여성건강간호 학문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여성건강간호학회지를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 발전시킨다. 또한 대상자 인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꾸준히 모색한다.

여성의 몸과 마음, 건강 연구: 대한여성건강학회

박효정(대한여성건강학회, 이화여대)

차지영(대한여성건강학회, 이화여대)

대한여성건강학회(회장 한인권, 현회장 서주태)는 2000년 다학제적 접근으로 여성건강 연구 및 학술 교류와 관·산·학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여성의 실제적인 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창립 되었다. 간호학, 의학, 사회학, 심리학 및 예술분야 등의 여성과 관련된 학계에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대한여성건강학회는 이화여대 신경림 교수를 팀장으로 여성건강증진사업팀(1994년-현재)의 연구, 교육, 학술 및 출판에 담당하고 있다(그림 1). 발표문에서 대한여성건강학회가 걸어온 길들을 알아보고 도전과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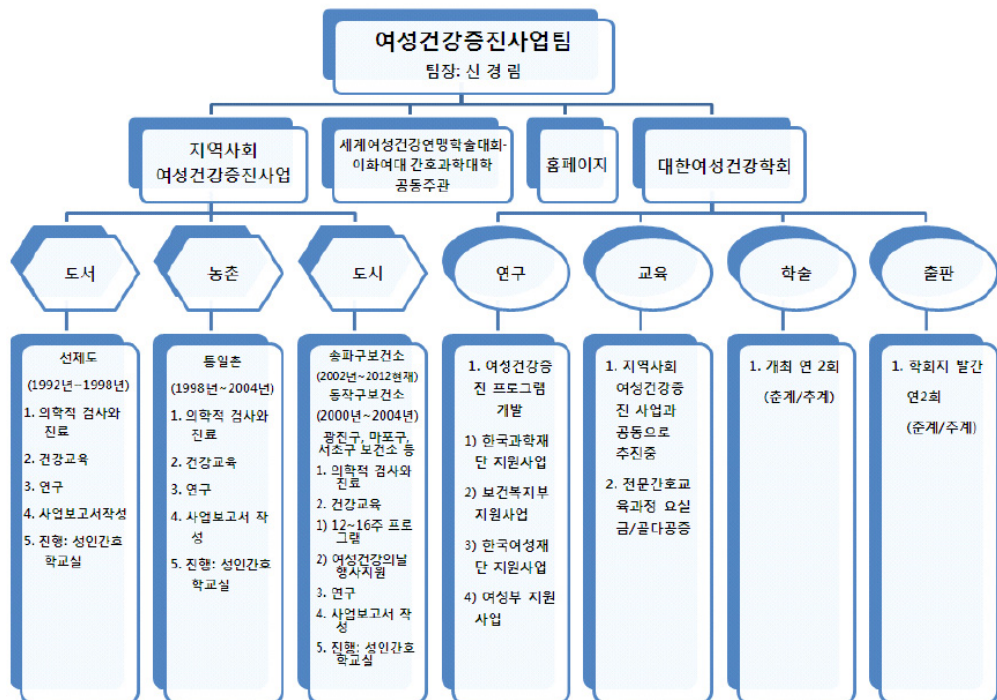


그림 1. 여성건강증진사업팀의 조직도

I. 연구

1. 한국과학재단 지원사업: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본 사업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간 진행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도서지역의 현실상황에 알맞은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1단계 연구에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120문항의 건강증진모형 연구도구를 개발하였고, 2단계 연구에서는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요실금, 골다공증, 여성암 예방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동으로 개발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로 각각 3개월씩 요실금 예방, 골다공증 예방, 여성암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단계 연구에서는 1,2,3 단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프로그램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통합된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 사업으로 대한여성건강학회 창립이 이루어지는 주춧돌이 되었다.

2.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1)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 요실금, 골다공증을 중심으로

이 사업은 2001년에 약 1년간 진행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여성의 자기건강 관리에 대한 자각을 증대하고, 여성의 건강증진과 질병 조기예방으로 만성질환 이환율을 감소시키며, 의료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여성건강정책 결정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 결과 요실금 실태조사에서는 복잡성 요실금 41.4%, 절박성 요실금 44.9%로 나타났으며 질내압을 측정된 결과 최고 질내압은 $23.29 \pm 12.79 \text{ mmHg}$, 평균질내압은 $16.91 \pm 10.17 \text{ mmHg}$, 지속시간은 $3.36 \pm 2.09 \text{ sec}$ 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실태조사 결과, 연구 대상자 157명의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고 21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9.54점으로 100점 만점 환산점수는 39.75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골밀도 검사에서는 정상범위에 속한 대상자가 31.7%, 골감소증 범위 41.0%, 골다공증 범위 27.3%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 중 68.3%에서 비정상적인 골밀도 결과를 나타냈다. 요중 디옥시피리디놀린과 혈중 오스테오칼신을 검사한 결과 디옥시피리디놀린이 비정상인 경우 39.2%, 오스테오칼신이 비정상인 경우 34.5%로 대상자의 1/3 이상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여성 요실금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 1회씩 4주 동안 각각 요실금의 개요, 요실금의 진단 및 치료, 질내압 측정, 운동요법으로 구성하였다. 각 주별 프로그램 소요시간은 120분이었으며 그림, 모형, 슬라이드, 비디오 등의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요실금 전문간호사나 요실금 전문의, 지역보건간호사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사회 보건소를 활용하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D보건소를 활용하여 의사, 간호사, 운동전문가 등에 의해 4주간 적용

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은 최정점 질내압, 평균질내압, 지속시간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 골다공증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주 1회 4주 동안 각각 골다공증의 개요,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구성되었다. 각 주별 프로그램 소요시간은 120분이었으며 그림, 모형,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골다공증 전문간호사나 지역보건간호사, 내분비내과 전문의, 운동요법 전문가, 영양사 등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여성 요실금 예방 치료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여성 요실금 운동 비디오 효과 검증

본 사업은 2002년에 수행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여성 요실금 예방·치료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과 여성 요실금 운동 비디오 효과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 결과 여성요실금 운동비디오의 장기간의 효과는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에서 최정점 질내압과 평균 질내압, 지속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뇨증상에 있어서도 소변 흐르는 것에 대한 대책, 잔뇨감, 신체활동지장($p<0.01$) 등의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감소하여 증상이 유의하게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하부 요로 증상의 문항 중 빈뇨, 야뇨, 요실금의 양, 실금대책, 실금대책 횟수, 배뇨 도중 중단능력, 절박뇨, 배뇨도중 끊김, 작열감, 잔뇨감, 성행위중 통증, 수분섭취제한, 화장실 없는 장소 회피, 신체활동지장 등 다수의 문항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에서 대조군 보다 평균점수가 더 많이 감소하여 실험군의 요실금 및 하부요로증상의 개선을 나타내었다. 이를 전년도 6주간의 단기간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요실금 증상호전의 객관적인 변인으로서의 질내압이나 주관적인 변인으로서의 하부요로증상에 있어 두 가지 모두 12주간의 장기간 교육프로그램 적용이 결과의 호전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기적인 요실금 운동 비디오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요실금 대상자의 요실금 및 하부요로 증상관리에 있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농촌지역 중심 여성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본 사업은 2002년에 시행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농촌 소외 계층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관해 조사한 결과, 평소 건강상태에 관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47.1%로 나타나 대체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상태로 인해 지난 한 달 동안 받은 일상생활 지장 정도를 확인한 결과 66.1%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대상자의 현재 건강문제에 관해 조사한 결과, 계통별로는 소화기계 40.0%, 신경계 31.0%, 혈액계 25.8%, 근골격계 2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문제별로는 두통 31.8%, 빈혈 25.9%, 변비 24.3%, 위장질환 20.3%, 관절통 18.1%, 요실금

10.1%, 질염 8.8%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해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69.1%로 나타났으며 검진주기는 6개월마다 실시하는 경우 2.5%, 1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27.1%, 2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24.2%,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46.2%였다.

4. 여성부 지원사업: 여성건강증진을 통한 성주류화 달성 및 인권함양

본 사업은 2002년에 수행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여성건강증진을 통한 성주류화 달성 및 인권함양을 위함이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건강증진을 통한 성주류화 달성 및 인권함양, 여성건강에 대한 다각적 논의와 해결방안 강구, 다학문적 접근을 통한 여성건강의 총체적 관점 제공, 여성건강의 국제적인 정보교류의 시발점 역할,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 여성의 bargaining power 증가를 통한 성주류화 달성이었다.

사업 결과 여성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의 틀 제공하였고 여성건강증진 활동의 도모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원활히 수행하고 사회발전에 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건강증진을 통한 여성의 인권 함양 및 삶의 질 향상하였고 연구 인력의 참여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와의 연계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여성건강에 대한 개념 정립할 수 있었다.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집 발간 및 정책과제 개발

본 사업은 2003년에 수행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여성건강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주요한 건강문제를 선별하고 이 주제에 대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하여 중년 여성의 유방암 발병 요인에 대한 한국적 특성을 규명, 여성의 복부비만 결정요인에 대한 코호트 분석,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 요실금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령 확대 방안, 그리고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관리 모형을 개발하였다.

II. 교육

1. 지역사회 여성건강증진 사업

1) 도서지역

본 연구는 도서지역 성인여성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1996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2년 동안 선재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2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도서지역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문제 및 건강상태, 여성요실금, 골다공증, 유방암에 대한 지식정도와 유병률,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실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8.6세, 교육수준은 국문해독 불가능한 경우가 22.4%, 직업은 어업이 78.8%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상태 조사결과 건강인지도에서 아주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인 경우가 38.7% 정도로 나타났으며 근관절계통의 증상에서 허리(51.8%)와 무릎(40.5%) 통증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 상태는 체중미달(32.8%)와 비만체중(33%)이 정상체중(53%)보다 약간 높고, 영양상태 판정결과 78.7%의 대상자가 충분한 음식과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영양상태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에 대한 지식정도에서, 각 문항에 대해 확실히 정답을 대답할 수 있는 경우는 1점, 모르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최소 0점에서 최대 9점까지 분포하였고, 대상자들의 평균점수는 3.6점으로 상당히 저조하여, 요실금에 지식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한 달간 경험한 요실금 및 하부요로증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상자들이 복잡성 요실금 증상, 절박뇨 등의 순으로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19.32%가 빈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불편감의 정도는 약간 52.94%, 심각하다 29.41%, 불편하지 않다 11.76%, 제법 5.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정확한 요실금의 발생률을 측정할 수는 없었으나, 대상자들은 지금까지의 요실금 증상 및 다양한 하부요로증상을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모든 증상을 다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도의 불편감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도서지역 여성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요실금 유병율이 높은 것은(김효정, 1996) 인구학적 특성상 중, 노년층의 여성이 살고,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다른 지역사회와는 고립된 나뭇대로의 전통적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 대상자들이 갯벌작업으로 인해 식사나 배설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불규칙하고, 장시간 가릴 곳이 없는 갯벌에서 복압을 증가시키는 쭈그리고 앉는 체위를 취하고 작업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신경림, 2001).

도서지역 여성이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정도와 유병율을 보면, 총 10점 만점으로 대상자의 지식분포는 최대 18점에서 최소 8점까지 분포하였다. 결과는 골다공증의 증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지식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골다공증의 주요 중재방법인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므로 예방할 수 있다는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70.13%)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방암에 대한 지식정도를 보면 유방암 사망원인에 대한 항목 50.67%, 유방자가검진 시기 16%, 유방 자가검진 방법 48%가 정답을 대답하였다. 유방 자가 검진은 그 지식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규칙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초기에 실시한 조사연구에서 “유방암 자가검진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2.3%이고, 규칙적인 수행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지식전달과 교육방법 수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된다.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경험 유무는 1회 이상 시행한 경우가 73.58%로 조사 대상이었던 도서지역이 보건진료소의 간호사 활동으로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이 이미 시행되어 관리되어 온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 결과 정상은 94.23%, 비정상은 3.77%로 이미 진료보건소에 의한 조기검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농촌지역

694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성별 및 연령 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는 50.3%, 여자는 49.7%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8.2세였으며, 50-59세 30.6%, 40-49세 27.0%로 조사대상의 57.6%가 성인중기에 속하였다. 직업은 농업이 64.9%, 전업주부 21.6%, 상업 6.3% 순이었고, 주수입원은 농사 75.7%, 장사 8.1%순이었다. 건강상태 조사 결과 가장 많이 호소한 신체적 건강문제는 쉽게 피곤하고 나른함 42.3%, 허리가 아프다 36.9%, 건망증이 심해졌다 36.0%, 머리가 아프다 33.3%, 시력에 변화가 있다 33.3%, 무릎이 아프다 32.4%, 손발이 저리거나 아프다 32.4%, 기억력의 감퇴가 있다 31.5%, 눈이 불편하다 31.5%,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 30.6%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육·관절의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종합검진 수진율은 39.6%였고, 종합검진을 받았던 대상자의 45.4%가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여성건강검진 수진율이 42.1%와 비교하여 볼 때 낮은 비율이었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규칙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WHO 기준에 따라 골다공증의 여부를 분류하였을 때 Mid-radius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31.6%가 골다공증, 49.1%가 골감소증, 19.3%만이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Ultradistal radius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는 24.6%가 골다공증, 42.1%가 골감소증, 33.3%가 정상으로 나타나 Mid-radius의 골밀도가 Ultradistalradius의 골밀도보다 낮았다.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문항은 크게 일반적으로 지식 9문항, 운동에 관한 지식 7문항, 식이에 관한 지식 8문항으로 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지식에 대한 백분위 점수는 47점, 운동에 관한 지식이 45점으로 전체 지식의 51점에 비해 낮았으며, 식이에 관한 지식은 60점으로 전체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과 골다공증 유병률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즉, 정상군과 골감소군보다 골다공증군의 골다공증에 관한 총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Ultradistal radius: $p=0.018$; Mid-radius: $p=0.001$). 지식의 각 항목에서는 운동에 관한 지식과 식이에 관한 지식 점수가 골다공증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일반적 지식은 골다공증군이 정상군과 골감소증군보다 점수가 낮았으나 군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골다공증에 관한 건강신념의 평균 점수는 민감성이 19.1, 심각성 19.2, 운동의 유익성 22.9, 칼슘 섭취의 유익성 21.4, 운동의 장애성 16.1, 칼슘 섭취의 장애성 15.1, 건강 동기 20.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과 칼슘 섭취의 유의성이 가장 높았으며, 칼슘 섭취의 장애성이 가장 낮았다.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 효능감은 총 12문항 5점 척도이며,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최저 점

수는 13점, 최고 점수는 59점이며 평균은 38.4점이었다. 대상자 75명 중 요실금 증상이 있는 사람은 4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실금의 유형별로는 절박성 요실금이 31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혼합성 요실금이 15명(20.0%), 복합성 요실금이 3명(4.0%) 순으로 많았다. 요실금 대상자의 요실금 정도와 이에 따른 대처 양상을 확인해 보면 우선 요실금 빈도에서 1회 이하/주 62명(82.6%), 1회/일 7명, 2~3회/주 4명(5.3%), 여러번/일이 2명(2.7%) 순으로 많았다. 요실금의 양은 흘리지 않는다 35명(46.7%), 몇 방울 적신다 27명(36.0%), 팬티를 적신다 12명(16.0%), 겉옷을 적신다 1명(1.3%)으로 대부분 요실금의 양은 소량이었다.

요실금에 대한 대처로는 속옷을 갈아 입는다가 40명(9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작은 사이즈의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경우는 1명(2.4%)이었다. 요실금 시 대처 빈도는 0회/일 10명(25%), 1회/일 28명(70%), 2~3회/일 2명(5%)으로 주로 요실금 대상자들은 1회/일 이하의 대처 빈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요실금 대상자들은 각종 하부요로증상을 경험하고 있었고,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요실금은 그 유형 뿐 아니라 하부요로 증상들과 함께 효과적인 중재를 위한 의미가 있다.

연구 대상자의 75%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답하였으며, 영역별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신경 근육계 증상이 5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장애증상 55.2%, 혈관 운동성 증상이 26.7%, 신체화 증상이 25.9%, 수면 장애 16%의 순이었다. 갱년기 증상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기억력 감소가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허리 아픔이 43.1%, 관절통이 38.8%, 손발저림이 31.9%, 심장뛰기 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지역 내 농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통제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가중된 노동에 의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들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다른 지역 농촌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농촌의 생활양식과의 관계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도시지역

본 사업은 대도시에 위치한 지역사회 중심의 D구 주민 여성의 건강증진 요구를 사정하고 건강증진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여성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D구 주민 여성의 골다공증 지식정도와 골다공증 유·무, 요실금 유·무와 요실금 유형, 여성암의 유·무와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정도, 수면장애에 대해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 - 2002년 서울시 D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중 본 여성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기를 동의하고 소정의 신청서로 신청한 자로서 1기부터 6기까지 총 430명이었다.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은 총 12문항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2점으로 분석하였다.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 점수는 평균 13.5-15.8점이었고 골밀도 측정 결과, 골감소증이 28.6-37.4%, 골다공증

이 14.3-35.3%로 나타났다. 요실금을 살펴보면 복잡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는 68.6-82.6%,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가 20.0-36.4%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잡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에 대한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여성암의 경우,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은 총 18문항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8점으로 분석하였다.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점수는 평균 8.0-10.4점으로 나타났다.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소견이 나온 경우가 4.4-6.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방암과 자궁암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12.5-56.5%, 코골이가 있는 경우가 41.7-70.8%, 수면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7.1-16.8%로 나타났다.

그 이후 2002년부터 S구 보건소에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여성건강대학이 12주 프로그램으로 2회/년 다학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건강대학에 참여한 202명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9.2%(59명)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폐경에 대한 태도, 수면의 질 순으로 나타났다(신경림, 강윤희, 김미정, 2010). 이상의 결과는 여성건강대학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지역 사회 주민 여성의 건강증진과 프로그램 개발, 나아가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향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III. 학술

1. 학술대회

대한여성건강학회는 1999년부터 매년 1-2회의 국내/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중년과 노인 여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하였다(표 1). 특히 2002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여성건강연맹인 International Council of Whomen's Health Issues(ICOWHI)와 공동주최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표1. 학술대회 개최현황

연도	주제	참석인원	비고
1999	여성건강의 다학제적 접근	100명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한 대한여성건강학회 창립기념대회는 여성건강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장이 됨.
2000	노인여성의 건강	106명	
	여성건강과 실무적 접근-NGO 활동	135명	NGO 단체를 초청하여 각 단 각 단체간의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론형성의 장을 마련함.

연도	주제	참석인원	비고
2001	Elderly Health Care	85명	RANHS(Research Association for Nursing and Health Science)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움.
	교육매체 활용을 통한 여성건강증진 전략	44명	NGO와 정부관련 기관과의 패넬토의를 통해 “여성건강협의회”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여성건강문제에 대한 정책반영이 논의됨.
2002	세계여성건강연맹 학술대회 개최	675명	International Council of Whomen's Health Issues(ICOWHI)와 공동주최
	여성건강과 노화방지	57명	
2003	여성성기능 장애와 요실금	108명	여성성기능 장애에 대한 다학제적인 시각을 확대함.
	노인건강과 장기 영양사업	98명	외국의 실례를 통해 노인건강과 노인요양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2004	The 6th Nursing Academic International Congress Mind & Body Wellbeing과 여성건강		
2006	활기찬 중년여성의 삶	134명	여성건강을 위한 특별강좌형식으로 진행된 초청강연회임.
	여성건강의 보완통합적 치료접근	60명	
2007	환경과 여성건강	246명	
	유전과 여성건강	50명	
2008	아름다운 중년여성의 건강	92명	
	다학제적 접근: 노인여성 건강	38명	
2009	행복한 중년여성의 삶과 건강	136명	
2010	활기찬 중년여성의 건강:	144명	
	스트레스 극복하기		
	다학제적 관점의 다문화가족 건강	90명	
2011	중년여성. 새로운 나를 위한 초대	86명	
	여성건강과 커뮤니케이션	136명	

IV. 출판

1. 단행본

2002년 여성건강(현문사)를 발행하였다. 이 책에서는 여성건강에 대한 이해, 다학제간 접근으로 본 여성건강, 여성건강 문제, 여성건강증진을 다루었다. 목차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2. 여성건강 목차

대분류	소분류
제1부 여성건강에 대한 이해	제1장 여성건강의 중요성 제2장 여성건강의 현황 제3장 여성을 위한 심리적 접근
제2부 다학제간 접근으로 본 여성건강	제1장 여성건강과 법 제2장 여성건강과 교육 제3장 여성건강과 시민운동 제4장 여성건강과 국제적 이슈
제3부 여성건강문제	제1장 여성건강과 성 제2장 여성건강과 임신, 피임 제3장 여성건강과 유산, 제왕절개 제4장 여성건강과 유방암 제5장 여성건강과 자궁경부암 제6장 여성건강과 수면 제7장 여성건강과 요실금 제8장 여성건강과 골다공증 제9장 여성건강과 노인학대 제10장 여성건강과 가정폭력
제4부 여성건강증진	제1장 여성건강증진과 영양 제2장 여성건강증진과 운동 제3장 여성건강증진과 흡연 제4장 여성건강증진과 음주 제5장 여성건강증진과 대체의학

2. 여성건강 학술지

대한여성건강학회에서는 2000년부터 여성건강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매년 2회(6월, 12월) 발행되며 2012년 현재 13권 1호가 발행되었다. 여성건강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모토로 창간호에는 국내외의 간호학, 의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에서 여성건강의 개념과 여성 특이성 질환 등에 관한 논문을 실었다. 다음해는 2001년도부터 년 2회 여성건강이 발간되었으며, 주로 여성의 건강문제인 유방암, 자궁암, 폐경기 증상, 출산관련 질환 등이 다루어졌으며, 대상자는 주로 성인 여성이나 노인 여성이었다. 여성의 질환 이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생활습관 및 여성폭력 등에 관한 논문도 여성건강 논문 리스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질환과 관련된 여성건강문제 이외에 여성의 몸에 관한 담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의 건강, 여성과 음식양생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여성의 역할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 대한 논문도 출판되었다.

3. 여성건강 학위논문

여성건강과 관련된 학위논문은 대한여성건강학회가 창립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2012년까지 68편이 발간되었다(표 3).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사회 여성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물이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든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흔한 질환인 요실금, 골다골증,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경기 증상, 수면, 우울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3. 여성건강과 관련된 석·박사학위 논문

년도	저자	연구제목
1997	김효정	성인여성의 요실금에 관한 연구
1998	임태연	중년여성의 몸의 변화에 관한 체험 연구
	김간우	관절통을 경험한 도서지역 여성의 체험연구
	김영일	유방암 수술 후 항암요법 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중년여성의 체험에 관한 연구
	주민선	도서지역여성의 요실금 경험과정에 관한 연구-근거이론적 접근
1999	강영미	중년여성의 골다골증에 관한 지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구
2000	김현숙	중년여성의 생활양식과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
	조미영	여성의 우울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정숙명	여성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연구
	차은정	여성의 생활양식과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
2001	김인자	여성의 수면장애와 우울에 관한 연구
	박효정	여성 요실금 교육 비디오프로그램 개발: 골반근육운동을 중심으로
	최복희	유방절제술 후 여성의 기능적 상태, 증후군, 우울에 관한 연구
	박은영	요실금에 대한 골반근육운동 효과검증연구
	주수경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운동 비디오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성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비디오 운동요법 효과검증 연구
	강선정	여성의 생활양식, 폐경증상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신미경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위한 비디오 프로그램 개발연구
	양진향	한국여성의 음식 양생 체험 연구
	조성희	여성의 수면양상과 수면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최애선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연구
	하주영	중년여성의 폐경증상과 삶의 질
2002	강지숙	농촌지역 여성의 요실금에 관한 연구
	김건희	도시지역 중·노년 여성의 요실금 및 하부요로증상과 일상생활간의 관계
	김수정	농촌지역 여성의 골다공증에 관한 연구
	김미정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양식과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김정신	만성질환 노인여성의 약물사용 경험
	박채영	도시지역 중·노년 여성의 골다공증에 관한 연구
	이미현	시설노인여성의 독집성에 관한 일상생활 방법론적 연구
	최혜영	여성 그레이브스 환자와 건강한 성인 여성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대처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

	하은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생활양식과 건강상태 비교연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2003	김미현	여성복압성 요실금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 후 요실금 상태의 조사연구
	양승애	독거여성노인의 일상생활 체험연구
	서인순	치매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며느리의 경험
	차지영	수지요법이 중년여성의 비만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4	한미진	여성노인의 수면과 인지기능, 우울의 관계연구
	이인영	중노년 여성의 골반 근육운동에 대한 지식·태도·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서주연	여성의 노후체험
	강석은	여성복압성 요실금 대상자의 골반 근육 운동효과 연구
	김수진	노인의 낙상과 관련된 보행능력·인지기능·낙상효능감에 관한 연구
	강석은	여성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의 골반근육운동 효과 연구
	박선영	폐경 여성건강을 위한 참여행위연구: 보건소 여성건강다지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심
2005	문혜원	여성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관한 연구
	성선아	운동프로그램이 저소득 여성 노인의 체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이란	유방암환자의 교육실태 조사
	이에리자	여성 성인주기별 수면의 질에 관한 연구
	김현정	폐경 후 여성의 신체조성과 골밀도의 관계 연구
	주민선	여성노인의 견비통(肩臂痛)에 대한 수지침간호중재의 효과
	양경숙	수지침이파민성장증후군여대생의장증상과정신건강에미치는효과
	윤정희	여대생의 과민성 장 증후군, 스트레스 지각정도, 식습관 및 수면의 질에 관한 연구
	천우정	수지침 요법이 중년 여성의 불면정도, 수면의 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정민	일개 지역 간호사의 과민성 장 증후군과 삶의 질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2006	이수진	수지침 요법과 수지뜸 요법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여대생의 장 증상에 미치는 효과
	김은하	독거 여성 노인의 입원 생활 중 편안함 체험 연구
	이효정	수지음식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간호사의 장 증상에 미치는 효과
2008	이명자	노인여성의 요실금 및 수면장애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김현숙	여성노인의 호상 체험
2009	강현임	농촌여성노인의 여가생활-해석학적 현상학 접근-
	Jin Li Hua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임현숙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
2010	황선아	재가노인의 연하장애 위험성,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에 관한 연구
2011	조미자	여성 폐결핵 환자의 질병 경험 과정
	윤옥중	사별한 여성노인의 연애택험

V. 도전과 과제

대한여성건강학회는 건강증진의 취약계층인 도서 및 농촌지역 중년 및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기존의 접근법과 차별화가 된다. 주로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사회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골다골증, 요실금, 자궁암에 대한 예방과 검진,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여성건강에 대한 사업에 연구비를 받는 과제로서 제한되지 않고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발간되었다. 이는 여성건강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진 과학자를 배출하여 미래의 여성건강 연구에 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이제 20살이 조금 넘은 젊은 학회로서 대한여성건강학회는 여성건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살은 현재 한국인의 사망원인 4위이며, 그 수치 또한 점점 증가추세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살을 경험한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역시 건강제공자들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자살고위험 집단인 10대·20대 여성과 여성노인들에 집중한 자살예방프로그램, 가족지지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대한여성건강학회에서는 유병율이 높고 삶의 질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골다골증, 요실금, 유방암, 자궁암, 갱년기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여성건강학회가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 여성에게서 증가하고 있는 암(예, 폐암), 심장질환, 관절염과 우울증, 성전파성 질환, 여성노인에게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등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질환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 대상자들은 중, 노년의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대상자 역시 다양하게 넓혀 여자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체적 질환은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의 문화 등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 및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대한여성건강학회가 다학제적 팀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한국여성심리학회 여성 연구

이경숙(한국여성심리학회, 한신대)

2012.09.22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창립심포지움



한국여성심리학회 여성 연구

학회장 이 경 숙 (한신대 재할학과)

debkslee@hs.ac.kr

1. 학회 현황 소개

1. 학회 현황 소개

● 회원: 총 346명

	교수회원	정회원	준회원	총
2012년 현재	86명	205명	51명	346명

● 조직도 (운영위원 11명, 이사 49명)

운영위원	이름	소속, 직위
학회장	이경숙	한신대학교, 교수
부회장	서미영	인쿠르트
	안귀옥	법률사무소 화온
학술위원장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편집위원장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학회발전기획위원장	김예숙	춘해보건대학교, 교수
자격제도위원장	방은령	한서대학교, 교수
상벌 및 윤리위원장	한영석	호서대학교, 교수
홍보위원장	탁수연	인하대학교, 교수
대외이사	홍주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총무이사	김은영	동서울대학교, 교수
감사	성은현	호서대학교, 교수

2. 학회 성립 배경

2. 학회 성립배경

● 학회 성립 목적 및 배경

1995년

남성 중심적인 심리학의 접근을 극복하고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눈을 통해
심리학과 여성의 문제를 인식,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창립

• **1995년 이전**

이화여대 심리학과 내 여성심리 스터디 모임 형성

• **1995년**

여성심리에 관심을 갖는 교내외 심리학자들과 연계하여 '한국여성심리연구회' 공식 발족

• **1996년**

'한국여성심리학연구회지' 창간호 발간

• **1997년**

한국심리학회로부터 산하분과인 '한국심리학회'로서 공식 인준

2. 학회 성립배경

● 학회 주요 활동 내용

회원의 전문적
자질 확립과 향상

여성심리학 연구의
협조 및 촉진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 구체적인 활동
 - 매년 2회 학술대회 개최
 - 학술지 년 4회 발간 (현재 17권 2호까지 발간)

2. 학회 성립배경

● 역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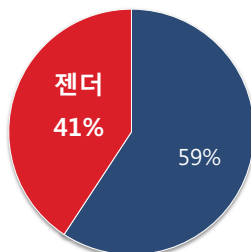
1997. 02 – 2003. 08	김 태 련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2003. 09 – 2007. 01	최 상 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2007. 02 – 2008. 12	방 희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2009. 01 – 2009. 12	김 혜 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2010. 01 – 2010. 12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2011. 01 – 2011. 12	김 명 소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2012. 01 – 현재	이 경 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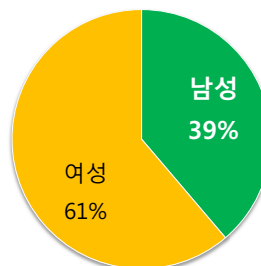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 연구 동향(젠더 연구)

- 전체 1996년-2012년 현재 총 368편 중 152편 (41%)
- 연구자: 남성 121명(39%), 여성 191명(61%)



젠더 연구 논문 비율



젠더 연구자 성별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 연구 동향(연도별 젠더 연구 논문 수)

• 1996 – 1999 년 : 총 39편 중 21편(53.8%)

- 남녀 대학생의 신체상에 관련된 태도에서의 차이(김혜원, 백화정, 1996)
- 상담의 여성성과 여성 상담(이혜성, 1997)
-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김명소 외, 1998)

• 2000 – 2004 년 : 총 96편 중 45편(46.9%)

- 한국문학작품에 그려진 여성의 성의식 변화(박종숙, 2000)
-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김금미, 한덕웅, 2001)
- 여성의 명시적 암묵적 자아해석에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영향(조혜자, 방희정, 2003)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 연구 동향(젠더 연구 논문 수)

• 2005 – 2009 년 : 총 150편 중 58편(38.7%)

- 한,미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우남식, 가영희, 2005)
- 1997-2007년까지 공군 여성 장교들의 성역할 태도변화(김광은, 2007)
- 시설보호 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 성차를 중심으로(이경숙 외, 2008)

• 2010 – 2012 년 : 총 83편 중 28편(33.7%)

- 성별 관련 조직 요인들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안상수, 김금미, 2010)
- 여성의 성역할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한인영, 홍선희, 2011)
- 고마움 경험과 표현방식의 남녀 차(손영미 외, 2011)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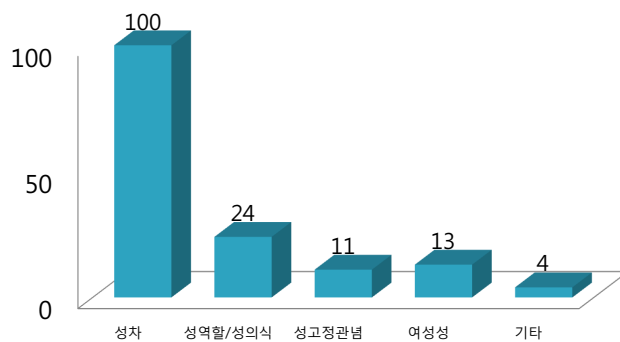
● 젠더 연구 년도별 주제별 분석

년도/ 주제	1996- 19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성차	13	4	6	4	6	7	12	7	6	8	8	11	8		100
성역할/ 성의식	3	4	2	1	1	1	1	1	3	1	2	3	1		24
성고정 관념	3		3		1	2		1	1						11
여성성	3	1		1		1		2	3	1			1		13
기타	2													2	4
계	24	9	11	6	8	11	13	11	13	10	10	14	10	2	152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 젠더 연구 년도별 주제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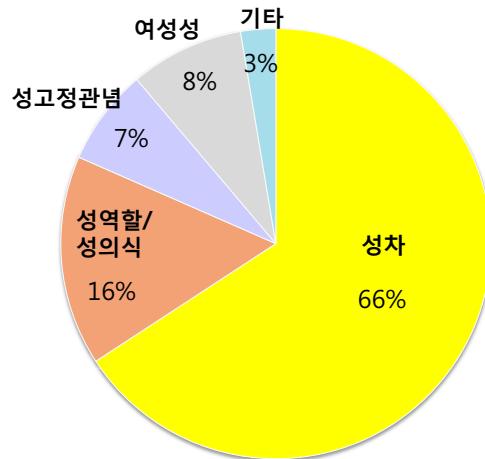
주제	편수
성차	100
성역할/성의식	24
성고정관념	11
여성성	13
기타	4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 젠더 연구 년도별 주제별 분석

주제	편수	비율
성차	100	66%
성역할/성의식	24	16%
성고정관념	11	7%
여성성	13	8%
기타	4	3%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 젠더 연구 주제별 분석

• 성차 주제 100편(66%)

- 남녀 대학생의 신체상에 관련된 태도에서의 차이(김혜원, 백화정, 1996)
- 한국 성인 남녀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기원 외, 2003)
- 남녀 교수의 리더십 비교 연구: 성별차이 분석 (윤소연, 김혜숙 2005)

• 성역할/성의식 24편(16%)

- 한국문학작품에 그려진 여성의 성의식 변화(박종숙, 2000)
- 성통합 교육을 통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김광은, 2001)
- 성역할관계에 맥락화된 지각이 범주간/범주내 정보의 회상에 미치는 효과 (이해경, 2002)

3. 여성(젠더)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 젠더 연구 주제별 분석

• 성고정관념 11편(7%)

- 성 고정관념 : 왜 끈질긴가 ? (조혜자, 2001)
- 청소년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및 성고정관념(정태연, 이윤미, 2004)
-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정주리, 이기학, 2007)

• 여성성 13편(8%)

- 상담의 여성성과 여성 상담(이혜성, 1997)
- 전통적 여성과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평가: 관계의 친밀성과 평가자 성이 미치는 영향 (김진실, 김혜숙, 2006)
- 여성의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 사회구조 요인, 성별사회정체성,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 (김금미, 한영석, 2008)

4. 여성(젠더) 연구가 학문에 끼친 영향

4. 여성(젠더) 연구가 학문에 끼친 영향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 연구 증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삶과 심리학의 문제를 인식, 분석

여성과 관련된 고정관념, 여성 정체성, 자기개념, 정신건강, 인지능력, 정서표현, 행동, 인간관계, 직업, 역할갈등, 삶의 질 등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 연구 및 여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의 바람직한 역할 제시

- 2012년 한국여성심리학회 내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창립

5. 여성 연구자들의 STATUS

5. 여성 연구자들의 STAUTS

● 현 이사진 명단

	이름	소속
1	구자숙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2	금명자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
3	김금미	성균관대학교 교수
4	김기범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
5	김명소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교수
6	김명식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7	김시업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8	김예숙	춘해보건대 교수
9	김은영	동서울대 교양과 교수
10	김의철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11	김혜숙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12	김혜숙	부산가톨릭대 인성교양부 교수
13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14	나혜숙	목포과학대 교양학과 교수
15	박소희	인제대학교 교수
16	박은실	인천동부초등학교 교장
17	방은령	한서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18	방희정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19	서미영	인쿠르트
20	성은현	호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21	신강현	아주대학교 교수
22	신의진	연세대학교 정신과
23	심혜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24	안귀옥	법률사무소 화온

	이름	소속
25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6	안영진	한양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27	엄현경	성균관대학교 교수
28	오현숙	한신대 정신분석대학원 교수
29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30	이경숙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31	이규미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32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33	이승희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34	이주희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35	이해경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
36	이혜성	(전)한국청소년상담원 교수
37	임미향	인하대 겸임교수 교수
38	임지영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39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40	정갑순	인천 신송초등학교 교장
41	정영숙	부산대 심리학과 교수
42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수
43	차경호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44	탁수연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수
45	한상철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46	한영석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47	허희숙	교육문화경영연구원 교수
48	홍주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49	홍혜영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교수

6. 향후 과제

6. 향후 과제

1

우리사회 여성 소수자에 관한 연구 확대
(다문화 여성, 두리모, 한부모, 폭력피해자 등)

2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활성화 및 전문가 양성

3

기타 심리분과 및 타학문과의 연계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사회학, 여성학, 가족학 등)

4

학계 외에 여성단체와의 연계
(NG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등)

제3부 사회과학과 여성연구

한국가족학회지 『가족과 문화』와 여성주의

김혜경(한국가족학회, 전북대)

1. 가족학회지의 역사적 발전과정

한국가족학회는 학제적인 가족연구를 표방하며 사회학, 가정학, 교육학, 법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족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되어 1979년 『가족학논집』을 타이틀로 하여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초대 회장이던 이효재교수가 70년대 말의 반민주적 정치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해직당하면서 학회 추동의 구심력을 상실하고 80년대의 격변을 동면상태로 지내다가 90년에 비로소 2집을 내면서 속간하게 된다. 한편 본 학술지의 명칭이 된 『가족과 문화』지는 애초 한국가족·문화학회(1996 창립)의 발간물로 3호까지 발행되고 있었는데, 98년 두 저널이 통합되면서 명칭은 『가족과 문화』로, 발행호수는 9집까지 발행한 『가족학논집』을 계승하면서 양적인 확장을 꾀하게 되었다. 이후 97년까지는 매년 한 호를 발행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98년부터 두 호, 2003년부터 세 호, 그리고 2006년부터는 드디어 연 4회를 간행하며 학회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본 글의 분석대상인 2011년 말까지 총 381편¹⁾의 글(서평 포함)이 게재되어 휴지기였던 10년을 제외하고 보면 22년간 연평균 약 17편이 발간된 셈인데, 양적으로는 그리 풍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²⁾의 가족연구물이 집대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학회의 회장도 초대 이효재교수 이래 최흥기, 이광규, 김재은, 이동원, 유영주, 안병철, 박부진, 옥선화, 이재정교수로 이어져 사회학자가 다수를 이루기는 했지만 인류학, 교육학, 가정학, 여성학 교수 등 애초 설립취지에 맞게 가족관련 다양한 분야의 원로와 중진들이 참여하며 발전하였다³⁾.

1) 가족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김선영(2008)이 정리한 가족학회지의 연구경향 분석에서는 가족학회 초기 가족학논집이 학회발표의 특집물들을 결집하여서 연구주제나 경향을 유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점이 오히려 당시 가족학 연구의 중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보아 모두 포함시켰다. 그 결과 가족학논집은 총 103편, 가족과 문화는 총 278편으로 모두 합해 381편이다.

2) 창립초기에 비하면 사회복지학분야의 논문들이 증가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 저출산과 고령화, 결혼감소와 이혼증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다.

3)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소개에서도 아래와 같이 다학제적 성격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가족학회는 한국가

2.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의 변화

가족학회 홈페이지(www.family21.org)의 찾아보기 기능 중 연구논문명별 검색방법⁴⁾을 활용해서 보면, 『가족과 문화』 278편에 한정해 보았을 때, 연구대상별로는 가장 많은 것은 여성이 차지하였으며(60편), 그 다음으로 청소년(22편), 노인(19편), 아동(12편), 남성(9편), 대학생(8편)의 순으로 나타나서 소재적으로는 여성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연구주제별로는 “일가족 양립”(가족친화, 맞벌이, 가족정책⁵⁾)에 관한 연구가 20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특히 90년대 말 이래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 다음이 이혼 주제로서 19편을 차지했는데 IMF 위기가 시작되는 97년부터 증가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국제결혼, 결혼이민, 결혼이주 포함)가 12편으로 이것도 90년대 말부터 급증하였으며, 가정폭력(아내폭력, 부부폭력, 아내구타 포함) 12편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외에 빈곤관련 주제(빈곤, 저소득층 포함)는 11편이었다. 한편 돌봄 주제는 2008년부터 급증하여 10편을 차지하였는데 노인연구와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인 경향으로 보아 가정폭력, 이혼, 빈곤, 다문화, 일가족 양립 등 대체로 현실적인 가족문제, 정책과 관련한 주제들이 중심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소재적으로 적어도 제목에 “여성”을 포함하는 논문이 60편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나 “여성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한 논문을 찾기는 어렵다. 『가족학논집』을 포함, 총 371편의 논문을 한편 한편 모두 읽을 수는 없었으므로 일차적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목상 “여성주의,” “페미니즘,” “여성학,” “가부장제”를 포함하는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네 편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가족과 문화』로 통합되기 이전의 일이었다. 혹은 편의상 페미니스트 연구자로 널리 알려진 소위 원로 필자들의 이름을 임의로 선정해서 찾아보았으나 『가족학논집』에서의 한 편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⁶⁾. 꼭 “여성주의”와 같은 단어를 넣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주의 시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여성주의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가족을 분석하는 연구물은 가족학회지에는 잘 투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⁷⁾. “젠더”가 논문제목에 포함된 연구도 불과 여섯 편에 불과하였는데, 필자의 학문적 배경도 거의 대부분 사회학 분야에 치

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개인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사회의 발 전적 성장을 목표로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철학으로부터 심리학, 사회복지학, 생 활과학, 정신의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학회이다”

- 4) 연구논문별 검색방법은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가족/노동의 갈등구조와 가족연대전략을 중심으로 본”이라는 논문은 제목사이의 단어가 조합되어 “가족구조”라는 항목으로 검색되고 일가족 양립 주제로 검색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검색결과 나타난 논문의 제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다.
- 5) 가족정책을 제목에 포함한 11편의 논문 중 내용상 일가족 양립을 중심으로 다룬 7편을 선택함.
- 6) 예컨대 조형, 조은, 조혜정, 조옥라 교수 등이다. 그러나 조형교수는 『가족학논집』 3호 〈가족과 이데올로기〉 특집 주제의 논문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가족”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 7) 저널의 목적이나 논문편수에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여성학회지의 저널 『한국여성학』에서 “여성주의”를 논문제목으로 검색하면 35편의 논문이, “페미니즘”으로는 19편을 찾을 수 있다.

우쳤다.

그나마 본격적인 여성주의적 토론이 포함된 글들은 90년대 말 이전의 가족학회지, 즉 『가족학 논집』 시기에 제한되었다. 초기 가족학회는 10년만에 속간된 2집에서 〈개정가족법에 대한 학제적 고찰〉을 특집으로 이효재교수의 여성학적 접근을 포함, 법학, 가정학, 인류학에서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가족”(1991),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1992),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 아내구타,” “가사노동의 가치에 관한 이론적 토의: 여성학, 가정학의 견해를 비판하면서”(1997) 등의 논쟁적인 글들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가족과 문화』는 성폭력, 빈곤 한부모, 이혼, 일가족 양립정책 등과 관련하여 여성을 주요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주의를 표면에 내세워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여성주의가 사회복지, 가정학, 교육학 등 제반 학문분야와 결합하며 녹아든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연구가 정책중심의 연구로 협소화되면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이 희석된 결과로도 풀이된다.

3. 『가족과 문화』 외부의 지형: 90년대, 2000년대

90년대 후반 『가족과 문화』로 통합된 이후의 변화는 꼭 가족학회지의 특성만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90년대를 통해 확산된 포스트 모더니즘, 90년대 말의 IMF 위기와, 2000년대 이래 화두가 된 “저출산” 담론은 여성주의적 가족연구를 실종시키는 사회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80년대까지의 비판적 가족론의 경향은 계급론적 경향을 띠고 있거나, 90년대 초반까지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이라는 시각으로 가족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한국 사회과학의 담론적 경향은 이론적 스펙트럼을 확장시켜나가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주의의 틀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90년대 초중반 가족연구는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적 시각을 도입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베리 쏜의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1991), 미셸 바렛의 『가족은 반사회적인가』(1994), 샐리 서러의 『어머니의 신화』(1995) 등의 저작이 번역되었다. 같은 시기 여성주의 문화단체 〈또하나의 문화〉가 번역이 아닌 방식으로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1991), 『새로 쓰는 성이야기』(1991), 『새로 쓰는 결혼이야기 1, 2』(1996)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실문화연구 출판사에서 간행한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1993)도 위에 가세하여 문자 그대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 즉 가부장제의 핵으로서의 가족의 (여)성억압적 현실을 드러내었다. 이혼에 대한 여성학적 서적들이 출간되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시기의 일이다(장정순, 1993; 김혜련, 1995).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방성과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분출되었던 여성주의적 가족담론과 이론들은 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소강상태를 맞이하게 된다⁸⁾. 더욱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헤게모니화 속에서 여성주의의 해방담론이 갖는 위력은 약화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90년대말 IMF위기는 『가족과 문화』에서도 재현되는 것처럼, 이혼연구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사회전반적으로는 “고개숙인 가장,” “가족위기론” 속에서 가족연구는 더 이상 여성주의적 칼날을 버리기 힘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래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서 기혼여성의 육아부담이 주목되면서⁹⁾ 일가족의 양립(지원)이라는 주제가 가족연구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환경보다 근본적인 것은 한국사회가 근대이후의 상태로 진전해가는 점에 있었다.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포디즘적 생산양식의 약화, 정보기술의 발전,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 지구화와 같은 사회전반의 급진적 변화는 소련사회의 해체라는 정치상황을 배경으로, 전통적으로 급진적 가족론을 특징지워왔던 계급론과 여성주의의 거대담론의 위력을 약화시켰으며 근대 핵가족 비판의 새로운 틀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앤소니 기든스의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1996), 벡과 벡-게른스하임의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7)과 같은 후기근대적 가족론이 번역됨과 동시에,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연구자들에 의해 소비된 것은 이러한 사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 가족의 근대화 경험은 장정섭의 “압축적 근대성”이란 표현에서처럼 전통, 근대, 탈근대가 혼재하는 복합적인 가족주의의 틀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아직 대안적 분석틀을 찾지 못한 가족연구의 경향은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가족” “가족 다양성” 담론의 수준에 머무를 뿐, 아직 그 출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상황은 이론의 전개보다 급박한 것이어서 학문적 연구 바깥의 영역에서의 성과가 오히려 앞선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처녀들의 저널식사(1998, 임상수감독), 바람난 가족(2003, 임상수감독), 결혼은 미친 것이다(2002, 유하감독), 가족의 탄생(2006, 김태용감독) 등은 결혼제도의 모순과 혈연적 가족개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90년대 이래의 한국의 가족관련 영화들이 보인 급진성은 다양한 가족론에 안주하는 연구경향과 매우 대조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8) 그 시기 여성단체와 사회단체들은 호주제철폐운동으로 가족민주화 운동의 한 획을 긋는데 힘을 모으고 있었지만, 법학 관련 일부 여성학자를 제외하고는 정작 전문 가족연구자들과 가족학회는 거의 결합하지 않았다. 이것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 신분등록제도 마련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김원정, 2008).

9)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2002년 대통령선거공약에서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를 발표하였고, 그것은 이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거쳐 2004년 2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정착한다. 이것은 인구규모예측 및 경제적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인구·경제분야,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방향짓는 여성·가족분야, 노인취업과 요양보험 등을 다루는 고령화대책분야의 세 팀으로 구성되어 출산률 제고, 육아지원정책 수립, 여성과 노인의 취업을 제고 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와 한국 언론학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

백미숙(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서울대)*

1. 서론: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 성립 배경과 현황 소개

사단법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는 2003년 4월 창립되었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이하 여성컴 학회)의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정보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미디어 영역에의 여성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학계나 언론계에서 아직 소수인에 속하는 여성들의 연구 활동의 장을 스스로 마련하여 여성인력의 역량을 발휘할 여건을 능동적으로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93년부터 국내 여성언론학자들의 활동과 학계진출의 모태가 되어온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를 2003년도에 학회로 발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함께 여성단체, 미디어 관련단체 등과의 산학협동 및 타 학회와 보다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다. 본 학회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여성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 및 회원들의 권익증진, 정보교환, 양성평등사회를 도모하고 국내외의 관련학회 및 미디어 관련단체와 상호 교류함을 목적으로 한다(2003년 4월 3일).

여성컴학회는 1993년에 활동을 시작한 '여성매스컴연구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여성학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당시 몇몇의 여성학자들이 논문발표와 토론, 친목을 목적으로 한 정기 연구회 형태로 시작하여 10여년의 시간을 거친 뒤 학회로 제도화된 것이다. 1994년 처음으로 서구의 여성이론 편역서로서 《성, 미디어, 문화: 여성과 커뮤니케이션》(김명혜 외, 1994)을 발간한 이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서 《대중매체와 성의 상징질서》(박정순 외, 1997),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김명혜 · 정기현 · 유세경, 1999), 《사이버문화와 여성》(구자순 외, 2000) 등을 발간했고, 학회 설립 이후에도 4권의 총서를 더 발간했다. 연구회는 1996년 2월 당시 회원이 57명에 이르렀고, 명칭도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로 개칭되었던 것으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mbaek03@hanmail.net

로 나타난다. 또한 1996년 6월 한국방송학회 봄철학술대회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젠더〉라는 세션을 최초로 구성하여 제도적인 학회 활동으로 처음 등장했다(김혜순, 1996, 171쪽). 커뮤니케이션 학계에 여성학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2년 발기대회를 거쳐 2003년 4월 공식적으로 창립되었다.

여성컴학회의 창립을 보도한 《여성신문》 기사(2003.3)에 따르면 “연구회는 두 달에 한 번 정기 세미나를 갖고 ‘쟁점과 토론’이라는 공개 강연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여 언론구조 안의 불합리와 언론계 현장에서의 여성 차별, 미디어에 나타난 가부장적 여성상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해왔다. 창립 당시 약 9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기현(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여성들의 조직이 친목 모임으로 보일 우려를 불식하고 여성에게 보다 힘을 실어주는 보다 힘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자들처럼 학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단지 여자들이라고 해서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등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며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미디어가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역설에 대해 지적했다(임인숙 기자, 《여성신문》, 2003.3).

현재 학회 회원은 정기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공로회원, 단체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 수는 대략 3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¹⁾ 회원 가입에 있어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학술활동으로는 봄철, 가을철 2차례의 정기학술대회와 연 6~8회 정도의 다양한 공식 학술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대략 2005년부터 연 1~2회 씩 개최되는 ‘신진 여성 언론학자와의 라운드테이블’ 혹은 ‘신진여성학자 논문발표회’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커뮤니케이션학계에 새로이 진입하는 여성학자들에게 자신의 학위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음으로 환영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이는 여성컴학회의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선배 학자들이 새로이 학문의 길을 시작하는 후배 여성학자들을 학문적 동지로 이해하고 여성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연말 개최되는 송년회는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친목을 다지는 전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학술지로는 2004년 《미디어, 젠더 & 문화》가 반년간지로 창간되어 2007년 등재후보지, 2010년 등재지로 등록되었고, 현재 연 4회 발간되어 2012년 7월말까지 통권 22호를 발간했다. 《미디어, 젠더 & 문화》는 “젠더, 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문화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이제까지 중요하지 않게 간주되어왔던 현상들을 다룬 학문적 담론과 주변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논문”에 포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학회 웹사이트 저널소개). 여성주의 학술의 장을 표방하는 학회 학술지가 5개 정도에 불과한 한국 학계 현실에서 《미디어, 젠더 & 문화》는 뒤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

1) 학회 수첩을 제작하고 있지는 않다. 학회장은 1~2대 회장까지 2년 임기제로 운영하다 3대부터는 1년 임기제로 하고 있다.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 선출한다.

다고 할 수 있다.

여성컴학회는 또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학회는 2005년 처음 여성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신진 양성을 위해 여성관련 주제 석·박사논문상을 제정하여 운영하다 2011년부터 《미디어, 젠더 & 문화》에 게재된 우수논문상을 포함하는 ‘학술상’으로 확대 재편했다.

학회는 또한 2011년부터 연구분과 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회원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2009년 스터디모임으로 시작하여 1년여의 활동을 거쳐 2011년 봄, 분과로 승인받은 ‘커뮤니케이션과 젠더 연구 분과’가 있다. 분과는 스터디 모임운영과 더불어 연2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 세션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여성/젠더 연구의 위상과 연구의 범주: 맥락의 이해²⁾

1) 여성/젠더 연구의 위상과 문화연구

언론학의 여성/젠더 연구는 50여년의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역사에서 비교적 뒤늦게 시작되었다. 대략적이거나 변화의 흐름을 기술한다면, 1980년대 중후반의 여성 이미지 분석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문화연구의 부상과 함께 다양한 이론적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여성/젠더 연구가 학계 한 쪽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³⁾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이하 여성컴학회)가 설립된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학회 성장의 배경으로는 여성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수적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겠지만, 여성컴학회 학술지 《미디어, 젠더 & 문화》 지면을 통한 여성/젠더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학회의 성장을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학에서 여성/젠더 연구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기실, 질문을 제기하는 자체도 생소하다. 학문적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여성주의나 젠더를 주된 전공으로 내세우는 학자들도 극히 소수인 형편이기 때문이다. 학부나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젠더를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 역시 많지 않다. 여성주의나 젠더 관련 연구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계에서 ‘제대로 된’ 학문 분야로서 대접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답이 될 것이다.

문화연구가 비판연구를 대체하며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문화연구자들의 교수임용이 가시

2) 이하 연구 분석결과는 백미숙·이종숙(2011 겨울)을 축약,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3) 《한국언론학보》(전 《신문학보》)에 게재된 최초의 남명자(1984) 텔레비전 드라마에 표출된 한국여성상에 관한분석, 《신문학보》 17호; 신문 분석논문은 윤희중(1985). 신문사설에 나타난 여성문제, 《신문학보》 19호.

화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을 전후해서이다. 이 시기부터 문화연구는 위기담론을 시작으로 내부적 성찰과 비판적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와 비교해 여성/젠더 연구 동향에 대한 진단이나 메타 분석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주의/젠더 관점의 연구 현황이 어떠한가에 대해 시사점을 보여주는 단초는 1990년대 초반 몇 개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30대 남성 문화연구자로서 대중매체와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던 원용진(1993, 18쪽)은 ‘대중문화와 여성해방주의’라는 글을 통해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 현상과 여성의 관계를 다루는 글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중문화와 여성의 관계를 다루는 글은 별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김용숙(1995)은 문화연구와 페미니즘의 접합의 필요성을 시론으로 제기한 바 있다. 사회학자 김혜순(1996)은 언론학 분야에 제한하지 않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여성과 언론을 다룬 석·박사 학위논문 89편, 일반 연구논문 46편, 단행본 7편 등 총 142편을 선정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혜순은 식민시기 대중잡지 분석을 통해 지식 여성상을 문학사회학적으로 연구한 1978년 여성학 논문을 국내 최초의 페미니스트 언론연구로 보고 이로부터 20년 동안 생산된 페미니스트 언론연구 현황을 분석했다. 그는 20년 동안 국내 페미니스트 연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나, 여성/젠더 관점이 관철되는 “엄밀한 의미”의 페미니스트 언론연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많은 연구들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 분석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후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여성/젠더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은 《한국언론학회 50년사》의 일부로 2009년 발표된 ‘젠더와 미디어 연구사’(김유정, 2009)가 있다. 이 연구는 50년 기간을 포괄하는 연구동향의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후반이후 젠더관점의 연구를 사실상 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cf. 같은 책, 유선영, 이동후 토론). 메타 연구의 부재는 학문적 성찰과 비판적 논의가 부재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언론학에서 여성/젠더 연구가 위치하는 주변적 현재를 상징적으로 예시해 준다. 더 나아가 실상 문화연구 영역에서도 페미니즘이 주변화 되어있다는 학문후속세대의 패기어린 비판(정민우·김효실, 2009)을 기억하면 여성/젠더 연구의 위치성이 참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 지형과 여성/젠더 연구 생산 현황

한국 언론학에서 여성주의 연구나 젠더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 영역의 지식생산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은 어떤 연구들을 여성/젠더 연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 자체가 젠더 연구의 범주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주의나 젠더 개념에 따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여성’에 관한 연구’라는 매우 포괄적인 범주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성별비교의 실증주의 연구와 여성주의 관점을 일부라도 담고 있는 경험주의 양적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는 여성주의/젠더 연구가 지향하는 바

와 모순되는 시도이며, 여성주의/젠더 연구가 곧 ‘여성에 관한 연구’ 혹은 ‘여성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여성에 관한 연구라는 포괄적 범주를 통해 여성주의 연구 공간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자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학의 주류 패러다임이 실증주의(positivism)이며, 경험적(empirical) 연구를 우위에 두는 지배적 경향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현실 조건을 고려해서이다. 또한, 1990년대 초국적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재배치 속에서 페미니즘이 인기있는 문화코드로 확산되던 시기를 지나, IMF 위기 이후 페미니즘이 한물 간 상품으로 퇴색되는 현재(정미옥, 2003),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분과학문에서 생산하는 ‘여성에 관한 지식’이 어떤 것들이며 여성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가, 이것이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전공영역과 학문적 관심이 여성/젠더에 대한 관심과 ‘타협’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여성/젠더 시각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젠더 연구가 여성학자들끼리 전유하는 소수의 관심사로서 주변화 될 것을 두려워하는 인식이 잠복해있다. 이를테면, 여성/젠더 연구가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지식생산과 인식론에 기여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포괄적인 범주가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쩌면 소수의 신념있는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 여성/젠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적나라한 위치이자 속내일지도 모른다.

우선,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여성/젠더 관련 연구 논문이 생산되는 시간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전체 학술논문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여성/젠더 연구 논문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 커뮤니케이션학계 지식생산의 토양을 형성하는 주요 5개 학술지인 《한국언론학보》(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보》(한국방송학회), 《언론과 사회》(성곡언론재단), 《한국언론정보학보》(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 젠더 & 문화》(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의 창간호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체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⁴⁾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 모학회로 간주되는 한국언론학회는 2009년 50년 역사를 기념하는 시간에 이르는 동안 학술지 발간 호수는 111호, 총 게재논문 수는 1,416편을 기록했다. 그러나 학계가 오늘날과 같은 심사체제를 갖추고 학술지 발간을 정례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이것은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등재인증 제도를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5개 학술지

4) 이 연구는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분석대상을 5개 학술지로 한정했다. 학문후속세대의 연구관심의 향배를 드러내주는 석·박사논문과 1994년부터 여성커뮤니케이션 학술총서로 발간한 역사, 편저, 그 밖의 단행본을 논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 연구가 가진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총서는 현재까지 8권 발간되었는데, 《성, 미디어, 문화: 여성과 커뮤니케이션》(1994, 편역서); 《대중매체와 성의 상징질서》(1997);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1999); 《사이버문화와 여성》(2000); 《미디어의 성과 상》(2003); 《모바일 소녀@ 디지털아시아》(2006); 《젠더, 이주, 모바일 놀이》(2008); 《가족과 미디어》(2010) 등이다.

가 등재후보지로 등록된 시기는 대략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앞서 말한 문화연구자들의 학계진출이 시작되고, 문화연구의 이론적 자원과 텍스트 해독 및 수용자 연구와 같은 연구관심 영역이 페미니즘과 만나는 시기와 일치한다. 여성학 분야의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국 페미니즘 담론 변화의 시기 역시 대략 2000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김숙이, 2007; 김현신경, 2006; 임국희, 2010; 조주현, 2000).

이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 선정은 5개 학술지에서 여성, 젠더, 성표현, 성역할, 섹슈얼리티, 가족, 결혼 등의 키워드가 제목이나 초록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을 일차 대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미디어 이용이나 수용행태,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태도, 인식에 있어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실증주의 양적 연구를 포함했다. 실증주의 연구라고 함은 주로 성별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설문조사, 실험 등의 양적 연구 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이용과 효과 연구들을 말한다. 실증주의 연구가 지배적인 한국 언론학계에서 ‘여성’을 어떻게 ‘첨가’해 가는지, 왜 이러한 첨가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첨가가 여성주의 관점을 어떻게 수용해가고 있는지, 나아가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지, 첨가의 과정과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언론학보》 39편, 《한국방송학보》 41편, 《언론과 사회》 13편, 《한국언론정보학보》 13편, 《미디어, 젠더 & 문화》 42편 등 총 148편이 여성/젠더 연구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5개 학술지 전체 논문 2,907개 중 약 5.1% 비율이다. 대략적으로 보아도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여성’에 관한 학문 담론이 양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성별변인을 다룬 실증주의 논문 29개를 제외한다면, 실제 전체 언론학 분야에서 여성/젠더 연구의 개수는 119개(4%)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수치 역시 2004년 창간된 《미디어, 젠더 & 문화》 게재 논문 42편(전체 148편의 28%)에 힘입은바 크다. 가장 오래된 학술지인 《한국언론학보》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찍부터 비판연구와 문화연구의 학문의 장으로 역할했던 《언론과 사회》 역시 양적으로는 《한국방송학보》가 차지하는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 비판연구의 전통에서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처음으로 여성주의/젠더 연구논문이 나타난 것은 2000년이 되어서이라는 점도 여성/젠더 연구의 현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표 1〉 5개 학술지 분석대상 논문 현황

학술지	창간 연도	발행 간격	총 발간호수	총 게재논문	젠더 관련 게재 논문	최초 젠더논문 게재연도
《한국언론학보》	1960	격월간	111호	1,416	39(2.8%)	1984
《한국방송학보》	1990	격월간	62호	663	41(6.2%)	1997
《언론과 사회》	1993	계간	68호	358	13(3.6%)	1995
《한국언론정보학보》	1998	계간	42호	378	13(3.4%)	2000

《미디어, 젠더 & 문화》	2004	계간	16호	92	42(45.7%)	2004
계			299	2,907	148(5.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언론학에서 학술논문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한국 페미니즘 담론 변화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석대상 논문을 2000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비교해보았을 때, 약 82%의 논문이 2001년 이후에 생산되었다. 특히, 《미디어, 젠더 & 문화》가 2004년부터 약 42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전체 논문의 28.4%, 2001년 이후 발간 논문의 34.7%를 차지하고 있어 양적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경향은 2000년을 전후한 여성주의/젠더 연구논문의 양적 변화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읽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표 2〉 여성/젠더관련 연구 논문의 생산 시기별 비교

학술지	젠더 관련 게재 논문	2000년까지 게재논문수	2001년 이후 게재논문수
《한국언론학보》	39(2.8%)	11(28.2%)	28(71.8%)
《한국방송학보》	41(6.2%)	9(21.9%)	32(78.0%)
《언론과 사회》	13(3.6%)	6(46.2%)	7(53.8%)
《한국언론정보학보》	13(3.4%)	1(7.7%)	12(92.3%)
《미디어, 젠더 & 문화》	42(45.7%)	-	42(100%)
계	148(5.1%)	27(18.2%)	121(81.8%)

3.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여성/젠더 연구 경향 분석

이 글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148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과 양적 경향성, 그리고 연구 주제 및 소재, 연구의 인식론적 경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양적 분포에 대한 검토는 대략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방향타 정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세밀한 수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 언론학에 드러난 여성/젠더 담론들과 인식론적 관련성, 그 함의와 지식생산의 지형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위해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여성/젠더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과 방법론적 경향성

학술지별 주요 연구대상을 ① 먼저 신문·잡지의 기사, 드라마 같은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 의견 글과 댓글 등의 텍스트가 있다. ②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태도에 관한 효과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용 및 태도가 실증주의적 입장에서의 전통적 연구대상이라면, ③ 수용자의 텍스트 수용 및 해독에 관한 연구들은 비판적 문화연구의 분석 대상이다. 수용자가 어떻게(가부장적)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담지물로서의 텍스트를 해독하느냐의 문제가 수용 및 해독 연구라면, ④ 수용자의 생산과 소비 양상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하여 팬픽의 생산, UCC 생산, 핸드폰 사용의 문화적 실천 등 수용자의 실천적 의미 생산을 강조한 연구들이다. 그리고 ⑤ 미디어 조직에서의 일과 노동의 성격, 여성 언론인, 여성 미디어 종사자들의 조직 내 지위와 역할을 분석하는 미디어 조직, 그리고 여성 관련 미디어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⑥ 기타 유목에는 매개되지 않은 살아있는 텍스트로서의 일상적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결과,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74개, 50%)을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 연구영역이 커뮤니케이션 연구영역에 비해 우세를 보이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이용 및 태도/ 수용 및 해독/ 생산적 소비/ 미디어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크게 보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미디어 이용자/수용자/소비자/구성원에 대한 연구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여성이 성별변인으로 들어간 이용 및 태도 연구가 2000년 이후 증가한 점도 흥미롭다. 정리하면, 여성주의/젠더 연구에 있어서 현실에서의 이용자, 수용자, 혹은 구매자로서의 여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전체 여성주의/젠더 연구에서 정책에 관한 연구가 단 1개로 나타난 점은 언론학 영역에서 젠더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논의와 고민이 너무 부족하거나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 재현이나 매개된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여성과 젠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표 3〉 연구대상별 현황

학술지/연구대상	텍스트		이용 및 태도		수용 및 해독		수용자 생산적 소비		미디어 조직		정책		기타		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한국언론학보	6	11	1	6	1	2		2	1	3			2	4	39
한국방송학보	5	14	3	11	1	2		3						2	41
언론과사회	5	5				1							1	1	13
한국언론정보학보	1	8								2				2	13
미디어, 젠더&문화		19		7		2		5		4		1		4	42
소계	17	57	4	24	2	7		10	1	9		1	3	13	148
합계	74 50%		28 18.9%		9 6.0%		10 6.7%		10 6.7%		1 0.6%		16 10.8%		148 100%

지면 제약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어렵지만 여성/젠더 연구의 주요 연구 영역이 방송 37%, 신문·잡지 23%, 인터넷 12.8%, 전화·모바일 7.4%, 영화영상물 6.7% 순으로 나타나 여성의 삶과 경험의 문제가 주로 매개된 경험으로서 미디어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먼대면 커뮤니케이션 4%, 정책 및 조직 4.7%로 현실에서의 여성의 경험과 위치에 대한 연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이 각 45% 정도, 문헌·메타연구가 6%, 양방과 질방의 복합 연구가 3% 가량으로 분류되었다.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내러티브분석, 담론분석, 민속지학적 방법을 고려하면 여성에 관한 실증주의 연구나 여성주의/젠더 연구에서 질적인 방법론으로의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바는 자료 수집과 자료해석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다. 그리고 특정한 연구방법으로 특정한 연구결과의 해석을 만들어 내는 습성이 여성주의/젠더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담론·정치적 관점에서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묻고 분석하는 작업이 바로 방법론에 대해 제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이상길, 2010, 39~46쪽). 여성주의/젠더 연구가 주류 과학적, 객관적 지식 담론에 도전하고 지식의 위계질서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질적 방법론의 전제를 공유하지만 방법론의 채용 자체가 타당한 지식의 생산을 담지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실증주의 양적 연구가 질적 방법론을 보조적으로 혹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서 더욱 성찰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는 다시 방법론의 문제만이 아닌 여성주의 인식론의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지식생산의 방식과 경로라는 측면에서 포착되는 경향성은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수용자, 이용자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은 질적 연구 방법이 대폭 증가했다. 실증주의 양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도 정성분석과 질적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연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연구 대상에 따라 방법론의 사용이 일정 패턴으로 도식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텍스트 연구는 내용분석 혹은 담론분석, 서사분석 방법으로, 디지털 미디어 연구는 이용자, 수용자 연구이면서, FGI 혹은 민속지학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식이다.

2) 한국 언론학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주제 및 소재

여성/젠더 연구가 어떤 주제와 소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와 소재를 연구하는데 어떤 이론적 자원과 인식론적 입장에 기대어 여성주의/젠더 관점에서의 해석과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한국의 젠더연구의 지형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지식생산의 경로를 살펴봤다. 지식생산의 구성 내용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제 및 소재 별, 그리고 페미니즘 인식론에 따라 분류를 시행했다. 다음으로 이 두 개의 축이 교직되는 방식을 검토했다(표 4) 참조).

우선, 주제 및 소재의 범주는 분석대상 논문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되어 10가지로 유목화되었다. 귀납적으로 도출되었다고 함은 페미니즘 연구의 보편적인 범주를 모두 포괄하기 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및 소재의 경향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제와 소재를 함께 고려하는 유목은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상당부분 중복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 개의 주제가 겹치는 경우 가장 강조된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

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처럼 거의 모든 연구에서 거론되는 경우, 소재의 경향성을 통해 주제 분류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성매매 보도 분석의 경우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 연구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과 매우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경우, 성폭력, 성매매, 성담론의 범주를 통해 연구의 경향성을 도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 및 소재의 순서를 보면, ① 성별 변인의 인식 및 태도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29, 9.6%)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② 여성표상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연구가 많았다(22, 14.9%). 이어서 ③ 여성 정체성 구성과 정체성 문화에 대한 연구(18, 12.1%), ④ 여성주체형성의 글쓰기와 여성주의 담론 구성, 여성주의 역사쓰기(16, 10.8%) 순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⑤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젠더 질서, 그리고 여성 사이버 공간의 창조(13, 8.8%), ⑥ 성차별적 여성 이미지와 불평등한 성역할(12, 8.1%), ⑦ 성매매, 성폭력, 성표현, 성담론과 몸에 대한 담론(11, 7.4%), ⑧ 새로운 소비문화 주체로 등장한 젊은 여성들의 낭만적 사랑과 성적 욕망, 그리고 즐거움의 담론(9, 6.1%), ⑨ 조직 내 여성 역할, 성차별적 고용, 승진(9, 6.1%) 등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⑩ 기타(9, 6.1%)가 있다.

〈표 4〉 연구주제 및 소재별 인식론적 관점 현황

주 제 및 소 재 / 인식론	2세대 여성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식민주의	대중적 포스트 페미니즘	실증 주의	기타	계
성차별적 여성이미지, 불평등한 성역할	9				3		12(8.1%)
여성 표상에 나타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20	2					22(14.9%)
성매매, 성폭력, 성표현 등의 성담론, 몸담론	6	3				2	11(7.4%)
여성 정체성의 구성과 정체성 문화		12	4	2			18(12.1%)
여성주체형성의 글쓰기, 여성주의적 담론구성, 여성주의적 역사쓰기	1	15					16(10.8%)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젠더, 사이버 여성공간	5	5		3			13(8.8%)
낭만적 사랑과 성적 욕망, 즐거움의 담론		1		8			9(6.1%)
조직 내 여성 역할, 성차별적 고용, 승진	6		1		2		9(6.1%)
성별에 따른 인식과 태도의 차이					29		29(19.6%)
기타	5		1		1	2	9(6.1%)
계	52 35.1%	38 25.7%	6 4.1%	13 8.8%	35 23.6%	4 2.7%	148 100%

3) 여성/젠더연구의 인식론적 경향성과 연구주제가 주는 함의

인식론적 경향성은 ① 2세대 여성주의, ② 포스트구조주의, ③ 포스트식민주의, ④ 대중적 포스트페미니즘(popular postfeminism), ⑤ 실증주의, ⑥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이는 서구를 중심

으로 페미니즘 인식론의 시대적 흐름을 단순화하여 분류하고 커뮤니케이션학의 주류 인식론인 실증주의를 포함한 범주이다.

2세대 여성주의(the second wave)는 1960~70년대 민권운동, 반전운동, 학생운동을 배경으로 ‘여성해방의식 고양 그룹’으로 대표된다. 2세대 여성주의는 인종차별 폐지, 여성참정권 운동으로 전개된 1세대와 남녀평등권, 성차별폐지 운동을 통해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역사적 흐름 안에 있다(Brooks, 1997/2003, 각주1, 19~20쪽). 2세대 여성주의는 흔히 자유주의, 급진주의, 맑스주의, 사회주의 등의 이론적 분파로 분류되는데,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로부터 여성해방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본질주의적 인식론을 공유하고 있다.

2세대 여성주의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확보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1980년대의 정치, 문화, 인식론적 전환에 따라 반동과 위기의 시대를 맞았고 이후 페미니즘은 대략 두 개의 조류에 의해 형성되어왔다(Brooks, 1997/2003). 하나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미디어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페미니즘의 사망, 혹은 ‘지나간 과거’로 선언하는 대중적 포스트페미니즘(popular postfeminism)이다.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접점,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이론적 교차에 의해 ‘평등’으로부터 ‘차이’, ‘차이들’로 진화해온 문화적, 정치적, 이론적 분화를 한 묶음으로 통칭한 ‘학문적 포스트페미니즘(academic postfeminism)’이다. 포스트페미니즘은 이 두 가지 흐름을 포괄하며 3세대 페미니즘, 뉴페미니즘(new feminism) 등의 다양한 이름과 용어에 의해 중복되거나 구분되는 매우 혼돈스러운 현상과 개념을 모두 담고 있다.

이 글에서 포스트페미니즘은 대중적 포스트페미니즘으로 한정하여 사용했다. 대중적 개념의 포스트페미니즘은 신보수주의 정권과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후퇴시키는 반여성적 국가정책, 정치적, 법적, 경제적 ‘역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행’ 속에서 미디어는 종교적 근본주의에 기초한 가부장제 가족주의, 가족 내에서 여성적 이해관계와 기능적 역할, 모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수사학을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부정성을 강조하며 여성의 해방을 불행으로 부각시키는 반동을 주도했다(이영자, 2003; Faludi, 1991; Brooks, 1997/2003에서 참조).

미디어의 반동과 역행을 지칭하던 대중적 포스트페미니즘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문화현상과 전지구적인 문화산업의 성장을 배경으로 다시 반동성과 가능성의 복합적 성격을 포괄하는 현상으로 의미 전환이 일어났다. 포스트페미니즘이 다양한 대중문화 형태를 통해 확산되는 일련의 가정들, 즉, 직업 선택에서 기회의 평등, 경제적 성공, 젊은 외모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성형의 자유, 성적 자유, 선택의 권리와 책임 등을 칭송하는 매우 한정적으로 정의된 페미니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럼에도 대중문화는 방치할 수 없는 광범위한 문화정치의 현장이기 때문이었다(Gens and Brabon, 2009). 젊은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칙릿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의 대중문화 상품의 확산과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

장에서, 이들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수사적 가치 아래 직면하고 있는 젠더, 섹슈얼리티, 직업, 결혼과 배우자 등의 새로운 의제에 페미니즘의 이론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McRobbie, 2004). 포스트페미니즘을 대안적으로 그리고 징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였다(Tasker and Nagra, 2007; 이정연·이기형, 2010, 96쪽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는 학문적 포스트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판적 실천의 흐름 안에서 이해된다. 학문적 포스트페미니즘은 2세대 여성주의 인식론이 고수하고 있던, 가부장적, 제국주의적 억압이 전 지구적으로 경험된 동일한 억압이라는 지배적인 가정에 도전하며, ‘평등’에 대한 논쟁을 ‘차이’에 대한 논쟁으로 개념적 전환을 만들어갔다(Brooks, 1997/2003, 14~18쪽).

포스트구조주의는 담론의 효과로서 성과 신체, 권력과 지식의 관계, 그리고 불안정하고 유동적으로 ‘구성된 주체(constituted subject)’로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있다. 포스트구조주의에서는 생물학적 성 역시 주어진 본질이 아닌 특정한 담론적 실천의 산물로서 사회문화적 성과 분리될 수 없다(Foucault, 1976/2006). 또한, 인간의 신체라는 실재(reality)에 접근하는 방법은 재현(representation) 뿐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여성의 정체성 문제는 실재와 재현의 각축이라는 재현의 정치학으로 나타났다. 여성 정체성이라는 미리 고정된 범주는 없는 것이며, 행위/연출에 의해서만 정체성이 완성된다(Burtler, 1990/2006).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식민주의의 이분법적 위계관계를 종식시키고 성별, 인종, 문화, 민족 등에 내재한 지배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획이다. 탈식민여성주의자들은 ‘주체로서의 서구’ 대 ‘서구주체의 타자들’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적 짝패 개념이 주변화된 타자로서의 식민 주체를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체하고자 했다. 탈식민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틀을 공유하며, “누구의 재현이 지배적인가? 누가 누구를 위해 말하는가, 표기되지 않은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기된 타자를 끊임없이 재현하면서 잘못 재현하거나 배제시켜왔는가, 이때의 진리는 누구의 진리인가? 이분법적 중심/주변은 누가 설정하며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제기한다(이나영, 2006, 69~70쪽).

페미니즘은 문화연구, 대중문화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성, 신체, 여성 정체성, 재현의 문제설정을 하고 있으며, 흔히 인식론적 전제로서 ‘질적’ 연구의 틀에서 접근한다. 이 연구가 여성이 성별적 변인으로 들어간 실증주의 연구는 이의 대척점에 서있다. 실증주의에서의 여성에 관한 지식 생산을 검토하기 위해, 하딩(Harding, 1991/2009)이 제시한 ‘여성주의 경험론(feminist empiricism)’이라는 인식론적 모델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여성주의 경험론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실증주의 인식론을 접목하여, 경험주의적 양적 연구와 서베이, 실험 등의 실증주의(positivism) 연구방법론을 포괄한다. 주체와 대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실증주의 인식론은 여성주의/젠더 질적 연구와 갈등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주의 페미니즘 연구에서 오랫동안 행해왔듯이, 성역할모델의 고정관념화, 가치평가절하 등에 대한 양적 분석, 사회화와 배양효과 등의 매체효과 분석, 뉴스 저널리

즘에서 의제설정, 여성의 주변화, 소멸화 등에 대한 내용분석, 매체 종사자 연구 등의 경험주의적 연구는 여성주의 비평운동의 맥락에서 중요한 연구 패턴을 이루어왔다(Steeves, 1987). 하딩의 여성주의 경험론은 이러한 연구들에 설명력을 지닌다.

페미니스트 경험주의는 연구 표본에 여성들과 소수자들을 보다 많이 포함시켜 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편견이 제거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esse-Biber, et al, 2004, p. 9; 성정숙·이나영, 2010, 353쪽). 즉, 남성중심적인 연구데이터가 실증주의를 '나쁜 과학'으로 만들었으며 성차별주의를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딩은 전통적인 지식 체계 안에 '인식주체'로서의 여성을 '첨가'하기(혹은 부가, to add) 위해서는 전통적 학문 지식 체계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페미니스트 연구결과물들을 그 체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남성중심적 인식론에 토대를 둔 전통적 지식체계에 도전하고 균열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Harding, 1991/2009, 92~96쪽, 113쪽). 그러나 페미니스트 경험주의는 현재 과학적 연구가 사용하는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동없이 단순히 여성을 '부가'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류연구들을 복사하는 데 불과하다는 비판(Hesse-Biber, et al, 2004)을 벗어나기 어렵다. 동시에 이 한계점은 하딩이 주장하듯 페미니즘 비평보다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점으로 작용한다.

요약하면, 포스트구조주의 페미니즘, 포스트식민주의 페미니즘(대중적) 포스트페미니즘(이하 '포스트페미니즘'으로 통일하여 사용함)이 비본질주의 인식론의 문화연구와의 이론적 접목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하딩의 경험주의 모델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한 2세대 여성주의 내용분석과 실증주의 연구 방법을 포괄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여성/젠더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자원들을 인식론적 범주를 나누어 봤을 때, ① 2세대 여성주의가 가장 높은 비율(52, 35.1%)을 보였고, 다음으로 ② 포스트구조주의(38, 25.7%), ③ 포스트식민주의(6, 4.1%), ④ 대중적 포스트페미니즘(13, 8.8%) 등의 페미니즘 인식론과, ⑤ 실증주의(35, 23.6%), 그리고 ⑥ 이론적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기타(4, 2.7%) 등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하딩의 '여성주의 경험론' 인식론 모델은 2세대 여성주의의 경험주의적 양적 연구와 실증주의 범주의 연구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2세대 여성주의의 인식론은 페미니스트 경험주의 인식론과 일부 중복되는 범주이다.

인식론적 범주가 여성주의/젠더 주제와 교차되는 지점은 〈표 4〉에서 보듯이, 2세대 여성주의에서는 여성 이미지분석,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조직 내 여성 역할이나 성차별적 고용과 승진에 대한 전통적 관심사와 더불어, 새롭게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젠더 관계에 주목하여 성불평등성이나 이용의 형태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추가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적 자원을 채용한 연구에서는 여성주체형성의 글쓰기와 여성주의 담론 구성과 역사쓰기, 그리고 여성 정체성 구성과 문화가 주된 연구 주제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젠더, 사이버 여성 공간 등에 관한 주제도 관심사로 등록되었다. 포스트식민주의 인식론에서의 연구는 매우 드물었는데 대부분 다문화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진 정체성 연구로 제한되었

다. 포스트페미니즘은 문화 소비 주체로 등장한 젊은 여성들의 사랑과 성욕망, 즐거움의 담론을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연구,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젠더 질서, 사이버 여성 공간, 그리고 여성 정체성 구성과 문화 등을 주된 연구주체로 하였다.

실증주의 인식론 범주에서는 성별 변인을 중심으로 한 이용에서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조직 내에서의 여성 역할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성차별적 여성이미지에 대한 분석도 실행되었다.

주제 및 소재와 페미니즘 인식론의 교차지점을 고려할 때 여성주의/젠더 연구는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1990년대 중후반 학계에 진입하기 시작한 여성 문화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성주의 질적 연구의 흐름이다. 이 연구들은 여성주의 이론과 비판 문화이론과의 접점에서 미디어 대중문화에 대해 개입한다.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와 고정된 남녀 성역할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시작된 2세대 여성주의 인식론을 출발점으로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 그리고 포스트페미니즘의 이론적 자원이나 문화 현상을 통해 주로 미디어 텍스트와 수용자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 흐름에 포함된다.

둘째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행해왔던 성차별 이미지에 대한 내용분석이 경험주의적 양적 연구로 수렴되어 가는 경향과 성별에 따른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주요 주제로 하는 실증주의 연구가 여성주의 관점을 부분적으로나 수용해가는 흐름을 묶어 볼 수 있다. 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남성의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전문직, 공직 진출 여성들에 대한 재현방식과 성 역할 구도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남녀 성별 변인의 이용과 태도 효과 연구, 여성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초점을 두거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이용에서 여성 이용자의 능동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주의 연구로 간주하지 않았던 실증주의 연구들에도 여성주의 관점, 인식론적 관여가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주의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성 일반으로 포획화된 이용자의 개념에 성별, 세대별 변인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이 포착된다. 이 흐름에서는 '여성주의 경험론'의 인식론적 모델 안에서 여성 이용자를 변인으로 하여 생산해내는 지식의 내용과 여성주의적 관점의 스펙트럼을 보다 세밀히 관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식내용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대상과 방법론의 교직 패턴에 몇 가지의 이론적 개념이나 입장이 정형화된 해석의 틀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페미니즘과 문화연구의 접점에서 행해진 연구에서 발견되는 정형화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주제와 결론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강하다. 드라마 텍스트 및 수용자, 성폭력, 성매매법 보도와 성담론, 다문화주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젠더 질서, 뉴스에서의 여성 표상과 성역할 구도 등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구의 결론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지식 생산의 내용과 질에 대한 편하를 초래하는 단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이나 재현이 가부장제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

한 주장이다. 그러나 2세대 여성주의 인식론에 기대는 익숙한 안착, 포스트구조주의 담론분석, 서사분석이라고 해도 2세대 여성주의 내용분석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미 예상되는 결론을 뛰어 넘지 못하는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자기 복제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가부장제 비판 연구의 반대 축에는 포스트페미니즘 대중문화 현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호하는 연구들이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 연구들은 20~30대 젊은 여성과 10대 소녀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즐거움, 감수성, 성적 욕망의 표출, 가부장제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고, 문화적 의미 실천의 정치적 전복성의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여성의 정체성은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자본주의의 수용 맥락 없이 평등한 소비문화의 주체로서 구성된다. 포스트페미니즘의 이론적 빈곤과 해석의 과잉이 병존되는 지점이다.

여기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경향성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가족, 가정의 질서 내에 주부,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된 기혼 여성이나 나이든 여성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다루는 연구에서 나타난다. 다문화주의의 결혼이주여성 역시 이러한 해석의 틀 안에 들어가 있다. 반면, 포스트페미니즘 대중문화의 저항성과 정치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연구들은 20~30대 젊은 여성이나 10대 소녀들의 정체성을 전지구적 소비문화의 주체로서 구성하고 해석한다. 정리하면, 한국 언론학 여성주의/젠더 연구는 재현의 정치학에서 나이든 기혼 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 등은 가부장제 질서의 희생자로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은 소비문화의 정치적 주체로서 이분화하는 패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적 포스트페미니즘의 문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 역시 2000년대 후반의 새로운 연구 트렌드로 포착되었다. TV, 잡지, 광고 등 대중문화에서 몸, 육체, 이성관계 및 교제에 대한 담론이 증가함에 따라 이것들이 신체 만족감이나 다이어트, 성별 조절역할, 외모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들에서도 포스트페미니즘에 대한 환호에 동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포스트페미니즘을 질적, 양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중문화 현상을 빠르게 따라가는 소재주의이다.

대중적 포스트페미니즘의 문화현상으로 경도되는 경향성은 개별 연구의 문제를 넘어 여성에 대한 억압과 모순, 가부장제와 초국적 소비자본주의, 인종과 민족 등의 복합적으로 얹혀 구성되는 여성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분석의 힘을 떨어뜨리고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개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반동적 정치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디어 재현의 정치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미디어를 넘어 물질적 일상성과 실천성의 측면에서 여성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직장과 일터에 대한 연구로 다양하게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조직의 여성 고용과 승진, 조직 내에서 여성 인력의 지위, 역할, 여성 리더십과 공적 여성 인물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은 현재 언론학의 여성주의 연구에서 특히 변방화 되어있다. 직장과 일터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연구들, 공적 담론의 장인 뉴스 생산의 성별 이데올로기 작용 분석 등에 실증주의 저널리즘 연구자의

성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2세대 여성주의의 ‘평등’의 개념이 전통적 지식체계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여성주체적 지식생산을 위한 가장 정치적인 영역의 하나로서 여성들의 직장과 일터라는 사회적 현실에 개입하는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며, 문화이론과의 접점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주체의 형성을 여성주의 언어와 글쓰기, 여성주의 역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은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적, 남성적 담론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뉴스가 물성적, 맹성적 언어와 남가부장적 서사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여성작가와 방송인들이 제작의 현실이라는 구체적 국면과 맥락에서 가능성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영역일 것이다.

페미니스트 경험주의의 틀 안에서 해석되는 실증주의 연구들이 주류 학계에서 만들어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은 여성을 ‘참가’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가는 어렵다. 그리고 균열의 시작이 촉발되는 것은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이론과 연구결과의 성과로부터임은 분명하다.

여성주의 이론의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천착이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상상력의 지평을 확대해 줄 수 있고, 특정 소재와 방법론에 대한 편중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연구 진영 내에서도 여성주의/젠더 연구가 매우 빈곤하다는 것은 이미 대학원생 저자들에게 의해서도 세세히 지적된 바 있다. 어느 측면에서는 언론학에서의 문화연구 메타담론의 상당 부분이 공유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여성주의 문화연구의 풍부함은 여성주의 경험연구의 확장을 위한 전제이다. 2세대 여성주의가 지닌 정치적 함의가 퇴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금, 언론학 분야 실증주의 연구자들은 이제 매우 자연스럽게 재현의 ‘평등’과 균형을 수용하고 있는 듯하다. 여성주의 문화연구가 더 많은 더 깊은 연구를 생산할 때 물이 넘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5. 커뮤니케이션학계의 여성 연구자들의 지위:

여성교수의 수와 여성/젠더 연구자의 수

한국언론학회 회원 수첩에는 전체 약 1,234명의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여성회원의 수는 283명이고, 여성 전임교수 회원은 131명이다. 비전임 여성회원은 방송, 신문, 광고, 통신 분야의 현업 종사자, 각종 연구소의 전문연구자, 그리고 비정규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여타 다른 학계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대략 한 개 대학에 1~2명 정도의 여성교수가 재직 중일 것이고, 한 명도 없는 대학들 수도 일정부분 있다. 몇 개 대학은 더 많은 여성전임교수가 재직 중인데 3명 이상의 여성교수가 있는 대학을 대략적으로 제시해보면, 이화여대는 16명 전임교원 중 8명이 여성교수이고,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는 11명 중 4명,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는 6명 중 3명,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는 6명 중 3명, 숙명

여대 미디어학부는 10명 중 3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는 10명 중 3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는 12명 중 3명이 여성교수이다. 경험적 데이터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임교수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교수의 수가 곧 학계에서 여성/젠더 연구 연구자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성전임교수의 증가는 학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읽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수의 학자들이 여성/젠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기위해 분석대상논문의 집필자의 수를 집계한 결과 총16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저자의 경우도 각 각을 1인으로 계산하여 집계된 수치이다. 전체 저자수를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비율을 알 수는 없으나, 전체 게재 논문에서 여성/젠더 연구 비율이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집필자의 게재 회수를 통해 주요 연구자를 파악해보면, 10회 게재가 1명, 7회 1명, 6회 1명, 5회 2명, 4회 1명, 3회 7명, 2회 20명, 1회 129명이다. 이 중 2회 이상 게재자는 33명, 3회 이상 게재자는 13명이다. 3회 이상 게재 연구자 가운데 젠더 연구를 주 연구 분야로 하고 있는 연구자는 이보다 더 소수이며, 문화연구자로 젠더를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하는 연구자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예상할 수 있듯이 여성 연구자가 단연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5〉 여성/젠더 논문 게재 회수와 연구자 수 현황

게재회수	10회	7회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총
명수(명)	1	1	1	2	1	7	20	129	162

주요 학술지의 여성, 젠더 관련 연구논문 총 148 편 중 2인 이상의 공저 연구논문은 62편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학술지 논문에서 공저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비율의 의미를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절대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공저 논문의 68%(42편/62편)가 석사 이상의 대학원 학생들과의 공저로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1회 게재 연구자의 일정 부분이 이러한 교수와 대학원 석박사 학생 공저자였고 석사 논문을 발전시키거나 공동 연구프로젝트로부터 나온 연구들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언론학 연구에서 여성, 젠더 연구의 수용 혹은 진입이 아직은 도전적인 측면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남성연구자에 대한 현황들을 살펴보면, 조사된 전체 여성, 젠더연구논문 연구자 162명 가운데 몇몇 성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름으로 구분하여 약간의 오차를 고려해서 보더라도 남성 연구자로 분류되는 이는 47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의 29%, 약 1/3에 해당된다. 이들 중 단독 연구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8명으로 전체의 17%, 약 1/5에 미치지 못했다. 다른 학술지에 비해 여성주의적 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디어, 젠더 & 문화》에 논문을 실은 남성 연구자는 9명(전체 남성연구자의 약 1/5 수준, 〈미디어, 젠더 & 문화〉에 게재된 연구논문 총 39 편 중 9편, 약 1/4 수준)인데, 이들 모두는 공저자로 참여하였고 제1저자는 3명이었다.

정리하면, 여성/젠더 연구를 주요 연구전공으로 삼고 있는 연구자수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연구관심은 일회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회 이상 여성/젠더 논문 게재 저자는 13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젠더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자 수는 더 적다. 이러한 소수 연구자들의 지속적 노력에 의해 오늘날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성과들이 이나마 축적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동시에 소수 연구자에 의한 한정된 지식 생산은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다양성과 심층성에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6. 성찰과 과제: 분과학문에서 여성/젠더 연구의 성과와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의 정체성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한국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 여성/젠더 연구의 현황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성학자의 수가 증가세에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는 앞으로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젠더 연구의 현황이 그리 밝지는 않고 분과학문에 끼친 영향이나 기여가 사실 미미한 수준에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페미니즘 관점을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여성/젠더 연구가 학문적 논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미디어와 젠더〉 같은 교과목을 독립적으로 개설하는 학과도 드물고 세부전공 교수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은 여전히 부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부재하다.

실증주의가 주류인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여성주의 관점이나 여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여성/젠더의 인식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여성 구매력이나 문화실천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과제를 합의해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가 과연 이러한 이슈들을 이끌어갈 ‘학문적, 실천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혹은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이다. 학회 정체성의 논의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여성연구자들의 모임인 ‘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논문발표와 토론의 학술활동을 해왔던 초기에도 이미 유사한 질문이 잠복된 채로 있었다. 연구회의 일원이었던 김혜순은 연구회에서 1993년 5월부터 1996년 현재까지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가운데 ‘페미니스트 언론연구’(studies in gender and communication *여성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인식이 있는 연구부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논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정)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이 3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모임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인적구성으로 보아 페미니스트 연구라는 학술활동을 과제로 공유하는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김혜순, 1996, 171쪽). 이 당시는 워낙 수적으로 소수였던 여성학자들의 친목과 격려의 성격이 더욱 강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학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는 여성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주류 학계

의 소수자로서 여성학자들의 결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던 단계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회 창립 이후 외부에서는 여성컴학회를 여성주의 학문공동체로 바라보고 있으며, 학회 회원 수도 300명에 이르는 외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혹은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정작 내부에서는 학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논의가 여러 해 째 계속되고 있다.⁵⁾ 아마도 정체성의 위기론은 여성학자들의 수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학회 설립 1세대들이 가졌던 초기의 유대감이 약화되었고, 또한 여성교수들이 자신들을 더 이상 소수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등에서 여성이사들의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한 형편에서 여성들끼리의 독립 학회에 대해 별다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학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한 학회의 정체성 논의는 여러 번 반복해온 문성에 비해서 치열한 논쟁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성컴 학회의 정체성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원의 범위와 소속감, 학술 대회 및 학술지의 방향성에 관해서이다. 여성주의/젠더라는 학회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다 폭넓게 회원을 포괄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학회가 성별을 특정하여 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학자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라는 구성원의 특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젠더를 강조하면 연구 관심이 다른 여성학자들이 부담스러워진다. 커뮤니케이션 분과학문 영역에서 보다 많은(남성,) 여성 학자들을 포괄하고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의 적극적 참여 기회 확대라는 대원칙에는 모두 다 찬성하나 이것이 학문적 방향성과 연계되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가 있다.

둘째, 《미디어, 젠더 & 문화》는 젠더가 학회지 키워드의 하나라는 점에서 언론학계의 다른 학술지와 분명히 차별되는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젠더 이슈가 얼마나 기획되고 게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젠더 이슈 경향성이 강하다는 비판과 동시에 정체성이 모호해질 정도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상존한다. 이러한 대립적 평가와 더불어, 학술지의 체성과 위상을 담보해줄만한 양질의 젠더 연구논문이 투고되고 게재되고 있는가는 별개의 과제로 남아있다. 학회가 커뮤니케이션 학문 분야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젠더 정체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미디어, 젠더 & 문화》가 젠더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언론학계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젠더 연구에 대해 이슈의 학술적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편견이 작용한다고 느꼈던 경험

5) 이하의 논의는 2009년 12월 12일 있었던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정체성 모색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토론자로는 김세은, 김유정, 김훈순, 박은희, 설진아, 이경숙, 이종수, 조수선, 박동숙(회장) 등이 참석했고, 객석에 있던 회원들 역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얘기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 이슈가 아니더라도 소수자의 관점이 들어오는 연구가 중요하다는 비판정신도 강조된다. 언론학계의 학문적 주류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대회 역시도 발표주제와 참가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학술지 투고도 자유롭게 열어두지만, 젠더를 다루는 기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모아진다. 그나마 학술상에서는 “여성관련 분야 신진 양성을 위해 수여하는 석박사 논문상”으로 학회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성학자들의 학문활동의 결실인 <미디어, 젠더 & 문화>의 논문 중에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은 여성/젠더 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수논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술지 게재논문의 성격과 회원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전공 연구 영역은 다르지만 여성으로서 여성현실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학회가 이를 실천적으로 다루어주어야 한다는 언술을 통해 학회의 여성주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젠더에 관심을 갖는 것과 연구를 하는 것은 다르며, 미디어에서 젠더 현상을 관심있게 보는 것과 전공 연구 분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거나, 여성학자와 남성학자는 똑같은 주제를 연구하더라도 다르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시되거나, 출산, 양육, 여성의 지위 등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 가는 학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희망도 표출된다. 여성교수라는 특정 소수집단의 모임을 넘어 다양한 계층의 여성과의 소통, 사회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요구하기도 한다. 학문적 관심도 제기된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휴머니즘’ 차원에서 함께 페미니즘을 논의해보고 싶고, 공부모임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상충되는 여러 제안들이 타협가능한 지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젠더 이슈를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를 소수화하고 주변화하는 편협함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지나친 개방성은 타 학회와의 차별성을 무너뜨리고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구로서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는 학계의 소수인 모든 여성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연구에 대해 개방하지만, 아카데미 분야로서 학회지는 젠더 중심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은 봉합된 채로 남아있다.

여성컴 학회 내부 구성원으로 회원 개인들이 제시한 의견들에는 다양하고 세밀한 차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화하면 주장의 내면이 더욱 분명해지는듯하다. 1) 여성주의 혹은 젠더를 강조하지 말자. 페미니즘으로 범주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2) 전공 연구 분야와는 상관없이 일상생활과 직업 영역에서 제기되는 여성주의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3) 학계에서 여성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 지원과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열어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여성컴 학회내부에서 회원 개인으로 던져지는 시각과 입장의 차이들은 여성주의가 1990년대 말부터 겪고 있는 격심한 변화의 징후의 한 측면이다.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와 학회 회원 역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여성컴 학회

의 정체성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이론적 입장과 이념적 지향이 상호대립하고 타협하고 새로운 방향의 실천을 만들어 내는 변화의 지형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여성주의자가 아니지만...’으로 시작되는 다양한 여성담론들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가 가졌던 민주성과 운동성을 소실해가는 과정에서 여성학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여성이라는 정체성과(여성) 커뮤니케이션 학자라는 정체성이 여성주의/젠더에 대해 가지게 되는 복합적 감정과 경험 역시 신자유주의, 지구적 자본주의, 포스트페미니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 사회 정치문화적 자장 안에서 발생하는 의미작용이다.

여성컴 학회의 학문적 정체성 논의는 언론학계의 여성주의/젠더 연구에 대한 인식들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정체성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컴 학회의 정체성은 언론학계에서 여성주의, 젠더 연구가 차지하는 위상과의 관계 속에서 협상된다. 남성 중심의 분과 학문 규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과학문의 경계가 중첩된 조건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위치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을 가지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분과학문 분야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자를 자임하기는커녕 그런 연구자로 시선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현실이 언론학 전반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학문적 위상은 젠더화된 학문 규율에 의한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 뿐 아니라 학문적 성취, 이론적, 방법론적 철저함으로부터 획득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 현재 이에 대한 학문적 실천 활동의 하나는 〈커뮤니케이션과 젠더〉 연구분과 활동이 있다. 연구분과는 월 1회 정기모임에서 여성주의 이론서들을 공부하고 특강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학술대회에서 여성/젠더 세션을 구성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숙이(2007).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 김승경·이나영(2006). 학제간 학문으로서의 여성학: 여성학(과)의 정체성 및 제도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1호, 35~77.
- 김신현경(2006). 특집: 한국의 페미니즘, 지금 어디에 있나-대안을 찾아서: 지금/여기 페미니즘에서 ‘문화’에 관한 문제설정을 위한 몇 가지 질문들,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제16호, 162~175.
- 김유정(2009). 젠더와 미디어 연구사,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 한국언론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953~986.
- 김응숙(1995). 문화연구와 페미니즘: 유물론적 페미니즘과 문화연구의 새로운 결합을 위한 시도,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호, 90~114.

- 김혜순(1996). 국내 페미니스트 언론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언론학보》, 제38호, 159~202.
- 백미숙·이종숙(2011 겨울). 한국 언론학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지식생산: 진단과 함의, 가
능성의 모색, 《언론과 사회》 19권 4호, 162~231.
- 원용진(1993). 대중문화와 여성 해방주의, 《대중 매체와 페미니즘》(pp. 15~68), 원용진·한은
경·강준만 편저. 서울: 한나래.
- 이나영(2006). 초/ 국적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확장, 《경제와 사회》, 여름
호, 통권 제70호, 63~88.
- 이상길(2010). 특집 문화연구의 비판적 성찰, 문화연구의 연구문화: 언론학계에서의 제도화 효과
에 관한 성찰, 《민족문화연구》, 5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63.1
- 이영자(2003). 페미니스트 정체성: 제3의 물결을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제7집, 1~26.
- 이정연·이기형(2009), ‘칙릿’ 소설,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초상. 『언론과
사회』, 제17권 2호, 87~138.
- 임국희(2010). 페미니스트 정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
문.
- 성정숙·이나영(2010). 사회복지연구를 위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비평과 함의, 《한국사회복지
학》, 제62권 2호, 349~373.
- 정민우·김효실(2009). 페미니즘 없는 문화연구: 한국(미디어) 문화연구 메타비평과 페미니스트
지식의 위치성, 《언론과 사회》, 17권 4호, 154~196.
- 조주현(2000). 한국여성학의 지식생산구조와 향방: 《한국여성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16권 제2호, 145~174.
- 조주현(2009). 샌드라 하딩과 페미니스트 인식론,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447~466,
나남.
- Brooks, Ann(1997). *Postfeminisms: Feminism, Cultural Theory and Cultural Forms*. Routledge,
김명혜 역(2003). 《포스트 페미니즘과 문화이론》, 한나래.
- Burter, Judith(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조현준 역(2006),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
- Foucault, Michel(1976).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역(2006), 나남.
- Gens, Stéphanie, and Brabon, Benjamin A.(2009). *Postfeminism: Cultural Texts and Theories*,
Edinburgh University Press.
- Harding, Sandra(1991).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Cornell University
Press, 조주현 역(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 Hesse-Biber, S. N., P. I. Leavy, and M. L. Yaiser(2004). Feminist Approached to Research
as a Process: Reconceptualizing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Method, 3~26,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Research, Ed. by N. S. Hesse-biber and M. L. Yaise,

Oxford University Press.

McRobbie, Angela(2004). Post Feminism and Popular Culture, *Feminist Media Studies* 4:3, 255~264.

Steeves, H. Leslie(1987). Feminist Theories and Media Stud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s*, June, 95~135.

법학에서의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 한국젠더법학회의 성립과 현황 및 과제를 중심으로

김엘림(한국젠더법학회, 한국방송통신대)

I. 한국젠더법학회의 성립과 역사

1. 개요

한국젠더법학회는 2005년 12월 3일에 창립된 한국젠더법학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2007년 1월 13일에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이 분야 연구자와 법률실무자들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로 창립되었고, 같은 해 2월 13일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단체로 등록되었다.

설립된 지 현재까지 6년 9개월의 역사를 가진 본 학회는 총36회의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내년 2월까지 5회의 학술행사를 더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지 「젠더법학」을 2009년 3월부터 매년 2회 발간하고 있으며 「젠더법학 소식지」를 19호까지 발행하였다.

회원수는 학회 출범당시 94명이었는데 현재 235명이며 구성은 전공과 성별에 관계없이 교수, 법조인, 법실무기관 종사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 중 남성이원은 40명(17.0%)이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24명(10.2%)이 있다. 기관회원은 1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2. 한국젠더법학연구회의 출범과 활동

2005년 12월 3일에 창립된 한국젠더법학연구회는 법학 연구와 실무에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여성주의 법학 관점으로 해석 논의하는 법학 연구 단체로서 출범하였다. ‘한국젠더법학연구회’라는 명칭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남녀 관계의 재구성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

연구회는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과대학)를 운영위원장으로 하여 8명의 운영위원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출범당시 40여명의 남녀 법학연구자와 법조인 등의 법실무자뿐 아니라 사회학자, 여성학자 등이 참여하여 법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과 담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2007년 1월까지 격월로 7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수는 113명에 이르렀다. 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의 주제와 일정은 <표1>과 같다.

〈표1〉 한국젠더법학연구회의 세미나

회차	세미나 대주제	일시	공동주최 기관	장소
제1회	연구회 창립에 부쳐	2005년 12월 3일		서울대
제2회	이혼시 재산분할	2006년 1월 14일		서울대
제3회	미국 여성주의 법학	2006년 3월 11일		서울대
제4회	고용상 여성차별	2006년 5월 13일		서울대
제5회	젠더법학교육의 의미와 방법	2006년 7월 8일		전남대
제6회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안	2006년 9월 23일		서울대
제7회	성매매관련 관례의 해설과 쟁점	2006년 11월 11일		서울대

3. 한국젠더법학회의 출범과 제1기(2007.1.13~2008.2.28)의 활동

(1) 학회의 출범과 조직구축

한국젠더법학연구회는 학술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젠더법학회란 명칭으로 학회를 2007년 1월 13일에 출범시켰고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발제자를 회장으로 하여 부회장 1명, 감사1명, 이사 9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같은 해 2월 13일엔 한국학술진흥재단(영문명칭: Korean Academy of Feminist Jurisprudence)의 학술단체로 등록하였다.

(2) 학회의 회원의 구성과 확충

학회의 정관은 학회의 회원자격을 성별과 전공에 관계없이 “젠더법학 및 이와 관련한 인접학 문분야의 전공자로서 연구활동 또는 법률실무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고(제4조제1항), 가입 절차는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4조제 2항)

출범 당시 학회에 가입한 사람은 총94명이었는데 2008년 1월까지 9명이 제1기의 학회에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121명이었다. 회원들의 구성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교수가 45명(비전임교수 5명 포함), 법조인 28명(판사10명, 검사 7명, 변호사 11명), 법실무기관 종사자15명(공인노무사 8명, 공무원 2명, 국가인권위원회 종사자 2명,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2명) 연구원 10명, 대학원 재학생 19명, 시민단체 활동기 3명, 조교 2명이었다.

(3) 학회의 주요활동

제1기의 학회는 1) 총6회의 학술세미나 개최, 2) 총 5회의 학회 소식지 발간, 3) 학회의 온라인 카페 개설(2007년 7월 13일, <http://cafe.daum.net/genderlaw>), 4) 「젠더법학 세미나 자료집」의 발간, 5) 이사회의 운영을 주요활동으로 하였다.

〈표2〉 제1기(2007.1.13~2008.2.28) 학회의 학술활동

회차	세미나·학술대회 대주제	일시	공동주최기관	장소
제8회	세미나: 가정과 국가·법의 관계(I)』	2007년 3월 10일		방송대
제9회	세미나: 가정과 국가·법의 관계(II)	2007년 5월 19일		대학로 세미나실
제10회	세미나: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I)	2007년 7월 14일	부산대 법학연구소	부산대
제11회	세미나: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성폭력판례비평	2007년 9월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방송대
제12회	세미나: 여성노동의 현안과 법	2007년 11월 10일	(사)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대학로 세미나실
제13회	학술대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II): Gender-mainstreaming과 법	2008년 1월 12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대

4. 제2기(2008.2.1~2009.3.31) 활동

김선옥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를 회장으로 한 제2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활동을 하였다.

- (1) 총6회의 학술대회를 관련기관과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표2),
- (2) 학술지 「젠더법학」의 창간과 총 2회의 발간
- (3) 총6회의 소식지 발행
- (4) 관련기관과 용역연구과제의 계약체결과 수행(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건국60주년 기념 학술연구: 헌정60년의 법과 여성의 관계」 2) 여성부의 「헌법과 성평등관련 법률의 향후 과제」, 법원행정처의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3) 대법원의 「가족형태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5)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사법연수원생 포함)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정관의 개정
- (6) 회원의 확충(121명에서 168명으로 증대)
- (7) 학회 임원진의 재편성(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교류협력이사 2명, 이사 10명)

〈표3〉 제2기(2008.2.1~2009.3.31)의 학술활동

회차	학술대회 대주제	일시	공동주최기관	장소
제14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III)	2008년 4월 12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대
제15회	군대와 양성평등	2008년 6월 14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제16회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III): 여성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2008년 8월 9일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여성 노동법률지원센터	전남대
제17회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	2008년 11월 3일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정치학회	대한상공 회의소
제18회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 IV: 헌법과 성평등관련법 제·개정논의를 중심으로	2008년 12월 13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여대
제19회	로스쿨 시대의 법률시장과 여성법조인	2009년 3월 14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여대

5. 제3기(2009.4.1~2010.2.28)의 활동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회장으로 한 제3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활동을 하였다.

- (1) 총5회의 학술대회 개최(표4)
- (2) 대법원의 용역과제 완료, 발표
- (3) 학술지 「젠더법학」의 총2회의 발간
- (4) 총2회의 소식지 발행
- (5) 학회의 홈페이지 재구축(<http://genderlaw.or.kr>)
- (6) 학회의 영문명칭을 *Korean Association of Gender and Law*로 변경
- (7) 출판관련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구성
- (8) 회원의 확충(168명에서 188명으로 증대)
- (9) 임원진의 재편성(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2명, 출판이사 2명, 교육이사, 대외협력이사, 이사 10명)

〈표4〉 제3기(2009.4.1~2010.2.28)의 학술활동

회차	학술대회·세미나 대주제	일시	공동개최기관	장소
제20회	추계학술대회: 가족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2009년 6월 13일	법원 젠더법연구회	서울대
제21회	세미나	2009년 9월 5일		서울대
제22회	세미나	2009년 11월 7일		서울대
제23회	추계학술대회: 젠더관점에서 본 이혼의 현실과 법리	2009년 12월 5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
제24회	세미나: 저출산시대, 낙태를 처벌해야 하나	2010년 2월 27일		서울대

6. 제4기(2010.3.1~2011.2.28)의 활동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회장으로 연임된 제4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활동을 하였다.

- (1) 총4회의 학술대회와 1회의 국제학술회의 개최(표5)
- (2) 학술지 「젠더법학」의 총2회의 발간, 편집 및 간행규정의 개정
- (3) 총2회의 소식지 발행
- (4) 회원의 확충(188명에서 192명으로 증대)
- (5) 이사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충, 실무이사회 구성

〈표5〉 제4기(2009.4.1~2010.2.28)의 학술활동

회차	세미나·학술대회 대주제	일시	공동개최기관	장소
제25회	세미나	2010년 4월 24일		서울대
제26회	학술대회: 혼인, 섹슈얼리티(Sexuality)와 법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제27회	세미나: 인터넷 시대의 포르노와 여성의 인권	2010년 10월 9일		서울대
제28회	추계 국제학술회의: 김영란 전 대법관 특별강연 및 동아시아의 성매매 실태와 법의 대응	2010년 12월 4일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
제29회	세미나: 2010년 기억해야 할 젠더 판례	2011년 2월 19일		서울대

7. 제5기(2011.3.1~2012.2.28)의 활동

김용화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를 회장으로 한 제5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활동을 하였다.

- (1) 총4회의 학술대회(표6)
- (2) 학술지 「젠더법학」의 총2회 발간
- (3) 1회의 소식지 발행
- (4) 회원의 확충(192명에서 223명으로 증대)
- (5) 임원진 재편성(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섭외이사 3명, 이사 11명)

〈표6〉 제5기(2011.3.1~2012.2.28)의 학술활동

회차	학술대회·세미나	일시	공동개최기관	장소
제30회	추계학술대회: 젠더 정의와 여성 법조인의 미래	2011년 6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숙명여대

제31회	세미나:적극적 조치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011년 10월 22일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숙명여대
제32회	하반기 학술대회: 미혼모의 인권과 법적 지위	2011년 12월 10일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숙명여대
제33회	세미나: 2011년 젠더 관련 주요 입법 및 정책 동향과 제언	2012년 2월 18일		숙명여대

II. 한국젠더법학회의 현황

1. 제6기의 주요 활동

2012년 3월부터 발제자가 다시 회장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제6기에서는 학회의 조직을 확충하고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다.

- (1) 임원진을 작업·지역·성의 균형을 고려하며 50명으로 확충(회장, 부회장 2명, 감사, 총무이사 2명, 학술이사단 12명, 편집이사단 12명, 교수대표이사 4명, 법조인대표이사 5명, 연구원 대표이사 2명, 법실무기관 대표이사 5명, 남성대표이사 2명)
- (2) 회원을 223명에서 235명으로 확충, 기관회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입회
- (3) 3회의 학술행사(표7)
- (4) 1회의 학술지 「젠더법학」 발간
- (5) 2회의 소식지 발행
- (6)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의 회원학회로 가입

〈표7〉 제6기(2012.3.1~2012.9.22)의 학술활동

회차	학술대회·세미나·포럼 대주제	일시	공동개최기관	장소
제34회	춘계학술대회: 젠더관련 법과 판례의 최근 변화와 쟁점	2012년 6월 30일		방송대
제35회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방향과 과제	2012년 7월 19일	국회입법조사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제36회	각 학문영역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	2012년 9월22일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의	서울대

2. 제6기의 향후(2012.9.23~2013.2.28)의 활동계획

- (1) 5회의 학술행사
- (2) 1회의 학술지 「젠더법학」 발간

(3) 2회의 소식지 발행

(4) 일본젠더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참여·발제(한국의 여성정치참여지원법제)

〈표 8〉 제6기의 향후(2012.9.23~2013.2.28)의 학술행사

회차	포럼·학술대회·세미나 대주제	일시	공동개최기관	장소
제37회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2012년 10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국회
제38회	추계학술대회: 여성노동권의 현황과 과제	2012년 11월 2일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
제39회	동계학술대회: 젠더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2012년 11월 30일~12월 1일	전북대 법학연구소	전북대
제40회	제4차 젠더와 입법 포럼: 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여부와 입법과제	2012년 12월 17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제41회	세미나: 주제 미정	2013년 2월 23일		방송대

III. 여성주의 법학의 학문적 위상과 특성

1. 여성주의 법학의 의의와 역사

(1) 여성주의 법학의 의의

“여성주의 법학”, “법여성학”은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는데¹⁾ 이를 종합정리해보면, 여성

1)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견해가 있다. “법여성학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여성의 관점에서 이제까지의 학문을 재검토하고 여성이 주체적·능동적 노력을 통해 성별 불평등의 조건들을 변화시키려는 ‘여성학’ 가운데 법적 측면에서의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윤후정·신인령(1989),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 8면), “법여성학은 이”법여성학은 이제껏 당연시되어 왔던 법사상, 관습, 제도에 의문을 던지고, 현존하는 실정법과 법원칙을 분열시켜 변화를 모색하는 학문경향이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성을 증진시키고자 모색하는 정치적 측면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이 아닌 「사회적 의미의 성」(gender)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여성학적 측면을 갖는다. ... 여성해방이론(feminism)을 법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법의 한 갈래로, 그 목적은 법의 영역에서 여성의 사고를 배제하거나 낮게 평가 또는 회방해 왔던 것에 반대하고 법실무를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데 있다.”(이은영(1993),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법과 사회」 제8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편) 창작과 비평사, 58~59면), “여성주의 법학이란 여성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온 법원리나 법가치, 법원의 활동을 위시한 실무의 관행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구조를 구성, 유지, 강화시키는 법의 역할을 탐구하며 여성의 경험에 상응하게 법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박은정(1996),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278면), “여성의 시각에서 법을 재해석하고 입법하고자 하는 분야로서 ‘법과 여성’ 간의 역동적 관계를 다루며 실정법상 여성의 지위 분석에 머물지 않고 페미니즘이라는 지식 패러다임을 수반하는 철학적·이론적 학문”(양현아(2002), “서구의 여성주의 법학·평등과 차

주의(페미니즘, feminism)에 기초하여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으로 법과 판례 등의 법실무를 탐구하여, 여성의 억압과 남녀불평등을 생성·유지시키는 문제를 규명·비판하고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법학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2) 여성주의법학의 국제적 동향

1) 여성주의 법학의 생성배경

(가) 법의 기능과 남성편향성

법은 사회와 남·녀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으로서 사회운영의 기본원칙과 사회구성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행동기준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조직과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법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법을 만드는 사람(국회의원 등), 적용하는 사람(판사 등 법조인 등, 집행하는 사람(공무원 등)은 주로 남성이었고 그들은 권력구조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입법과 판례, 행정은 남성의 시각과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남성중심적 사회질서가 유지되었으며 법학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학문이었다.

(나) 여성들의 법에 대한 도전

여성들이 법의 남성편향성에 대하여 도전한 것은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고 기본적 권리로서 투표권, 재산권 등의 인권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공포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체제가 형성되던 시대에 남성들만이 인권을 가지게 되자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성들의 청원으로 시작되었다. 여성적가이자 정치가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는 이러한 여성들의 청원을 집약하여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남성의 권리선언임을 비판하고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인간이므로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을 가진다는 「여성시민의 인권선언」을 1791년에 발표한 후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 처형당했다. 그후 프랑스에서는 여성은 흥분하기 쉽고 수치심이 많으므로 정치에 필요한 능력이 없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침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법령들이 공포되었다. 1793년 10월에 모든 여성의 정치결사를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고, 1795년 5월에는 여성만의 의회 방청과 여성의 정치적 집회에서의 참가를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또한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여성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5명 이상의 여성이 거리에서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발견되면 무력으로 해산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체포한다는 「가정복귀령」도 공포되었다.²⁾ 미국에서는 1848년에 세네카 폴즈에서 여성들이 집회를 열고 발표한 「여성의 소신선언」

이의 논쟁사”, 「법사학연구」 제26호, 한국법사학회, 230~231면)

2) 辻村みよ子・金城清子(1992), 「女性の権利の歴史」, 日本: 岩波書店, 35~45면.

(Declaration of Sentiment)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만, 그 법을 만드는 데에 여성의 목소리가 포함된 적이 없다. 법은 언제나 남성 우위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 권력을 남성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므로 법은 정당하지 못하다. 남성은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조차 여성에게 허용하지 않았고 재산권, 직업을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억제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절반인 미국 여성에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특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건들로 여성의 인권운동이 전개되었으나, 20세기 초반 무렵에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투표권이나 계약체결권과 같은 완전한 시민권이나 정치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예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은 1920년에, 프랑스는 1945년에야 비로소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했다.

(다) 국제기구의 법 변화 작용

여성들의 인권이 각국에서 법으로 보장되게 된 데에는 1945년에 설립된 UN(국제연합)의 영향이 크다. UN은 설립할 때부터 세계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성차별 철폐를 UN의 주요한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UN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각종 국제인권문서들을 채택할 때 여성들의 인권보장과 성차별 철폐를 명시하고 가입국에게 이를 입법, 사법, 정책을 통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1957년에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녀평등과 여성에 대한 보호의 양립문제가 각국대표 사이에 크게 쟁론이 되었다. 즉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책임이므로 여성에 대한 보호를 출산기간뿐 아니라 자녀양육기간까지 확대하지는 사회주의 국가(체코, 칠레 등)의 주장과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에 기초하여 여성에 대해 자녀양육을 이유로 보호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성의 고용기회를 좁히는 차별이 발생하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남녀 모두와 가정에 대해 하여야 한다는 유럽 국가(프랑스, 스웨덴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는데 표결 결과 후자의 입장이 채택되었다.³⁾ 1919년에 설립된 ILO(국제노동기구)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국제협약들을 채택하였는데 UN이 창설된 후 UN의 전문기구가 되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약들을 채택하면서 여성노동보호와 남녀평등, 남녀차이에 관한 쟁론이 이루어졌다. UN과 ILO는 이러한 쟁점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리하여 1979년 12월에 채택한 「UN여성차별철폐협약」, 1981년에 채택한 ILO의 「가족책임을 가진 남녀근로자의 고용평등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문서에 반영하였다. 이 기본원칙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체,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일한 인권존중, 남녀간에 여성이 고유한 모성기능(임신, 출산, 수유)을 가지는 생리적 차이와 오랜 편견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한되어 남녀의 사회적 지위에 현격한 격차가 있는 사회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3) 金城清子(1991), 「法女性學のすすめ」, 日本評論社, 48~54면; 윤후정·신인령(1989)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제3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74~75면.

와 남녀와 가정에 대한 돌봄노동 지원을 통한 실질적 평등 도모'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후 UN은 1993년 12월에 채택한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강제적 섹스매 등 여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므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차별에 해당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녀평등, 여성인권보장의 전략을 점검하고 21세기의 남녀평등실현 전략을 집대성한 국제문서로서 1995년 9월에 채택한 「북경행동강령」에서 남녀 불평등을 생성, 유지시키는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성주류화'란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계획과 운영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경험과 관점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여 남성주류의 사회구조를 남녀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성주류화'의 실시는 여성정책의 공통된 목표가 되고 있고, '남녀평등'(gender equality)의 실현'은 입법과 사법의 공통된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

2) 여성주의 법학의 전개: 미국의 상황⁴⁾

이와 같은 법과 법실무, 법학의 남성편향성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규명하고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남녀평등한 사회와 남녀관계를 이루도록 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반과 방안을 제공한 것이 바로 여성주의 법학이다.

여성주의법학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등장한 미국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학의 영향으로 1970년대부터 법의 남성중심주의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무시를 문제 삼은 여성법학자들과 여성 법조인들에 의해 생성되어 발전되고 있다. 1969년에 뉴욕대학을 비롯하여 1970년대부터 많은 로스쿨에서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고 1978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Women's Law Journal」이란 여성주의 법학저널이 발간되었다. 1980년대 초기에는 여성주의 법학은 기존법학을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비판한 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한 분파로서 위치하였으나 후기부터 기존법학과

4) 김문현(2001), “남녀평등에 관한 미국 법여성학적 시각들에 대한 일고찰”,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양현아(2002), “서구의 여성주의 법학-평등과 차이의 논쟁사”, 「법사학연구」 제26호, 한국법사학회; 오정진(2010), “여성주의 법학의 지형”, 「법과 사회」 제38권, 법과사회이론학회; 최일숙(2009), “미국 여성주의 법학의 소개”, 「젠더법학」 제1권 제1호, 한국젠더법학회; ; Ann C. Scales(1993), “The Emergence of Feminist Jurisprudence: An Essay”, *Feminist Jurisprudence* (Edited by Patricia Smith), Oxford University Press; Catharine A. Mackinnon(1987), *Feminism Unmodified-Discourses on Life and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Frances Olsen(ed.)(1995), *Feminist Legal Theory-Foundations and Outlooks(I) · (II)*, New York University Press.; Nancy Levit, Robert R.M.Verchick(2006), *Feminist Legal Theory*, New York University Press.; Patricia Smith(ed.)(1993), *Feminist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Robin West(1988), “Jurisprudence and Gen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55 No.1; Tove Stang Dahl(1987), *Women's Law-An Introduction to Feminist Jurisprudence* Norwegian University Press. 등

다른 독자적 학문으로서 인정받고 발전되고 있다. 미국의 여성주의 법학은 미국내의 입법과 사법, 법학에 여성주의에 기초한 법이론과 사법판단기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성주의 법학의 생성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차이와 불평등 및 문제개선방안에 관한 견해는 논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페미니즘 이론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과 문화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등과 같은 다양한 갈래가 있다. 이에 따라 여성주의 법학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여성주의 법학의 발전경향을 대략적으로 구분하면 제1단계에서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남성을 표준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지위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단계이다. 제2단계에서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차이, 특질을 강조하고 그 차이를 법과 법학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단계이다 제3단계에서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의 집단적 차이와 성별에 따른 보편적 정체성에 회의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 권리, 행복을 중시하지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한편, 미국은 약 190개 국가가 가입한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협약을 채택하던 1978년 12월 당시에 가입국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개발도상국들이 결함하여 협약의 전문(前文)에 “궁핍한 상황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남녀평등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외국의 식민지배 등을 해소하는 일이 사회진보를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ILO의 남녀평등과 여성노동보호에 관한 협약의 비준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여성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젠더관련 법과 관례는 국제 보편적인 법질서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관한 미국 여성주의 법학자들의 논의는 발견하기 어려운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3) 여성주의 법학의 전개: 일본의 상황⁵⁾

일본의 여성주의 법학은 여성정년차별사건을 비롯하여 여성임금차별사건, 성희롱 사건, 남녀고용기회평등법의 제정과 여성노동보호규정의 개정 등의 구체적인 젠더관련 법실무와 입법에 관해 여성법학자들과 여성법조인들이 협력하여 법이론과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

5) 金城清子(1991), 『法女性學-その構築と課題』, 日本評論社. 浅倉むつ子 外 8人(2003), 「ジェンダー法学」, 第2版, 不磨書房; 金城 清子(2004), “ジェンダー法學の歴史と課題”, 「ジェンダーと法」 No.1, ジェンダー法學會. 二宮 周平(2009), “ジェンダー法學會の誕生から今日まで-事務局長退任に当たり思い出のかずかず”, 「ジェンダーと法」 No.6, ジェンダー法學會; 辻村 みよ子(2010),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10周年の課題-ジェンダー法學會の「第2ステージ」にむけて”, 「ジェンダーと法」 No.7, ジェンダー法學會. 등 참조.

졌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여성학과 법학을 접목한 학문이란 의미의 “法女性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가 2000년대부터는 “ジェンダー法學”(젠더법학)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3년 7월에 일본젠더법학회가 창립되었고 2004년 7월부터 학회의 학술지 「젠더와 법」(ジェンダーと法)이 2004년 7월부터 매년 1회 발간되고 있다. “젠더법학”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표현을 종합하자면,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젠더바이어스에 의해 여성과 남성이 겪는 불평등과 인권침해문제를 해소하고 남녀공동참회사회(男女共同参画社会)를 이루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천방안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여 탐구하는 법학이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2000년 12월에 제정된 「남녀공동참회사회기본법」은 남녀공동참회사회를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회하는 기회가 확보되고, 남녀가 균등하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이념을 향유할 수 있고 책임을 지는 사회”(제2조제2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곧 성주류화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3) 여성주의법학의 국내동향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법학은 한국젠더법학연구회나 학회의 출범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⁶⁾ 1950년대에 가족법(민법)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성법학자와 여성법조인등의 법실무자들은 법안이 법앞의 평등과 성차별금지, 혼인에서의 남녀동권을 명시한 「제한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과 함께 그러한 비판에 동조한 남성법학자들과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는 세계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들의 삶에 관련이 많은 법령들을 해설한 「여성법률」이란 책(저자: 배경숙 교수)이 출간되었고, 1970년대 말부터 근로여성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관한 법적 대응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연구자: 신인령 교수 등)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부터 여성주의 법학은 여성주의 법교육과 여성주의 법연구, 여성주의 입법운동과 여성주의 권리구제활동이 활발해짐으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주의 법교육은 1977년에 이화여대가 〈여성학〉을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이에 〈여성법〉이란 교과내용을 포함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이화여대 법과대학은 〈법여성학〉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를 1995년에 임용하고 1997년에 교과목을 개설하였고 그후 대학원 과정도 개설하였다. 방송대에서는 2002년 5월에 여성인권법관련 강의를 담당할 교수로서 발제자를 임용하여 2003년부터 〈남녀평등과 법〉이란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서울대 법과대학에서도 2003년에 〈법여성학〉 교과목을 담당할 여성교수를 임용하고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그 외 여러 대학에서 여성주의 법학교육은 〈법여성학〉, 〈젠더법학〉, 〈성과 법률〉, 〈여성법〉 등의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여성주의 법교육은 여성주의 의식을 가진 법전문가와 입법·사법·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들을

6) 이은영 교수는 우리나라 법여성학의 발전과정을 1950년대부터 가족법의 제·개정 관련 연구에서 비롯된 ‘평등의식의 발아기’, 1970년대 말부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노동법 등의 법제도를 고찰하고 입법방안을 제시한 ‘법여성학의 태동기’, 1990년대부터 법여성학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연구되고 있는 ‘법여성학의 성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이은영(2004), 한국여성관련법의 변천과 법여성학의 전개,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 양현아편, 32~38면)

양성시켰다. 여성주의 법연구는 1980년대부터 가족, 노동 등 다양한 법학영역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198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법여성학”이란 제명의 책(저자: 윤후정·신인령 교수)은 출간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세계에 유례없이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란 여성문제 전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983년에 설립된 후 여성법제연구팀이 조직되어 여성주의 입법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여성주의 법연구는 현행의 법령을 여성주의에 기초하여 연구하고 헌법, 가족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여성발전기본법, 형법, 윤락행위등개정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가정폭력 특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의 입법방안과 성차별·성희롱 관련 분쟁의 처리제도의 설치방안과 젠더관련 소송 등의 분쟁사건의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판례연구도 수행하였다, 또한 여성부 설치방안 등의 다양한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의 정비방안연구도 수행하였다. 7) 1992년 6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법여성학연구회란 모임이 만들어져서 미국의 여성주의 법학연구자료들을 검토하고 논문발표를 하였다.⁸⁾

2005년 12월의 한국젠더법학연구회 출범과 2007년 1월의 한국젠더법학회의 출범은 학술 행사와 학술지 발간들을 통해 여성주의 법학 연구와 토의할 기회를 보다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가교가 되며, 여성주의 법학이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학의 한 세부전공으로서 위상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2. 여성주의 법학의 학문적 위상과 특성

(1) 전통법학과와의 차이⁹⁾

젠더법학은 전통적 법학의 이론적 기초와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성인지적 법학, 실천법학, 진보법학, 통합법학의 특성을 가진다.

1) 전통법학에 대한 비판

(가) 젠더법학은 전통법학이 중요시하는 법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허구라고 비판하고 법의 실체는 시대적 상황과 주로 남성들로 이루어진 입법·사법·행정·법학의 담당자들의 가치

7) 이은영 교수는 “여성개발원이 설치되어 이곳에서 법여성학연구를 전담하는 법률가가 생기게 된 것도 법여성학의 개척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주로 정책적 연구를 담당하였으며 특별법의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각론적 연구에 집중하였다. 1980년대 이후 여성관련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에는 이들의 연구가 큰도움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이은영(2004), 33면) 발제자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법제전문가로서 약 20년간 연구를 수하였다.

8) 이 모임엔 이은영 교수를 비롯하여 최일숙·최은순·강정혜 변호사, 강금실 판사, 김정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김선옥 박사(현 이화여대 총장)와 발제자가 당시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자로서 참여하였고 4법과 사회이론연구회가 발간한 「법과 사회」 제8호에 “여성문제와 법”이란 특집을 마련하여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이란 논문과 가족법, 형사법, 노동복지관계법을 여성주의에 기초하여 분석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9) 김엘림(2009),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8~23면.

관과 경험, 및 여론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주관성·남성편향성·비합리성을 가지는 면도 있다고 본다.

(나) 젠더법학은 전통법학이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수성과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 성별에 따른 이중적 성윤리기준 등의 성별에 관한 사회통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가사노동의 부담과 사회참여의 제한, 성적 대상화 등에 의한 억압은 물론 남성에게 강한 자와 가족생계 부양책임자, 병역의무부담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강요하는 억압도 생성, 조장하고 남녀 간의 불평등과 갈등을 지속시킨다는 비판도 한다.

(다) 젠더법학은 전통법학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대다수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 차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임신, 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의 문제에 대해 사소한 것,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논의와 대응을 소홀히 하였다고 비판한다.

(라) 젠더법학은 전통법학이 법의 해석에 치중하고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남녀의 삶과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의 법의 시행실태와 영향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한다.

2) 여성주의 법학의 특성

(가) 성인지적 법학

젠더법학은 전통법학이 성을 분석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과 달리 가부장제 사회와 자본주의 등 경제체제에서 생성된 법과 법실무, 법학이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남녀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성인지적(性認知的, gender sensitive)인 분석을 한다.

(나) 실천법학

젠더법학은 전통법학이 법의 해석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남녀의 삶과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통계와 실태조사, 대화 등을 통해 규명하고 남녀불평등을 시정하여 남녀평등한 사회와 남녀관계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한다. 그 방법으로 남녀평등의식을 고양하고 남녀불평등한 관습과 관행, 제도를 개선하며 남녀평등을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의 사회생활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이 표방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법과 법실무, 법학의 영역에서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젠더와 관련한 문제들을 법과 인권의 주요문제로 부각시키고 국가의 적절한 개입에 의한 법적 대책을 강구한다.

(다) 진보법학

젠더법학은 전통법학이 남성주류의 사회질서와 법체계를 생성,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의 인권침해문제를 시정하고 나아가 남녀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서로 존중, 협력하며 상생의 발전을 이루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이루기 위해 법체계와 사회, 남녀관계의 진보적 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라) 통합법학

젠더법학은 공법, 사법 등의 전통적 범영역이나 전통적 법학 교과목의 경계를 탈피하고 남녀평등에 관련한 모든 법과 협약 및 제도, 관행, 법실무, 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학, 남성학, 사회학, 교육학, 가정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미디어학 등의 다양한 학문과의 다학제 간 연구도 수행한다.

(2)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법학의 관계

미국과 호주의 여성주의 법학에 관한 문헌이나 대학의 교과목 명을 살펴보면, “Feminist Jurisprudence”, “Feminist Legal Theory”, “Legal Feminism”, “Women and Law” 등과 같이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중시한 법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Gender Jurisprudence”, “Gender Legal Theory”, “Gender Legal Studies”, “Gender and Law”와 같이 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교과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전자는 남녀차이론, 공사영역구분론 등 <법여성학>의 철학적 이론탐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후자는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법담론과 법, 판례에 비중을 더 두는 경향이 있다.¹⁰⁾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종래 Feminist Legal Theory가 전개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여성문제만이 아니고 남녀의 성차 그것을 문제로 하기 위해 또한 성차별을 다른 종류의 차별과의 관계에서 논하기 위해, Gender Legal Theory로 재편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법여성학의 시대에서 젠더법학의 시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2000년대 이후 확산되어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의미의 젠더법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전통적 성별분업관이 주는 억압은 여성 뿐 만 아니라 남성도 가진다는 인식과 함께 남성의 문제도 연구하여 남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진다.¹¹⁾

우리나라에서는 법여성주의 법학이나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관계에 관한 뚜렷한 구별없이 혼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한국젠더법학회의 정관은 법의 목적규정(제1조)에서는 여성주의 법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나, 회원의 자격규정(제4조)에서는 젠더법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젠더법학과 법여성학은 문제인식과 목표를 같이하나, 실현방법과 연구범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여성학(여성주의 법학)’은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그 용어로 인해 또한 ‘여성의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을 소외시키고 남성이 겪는 억압과

10) 김엘림(2005), “법여성학의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집』(제40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17~218면

11) 浅倉むつ子 外(2003), 『ジェンダー-法學』, 不磨書房, 3면; 辻村 みよ子(2005), 「ジェンダーと法」, 第1版, 不磨書房, 4면, 248~249면; 金城清子(2006), 「ジェンダー-の法律學」, 有斐閣, 2~4면 등.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하며 여성의 권익만을 중시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젠더법학은 가부장적인 법과 사회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하는 젠더(gender)문제를 탐구하고 이론과 실천방안의 모색과 실천에 남성의 참여를 장려하며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균형 있게 고려, 조정하여 남녀가 함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자 ‘법여성학’이란 용어를 대체하고 법여성학의 시각과 논의의 지평을 넓힌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젠더법학에서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균형 있게 고려, 조정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법실무, 법학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의 입장과 문제를 고려하고 아울러 가부장제 사회와 법이 남성에게 주는 억압과 불평등의 문제도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는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미이다.¹²⁾

(3) 젠더법학과 남성학의 관계

이러한 의미에서 젠더법학과 남성학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성학에 관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부담과 특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문적 접근”¹³⁾, “남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는 학문”¹⁴⁾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남성학의 여러 갈래 중 남성과 여성간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을 옹호하거나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위나 지배를 옹호하는 입장은 젠더법학과 상치된다.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이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또는 성별특질론) 등에 의해 부자유와 불평등, 억압을 경험하는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입장은 젠더법학에 포괄된다고 본다.¹⁵⁾

IV.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동향과 쟁점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는 크게 여성주의 법철학적 연구, 여성주의 입법연구, 여성주의 판례연구의 세 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여성주의 법철학적 연구

여성주의 법철학적 연구란 실정법과 판례의 내용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를 법학에 실현시키는 방법론과 법과 판례에 나타난 젠더관의 규명 등을 주로 탐구한다.

12) 김엘립(2009), 16~18면.

13) 이은영(2006), 「법여성학 강의」, 박영사. 367면.

14) 조정문(1998), “남성학의 등장과 남성학과 여성학 간의 관계”, 「여성연구논집」(제9권제1호),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10면.

15) 김엘립(2009), 18면.

페미니즘의 여러 갈래가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관한 인식과 남녀평등과 인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각기 달리 표명하듯이 여성주의 법철학적 연구의 쟁점도 어떠한 페미니즘의 갈래에서 사유하는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2. 여성주의 입법연구

여성주의 입법연구란 각종 법규, 조례, 관습, 협약 등의 각종 법규범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법규범이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법이 남성과 여성을 달리 대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평등권 위반에 해당되는 지, 남성과 여성이 겪는 문제에 법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개정되어야 하는 가를 연구한다. 여성주의 법제사 또는 입법운동사 연구도 이에 포함된다.

여성주의 입법연구에 있어서 주요쟁점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와 여성의 현실을 고려한 ,여성보호·우대에 관한 법규범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평등권의 보호에 부합되는 것인 지에 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입법실현을 어떻게 적절하게 강구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3. 여성주의 판례연구

여성주의 판례연구란 법원,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리구제기관이 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젠더문제에 관하여 판단하고 분쟁사건을 처리한 사례(판례와 결정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젠더와 관련한 분쟁이 어떠한 곳에서 언제, 누구사이에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는지, 어떠한 권리구제기관이 어떠한 판단기준으로 어떠한 법을 적용받아 어떻게 판단, 처리되었는지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현재 법과 판례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젠더관련 분쟁사건에서 판단기준은 시대의 변화와 공적 판단자의 여성을 보는 가치관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여성주의 판례연구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법원 등이 젠더사건을 보는 관점과 판단기준,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논리의 타당성 검증에 있다고 보여진다.

V. 여성주의 법학과 한국젠더법학회의 향후의 과제

1. 여성주의 법학의 향후의 과제

(1) 여성주의 법학은 여전히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여성들의 수는 법학계, 법

조계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비주류의 법학으로 존재한다. 법을 분석함에 있어서 여성 또는 남성의 입시가와 입장을 고려하는 여성주의 법학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는 법학의 전통에서 비법학적인 것, 여성편향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아직도 잔존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자를 확대하고 여성주의 법학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은 여성주의 법학교육의 실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로스쿨에서 여성주의 법학 관련 과목은 변호사 시험 과목이 아니라 수강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법학교육의 실시방법의 개선과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여성주의 법학과 기존법학, 젠더법학, 남성학의 관계에 관한 이 글의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학에서 여성주의를 실현하는 방법론과 아울러 젠더법학의 방법론의 탐구가 필요하다.

(4) 법은 모든 종류의 조직과 모든 인간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법학을 함에 있어서 법학이 아닌 학문의 전공자들이 여성주의에 기초하여 행하는 법과 사회,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는 법의 규율대상과 규율방식에 관한 이해와 시각을 넓혀주므로 고려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학제간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한국젠더법학회의 향후의 과제

(1) 한국젠더법학회는 출범할 때 명칭을 여성주의 법학회나 범여성학회로 하지 않았고 젠더법학회를 학회명에 표기하였다. 학회의 영문명칭도 Korean Academy of Feminist Jurisprudence에서 Korean Association of Gender and Law로 변경하였다. 우리 학회는 한국여성연구학회에 가입한 학술단체 중 여성이 아닌 젠더를 명칭으로 내세운 유일한 학회이다. 그럼에도 학회가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의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학회가 젠더법학의 발전으로 목적을 변경한다면 여성주의 법학과 구별되는 젠더법학의 위상과 방법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숙제가 된다.

(2) 현재 학회는 235명의 회원이 전국에 걸쳐 거주하고 있고 그중 40명의 남성회원들이 있다. 조직을 활성화하고 회원들의 학회참여기회를 골고루 넓히기 위해 임원진의 수를 50명으로 늘리고 성·직업·지역을 고려하여 이사진과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제6기의 재임기간 중에 8회의 학술행사, 2회의 학술지 발간, 5번의 소식지 발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술행사 참가와 연구발표에 있어서 성·직업·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거나 회비납부를 하지 않는 회원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3) 학회의 학술지 「젠더법학」에 대해 작년에 재단측에 학술지 심사를 신청하였는데 편집위원과 기고자의 지역편중과 적은 수를 이유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심사학술지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편집위원의 수를 대폭 늘리고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여 논문심사를 강화하여

새로운 심사제도에 대비하고 있다.

(4) 일본젠더법학회는 올해 12월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한국, 중국 등의 젠더법학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우리 학회도 국제적인 학술행사를 개최할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젠더연구와 한국여성경제학회

성효용(한국여성경제학회, 성신여대)*

젠더경제학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sex)과 성의 사회적 역할(gender), 그리고 성별관계(gender-relations)가 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을 ‘성인지적(gender-aware)’이라고 정의하며, 젠더경제학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경제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지식체계를 말한다. 젠더경제학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빠른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학계에 큰 변화를 주었다. 1997년에 창립된 한국여성경제학회는 젠더경제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외국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여성경제학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여성경제학자의 사회적 참여와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여성경제학회, 젠더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

I. 서론

젠더경제학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sex)과 성의 사회적 역할(gender), 그리고 성별관계(gender-relations)가 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을 ‘성인지적(gender-aware)’이라고 정의하며, 젠더경제학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경제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지식체계를 말한다. 아울러 젠더경제학은 여성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으로 경제학 전체를 재해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또한 젠더경제학은 젠더 개념과 더불어 등장한 여성주의 경제학의 특정 경향이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경제학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밀히 구분하면 젠더경제학과 여성주의 경제학은 다르다. 젠더경제학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임에 비해, 여성주의 경제학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여성문제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이다.

젠더경제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성인지적 문제에 대한 해명이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el:(02)920-7506 Email: hsung@sungshin.ac.kr

왜 어려운가하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여성문제를 새로운 경제학으로 해명하려는 이유는 기존의 경제학이 여성의 경제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문제 해명에 무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경제학이 성차별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경제학이 젠더를 소홀하게 다루어 각 젠더의 입장, 특히 여성 젠더의 입장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젠더경제학은 경제학을 ‘객관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삼고 있으므로 젠더의 출발점은 차별에 대한 자각이다.

오늘날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과 경제학에는 가정에서 경제활동이 조정되는 방식과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즉 가계내부의 역학관계가 간과되어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가계는 가치생산 영역에서 배제되고 단지 소비주체로서만 파악된다. 따라서 가계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생산 영역은 신고전학과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장 밖의 경제, 즉 가격으로 측정되지 못하는 가치는 생산과 무관한 영역으로 다룬다. 바로 이것이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여성과 관련된 가사활동을 ‘비생산적’인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유이다. 더욱이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성을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조명함으로써 성의 사회적인 관계를 간과한다. 즉 여성과 남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나 역학관계는 가능한 배제된다.

20세기 후반 들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등장하였다. 가사노동가치 논쟁을 중심으로 경제학의 성편향이 지적되면서 신고전학과 경제학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작업이 베커(Gary Becker)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가정경제학(New Home Economics)’이다. ‘신가정경제학’에 따르면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경제적 이해가 있으며, 가정도 시장처럼 각자의 이익을 위해 교환하고 분배하는 장소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성역할 분담은 생산성의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각자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이고, 남편 일, 아내 일 나누는 것도 비교우위에 입각해 이루어진다. 당연히 더 높은 시장임금과 더 많은 승진의 기회가 보장된 남편은 시장노동에 비교우위가 있으니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돌봄 노동에 비교우위가 있는 아내는 집안일을 담당한다고 본다.

‘신가정경제학’으로 인해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젠더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전통적인 여성 영역에도 주류경제학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경제학 용어로 다시금 합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별’의 역학관계에 따라 일의 서열적인 질서가 매겨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고전학과적 접근은 오히려 성별분업을 강화시키고 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경제학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한국여성경제학회의 성립 배경과 역사에 대해 간단히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젠더 연구 동향과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제4장에서 젠더 연구가 경제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여성경제학자들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II. 한국여성경제학회의 성립 배경

한국여성경제학회(The Korean Women Economist Association: KWEA)가 1997년에 창립된 배경에는 구미경제학계의 영향이 크다. CSWEP(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in the Economics Profession: 경제학 전문직 여성경제학자 지위 향상 위원회)의 활동내역과 국제여성주의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IAFFE)의 설립 목적 및 활동내역을 보면, 한국여성경제학회의 설립취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EA)의 산하기구로 ‘경제학 전문직 여성경제학자 지위 향상 위원회(CSWEP)’가 있다. CSWEP은 여성경제학자들이 학교, 정부, 기업과 같은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낮은 진출비율을 개선하면서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1971년에 발족되었다. 미국경제학회 산하의 CSWEP은 매년 1월 미국 지역을 돌아가면서 공동학술대회(AEA/ASSA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여성주의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IAFFE)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경제학자들의 모임으로 1991년에 창립되었으며, 매년 6월에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별, 지역별, 주제별 회합을 조직하고 있다. IAFFE의 설립목적은 여성경제학자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이론과 여성주의의 접목을 시도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재해석하여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경제현안을 성인지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학계 내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여성주의 경제학과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와 운동가, 정책입안가 사이의 원활한 연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학 교육과정에 여성주의 시각을 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IAFFE는 지난 20년간 여성주의경제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학술지 *Feminist Economics*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국제여성주의경제학회는 산하기구로 유럽 여성주의경제학회(IAFFE-Europe)가 있고, 국가 단위의 네트워크로는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여성경제학회 등이 있다.

젠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국경제학계에도 등장하였고, 점차 여성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97년 5월에 10명의 여성 경제학박사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여성경제학회(KWEA)를 창립하였다. 한국여성경제학회는 젠더경제학(gender economics), 성인지적(gender awareness) 경제학의 시각으로 각종 경제현상과 이론을 조명하여 경제학의 다양성과 외연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여성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기 보다는 단순히 여성경제학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였지만, 15년이 넘는 연구기간동안 각종 성인지적 경제이론과 정책, 그리고 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해 왔다. 회원 수도 2012년 현재 220여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경제학박사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여성경제학회는 1997년 8월 제 1회 창립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회의 정기학

술대회와 총 6회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2년 5월 25일에는 여성가족부의 후원 하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Challenges and Responses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라는 주제로 5개국이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스웨덴·이태리·일본·한국 등에서 ‘젠더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명학자들이 참여하여¹⁾ 일·가정양립에 대한 각 나라의 연구성과 및 정책, 산업계의 경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국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산업계 차원에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여성경제학회는 2004년부터 학술지인 『여성경제연구』를 연 2회 발행해 왔고, 학회활동에 경제현실을 접목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성경제정책포럼〉과 〈젠더경제학 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 발표 활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경제정책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를 초대하여 현실적이고 시의성이 있는 여성관련 경제적 이슈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학술지 활동이 단순한 이론적 담론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과 산업계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 제1회 〈여성경제정책포럼〉을 개최한 이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 4회로 횟수를 늘려 지금까지 총 33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여성경제정책포럼〉은 현실적이고 시의성이 있는 여성관련 경제적 이슈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문제 및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학회와 학술지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오고 있다. 〈여성경제정책포럼〉을 통해 한국의 여성경제정책,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저출산·고령화문제, 여성고용과 보육, 여성인력활용과 가족친화형 일터 만들기,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등 시의성이 높은 주제들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여성 학자들의 학술활동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등에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여성경제학회의 창립과 더불어 경제학에서 소홀히 다루어 온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여성주의 경제학의 외연도 상당히 넓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초기의 여성주의 경제학은 여성주의적 시각을 경제학에 적용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여성문제가 제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이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여성노동의 발전사를 간략히 살펴본다. 근대화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속에서 여성노동의 역할과 평가에 대해 검토한 후, 성 인지 통계 순위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여성의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 학회 참여 학자: Julie Nelson(University of Massachusetts), Anita Nyberg(Stockholm University), Francesca Bettio(University of Siena), Akira Kawaguchi(Doshisha University), Young-Ok Kim(KWDI), Seung-Ah Hong(KWDI) 등이 있다.

III. 한국 여성노동의 발전사

1.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역할과 변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성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인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일로 해석된다.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여성은 사회의 성별관계가 정해 준 기본적인 의무사항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재혼이 허락되고 조혼이 금지되는 등 혼인제도와 관련된 여성의 지위에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여성은 각 시대의 생산방식에 적절하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을 맞추어 왔고, 재생산과 생산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산업화와 가족제도의 변화는 성별관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여성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홍태희, 2009).

〈표 1〉은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근대화는 일제강점기 시대와 더불어 전개된다. 이 시대에는 유교적 질서가 여전히 삶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사회는 전통과 변화 속에 가치관이 혼돈에 빠지는 현상을 겪게 된다. 위계적 성별관계와 사회구조 속에 있던 일본은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현모양처와 호주제를 조선에 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한 가부장적 질서가 조선에 이식되었다. 이런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도 전통사회가 점차 해체되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어 갔으며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서구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등장했고 맞벌이 부부도 생겼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광범위하게 존재했지만 여성들의 진출영역과 진출정도도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비숙련 공장노동이나 간단한 사무보조 및 각종 서비스업에 국한된 여성노동은 점차 전문직으로 발전되어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도 여성인력이 다수 배출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계획을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역할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먼저 1960~1970년대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식품·전자조립 부문의 경공업 중심 수출 지향적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 따라 저임금의 단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경공업 위주의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산업 지원정책이 실시되었고, 기업들은 저렴한 젊은 여성노동력을 선호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다수의 젊은 여성노동력이 농촌부문에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됨에 따라 기업들의 저임금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와 같은 저임금 여성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부문을 확장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기업들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며,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중화학공업의 자본집약적·기술

2) 1960년대 이후 여성노동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효용(2012) 참조.

집약적 산업특성으로 인해 숙련된 남성 노동력이 주된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경공업은 점차 사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여성취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80년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과 금융·보험·유통분야 등 서비스 산업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표 1〉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변천사

시 대	여성의 지위 및 참여
1900년대 ~ 1940년대	- 산업화에 따라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 제사, 방직, 정미업, 고무공업 등 영세사업장에서 여성노동 참여 - 세계 여성 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여성노동 활발히 일어남 - 정미업에서 시작된 여성노동운동은 제사, 방직, 방직 등의 섬유공업과 고무공업으로 확산되었음 -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성냥공장, 제과점, 양말공장 등으로 확대 - 여성 자신의 권익을 위해 조직화되며 정치화되는 과정을 경험하였음
1950년대	-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과 더불어 정치적 평등의 상징인 투표권이 여성에게 주어짐 -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방면에서 여성의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 시도 -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성전사자의 증가는 여성 가정의 역할 증가시킴 - 사회적 변화로 젠더의 내용을 재편하고, 여성의 시장노동을 정당화시키고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 증가
1960년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산업화 시작 - 산업화 과정은 성별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삶에 변화를 가져 왔음 - 유교적 전통의 영향에 있었던 성별관계가 산업화와 기독교의 영향으로 변화 - 산업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여성노동은 경공업 중심의 발전에 기여 - 저임금, 저숙련,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시장의 차별적 상황
1970년대	- 중화학공업 중심의 발전은 남성 숙련노동·여성 비숙련노동이라는 성별분업 경험하게 하였음 - 제조업부문의 여성취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하였음 - 여성노동의 지위는 여전히 종속적이고 주변화 되었음
1980년대	- 경제적 안정과 민주화 물결을 타고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 고조되었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년)되어 고용상의 남녀평등과 모성보호가 법제화됨 - 가족법 개정(1989년)으로 호주상속제가 호주승계제로 바뀜 - 반도체 중심의 전자산업과 금융·보험·유통분야 등 서비스 산업 확대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1990년대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년) - 지식정보화 시대로 이행되는 시기 - 전자·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해지고,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 노동이 요구됨에 따라 섬세함이 요구되는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발생으로 여성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

2000년대	- 여성부 신설(2000년) - 여성의 빈곤화와 비정규직화 문제 심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은 고용문제 악화 -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
--------	--

자료: 홍태희(2009)와 성효용(2012)을 참고로 요약·정리하였음.

1990년대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는 시기로 지식정보 기반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경제발전단계에 해당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자·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해 지고,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 노동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섬세함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반에는 생산직인력의 부족 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들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고용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의 공통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우선해고, 여성정규직근로자의 비정규직으로 전환, 장기 여성실업자의 양산 등과 같은 여성고용문제가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상당한 개선을 보였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 채용차별, 임금차별 등의 문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연동한 임금 및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표면적으로 보면 성 중립적이나 결과적으로는 간접차별을 확대시켜 성차별을 초래하였다.

2000년대에는 여성의 빈곤화와 비정규직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은 고용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관리정책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의 1차 대상은 여성인력이었으며, 따라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의 시장노동 진출이 이루어졌다. 여성노동이 성격도 산업사회의 노동으로 변화되었고, 점차 서비스 분야로 집중되었다. 각 나라마다 성별관계의 성격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저임금·저숙련 노동으로 대표되는 여성노동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2〉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별관계의 변화

	산업화가 가져온 성별관계의 변화
1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성별관계와 성역할 분담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2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 젠더의 시장경쟁력이 높아진다.
3	가정 밖의 지배·피지배 관계가 악화되는 데 비해 가정 내의 관계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4	여성의 시장노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나 여성이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5	경제적 발전에 이은 인권의 향상은 여권의 향상으로 귀결된다.
6	인구 감소기에 진입한 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진다.
7	산업화되었지만 공정한 성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가정파괴, 이혼율 증가, 출생률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자료: 홍태희(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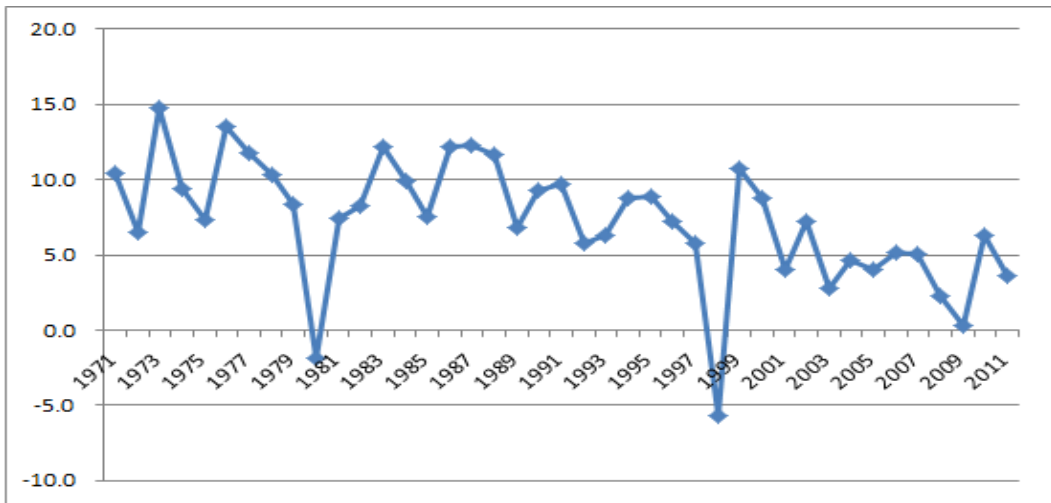
2.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위상과 평가

1) 산업화에 따른 여성인력수요의 변화

〈그림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에 세 차례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1970년대 2차례의 유가파동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한 이후 1970년 후반부터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고,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경공업은 점차 사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여성취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80년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과 금융·보험·유통분야 등 서비스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성효용, 2012).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여성인구의 비중은 약 50%를 유지하고 있지만, 잠재노동력율은 1966년 57.2%에서 2010년 85.9%로 증가하여 남성인구의 잠재노동력율 83.3%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의 37.0%에서 2010년의 49.4%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하였다. 반면에 동 기간 중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8.9%에서 73.0%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비중은 1963년 34.2%에서 2010년 41.4%로 증가하여 노동력 규모 면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



주: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실질성장률, %)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3〉 성별 인구 · 잠재노동력 인구 · 경활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단위: %)

연도	인구 비중		잠재노동력 비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66	49.6	50.4	57.2	50.9	34.2	65.8	37.0	78.9
1970	49.8	50.2	58.7	52.4	35.9	64.1	39.3	77.9
1975	49.7	50.3	62.7	57.9	35.8	64.2	40.4	77.4
1980	49.9	50.1	67.8	63.0	37.5	62.5	42.8	76.4
1985	50.0	50.0	70.6	65.7	38.3	61.7	41.9	72.3
1990	49.8	50.2	73.9	68.5	40.5	59.5	47.0	74.0
1995	49.8	50.2	78.3	72.8	40.3	59.7	48.4	76.4
2000	49.8	50.2	81.4	76.0	41.1	58.9	48.8	74.4
2005	49.7	50.3	83.4	79.3	41.5	58.5	50.1	74.6
2010	49.9	50.1	85.9	83.3	41.4	58.6	49.4	73.0

주: 1) 잠재노동력율(전체 여성인구(남성인구) 중 15세 이상 여성인구(남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2) 1966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963년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2) 여성인력의 고용구조 변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취업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인력의 급격

한 서비스화를 경험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여성취업자 비중은 1963년 34.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41.6%에 달하고 있다. 취업 여성인력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960년에는 1차, 2차, 3차 산업의 여성취업자 비중이 각각 69.6%, 6.4%, 22.7%이었지만, 2010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6.9%로 크게 감소한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79.0%로 크게 증가하였다. 2차 산업의 여성취업자 비중은 196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에 28.0%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14.2%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 이후 3차 산업으로의 여성취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는 시기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경제발전단계에 해당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자·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해지고,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 노동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섬세함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반에는 생산직인력의 부족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들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표 4〉 여성 취업인구 비중 및 산업별 분포

(단위: %)

연도	여성취업인구 비중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60	34.8	69.6	6.4	22.7
1970	36.5	59.7	14.7	25.5
1980	38.2	46.5	21.9	31.6
1990	40.8	20.4	28.0	51.6
2000	41.4	12.2	17.5	70.3
2010	41.6	6.9	14.2	79.0
2010~1960	6.8	△62.7	7.8	56.3

주: 여성 취업인구 비중은 1960년 수치가 아니라 1963년 수치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고용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성근로자의 우선해고, 여성정규직근로자의 비정규직으로 전환, 장기 여성실업자의 양산 등과 같은 여성고용문제가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상당한 개선을 보였던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채용차별, 임금차별 등의 문제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연동한 임금 및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표면적으로 보면 성 중립적이나 결과적으로는 간접차별을 확대시켜 성차별을 초래하였다(성효용, 2012).

2000년대에는 여성의 빈곤화와 비정규직화 문제가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되면서, 저출산·고령

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은 고용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한 국가차원에서의 인적자원관리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의 1차적 대상은 비정규직 여성인력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편 <표 5>에서 1990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하여 10대 청소년층과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20대 후반 연령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평균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초반에 정점에 달했다가 20대 후반에 최저점으로 떨어지던 것이 각각 5년 정도 늦춰진 것도 눈에 띈다. 15~19세의 경우 1990년 18.7%에서 2010년 8.5%로 10.2%p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20대 중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동 기간에 42.6%에서 69.8%로 27.2%p 증가하였으며,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49.5%에서 54.6%로 5.1%p 증가하였다.

<표 5>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연령	1990		2010		2010-1990	
성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5-19	18.7	10.8	8.5	5.5	△10.2	△5.3
20-24	64.6	60.2	53.5	42.7	△11.1	△17.5
25-29	42.6	91.9	69.8	76.6	27.2	△15.3
30-34	49.5	97.2	54.6	91.9	5.1	△5.3
35-39	57.9	97.0	55.9	94.2	△2.0	△2.8
40-44	60.7	95.7	65.9	93.9	5.2	△1.8
45-49	63.9	94.2	65.6	93.1	1.7	△1.1
50-54	60.0	90.6	61.3	90.4	1.3	△0.2
55-59	54.4	83.6	53.3	83.4	△1.1	△0.2
60세 이상	26.4	49.9	26.9	50.3	0.5	0.4
전체	47.0	74.0	49.4	73.0	2.4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표 6〉 성별 ·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학력	여성				남성			
성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80	46.2	33	43.1	46.6	78	64.3	81.1	95.1
1985	45.9	32.8	42.1	50.6	71.5	59.1	77.1	92.8
1990	50.4	38.2	47.5	57.2	70.6	56.6	80.0	93.2
1995	47.1	40.7	50.2	60.0	66.1	58.1	81.1	93.4
2000	44.6	42.2	49.5	60.7	62.2	53.7	78.4	88.6
2005	38.8	40.8	53.2	62.9	57	51.3	77.2	89.3
2008	37.5	37.6	52.9	63.9	55.4	46.5	75.8	88.4
2009	36.3	36.9	51.7	63.0	54.1	45.1	75.2	88.6
2010	35.1	37.0	52.6	63.2	52.8	45.0	74.8	89.0
2011	34.4	37.2	53.0	63.3	50.8	45.9	74.3	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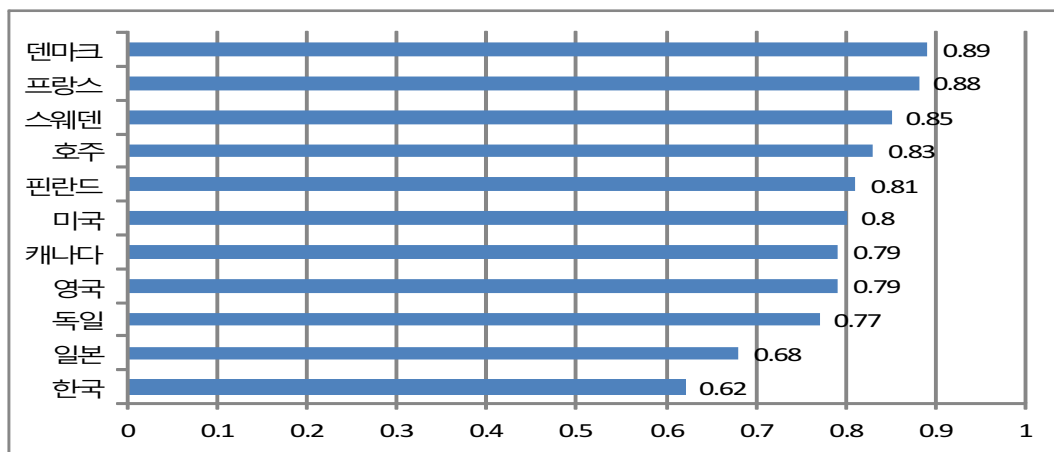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양적 팽창과 함께 고학력화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두드러진다.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비교를 제시한 〈표 6〉에 따르면, 여성노동력의 고학력화는 여성인구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된 가운데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즉, 1980년에는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0년대에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고학력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전문대졸이상 고학력 노동력층에서 여성의 비중이 특히 높아지고 있는데, 대졸이상 고학력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의 46.6%에서 2011년에는 63.3%로 증가하였으나 고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5.1%에서 89.3%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고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월등히 크다.

3)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지위

노동시장에서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취약한 지위는 무엇보다도 낮은 임금수준을 통해 나타난다. 〈그림 2〉에서 여성임금비율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2%로 비교되는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성임금비율이 70%에 못 미치는 반면, 북유럽국가들의 여성임금비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다.

〈그림 2〉 여성임금비율의 국제비교



자료: 日本 内閣府 男女共同参画局 Gender Equality Bureau, *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1*.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인력은 양성평등의 측면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성평등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성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빈곤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성 인지 통계 순위의 국제비교를 나타낸다. WEOI(Women's Economic Opportunity Index) 순위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노동정책·환경, 금융접근도, 교육과 훈련, 법적·사회적 지위, 기업환경 등 세분화하여 총 26개의 지표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회에서 갖는 경제적 기회를 나타내는 여성경제기회지수(WEOI)는 세계 113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35위로 중상위권에 속해있다. GEI(Gender Equity Index) 순위는 교육, 경제활동, 여성의 권한을 포함하여 성평등지표를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116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GGI(Gender Gap Index)는 성격차지수로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을 점수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성격차지수가 107위를 나타내고, 스웨덴의 GGI는 1위가 아니라 4위로 평가되었다. 남녀평등지수인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남녀의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남녀 소득차 등으로 평가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GDI순위는 29위를 나타내며, 스웨덴은 5위에 속하였다.

남녀불평등지수 GII(Gender Inequality Index)는 모성사망률, 10대 출산율, 국회의원 여성비율, 중등교육이상 여성인구,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피임률 등을 포함하여 GII점수로 평가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2011년 우리나라의 GII 순위는 총 146개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은 국회의원 여성비율, 관리자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격차 및 장차관급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여성권한척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2009년 GEM 순위는 61위이며, 1위는 여성의 정치 참여나 조직에서의 고위직 진출 정도가 높은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표 7〉 성 인지 통계 순위 국제비교

	WEOI	GEI	GGI	GDI	GII	GEM
한국	35	116	104	25	11	61
일본	32	93	94	14	14	57
미국	15	25	19	19	47	18
이탈리아	31	72	74	15	15	21
스웨덴	1	1	4	5	1	1

주: 1) WEOI(Women's Economics Opportunity Index): 여성의 경제적 기회지수(2010년)

2) GEI(Gender Equity Index): 성평등지표(2009년)

3) GGI(Gender Gap Index): 성 격차지수(2010년)

4)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평등지수(2009년)

5) GII(Gender Inequality Index): 남녀불평등지수(2011년)

6)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권한척도(2009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IV. 젠더연구가 경제학에 미친 영향

지난 이십여 년간 구미학계를 중심으로 여성문제나 여성주의적 관점을 경제학에 접목시키는 작업들은 크게 증가했고, 학계의 인지도도 높아졌다. 이런 변화는 연구의 양적 증가나 연구자의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연구의 질적 향상과 학계의 반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Peterson and Lewies, 1999; Ferber and Nelson, 2003).

한국경제학계에도 여성문제 또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경제학에 접목시키는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경제학계에 여성경제학자들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젠더경제학(gender economics), 페미니스트 경제학(feminist economics) 등과 같은 '성인지적(gender-aware)' 경제학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성인지적 경제학의 등장은 경제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홍태희, 2004).

한국여성경제학회도 성인지적 경제학 및 제도 연구의 학술적 토대를 조성하여 교육과 연구, 정책수립 등에 반영되도록 지난 2004년 학술지인 『여성경제연구』를 최초 발간한 이래 10여 년 동안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여성경제연구』는 다양한 젠더관련 연구들을 학문적으

로 이론화하고 심화시킨 기획논문과 성 인지적 경제활동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정책논문, 일반 경제이론과 제도, 정책과 관련한 논문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서 깊이 있는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루어온 주요 주제는 (1) 성인지적 경제이론, (2) 국가경쟁력과 여성 고용의 상관관계 분석, (3) 여성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벤처와 여성인력 분석, (4) 여성고용과 기업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5) 여성 중소 상공기업의 국제화 정책, (6) 성 인지적 예산, (7)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8) 한국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9)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등이다. 여성의 고등 교육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한국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괴리 요인과 제도적 모순점 등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정책적 함의를 담아내는 한편 각종 경제현상과 제도, 정책 등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고, 경제의 진정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논문들이 꾸준히 게재되었다.

여성문제와 관련한 학술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깊이 있는 경제학적 이론과 담론, 정책적 시사점으로 진화시킨 학술지는 『여성경제연구』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젠더관련 경제학을 연구하여 경제학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정부정책과 산업계에 현실적으로 참고가 되도록 다양한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다른 학술지와 분명하게 차별화된 『여성경제연구』만의 독자적 존재이유라고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젠더관련 연구를 권장하고 학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경제연구』는 2007년 4집 1호부터 매년 2회에 걸쳐 학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젠더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신청서를 받아 우수한 연구를 선정하여 연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성과물로 제출된 논문들은 학술대회발표와 논문심사를 통해 『여성경제연구』에 「기획논문」 형태로 게재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젠더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문적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여성경제연구』에 게재되고 있다.

『여성경제연구』가 2009년 등재학술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나타난 첫 번째 학술적 성과는 젠더관련 연구의 증대이다. 전체 투고 건수 중에서 젠더관련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는 13.3%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28.5%, 2010년에는 40.9%, 2011년은 58.8%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되었다. <표 8>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투고 건수 중에서 젠더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2011년 1차 평가를 이미 통과하였으며, 2012년 2차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다.

<표 8> 젠더관련 투고 논문의 비율 추이

	총 투고건수(A)	젠더관련 투고건수(B)	젠더논문 비율(B/A)
2009년	13	5	38.5%
2010년	22	9	40.9%
2011년	17	10	58.8%

이와 같은 양적인 증가 못지않게 『여성경제연구』의 중요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연구 분야의 외연확대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다른 분야로의 젠더 경제학 연구 확대를 독려한 결과 기존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편중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기업성과, 가족생활, 정책 등과 관련된 논문 등 다양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 여성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녀관리자간 임금 격차에 대한 연구, 기업특성과 여성임원비중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경기변동에 따른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 여성고용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 기존의 경제학 연구와 차별화되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여성경제연구』의 분명한 연구지향점과 학문적 목표 및 다양성 추구, 정책반영 노력은 다른 어떤 학술지와도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성과라고 할 것이다. 『여성경제연구』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더 다양한 영역을 다룸으로써, 깊이 있는 이론과 담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표 9>는 『여성경제연구』에 게재된 주요 젠더논문들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표 9〉 젠더관련 주요 연구 목록

주 제	논문제목
젠더와 노동시장	- 배우자의 문화적 태도를 고려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의사결정 - 성, 직업별 대체수요 측정에 대한 연구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요인의 세대 간 분석 - 성별 고용차별의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 여성의 비정규직 선택 결정요인 분석 - 경기변동에 따른 여성노동시장의 수급 및 임금의 변화 분석: 침체시와 회복기의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분석 - 외환위기 이후 기혼부부의 노동공급 - 2000년대 남녀 임금격차의 변화: 선택편의와 검증
젠더와 기술혁신	-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이용의 성별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 기술혁신, 여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 지식기반산업에서 여성노동력의 고용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젠더와 기업성과	- 여성 직장이동의 특징 - 여성고용과 기업성과: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젊은 남녀의 직장이동 형태의 패널분석 - 기업특성과 여성임원비중의 연계성: 경영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 남녀관리자의 임금 격차 분석 - 여성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과 확대방안 - 여성 중소기업의 국제화 그리고 정책: 마케팅 전략적 접근
젠더와 가족생활	- 여성고용이 일과 가정의 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 여성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2004년 한국사례 - 한국의 맞벌이 부부 프리미엄에 대한 실증분석

	- 비시장노동과 소득불평등: 한국의 경험 - 엄마노릇하기와 성별 일자리 분화가 여성임금에 미치는 효과분석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역할간 대립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젠더와 정책	- 적극적 조치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소고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 - 한국의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제언 - 여성고용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인센티브제와 사회적 협약제의 비교분석

이밖에도 <젠더경제학 연구회> 등을 통해 성인지적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연구하고 토론하여 이를 교육과정이나 연구과정에 반영시키는 현실적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젠더경제학 연구회>의 구체적인 연구 중 하나로 2012년 2학기 젠더경제학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젠더와 경제학』(ISBN 9788945010896, 출판사: 피어슨 코리아)이 2012년 8월 출간되었다. 이 책은(1)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 차이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경제적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를 분석하고,(2) 차별적 경제활동의 결과가 국가정책과 경제전체 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3)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의 자세를 비롯하여(4)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분배의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 등을 다루고 있다. 향후 <젠더경제학 연구회>는 베이비붐세대의 무더기 은퇴에 따른 고령화 현상과 한국경제의 최대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V. 여성경제학자의 역할과 향후 과제

여성문제를 새로운 경제학으로 해명하려는 이유는 기존 경제학이 여성의 경제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여성문제 해명에 무력하기 때문이다. 젠더경제학은 경제학을 ‘객관적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삼고 있다.

젠더경제학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빠른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학계에 큰 변화를 주었다. 젠더의 문제를 거부하던 학계의 풍토에도 변화가 왔으며 젠더경제학, 여성과 경제, 여성주의 경제학, 여성경제학, 성별경제학 등의 과목이 많은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다. 무엇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학계와 사회에 제공한 점이 젠더경제학의 커다란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출연기관의 정책보고서에는 ‘성인지적’ 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언급되고 있으나, 제안된 정책이 실현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한국여성경제학회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외국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여성주의경제학회는 유럽, 미국 등에서 활발히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에는 아직까지 국제여성주의경제학회 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12년을 시작

으로 2~4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여성경제학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는 한국여성경제학회의 외연을 확장시킬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50%를 넘지만 여교수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20%에 못 미치고 있다. 대학에서의 여교수 비율은 1990년 11.8%에서 2011년 19.5%로 21년간 7.7%p 증가에 그쳤다(여성신문, 제1189호, 2012-6-8).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 주요 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30% 이상이다.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여성경제학자의 사회적 참여와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성효용(2012), “젠더시각에서 본 여성노동시장,” 『여성연구논총』, 제10집, pp. 65~106쪽.
- 여성가족부(2011),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 통계청(각 년도), 『경제통계연보』.
- 통계청(2012),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1999), 『우리 여성의 역사』서울: 청년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SIS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 홍태희(2004), “여성주의 경제학의 시각과 대안 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 『여성경제연구』, 제1집 제1호, 23~46쪽.
- 홍태희(2009), “젠더의 역사적 구성: 성별관계와 여성경제사,” 『여성경제연구』, 제6집 제2호, 85~109쪽.
- 日本 内閣府 男女共同参画局 Gender Equality Bureau(2012), *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1*.
- 日本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0 General Survey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Management*, 2011.
- Bettio, F.(2012), “Childcare in the European Union. Lessons and challenges,” Presented at the Korea Women Economist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llenges and Responses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 Ferber, M.A. and Julie Nelson(2003), *Feminist Economics Today: Beyond Economic 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lson, J.(2012), “Working and Caring: Philosophy, Policy, and Outcomes in the United

States,” Presented at the Korea Women Economist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llenges and Responses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Petersen, J. and Margaret Lewies(eds.)(1999), *The Elgar Companion to Feminist Economics*, Cheltenham, Edward Elgar.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1), *Women in the Labor Force: A Databook: Table 5. Employment status by sex, presence and age of children, race, and Hispanic or Latino ethnicity, March 2010.*

한국 ‘여성학’: 역사적 궤적과 위치성*

이나영(한국여성학회, 중앙대)

I. 들어가며

한국 여성학의 위치성을 진단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기획이다. ‘여성학’ 하면 지식생산의 주된 장으로써 대학교와 연구소, 학회와 학술지를 떠올리겠지만 여성운동 단체들과 정책입안 기구들 또한 ‘여성학’과 분리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포스트식민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와 변별화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과 제도, 개인과 구조, 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늘 충돌, 협상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 여성학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복합적 층위와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한국 여성학의 현실을 진단하기란 과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 조망되어야 할 내용은 차후의 과제로 넘기고 이 글은 제도로서의 ‘여성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산실로써 대학 내 ‘여성학’의 현황과 변화, 이를 둘러싼 지식생산의 경로들을 추적하는데 소박한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미 세기 전환기에 조주현(2000)은 새로운 세기의 내적, 외적 변화에 맞서 학문적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제도적 확장을 이루어내야 하는 한국 여성학의 과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외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학회차원에서는 연구영역의 다변화와 분과학문의 확장을, 대학원 여성학 전공과정에서는 연구영역의 전문화와 그 영역에 관한 대학 단위의 학제간 연구의 강화를, 학부과정에서는 교양교육체계의 참여와 개발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제안한다. 동시에 내적조건에 대한 대응으로는 젠더개념의 강화와 독립적인 여성정체성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169). 그렇다면 10여년이 지난 2012년 현재, 여성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1970년대와 80년대 태동기를 거쳐, 여성운동과 학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1990년대 성장기에 이미 여러 학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 한국여성학의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 진단’을 시도한 바 있다. 조형(1990)을 필두로 조순경(1992; 1999), 조주현(1996a; 1996b; 2000), 강정희·이숙진(1996), 이정옥(1996), 김은실(1998), 이효재(1994; 1996), 조옥라(1999), 이재경(1999; 2000;

* 이 글은 저자의 논문, “한국 ‘여성학’의 위치성: 미완의 제도화와 기회구조의 변화,” 『한국여성학』, 2011, 제27권 4호와 “한국사회학(과)에서 여성학하기란? 페미니스트 학문후속세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010, 제44집, 5호에서 발췌, 수정한 내용입니다.

2003)은 여성학 교육 방법과 교과과정, 학문으로서 여성학의 정체성 구성, 타 분과학문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며, 관련하여 한국여성학회는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워크숍과 학술대회 주제로 여성학 교육과 지식생산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폭발적인 사회적(대중적) 관심 이후 흔들리는 여성학의 분과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특히 1990년대 후반 IMF이후 두드러졌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학문의 '위기' 담론이 증폭되던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른 학문 분과에서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대학 간의 관계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맥락 하에 새롭게 조망되어 왔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국 여성학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¹⁾ 대신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하에 의제화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공고화 이후에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학문과 운동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 세대 간 차이,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 대한 고민이 다양한 연구 주제로 표출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지점에 서 있으며, 이 좌표가 위치한 배경 화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본 연구는 '한국 여성학'의 위치를 진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분과학문으로서의 여성학의 제도화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준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Griffin(2005)은 유럽의 여성학과들을 분석하면서 여성학의 제도화를 측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학과장, 교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수; 둘째, 자율적이거나 전임 교수가 있는 학과나 센터의 존재; 셋째, 업무에 관여하는 행정직원의 존재; 넷째, 학위과정(학부 또는 대학원)의 존재나 정도; 다섯째, 여성학에 관여하는 분과학문의 수; 여섯째, (일시적이거나 제도적인) 기금(funding)의 종류 및 크기; 일곱째, 연구역량; 여덟째, 교과부나 학술연구재단과 같은 높은 차원의 국가 차원의 기구에 의해 분과학문으로써 인정을 받는지 여부이다(90-91).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제도화의 분류기준을 참조하되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순서와 항목을 조정하면서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각 대학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수집, 대학 당국이나 학과에 공문을 통한 자료 협조 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간단한 대면 혹은 서면 인터뷰, 1, 2차 자료들을 통한 출처 추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들을 수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였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학 제도화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 본 후, 둘째, 학위과정의 여성학/젠더 관련 학과(대학원과 학부 연계전공), 여성학/젠더/여성 관련 교과목, 교양 여성학의 현황을 알아보고 변화 추이를 점검한다. 더불어 여성학 지식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소와 학술지, 학회 현황을 점검하고, 타학문분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학에 국한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셋째, 변화의 양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문하기의 기회구조 자체가 변화했음에 주목하고, 아카데미 자본주의의 확산,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

1) 2000년 중반 이후 여성학적 지식생산과 학문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연구가 있었지만(Kim, 2010; 김승경·이나영, 2006; 김영선, 2010; 김혜경 외, 2009; 이나영·정민우, 2010), 고등교육제도의 변화와 연관된 학제의 위치성 변화를 진단하는 연구 논문은 드물었다.

의 심화와 맞물린 정부의 대학정책의 변화와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 등 다른 외부적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과제와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

II.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역사적 궤적

한국 ‘여성학’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그간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다. Kim Eun-Shil(2010)은 첫 번째 시기를 1984년에서 1995년으로 잡고, ‘보편적 사고’로서의 페미니즘이라는 틀 안에서 여성경험의 특수성을 강조하던 이 시기에 여성학의 인식론적 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진단한다. 두 번째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를 여성학이 제도화되고 ‘젠더’가 한국사회에서 전문화되는 시기로 분류한다. 이 시기 동안 간학문적 프로그램 혹은 학과로써 여성학은 대학원뿐만 아니라 학부에 정착되었고 여성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기구와 정부기구들이 등장했으며, 1999년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 독립분과학문으로 등록되게 된다. 특히 1995년 북경 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기치 아래 정부정책과 페미니스트 진영 간에 우호적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여성학대회(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이전의 프레임을 전복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1997년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확산과 계급양극화 현상은 그동안 수면 아래서 진동하던 페미니스트 진영 내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증폭시켰는데 이는 2005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해서 Kim(같은 글)은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기를 “여성학 문제화하기(Problematizing Women’s Studies)”로 이해한다(17-18). 즉, 여성학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내부적 질문이 가시화된 시점으로 본다.

한편 김영선(2010)은 한국 여성학의 제도적 형성을 1977년-1980년 후반, 19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기에는 진보 여성운동의 요구와 동력을 기반으로 이대 여성학과와 여성학회 등으로 대표되는 제도학과와 학술 운동을 표방하는 비제도권(예를 들면, (사)한국여성연구소) 여성 연구자 집단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반면, 1990년대에는 대학교육제도의 전반적인 체제 변화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권 내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대학원 협동과정 설치, 석·박사과정 개설 및 학부연계 혹은 복수전공 제도는 이러한 배경 하에 구축되었다(331-332). 그러나 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여성학은 ‘한국인문학의 위기’ 담론과 토대를 공유하면서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333-334). Kim과 유사하게 김영선은 이 시기에(‘현재도’) 과연 여성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파생된 관성적 재생산, 이로 인한 문제들을 내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시기별 범주화 문제는, 제도로써 여성학의 생애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진단할 것인가와

연관되며, 이를 분석하고 재현하는 학자의 위치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 지식생산 양식의 변화와 운동과 아카데미 간 관계의 변화, 정치적 환경의 변화(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기구의 변화)라는 내·외적 요인들이 어떻게 고려되는가와 관련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학제간 학문으로서 ‘여성학’의 제도적 위치성에 초점을 맞추어 태동, 성장, 확산과 위기의식의 고조를 중심으로 시기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여성학의 역사는 1977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에 개설된 ‘여성학’ 강좌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후 1982년 이화여대 대학원에 개설된 여성학과 석사과정, 1984년 여성학이 분과학문임을 선언한 한국여성학회 창립은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은 교양 여성학 강좌 개설, 학위과정 확립, 분과학문의 성립과 타분과 학문으로의 확산이라는 제도화 궤적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기반으로 시기별 범주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지식생산의 구조와 장(arena)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지식생산 양식과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넘긴다.

1. 태동기(1970년대-1980년대): 교양여성학의 성립과 확산, 한국여성학회의 탄생

한국 여성학의 태동 과정은 개인이 처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를 조건화하는 사회변혁에 대한 열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행동(개입)과 연결되어 있다. 군사독재 체제였던 1970-80년대 한국사회가 직면한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변화의 욕구라는 내적 요인은 1975년 UN에 의해 선포된 세계여성의 해(International Women's Year), 서구 여성학의 성장, 서구에서 여성학 세례를 받은 학자들의 유입이라는 외적 요인들과 결합되어 학술운동과 사회개혁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존재하던 ‘여성’과 여성교육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여성들이 겪는 실질적인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분석하는 일은 ‘깨어있는 여성들’에게 시급한 과제로 보였다(Chang, 2008). 1970년대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여성자원개발연구소 소장이었던 이효재는 유신시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독재 이데올로기와 연관된다고 보고, 성차별과 군사독재, 계급문제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이후 여성학 교과과정의 주요한 모형을 제공하게 된다(김영선, 2010: 329).

이에 대학 내 교양 여성학 교육은 사회변혁운동으로써 여성운동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자 일상 속에 페미니즘 확산이라는 두 가지 ‘여성학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1977년부터 이화여대에 교양과목으로 채택된 여성학은 1990년대까지,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정식 교양과목으로 채택되었을 정도로 놀랄 만큼 빠르게 확산된다. 1987년까지 대학에서 여성학 개설은 주로 학교 당국이나 소수 ‘의식 있는’ 교수들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1987년 이후에는 대학의 총여학생회의 요구로 개설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이제 막 태동한 대학 내(총)여학생회 욕구가 맞물려 여성학은 대학 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여학생들의 투쟁은 교양 여성학 개설뿐만 아니라 학내 여성연구소의 설립에도 기여했는데 예를 들어, 1988년 개설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와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 여성연구소도 당시 부

산지역 여대생들의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이었다.

여성학이 1970년대의 유신말기 억압적 국가 분위기하에 태동하고 민주화 운동이 절정이던 1980년 대 후반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정옥(1996)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그는 1970년대 후반 모든 시민사회운동이 억압적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을 때, 여성학이라는 강좌가 쉽사리 승인되었다는 것은 여성학에 대한 진보적 성격에 대해 무지했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정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사회적 관심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묵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당시 국제 인권운동 단체에서 지적되어 온 한국의 악명 높은 인권문제를 유엔의 세계여성의 해 선포(1975)에 부응하는 것으로 완화해 보려는 저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둘째, 1980년대 후반 여성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집약되는 통합된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여성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요구, 사회운동에 소극적인 여성들을 사회운동에 동원하고자 하는 남성 활동가들의 필요성, 집약된 사회운동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당국의 묵시적 태도 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74-76).

이효재(1996) 또한 1980년 대 여성학의 확산을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의 영향에 힘입었다고 평가한다(281). 그는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의식과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며 밑에서부터 개혁을 요구한 당시 젊은 세대의 열기를 “여성학 운동”이라 부르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그는 1970년대부터 고조된 범여성 가족법 개정운동의 영향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노학 연대운동의 과정에서 제기된 성차별과 노동착취에 대한 문제의식, 여성학과에서 배출되기 시작한 여성학 강사들의 역량으로 여성문제 연구를 위한 학술운동이 활기를 띠게 된 점 등을 들고 있다(281).

따라서 교양 여성학 개설의 시기별 추이 및 특징을 다시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1970년대에는 주로 대학당국, 여성연구소, 또는 개인 교수의 주관으로 개설되었으며, 둘째, 1980년대 중반에는 여자대학교의 경우 주로 여성연구소와 여성 교수 개인의 주도하에, 남녀공학대학교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교련 대체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셋째, 1988년과 1989년 이후에는 대부분 여학생회의 요구로 개설되었다(조형, 1990: 204-205). 실제 1988년과 1989년에(총)여학생회의 요구로 여성학을 개설하게 된 학교는 총 24개 대학이었으며 1989년 말까지 총 42개 대학에서 여성학이 개설되게 되었다고 한다(이정옥, 1996: 73). 이들은 이후에도 대학 내 여성학 과목의 폭발적인 증가를 추동하였는데 1990년에는 69개에 이르렀다고 한다(조형, 1990). 이로써 조형(1990)은 적어도 교양과목 수준에서는 여성학이 주변성을 벗어났다고 진단한다(201-202).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여성학의 급속한 성장과 확산은 아카데미즘을 기반으로 한 학구적 열기에 기인했다기보다는, 민주화 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이효재, 1996: 281; 김승경·이나영, 2006).

1980년대 교양 여성학 발전에 주요 동력으로 여성학 전공 연구자를 배출한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과정 설립(1982년)과 이들의 위치성을 인정하는 한국여성학회의 창립(1984), 더불어 여성학

지식생산의 학문적 장으로써의『한국여성학』의 창간(1985)과 이화여대 여성연구원(1977)의 『여성학논집』(1984) 창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여성학회는 한국사회에서 여성학을 학문적으로 정착시키고 체계화시키려는 공동의 지적 광장을 마련할 필요에서 1984년 10월에 창립되었다. 여성학회 설립은 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 여성학을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여성학 연구자들의 학제 간, 학교 간 연대와 교류와 여성운동에 이론 제공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윤택림, 1995). 창립 이듬해인 1985년 회원 수 124명이었던 여성학회는 2012년 현재 다양한 분과학문에 터한 개인회원 844명, 여성단체, 연구소 등 단체회원 95개 기관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한국여성학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kaws.or.kr/>)). 대학 밖에서는 또하나의 문화(1984년),²⁾ 한국여성연구회(현,(사)한국여성연구소)³⁾ 등이 설립되어 동인지,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페미니즘 인식론 확산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⁴⁾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페미니즘 인식론이 고등교육 내 교과과정에 도입되고 확산되었으며, 학위과정이 개설됨으로써 남성중심적 학문 구조에 균열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학문으로서 여성학은 아카데미 안과 밖의 다양한 장에서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제도적 구축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2. 역동적 성장기(1990년대): 학위과정으로서 여성학의 제도화

1990년대는 여성학이 제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징은 첫째, 학위과정으로서의 여성학 프로그램과 학과 개설이 전국단위로 확산되었으며, 둘째, 대학 부설 여성연구소 설립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셋째, 이로 인해 타 분과학문에서도 ‘젠더’ 연구가 태동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1990년에 대구 가톨릭대학교(당시 효성여자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 여성학 석사과정이 신설되었으며 1992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처음으로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조주현, 1996a: 3; 이재경, 1999: 31; 정일환 외, 2003: 324). 이후 동덕여자대학교(1996), 숙명

2) 1984년에 창립한 ‘또하나의 문화’는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인식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변화를 통해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또하나의 문화’란 가부장제나 남녀불평등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만 이 운동을 정답으로 여기고 모든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도개혁보다는 일상적인 삶의 양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며 글쓰기와 특강 등을 통해 동인의 유대감을 끌어내는 느슨한/열린 조직을 표방하였다(조주현, 1996b: 143). 또문의 동인들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획일주의, 성차의 고정관념 극복을 주요 주제로 삼았으며, 이와는 연계 속에서 상업주의, 자본주의 계급불평등, 여성해방문화를 재고하는데 기여하였다.

3) ‘한국여성연구회’는 여성문제 이론정립, 여성운동의 전망 모색과 여성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1998년 한국여성연구소로 조직을 개편하고 1999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현재 공식 명칭은(사)한국여성연구소이다. 연구소 학회지는 『여성』(1985)으로 출발하여 『여성과 사회』(1990), 『페미니즘연구』(2001)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등재지가 되었다.

4) 비록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이효재 선생님께서 설립을 주도하신 한국가족학회(1977)(발간지: 가족과 문화) 또한 분과 학문 외곽에서 페미니즘 인식론 확산에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 출연 여성문제 전담 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립(1983) 또한 다른 섹터에서의 제도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학회지로는 『젠더리뷰』(2006), 『여성연구』가 있으며 『여성연구』는 2009년부터 등재지가 되었다.

여자대학교(1996), 성신여자대학교(1996),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1996)⁵⁾ 등 주로 여대에서 여성학과 석사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한양대학교(1996)에 이어 1999년에는 서울대학교에 여성학협동과정이 설치됨으로써 주요 남녀공학대학에도 정식 학위과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뒷장의 <표 3> 참조). 이 시기 여성학 제도화 과정에 가장 중요한 틀로 작용한 대학원 협동과정 체제는 전임교원 충원에 따른 추가적 부담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했기에 학교 당국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었는데, 이는 학제간 융합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협동과정 개설이 장려되기까지 했던 당시 대학 교육 환경의 변화와도 연관된다(김영선, 2010: 332). 이러한 변화는 학제간 연구를 위한 대학 내 부설 연구소 설립으로 확대되었는데, 실제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1995)를 중심으로 이화여성신학연구소(1993),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1996), 가톨릭대 성평등연구소(1996),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1996)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뒷장의 <표 5> 참조). 이에 부설 연구소 출간 학술지들도 늘어났는데 이중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의 *Asian Women*(1995)과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AJWS)*(1995)는 한국 여성학 최초의 영문 국제학회지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시기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타 분과학문 분야로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학회, 연구회, 연구소 설립이 증가했다는 점이다(<표 1> 참고).

<표 1> 젠더 관련 학회 창립 시기

시기	숫자	학회명
1990년도 이전	3개	한국가족학회(1977) 한국여성체육학회(1954) 한국여성학회(1984)
1990년대	7개	대한여성건강학회(1998) 여성건강간호학회(1995) 한국여성심리학회(1995) 한국여성경제학회(1997) 한국여성철학회(1997) 한국여성문학학회(1998)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1992)
2000년대	4개	젠더법학회(2005) 한국여성사학회(2004) 한국여성수리과학회(2005)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2003)

1992년 설립된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199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1993년 연구회로

5) 이하 모든 'OO대학교' 명칭은 'OO대'로 축약하여 상용하고자 한다.

출발, 2003년 학회로 발전), 한국여성심리학회(1995), 한국여성철학회(1997), 한국여성문학학회(1998) 등은 표면적으로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여성의 관점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남성중심적 학문 전반에 도전하고 여성주의 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카데미라는 제도권 밖에서도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1997년 설립된 여성문화이론 연구소와 연구지『여/성이론』을 들 수 있다.

아카데미 외적으로는 1995년 북경 여성대회와 김대중 정권(1998-2003) 수립 이후 여성 문제를 정책 아젠다에 포섭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주류화라는 구호와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소속 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 설치되고,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사회발전의 주요 지표로 포함되게 된 배경과도 연관된다(Kim, 2010: 16).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지식생산의 장으로써 ‘여성학’이 다양한 제도적 형태 속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라 볼 수 있다.

3. 공고화와 쇠퇴의 이중화(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여성학 제도화 과정과 연관된 특징은 단순하게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지만 거칠게 정리하자면 이중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공고화되고 확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화되고 쇠퇴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위기’ 담론 또한 급속히 유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0년대 초반과 중·후반 간의 시간적 차이, 서울과 ‘지역,’ 서울지역 내에서도 소위 ‘상위’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 서열화와 공간적 구획화, 정책/운동/학문 영역의 성장과 간극,⁶⁾ 정권의 변화, 여자대학과 남녀공학대학, 독립학과와 협동과정 간 차이들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다른 조건들을 구성하고(의도했던 안했던) 상이한 효과들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일단 이장에서는 이중화의 첫 번째 시기인 2000년대 중반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후의 상황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로써 학제의 위치성을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위 과정과 대학 부설 연구소라고 할 때, 시기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 여성학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딛고 오히려 제도적 측면에 있어 공고화된 것처럼 보인다. Griffin(2005)이 지적한 인적(전담교수, 행정직원), 물적 자원(기금)을 갖춘 학과로 학위수여가 가능한 여성학과는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대학원과 학부 연계전공에 존재하는데 두 가지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에 여성학 석사과정(2002)과 박사과정(2004)이 개설되고 서강대학에 여성학 석사과정(2005)이 생겼으며, 계명대학에는 박사과정(2007)이 개설되었다.⁷⁾ 타 분과 학문에서는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에 젠

6) 여성특위는 2001년 여성부로 승격하여 여성운동계는 1대 장관, 한명숙을 배출한다. 이후 상당수의 여성 운동단체 활동가들과 여성학과 출신들이 정부기관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페모크래트, 여성운동의 제도화 등의 논란을 빚게 된다.

7) 변혜정 외(2011)에 의하면, 한양대와 성신여대를 제외하고 파악되고 있는 국내 여성학 전공자의 수는 2011년 현재, 석사학위과정 졸업자 약 552명, 박사학위과정 졸업자 약 31명이라고 한다. 이 중 이화여대 여성학과 졸업생이 전체 석사과정 졸업생의 약 48%, 박사과정 졸업자 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더전공이 최초로 공식화된(2001) 이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젠더전공이 개설(2003)되었다. 따라서 여성학과 관련된 대학원 과정의 세 가지 형태, 즉 ① 독립분과로서의 ‘여성학’, ② 분과학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타 분과학문이 관여하여 운영되는 협동과정, ③ 타 분과학문에서 하위전공분야로서의 여성학은 이 시기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 학위 과정인 학부 여성학도 제도화되었는데 이화여대, 동덕여대, 서강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신라대 등 8개 대학교에 학부연계전공 혹은 복수전공 제도가 구축되었다. 그리하여 2005년 기준, 13개 대학교에 여성학과 혹은 협동과정에 석사 과정이, 4개 대학교에 박사과정, 2개 대학의 타분과 학문에 젠더전공의 대학원 학위과정(석·박사)이, 8개 대학교의 학부에 여성학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 학위과정이 제도화 되고, 전남대 여성연구소(2000), 한양대 여성연구소(2002) 등 대학 부설 연구소와 한국여성사학회(2004), 젠더법학회(2005)가 설립되었으며 젠더 관련 학술지가 속속 창간되거나 등재지,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타분과학문에서 젠더연구의 성장도 지속되었다(위 <표 1>과 아래 <표 2> 참고).

〈표 2〉 젠더/여성 관련 학회 및 학회지

연번	학회명	분과	홈페이지	설립 년도	학회지	비고
1	대한여성건강학회	의학	http://www.kwhp.or.kr/	1998	여성건강 (2000년 창간, 연2회 출간)	
2	여성건강간호학회	의학	http://women-health-nursing.or.kr	1995	여성건강간호 학회지	등재지(2008)
3	젠더법학회	법학	www.genderlaw.or.kr	2005	젠더법학 2009년 창간	
4	한국가족학회	가족	http://www.family21.org	1977	가족과 문화	등재지 (2004)
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문학	http://www.kcwoman.or.kr		한국고전여성 문학연구	등재지(2007)
6	한국여성경제학회	경제	http://www.e-kwea.or.kr	1997	여성경제연구	등재후보지
7	한국여성철학회	철학	http://www.kafph.or.kr	1997	한국여성철학	등재지(2010)
8	한국여성체육학회	체육	http://www.phywomen.or.kr	1954	한국여성체육 학회지	등재지(2005)
9	한국여성 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문화	http://www.womencom.or.kr	2003	미디어, 젠더&문화 (2007창간)	등재지 (2010)
10	한국여성학회	여성	http://www.kaws.or.kr	1984	한국여성학	등재지(2002)
11	한국여성심리학회	심리학	http://kswp.or.kr	1995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등재지(2006)

(325-326). 여성학 석·박사학위 소지자 79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별 분포도 조사에 따르면 연구/교육기관 관련 종사자가 3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프리랜서(교육강사 등) 22명,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 종사자 9명, 정치나 정당, 기타 행정기관 등의 근무자 7명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글, 331).

					(1996년 창간, 연4회 출간)	
12	한국여성문학학회	문학	www.feministcriticism.or.kr	1998	여성문학연구	등재지(2006)
13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과학	www.kwms.or.kr	2005		
14	한국여성신학학회	신학	http://cafe.daum.net/kafemtheo/		여성신학사상	
15	한국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	문학	http://www.fsel.org/ver1.0/index. htm	1992	영미문학 페미니즘	등재지(2001)
16	한국여성사학회	역사	http://www.kawh.co.kr	2004	여성과 역사	등재후보지

성장과 확산의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 등장한 대학 내 전임 여교수 충원 문제도 연관된다.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여자’ 학자들이 전임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 여성주의 인식론에 노출되고 여성운동 경험이 있는 여교수들이 대학 내 여성학/젠더 연구 확산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국공립대학 사회학과에 여성학/젠더전공 ‘여자’ 교수가 충원되었는데(자세한 내용은 <표 9> 참조), 서울대학의 경우, 2006년 행정적으로 사회학과 소속이지만 여성학협동과정을 전담하는 형태로 전임교수 1인이 충원되었고, 중앙대 사회학과는 2003년 충원된 젠더 전공자가 젠더 연구의 확산 의지를 가지고 2007년 또 한명의 여성학 전공자를 뽑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바로 여성학의 제도적 공고화와 확산의 시기에 위기담론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여성학 학위과정의 구조조정 문제가 등장하고, 실제로 몇몇 여성학과가 문을 닫았으며, 학내의 여학생 운동은 침체하기 시작했다. 서울과 지역을 불문하고 여성학 강좌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김혜경 외, 2009), 여성학 교양과목 및 연계전공 복수전공 수강생들도 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분과학문으로써 공고해 보였던 ‘여성학’은 기존의 견고한 제도적 학문분과들의 틈바구니에서 소외되거나 기존 분과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 포섭되는 노정마저 보이고 있다. 친여성, 민주정부라 평가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영향으로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일정 정도 이루어진 이후 여성학의 ‘위기’가 도드라졌다는 점 또한 아이러니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성학의 제도적 성장 이후 역설적으로 역사적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제도적 ‘성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위기 담론’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는 2011년 한국 여성학의 제도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변화의 지점들을 포착한 후, 이를 한국사회 고등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한국 여성학’의 제도적 현황

1. 학위과정과 대학 부설 연구소

최근 가장 두드러진 외적 변화는 먼저 학위과정의 양적 축소다(<표 3>과 <표 4> 참조).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구가톨릭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5개 대학의 여성학과가 없어지고 계명대학의 여성학 대학원 또한 폐원되어 여성학과는 정책대학원에 포섭되었다. 더불어 2007년 개설된 계명대학교 여성학 박사과정은 사회학과로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2011년 10월 현재, ‘여성학과’는 총 9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명실상부한 독립된 학과로 존재하는 여성학과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학부 연계전공, 석·박사 과정) 한 곳에 불과하며, 동덕여자대학교는 특별과정으로 대학원에 학과형태로 존재하고 계명대 여성학과는 독립된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에서 정책대학원 여성학과로 포섭되었다. 동덕여대와 계명대 여성학과의 경우, 각각 2명의 전임교수가 전공과목 개설, 강의, 강사 선임 등 교과과정을 통제하면서 총체적으로 학과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 학과와 협동과정의 중간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신라대학교 등 6개 대학에는 협동과정이 개설되고 있으며, 3개 대학에 세부전공으로 명시되어 있다(〈표 3〉 참조).⁸⁾ 학부의 여성학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 또한 2005년 8개 대학에서(동덕여대, 목원대, 서강대, 숙명여대, 신라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충북대 등) 2011년도 3개 대학(동덕여대, 서강대, 이화여대)으로 감소했다(〈표 4〉 참조).⁹⁾ 숙명여대는 여성학 대학원이 폐원됨에 따라 학부 연계전공도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3〉 대학원 여성학과 및 협동과정, 젠더 전공 학위과정

구분			학교명	개설년도	폐과년도	비고
여성학과	여성학과	1	이화여대 (석박사)	1982		1982년 석사과정, 1990년 박사과정 개설
	독립학과와 협동과정의 중간형태	2	계명대 (석사)	1990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에서 출발, 2010.3부터 정책대학원 여성학과로 편입 2007년 개설된 박사과정은 사회학과 내 여성학 전공으로 편입
		3	동덕여대 (석박사)	1996		협동과정으로 출발했으나 학과체계를 갖춘 경우. 두 명의 전임교수의 경우 학부 교양학부 소속이며 대학원에서는 여성학과 소속이어서 학부의 교양여성학 과정, 여성학 연계전공 과정, 대학원 여성학 과정들을 모두 책임지고 과목을 정하고 강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8)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우, 문화학과 사회학이라는 타 분과학문의 세부전공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 NGO 대학원 내 정식학위 과정으로 승인된 성공회대학의 실천여성학 전공은 일단 기타로 분류해 보았다.

9) 동덕여대의 경우, 복수전공이 51학점, 부전공은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매학기 4-6 과목씩 여성학 전공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여성학 전공을 신청한 학생뿐만 아니라 ‘자유선택’의 형식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매학기 100명~200명 가량의 학부 학생들이 여성학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현재 준비된 과목은 총 21과목으로, 이들 과목은 매학기 개설과목, 1년에 1번 개설과목, 2년에 1번 개설과목으로 분류되어 학기별로 과목을 정한 다음 전공과목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한다(전임교수와의 서면 인터뷰).

여성학협동과정	4	대구 가톨릭대	1990	2008	1999년 효성여대와 통합, 학과에서 협동과정으로, 다시 폐지로
	5	부산대 (석박사)	2002		2002년 석사과정, 2004년 박사과정 개설
	6	상지대	확인불가	2009	
	7	서강대	2005		2005년 석사과정 개설
	8	서울여대	1998	2005	
	9	서울대 (석박사)	1999		1999년 석사과정, 2004년 박사과정 개설
	10	성신여대	1996		2008년 이후 신입생 선발하지 않음
	11	숙명여대	1996	2007	2007년 폐지 통보 2011년 1학기 마지막 졸업생 배출
	12	신라대	1996		여성학대학원으로 출발, 1999년 사회복지대학원으로 편입
	13	한양대	1996	2010	
기타	실천여성학 과정	14	성공회대	2006	2006-2009 비학위과정, 2010년도에 NGO 대학원 내 학위과정으로 전환
	문화학협동 과정	15	연세대 (석박사)	2001	세부전공에 젠더 분과 (영문명: Gender and Culture Studies)
	사회학	16	중앙대 (석박사)	2003	세부전공에 젠더 분과 신설됨

〈표 4〉 학부 여성학 연계전공 현황

여성학 연계전공(학부) 현황				
	학교명	2005	2011	비고
1	동덕여대	○	○	
2	서강대	○	○	
3	이화여대	○	○	
4	목원대	○	x	
5	숙명여대	○	x	
6	신라대	○	x	
7	성균관대	○	x	
8	충북대	○	x	

두 번째 주목할 사항은 대학 내 ‘여성연구,’ ‘젠더연구’의 산실이자 여성학 관련 과목 개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대학 부설 ‘여성’ 연구소 또한 지난 2005년에 비해 수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볼 때, 2005년 당시 22개였던 연구소 중 5개가 그간 폐소되었고, 1개가 새로 개소하여 현재 18개 연구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여성’ 연구소들이 그간 학내 페미니스트들의 인식론적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술지 발간, 각종

학술행사 주도, 지역 사회 여성연구의 중요한 역할 수행, 여성관련(여)교수들과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심정적, 물리적 지원 체제를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학의 외형적 ‘축소’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시기별 경향을 보면 1990년 6개에 불과했던 대학 부설 여성연구소는 1990년대 여성학의 ‘제도화’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표 5〉 대학 내 ‘여성’ 연구소 현황¹⁰⁾

연번	연구소명	2005	2010	분류	유형	홈페이지	개소 년도	학술지	비고
1	대구대 여성연구소	○	x						
2	명지대 여성연구소	○	x						명지여성, 가족생활연 구소는 있음
3	숭실대 여성연구소	○	x						
4	중앙대 여성연구소	○	x						
5	대구가톨릭대 여성연구소	○	x						
6	가톨릭대 성평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http://www.cuk.ac.kr/~cukgei/	1996	성평등연구	
7	가톨릭대 여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http://cwrik.catholic.ac.kr/	1996		
8	경상대 여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gender.gnu.ac.kr/	2008		
9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http://iws.or.kr/		젠더와문화 (2005)	
10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 소	○	○	여성	부속기관	http://www.dongduk.ac.kr/contents/main/cor/subresearch_8.html	1996	동덕여성연 구(1996) → 젠더연구 (명칭 변경(2008))	
11	목포대 여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학교 조직도에는 여성연구소가 나와 있으나 홈페이지는 찾을 수 없음			
12	부산대 여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http://mypage.pusan.ac.kr/women/index/index.asp	1988	여성학연구 (1989)	등재후보지
13	서울대 여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igender.snu.ac.kr	2000		
14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http://mail.swu.ac.kr/~swsi/	1975	여성연구 논총 (1985)	

10) 본 표는 2011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기존의 논문, 각 대학 홈페이지, 여성학회 홈페이지, 동료교수들의 정보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15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http://www.sungshin.ac.kr/kowoin/	1999	여성연구 논총	
16	신라대 여성문제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http://webdb.silla.ac.kr/	1988	여성연구 논집(1990)	
17	아시아여성연 구소	○	○	여성	숙명여대 부속기관	asianfem.sookmyung.ac.kr	1960	아시아여성 연구 (1962)	등재지 (2006)
								Asian Women (1995)	SSCI 등재지
18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	○	여성	부속기관	http://kwiewha.re.kr/	1977	여성학논집 (1984)	등재지 (2008)
19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 센터	○	○	여성	부속기관	http://home.ewha.ac.kr/~acws/	1995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AJWS) (1995)	등재지 (2002) SSCI
20	이화여대 이화여성신학 연구소	○	○	신학	부속기관	http://eiwts.ewha.ac.kr/	1993	여성신학 논집 (1995)	
21	연세대 젠더연구소		○	여성	부속기관	http://web.yonsei.ac.kr/gender/	2002	연세여성 연구(현재 폐간)	2001(7호)까 지 검색됨
22	전남대 여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http://altair.chonnam.ac.kr/~women/	2000		
23	한양대 여성연구소	○	○	여성	부속기관	hiwomen.hanyang.ac.kr	2002	젠더와 사회 (현재 폐간)	

그러므로 분과학문으로서의 여성학의 위상은 결코 공고화되지 못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는 학제의 식민화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협동과정이라는 불안정한 구조와도 연관된다(김승경·이나영, 2006). 협동과정의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과정은 기존의 분과 학문간 경계를 넘어 유연한 학문적 소통과 창조적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임교수나 ‘공식적 학과’(department) 구조가 없어 다른 학과의 전공 교수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에서 강사선정과 개설과목을 선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김태현, 2000: 204-205). 전임교수 없이 외부강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과과정 조정이 어려우며, 학과의 물리적 지원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재정보호의 어려움, 장학금 등 학생 보상제도의 부재, 이와 연관된 학생정원 자체의 불투명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소수의 학생이라는 열악한 기반으로 인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도 없으며 이에 따라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학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협동과정은 늘 대학 구조조정의 1순위 대상이 되어 왔으며, 실제로

5개 여성학 협동과정(대구가톨릭대, 상지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한양대)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내 실천여성학이 석사과정으로 확대된 현상과 중앙대학교 사회학부에 젠더전공이 공식화된 현상은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 성공회대학의 경우, 여성활동가들의 단기 재교육프로그램에서 출발하여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는데, 여성운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주의 지식생산을 제공함으로써 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와 이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학문과 현장(현실)간의 결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인식론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¹⁾ 특히 여성운동에 대한 반응과 요구로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해 온 지난 역사를 감안할 때 오히려 뒤늦은 감마저 든다. 물론 성공회대학의 경우, 진보적 학문풍토에 기인한 NGO대학원의 설립과 현장에서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했고 여성학을 전공한 전담교수가 헌신하고 있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젠더/여성학 전공의 두 명의 여성학자가 있으며 대학원 과정의 세 가지 트랙 중(사회변동, 노동/문화/젠더) 하나로 정식 채택되어 매 학기 2과목의 젠더관련 수업이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있어 젠더전공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부 과정에서도 1개의 전공기초, 4개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대학의 경우에도 젠더를 전공한 전담교수가 부임한 이래 교과과정의 진행이 통제되면서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대학원 여성학/젠더 전공 교과과정

이재경은 1999년 당시, 한국 여성학 교과과정 개발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한국여성학의 이론적 심화를 통한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이고 둘째는 전문성 심화를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라는 것이다(이재경, 1999: 39). 이를 위해 첫째, 이론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정교한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서구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여성들 간의 경험의 차이와 유사성,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급, 성, 지역, 근대성 등 다양한 개념들을 적용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경험을 해석해 내야한다고 주장한다(36-37). 둘째, 실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필요성하다. 이는 특히 여성학과 석사졸업생이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에 대한 지적으로 직업시장에서 필요한 연구기법과 기술(technique)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타 학과와 연계과정(interdisciplinary

11) 홈페이지에 나타난 해당학과의 개설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전공은 한국시민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여성활동가들의 리더십 향상 및 여성운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체적인 여성주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활동가들이 그들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 나가는 계기를 형성하는 한편, 미래세대 활동가들의 새로운 욕구가 서로 공유되고 소통되는 개방적인 인적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미래의 여성리더십에 필요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개인들의 잠재력 극대화는 물론 여성학지식생산, 여성운동과 시민사회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program)이 가능한 교과과정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이론과 실천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운동단체나 연구소에서 훈련 받는 인턴쉽 과정의 개설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넷째, 학부 연계전공의 신설과 체계화를 들고 이는 여성학의 학문적 목표와 학생들의 현실적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지적은 사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원 교과과정은 이재정이 지적한 첫 번째 과제인 ‘한국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해석해 내는 역할에 가장 성공적으로 보이며 성공회대학의 경우 이론과 실천의 연계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학기에서 2011년 1학기 동안 여성/젠더 관련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 총수는 92개이며¹²⁾ 강사진은 전임교수의 비율이 62%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교·강사들의 전공은 여성학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회학(21%)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강의 과목은 주로 여성학 이론, 방법론, 가족, 성, 문화, 노동 등의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2003년도에 필자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교과과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변화는¹³⁾ 1) 가부장제 관련한 수업이 사라졌다는 점; 2) 상대적으로 “여성학 연구방법론” 등 인식론과 방법론 수업이 증가했다는 점; 3)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 “글로벌리제이션과 젠더,” “글로벌/아시아 페미니즘” 등 지구화와 관련된 수업이 활발히 개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간학문적 학문하기에서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여성주의 문화이론(서울대),” “페미니스트 문화이론(중앙대),” “문화와 성연구세미나(연세대),” “섹슈얼리티의 역사(이화여대),” “성연구(성공회대),” “성, 정보, 매체(계명대)” 등 거의 모든 학교에 문화와 섹슈얼리티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00년대 이후 변화한 학생들의 연구관심이 꾸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세대학 문화연구학과를 제외하고는 교수법(페다고지) 관련 수업이 거의 실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타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많은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아카데미 안과 밖에서 연구와 강의(교육)라는 진로를 택한다고 볼 때 여성주의 페다고지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며, 타지역 여성들에 대한 이해 또한 서구중심주의(미국과 서유럽)를 벗어날 수 있는 주요한 과제이기에 관련 수업이 없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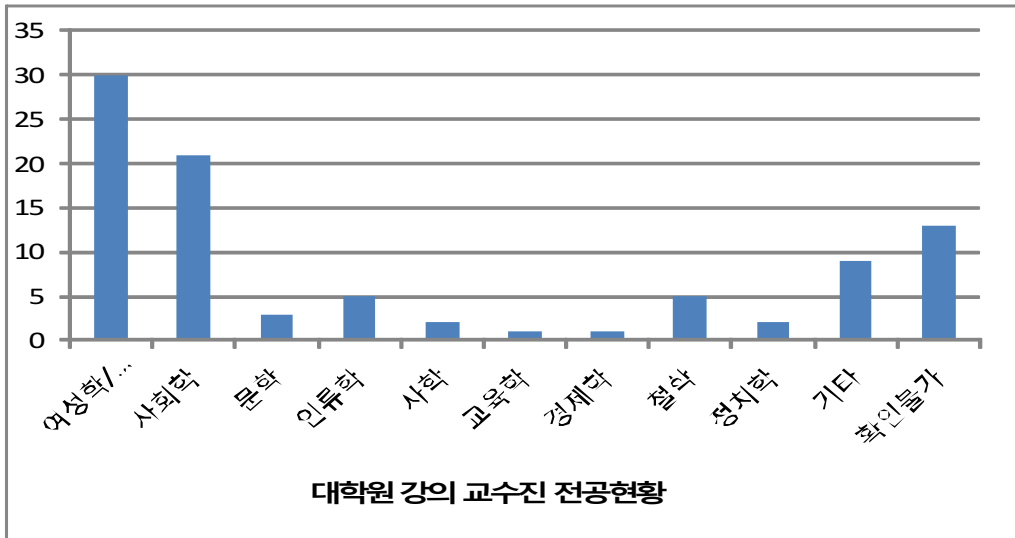
12) 학교와 학과별로 2년에 1번씩 개설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빠진 수업들이 있음을 양지 바란다.

13) 당시에는 학과 홈페이지에 제시된 과목 현황에 기준한 것이고 이번 2011년도 자료는 실제 개설된 과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기에 여기서는 간략하나마 변화의 개요만 짚어보고자 한다.

〈표 6〉 대학원 개설과목(총92개) 강사진 현황(2010년 2학기와 2011년 1학기)

구분	교수	강사	확인불가
	57	30	5
%	62.0	32.6	5.4

구분	전공구분(총92개 과목)										확인불가
	여성학	사회학	문학	인류학	사학	교육학	경제학	철학	정치학	기타	
	30	21	3	5	2	1	1	5	2	9	13
%	32.6	22.8	3.3	5.4	2.2	1.1	1.1	5.4	2.2	9.8	14.1



3. 교양 여성학

학부 교양에서 여성학 관련 강좌는 “여성학 개론”에서 시작하여 “성과 사회,” “가족과 여성,” “대중매체와 여성” 등 시대의 변화와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개설되어 왔다. 1990년대 소위 ‘교양 여성학의 전성기’ 당시 김정희·이숙진(1996)은 대학 교양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 바 있다. 첫째, 과도한 학생 인원과 대단위 강의로 인한 토론이나 공동연구를 지양하는 수업방식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둘째, 2학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강의 시간이 부족하고 일방적 강의 위주로 흐름 위험이 있다. 셋째, 강사의존도가 높으며, 넷째, 개설학과나 주무자의 차이에 따라 여성학 과목의 존립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여성학과가 없는 학교의 경우 교양과목 위원회나 관심 있는 교수들, 여학생회, 기타 학과 등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비체계적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폐강되기가 쉽다고 지적한다. 다섯째, 지식이나 이론 전달 중심이 아니라 의식변화 중심의 다양한 수업운영방식이 비학문적이라 비판 받기도 한다. 덧붙여 생물학적 ‘여성’이거나 ‘여성’ 관련 학과 출신(예를 들어, 가

정대)이면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과목으로 여겨진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2011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은 편의상 여성학/젠더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지방 국립대학으로 제한했다. 학교 규모와 발전 방향, 정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설과목 수만을 본다면 예상대로 여성학/젠더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학)관련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표 7〉 참조). 이화여대의 경우 2010년 가을부터 2011년 봄학기까지 21개의 과목이 개설되었고, 서울대의 경우 15개, 연세대 13개, 한양대 13개, 경희대 11개 순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다. 한양대학의 경우, 현재는 폐과되었지만 여성학과와 여성연구소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경희대학에 “젠더, 섹슈얼리티 문학,” “젠더와 역사: 평등과 차이의 정치사,” “구별의 정치학: 인종, 계급, 성” 등 상대적으로 여성학 관련 교양과목이 많은 이유는 최근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독립된 교양대학을 중심으로 인문학 살리기를 중점에 두고 있는 학교 정책의 특성과 연관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사립대학 중 하나인 고려대학의 경우 1, 2학기 합해 3개 개설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동덕여대의 경우 아래 표에는 제시되지 못했지만, 학부연계전공과 대학원 학위과정의 존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양 여성학 개설이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교양여성학 영역 중에서 반드시 1과목은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매 학기 13개의 교양여성학 과목을 개설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경우다.¹⁴⁾

〈표 7〉 10개 대학 학부 교양 여성학(젠더, 성 관련) 수업 현황¹⁵⁾

연번	학교	학기	과목수	여성주의/젠더 관점			
				유		무	강의계획서×
1	이화여대	2010-2	14	9	64%	4	1
		2011-1	7	5	71%	2	
			21	14	67%		
2	서울대	2010-2	8	6	75%	1	1
		2011-1	7	6	86%	0	1
			15	12	80%		
3	연세대	2010-2	7	4	57%	3	
		2011-1	5	3	60%	2	
			13	7	54%		

14) 동덕여대 여성학과 전임교수에 따르면, 2011년 2학기 현재 개설된 교양여성학은 〈성과사랑〉, 〈결혼과 가정〉, 〈육아와 자녀교육〉, 〈여성과 노동〉, 〈한국의 여성상〉, 〈여성과 문화〉, 〈여성과 소비자경제〉, 〈여성과 사회〉, 〈여성과 리더십〉, 〈법여성학〉, 〈청년기갈등의 이해〉, 〈가족과 문화〉, 〈삶과 교육〉 등 13개 과목에 이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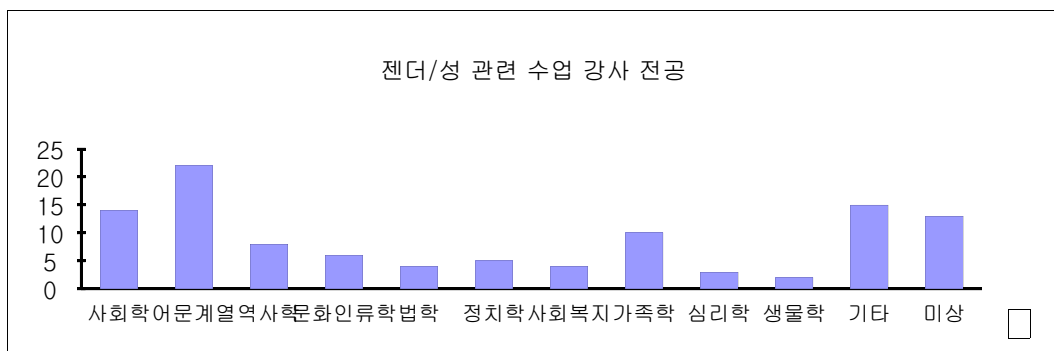
15) 서울의 주요 4년제 대학과 지방의 국립대를 선정하여 검색하였으며, 주로 학교 홈페이지와 교양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성, 여성, 젠더, 가족, 결혼, 섹슈얼리티, 페미니즘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수업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한계로 인정함.

4	고려대	2010-2	0		0		
		2011-1	3	2	66%	0	1
			3	2	67%		
5	경북대	2010-2	2	1	50%	2	
		2011-1	1	1	100%		
			3	2	67%		
6	중앙대	2010-2	3	2	66%	1	
		2011-1	4	1	25%	3	
			7	3	43%		
7	한양대	2010-2	5	2	40%	3	
		2011-1	8	3	38%	4	1
			13	5	38%		
8	서강대	2010-2	1	1	100%		
		2011-1	1	1	100%		
			2	2	100%		
9	부산대	2010-2	1	1	100%		
		2011-1	2	2	100%		
			3	3	100%		
10	경희대	2010-2	5	4	80%	1	
		2011-1	6	5	83%	1	
			11	9	82%		
	총계		90	59	66%	26	5

2011년 각 대학의 교양 과목 관련 강의안을 살펴보면, 여성학, 사회학, 문학 관련 전공 교·강사가 강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설학교 당국과 개설자의 무지로 인해 페미니즘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여자’ 학자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다(아래 <표 8> 참조). 따라서 성,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개설되고 있지만 실제 강의 내용이 ‘여성주의적 관점’과 무관한 경우도 많다(예: 생물학적 성차를 강화, 재생산하는 경우,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지지하는 경우, 심지어 여성을 폄하하고 대상화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를 병리화하는 경우 등). 강사의 개별적 의식과 교수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강의의 질 또한 담보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는 교양 여성학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체계적인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한 학문전반의 상황과 개별적 인적 관계망을 통해 강사를 수급하는 현상, 강사 개인의 의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근본적인 구조적 측면과 맞물려 있다. 또한 여성학의 비/제도화에도 연관되는데, 분과학문으로서의 여성학의 제도화가 여성학 교양 강좌의 체계적 개설과 여성주의적 관점의 견지에 필요조건이라고 한 김은실의 1998년 제안은 이런 점에서 유효하다.

〈표 8〉 학부 교양 여성학(젠더/성 관련) 수업 강사 전공

연번	전공	명수
1	여성학	19
2	사회학	14
3	어문계열	22
4	역사학	8
5	문화인류학	6
6	법학	4
7	정치학	5
8	사회복지	4
9	가족학(아동, 유아 등)	10
10	심리학	3
11	생물학(생명과학)	2
12	기타(교육학, 간호학, 윤리학, 철학, 행정학 등)	15
13	미상	13
	총계	125



4. 타학문분과에 끼친 영향 –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학제로서 사회학과 여성학은 협상과 갈등의 중첩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운동과의 긴밀한 조응 속에서 고등교육 체계로 자리 잡기 시작한 여성학은, 독립성과 간학문성(interdisciplinarity)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긴장 사이에서 사회학을 비롯한 다른 학제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해 왔다(조주현, 1996; 조주현, 2000; 김승경·이나영, 2006).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미국 사회학의 지배적 영향 속에서 형성되어 온 한국 사회학은(한완상·이기홍, 1987; 한완상, 1991; 양종희·이윤희, 1995; 1996), 1990년대 이후 ‘여성’ 학자들과 학생들의 수가 확연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 세계관을 지탱하는 구조 및 행위들을(재)생산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이영자, 1992; 조순경, 1992). 사회학에서 훈련받았거

나 사회학과에 자리 잡은 ‘여성’ 학자들의 상당수가 한국 여성학의 지식생산 및 학제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사회학 내에서 페미니스트 지식과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위치는 주변화되어 왔던 것이다(이재경, 2000: 106-107).

이에 대해 몇몇 페미니스트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학과 페미니즘의 관계와 사회학내 페미니즘 연구의 위치성에 대해 간헐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 그 중 사회계층 이론을 사례로 기존 사회학의 성차별주의적인 편향을 지적한 조형(1981)의 연구, 실증주의 및 기능주의를 근거로 하는 기존 사회학 연구의 물성성을 비판하면서 비판 사회학과 페미니즘의 공통분모를 살피고자 한 이영자(1991)의 연구가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¹⁶⁾ 연속선상에서 조순경(1992)은 사회학 개론서와 사회학 저널의 분석을 통해 여성학이 사회학의 교육과정과 연구내용 및 방법론, 이론적 내용이 미친 영향을 살펴본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조순경은 페미니스트 지향적 연구의 판단 기준을 1) 여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 2) 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여성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은 것, 3) 여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여성학적 관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반여성학적 관점과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 4) 여성에 대한 논의가 구색주의(tokenism)의 한 형태로 이뤄져 있는 것, 5) 여성학적 관점이 일정정도 반영된 것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한 바 있다. 현재 주류 사회학내의 연구들의 내용과 흐름을 분석하기에는 구체적인 분석(측정)에 있어 난점이 존재하지만, 사회학 내 페미니스트 연구의 지향점을 고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이재경(2000)은 사회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비판은 단순히 여성의 부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식론적, 방법론적 문제제기와 사회학적 지식이 발전되고 정당화되는 방식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페미니즘의 도입이 한국 사회학에 미친 영향과 사회학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대학의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중 여성비율(1999년도 기준) 등을 살펴보면서 사회학내 여성 학자가 주변화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사회학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 또한 ‘구색 맞추기’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덧붙여 여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여성연구자들의 몫으로 할당되는 현실에서 ‘연구의 성별화’ 문제로 페미니스트 비판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재경이 비판한 당시의 현실은 2000년대 이후에도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

아래 <표 9>는 2010년 한국사회학 내 ‘여성’ 교원수와 젠더관련 과목을 정리한 것으로 한국사회학 내 젠더 연구의 제도적 기반이 어떠한지 짐작하게 한다.

16) 이영자(1991)는 이 글에서 남녀 세계의 이분화를 자연적인 질서로 보아온 시각을 거부하는 페미니즘은 이성과 감정, 객관성과 주관성을 각기 남성성과 여성성의 범주로 간주해온 사고체계와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도전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은 공적/사적 영역의 이분법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성이원론적 접근방법을 지양하는 것으로, 두 영역간의 차별적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새로운 인식론, 방법론, 이론체계를 만들어내는 학문적 작업을 추구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표 9〉 전국 사회학과 현황¹⁷⁾

순번	학교명	전공	전체 전임 수	남성 전임수(%)	여성 전임수(%)	젠더사회학·여성학 전공자(%)	대학원 젠더 관련 개설 강좌
1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4	3(75.0)	1(25.0)	0(0.0)	(대학원 과정 설치되어 있으나 과목개설 정보는 알 수 없음)
2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7	7(100.0)	0(0.0)	0(0.0)	성의 사회학연구
3	경남대학교	심리사회학부 사회학전공	5	4(80.0)	1(20.0)	1(20.0)	(대학원 과정 미설치)
4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7	4(57.1)	3(42.9)	0(0.0)	성의사회학연구
5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7	6(85.7)	1(14.3)	1(14.3)	여성정책연구, 여성운동연구, 지역사회여성연구, 성과 문화연구
6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7	6(86.7)	1(14.3)	1(14.3)	여성사회학 세미나
7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5	4(80.0)	1(20.0)	1(20.0)	젠더, 가족, 국가연구, 젠더연구 세미나
8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12	11(91.7)	1(8.3)	1(8.3)	여성과 발전, 젠더사회학, 몸과 섹슈얼리티
9	고려대학교(서창)	인문대학 사회학과	6	6(100.0)	0(0.0)	0(0.0)	
10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7	7(100.0)	0(0.0)	0(0.0)	성·과학기술·환경
11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3	2(66.6)	1(33.3)	1(33.3)	가족과 성 연구
12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4	2(50.0)	2(50.0)	1(25.0)	(대학원 과정 미설치)
13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전공	2	1(50.0)	1(50.0)	1(50.0)	(대학원 과정 미설치)
14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6	5(83.3)	1(16.7)	1(16.7)	(대학원 과정 설치되어 있으나 과목개설 정보는 알 수 없음)
15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7	6(85.7)	1(14.3)	1(14.3)	-
16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 사회학과	4	2(50.0)	2(50.0)	1(25.0)	(대학원 과정 미설치)
17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7	6(85.7)	1(14.3)	1(14.3)	(대학원 과정 설치되어 있으나 과목개설 정보는 알 수 없음)
18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8	7(87.5)	1(12.5)	1(12.5)	성과 사회
1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5	12(80.0)	3(20.0)	2(13.3)	성과 사회연구
2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7	6(85.7)	1(14.3)	0(0.0)	(대학원 과정 설치되어 있으나 과목개설 정보는 알 수 없음)
21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6	6(100.0)	0(0.0)	0(0.0)	현대페미니즘론(여성학연구)

17) 이 표는 2010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 대학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 및 한국사회학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정보를 부분적으로 보완, 수정하였다. 젠더사회학·여성학 전공자의 경우 해당 학과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를 참조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젠더 관련 개설 강좌 역시 학과 및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에 명기된 개설 강좌를 열거한 것이다. 따라서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진행된 수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좌가 개설되는지의 여부나 개설 주기 및 빈도, 구체적 커리큘럼 등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전공영역이나 수업개설 등이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제도적 조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사회학 전공					
22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6	6(100.0)	0(0.0)	0(0.0)	-
23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5	5(100.0)	0(0.0)	0(0.0)	-
24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학 전공	5	4(80.0)	1(20.0)	0(0.0)	(대학원은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을 통합한 응용사회학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젠더와 사회'라는 과목이 존재)
25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0	10(100.0)	0(0.0)	0(0.0)	성과 사회, 성의 사회학적 구조
26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6	6(100.0)	0(0.0)	0(0.0)	-
27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5(사 회학)	4(80.0)	1(20.0)	1(20.0)	(대학원은 사회학과로 설치) 여성과 환경, 성의 정치, 여성의 일과 삶
28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8	3(37.5)	5(62.5)	2(25.0)	여성과 사회발전, 현대사회의 성역할, 한국여성연구, 부부관계연구,
29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7	7(100.0)	0(0.0)	0(0.0)	성의사회학, 여성과사회, 성과정책, 페미니즘연구, 섹슈얼리티연구
30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8	7(87.5)	1(12.5)	1(12.5)	(대학원 과정 설치되어 있으나 과목개설 정보는 알 수 없음)
31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6	6(100.0)	0(0.0)	0(0.0)	성의 사회학
32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8	5(62.5)	3(37.5)	2(28.6)	성의 사회학, 사회정책과 젠더, 비교젠더정치, 젠더연구방법론, 페미니즘 이론, 섹슈얼리티와 권력, 성별화된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
33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4	4(100.0)	0(0.0)	0(0.0)	(대학원 과정 미설치)
34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4	3(75.0)	1(25.0)	0(0.0)	(대학원 과정 설치되어 있으나 과목개설 정보는 알 수 없음)
35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6	6(100.0)	0(0.0)	0(0.0)	여성학연습
36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6	5(83.3)	1(16.7)	1(16.7)	성과 사회연구
37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7	6(85.7)	1(14.3)	1(14.3)	젠더와가족, 성의 사회학, 몸의 사회학, 젠더와 사회정책
38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4	3(75.0)	1(25.0)	1(25.0)	(대학원 과정 미설치)
39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5	4(80.0)	1(20.0)	1(20.0)	정보사회와여성, 사회변동과젠더관계, 여성인권세미나
40	한양대학교(안산)	정보사회학과	5	4(80.0)	1(20.0)	1(20.0)	
합계			251	211(84.1)	40(15.9)	27(10.8)	

2010년 10월 현재, 사회학과가 설치된 전국 40개 대학(도시사회학과, 정보사회학과 및 단과대 학 내 사회학전공 포함)의 총 전임자 251명 중 남/녀 전임의 비율은 각각 84.1%와 15.9%이다. 여성 전임교원이 1명 이상인 학과(72.5%) 중 페미니즘/젠더/섹슈얼리티 전공자가 있는 학과는 23개(57.5%),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34개 학과 중 관련 수업('성의 사회학', '젠더사회학', '페미니즘 이론', '성과 가족' 등)을 개설하는 것으로 학과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는 학과는 22개

(64.7%)였다. 교수진 중 페미니즘/젠더/섹슈얼리티 전공자의 유무와 관련 수업 개설 사이의 불일치는 전공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과목을 의례적으로 전담(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 전공자가 아닌 교수진이나 외부 강사진에 의존한 수업진행 상황을 짐작하게 해준다. 특히 ‘젠더사회학’ 전공자가 전체 여성 전임교원 40명 중 27명(전체의 10.8%, 여성 전임 중 67.5%)이라는 사실은 생물학적 ‘여성’과 ‘젠더 연구자’를 동일시하는 사회학(자들)의 통념과, ‘여성’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젠더 연구’에 대한 필요성 또한 충족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¹⁸⁾ 그러나 사회학이라는 공고한 분과학문적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주류’ 분과학문 패러다임의 남성중심적인 당연한 가정들(taken-for-granted assumptions)에 어떻게 저항하면서 ‘내부인들(inner circle)’을 변화시켜 왔으며, 이것이 분과학문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과제이다.

IV. 기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경로 모색

여성학과 수의 감소, 대학 내 부설 여성(학) 연구소의 감소, 분과학문로서의 불안정한 위상, 학부 교양 여성학의 수적 감소와 내용적 문제 등으로 인해 그간의 제도화 과정 자체가 ‘불완전한 제도화’ 혹은 제도화의 ‘후퇴’로 읽힌다. 필자는 이것이 단순히 여성학과 내부의 문제에 기인하기보다는 다른 외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본다.

첫째, 한국 사회 지식정책의 변화와 연관된다. 시발은 김영삼 문민정권 당시인 1995년 5·31 개혁 정책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거쳐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는 시장친화적 효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김원, 2008; 장수명: 2009), 이로써 설립준칙주의, 대학정원 자율화, 전문대학원제 도입,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주도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와 BK21 사업(1999), 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NURI) 등이 차례로 확립되었다.¹⁹⁾ 변화의 요지는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간접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매개로 대학 간 경쟁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장치의 확립이라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 IMF, 문민정부의 대학 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가 야기한 방만한 고등교육체제, 더불어 문민정부 이래 강조되어 온 ‘세계화’ 과정에서 ‘연구수준 세계 일류화’라는 당위성이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이로써 한국사회는 제도로써 대학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회의 교체와 재편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학 부설 여성연구소 문제도 대학자율화 정책,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HK(인문학 한국) 사업과 학술지 사업(등재지/후보지 지원), 대학 자체 내 구조조정(통폐합) 등의 요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로 지난 몇 년간 ‘세계수준의 연구역량

18) 이는 계급, 노동, 조직 등 사회학의 ‘주류’ 분야의 채용에 있어 ‘여성’들의 주변화에도 연관된다.

19) 대학정책 관련 상세한 내용과 변화의 추이는 장수명(2009)과 김원(2008), 한경희(2006)을 참조할 것.

강화'라는 구호 하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연구소는 '부실'로 찍혀 자체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외부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구소들은 '중점 육성'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를 통해 국가 지원, 외부 지원금 등 물적 조건이 좋은 연구소들은 상대적으로 급팽창했으며 연구역량(전임 연구원 수, 이에 기반한 논문 수) 또한 증대되어 왔는데 여성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물적 토대를 잃지 않기 위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향해 질주해야 하고 끊임없는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둘째, 신자유주의 시대 '아카데미 캐피탈리즘'(academic capitalism)의 확대·심화 현상과 연관된다.²⁰⁾ 아카데미 캐피탈리즘은 대학이 유사시장행위를 통해 상업적 경쟁관계에 복무하고 이에 교수들은 외부자금 확보를 위해 시장지향형 노력을 한다는 의미이다(Slaughter & Larry, 1997). 문제는 기업가적 대학 모델이나 아카데미 캐피탈리즘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논리가 대학에 도입되면서 경쟁력 담론 못지않게 중요한 대학의 가치가 설 자리를 잃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한경희, 2006: 14). 실로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대학들은 심화된 상업적 경쟁관계에 돌입했으며 살아남느냐, 문을 닫느냐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부실대학과 그렇지 않는 대학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거는 현실에서 자유로운 대학은 한 곳도 없을 것이다.²¹⁾ 무엇보다 최근 몇몇 서울의 사립대학이 대기업의 소유가 되면서 급격한 구조조정의 물살을 탄 결과가 '학교 순위 상승'으로 나타나자 대학구조조정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현재 국내 대학정원은 약 60만 명이지만 고교 졸업자수가 2024년까지 41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예견이 '부실대학' 정리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 생산의 계량화, '객관적' 평가시스템, 연봉제도, 상시 평가시스템 등

20) 슬러터와 래리(Slaughter & Larry, 1997)는 신자유주의시대의 대학은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고 이윤을 얻기 위해 "유사시장 행위(marketlike behavior)"를 동반하는 상업적 경쟁관계에 복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카데미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쟁을 통한 자원의 획득은 상징적 차원의 명예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남긴다는 점에서 실질적이며 현실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은 순수한 학문의 상아탑으로 남아있기보다는 기업화를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대학 내 지식인 집단 또한 상업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인적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노동의 질로 결정되는데 이때 지식인이 소유한 인적자본의 질은 '잘 팔리는' 지식의 생산여부와 외부의 자본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연구기관) 내 지식인 집단은 시장이나 국가로 대표되는 공공영역으로부터 자율적인 존재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자(academics)"이자 "자본가(capitalists)"가 되었다(ibid, 8-13; 김승경·이나영, 2006).

21)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9월에 4년제와 전문대를 합친 전체 평가대상 346개 대학 중 4년제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이 중 상명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이 9개, 전문대 8개 등 17개 대학을 신입생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추가 공시했다. 정부는 '부실대학' 명단 발표가 수험생들의 해당 대학 지원을 억제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일보, 2011년 9월 5일). 또한 대통령이 직접 10개 교육대학의 총장들을 만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반발하는 대학들에는 '경고' 메시지를 준다는 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서울신문, 2011년 10월 24일).

의 도입을 통해 대학은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 ‘경쟁력’의 논리로 재단되고 있는 실정이다.²²⁾ 인문사회계열의 많은 학과들이 그러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손쉽게 통폐합이나 폐과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셋째, 견고한 학부제와 대학별/학제별 순위구조, 높은 국가 의존도라는 특징을 지닌 한국대학의 특수성과 연관된다. Griffin(2005)은 여성학 제도화를 심화시킬 수/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로 1)(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대학의 자율성 정도(높음/낮음); 2) 유연한/견고한 학제적 구조; 3) 여성운동의 반-제도화 성향/여성학의 제도화를 향한 여성운동의 지원 또는 중립성; 4) 여성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92-93). 이중 한국 대학은 정부에 대한 낮은 자율성(정원, 학과개설 등), 견고한(학부)학제적 구조, 여성학(을 비롯하여 소위 ‘돈 안 되는’ 인문학 계열 학과)에 대한 국가 지원 부재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모두 여성학 제도화의 저해 요인들로 작동해 왔음을 고려할 때, 학제로써 후발 주자이자 학부에 학과제도가 부재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에 놓인 여성학이 견고한 분과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기획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한국의 특수성인 대학과 분과학문 간 심각한 서열화를 고려한다면 그나마 2000년대 이후 몇몇 남녀공학 대학에 여성학과 학위제도가 생긴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볼 수 있다.

교양 여성학의 문제들 또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보다 넓게는 한국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의 현실과 연관된다. 견고한 학부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학사(서열)구조 체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간의 체계성 부족, 전임교수 부족과 강좌 당 학생 수 과다, 이로 인한 시간강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낮은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 기초학문이 소외되기 쉬운 의사결정 구조, 대학 서열구조와 학벌주의 풍토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교양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서남수, 2010)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학 교양과목의 축소 현상은 교양교육 관련 대학 내 제도적 변화와도 관련 있다. 1990년대 당시만 해도 ‘여성학’ 교양과목은 여성연구소, 교수운영위원회, 관련 학과 주관, 교양학부와 여학생처 주관으로 개설 가능했다(조형, 1990: 212-215). 그러나 최근 많은 대학에서 교양과목은 교양학부대학, 교양과정부 등에서 독자적으로 관리, 개설하는 추세이고 교양과목 수 자체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개별 교수나 학과, 연구소 등에서 개설 요청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위기 담론’과 연관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외형적 축소의 문제가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까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논변으로 작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22) 이러한 논리는 소위 경쟁력 없는(생산성, 능률성이 떨어지는) 학과의 폐과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학과 교수들의 논문편수(연구능력), 교수 1인당 학생 수,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한 학과와 학교평가가 상시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 대학평가 결과가 매년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재벌 언론들은 앞 다투어 개별적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들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언론에 나타난 ‘순위’가 신입생들의 학교와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의 변화와 분리된 별개의 위기의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내부 문제에만 골몰하다 보면 외부적 모순을 보지 못하며 내적 성찰이 지나치면 자조를 넘어 자해를 결과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여성학이 ‘여성’들만의,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들만에 의한 학문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인 젠더 문제, 그리고 젠더와 다른 사회적 범주와의 교차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남녀공학으로의 제도적 확산은 한국 여성학의 발전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기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집단의 궁극적인 지향점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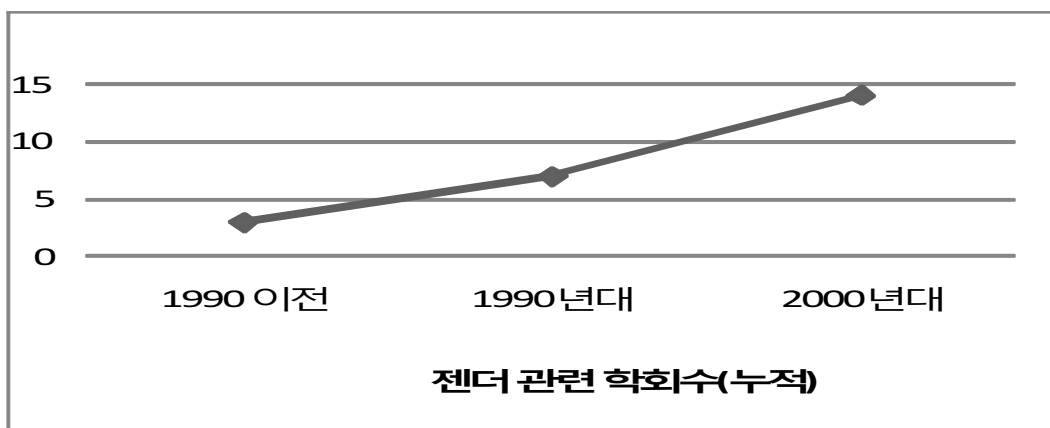
학문적 기회구조가 격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여성학 하기의 다양한 경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왔으며 영토를 확장해 왔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젠더/여성을 연구하는 학회와 연구소가 아카데미 안과 밖, 여성학이라는 분과학문을 넘어 편재하고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학술지) 학문적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결코 적지 않다(앞장의 <표 1>과 <표 2>, <각주 3>, <각주 4>, 아래 <표 9>, <그림 1> 참고).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결국 여성학의 위치성에 대한 이해와 맞물리며 간학문적 분과학문으로써 여성학의 경계를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작업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요하다.

〈표 10〉 여성/젠더 관련 학회지의 종류

젠더 관련 학회지 현황		
등재지	16	여성건강간호학회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철학 한국여성체육학회지 미디어, 젠더&문화 한국여성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여성문학연구 영미문학페미니즘 가족과 문화 아시아여성연구 페미니즘연구 여성학논집 여성연구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AJWS) Asian Women(SSCI)
등재후보지	3	여성경제연구 여성과 역사 여성학연구
기타	16	여성건강 여성신학사상 젠더법학

		젠더와 사회 여/성이론 여성정책논집 여성과 건강 젠더와 문화 여성신학논집 여성연구논집 젠더리뷰 KWDI Brief GSPR 성평등연구 여성연구논총(성신여대) 여성연구논총(서울여대)
총계	35	

〈그림 1〉 젠더 관련 학회 수



V. 나가며: 미완의 프로젝트와 향후 과제

지난 10여 년간 대학 사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변화했다. 학교·학과통폐합 등 구조 조정, 경영 마인드를 가진 CEO의 등장, 거대자본에 의한 대학 인수, 연구재단으로 대표되는 지식생산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연구실적(SSCI, SCI, A&H, 등재지, 등재후보지로 범주화와 양화), 학회활동, 사회봉사, 대학발전기금 조성, 외부연구비 수주액, 강의평가, 산학협동실적, 학생 취업을 등이 세밀하게 ‘점수’로 환산되어 대학 교원들을 평가하는 격자구조 시스템이 견고하게 구축되었다.²³⁾ 이렇듯 양극화된 승자독식 체제의 심화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학계 전반의 ‘위기론’이

다. 그리고 반복되는 위기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에 기반한 ‘보편담론’이다 (김원, 2008: 50-51). 그러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소구되는 과거 회귀적 ‘보편 담론’은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차지하고서라도 여성학에 좋은 시절이 있거나 했을까? 무엇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변화하는 제도적 기회구조의 한계를 읽어내지 못한 채 내적 자조만으로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여성학은 대학 내 여성교육의 중요성 제고와 사회변혁에의 참여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아카데미 내부에서 ‘양성평등’의식의 고취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등 여러 영역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대학 안팎으로 한국 여성학은 ‘위기’에 처했다고 자평한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회적 ‘위기’들과 연관되며, 내적으로는 ‘여성학’을 하는 ‘우리’의 문제와 연관된다. 전자는 문민정부 이후 진행된 대학정책의 변화, IMF 이후 가속화된 시장화 정책, 경쟁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대학 구조조정, 대학생 수 감소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가속화되는 대학의 현실과 맞물리며, 이는 대학서열 구조, 학과 중심의 학사구조와 전공의 지위제(위계제)라는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병폐와 연결된다. 후자에는 분과학문으로 공고화되기도 전에 위축된 제도적 문제, 보편화, 상업화된 페미니즘의 사회적 위상, 여성학 전공자의 불확실한 진로,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설립 추진되었던 여성가족부의 위상 변화 등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여성학의 ‘위기’는 개인적인 문제나 개별 학과, 학교의 문제로 한정하기보다 학계 전반의 변화, 사회구조적, 정치적인 변화와 맞물려 이해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여성학’이 내적으로는 불균등한 제도화 혹은 미완의 제도화라는 과제를 안고, 급변하는 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국가 권력에 의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의 현실 앞에, 페미니스트들은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순응하지만 때로는 작은 승리를 맛보면서 내/외적 갈등들을 조정하고 협상해 왔다. 물론 각 분과학문에서 남성중심적 지식의 근간을 흔드는 인식론으로서 페미니즘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과학문으로써 여성학의 정체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당연히 지향해야 할 변화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기여한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다. ‘양성평등’은 시대적 조류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위해 투쟁해 온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은 폄하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공학 대학의 교과과정과 타 학문분과에서 페미니즘 인식론은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되고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다른 장들을 통해 페미니즘 지식생산의 새로운 경로들이 개척되고 있는 사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여성/젠더와 연관된 문제는 특수하지만 사소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등으로 무시되거나 폄하되며, 심지어 끊임없는 질문의 대상이 되고 게토화되는 다른 학문 영역에서, 페미니즘의 영토 개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23) 이로 인해, 2011년 11월 11일 전국대학교수협의회가 대학시장화반대시국선언문을 발표했듯이 많은 비판적 학자들은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과 몇몇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에 대한 재고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여성들)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은 기실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성평등한 관점을 확산시키고자 했던 과거 선배들의 노력과 그들이 이루어낸 집단적 업적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학문의 장, 정의로운 사회를 후배들에게 물려 줄 책임감 또한 안고 있다. 이제 이미 특권화된 ‘우리’는 외적으로는 대학의 시장화를 반대하는 진보학자들과 연대하여 ‘학문하기’의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내적으로는 끊임 없는 자기성찰과 혁신의 과제를 안고 있다.

내적 과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2011년 한국여성학회 춘·추계 발표를 통해, 몇 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첫째, 우리의 후배들이 지적 타자로서의 낙오되지 않게 하고 ‘경쟁력’ 있는 학문후속세대로 훈련시키기 위해 방법론, 이론, 교수법 등의 강좌를 개발하고, 표준 강의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과 간, 학교 간 연대하여 수업을 공동으로 개설하거나(공동육아), 현장의 활동가들 대상으로 하는 재능 기부 또한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타 분과학문에 대한 개입과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류’ 학계의 논의에 개입하고 비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회에서의 가시성을 증가시키고(학회, 저널 등) 스스로 계토화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개방성,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전략적 기입과 원활한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경계를 넘는 커뮤니티 구성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영역, 다른 영역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을 지지하고, 인정하며 적극 연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타 분과학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허브역할을 하는 한국 여성학의 견고한 위치성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여성학/젠더를 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성을 점검하는 일은 내부 비판과 자조, 자기성찰과 반성적 차원에 머물고자 함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비전을 구상하기 위함이다. ‘학문하기,’ ‘교육하기’의 맥락과 의미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의 안/밖에 내재한 무수한 경계들을 넘어 다른 ‘우리들’과 접속하고, 더 나아가 경계 자체를 이동시키고 해체하는 정치학이 절실하다. ‘우리’를 다시 상상하는 작업은 여성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하고 ‘우리’라는 집단정체성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기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픈 아픔을 동반하겠지만, 결국 인식론과 정치학으로서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집단’의 생존, 확대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뿌리’를 재고하면서 동시에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²⁴⁾ 스스로 자문해 보자.

24) 이러한 통찰은 Nira Yuval Davis(1997)의 아이디어에 기댄 것으로, 저자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민족, 문화, 계급, 인종의 ‘뿌리’를 완전하게 인식(인정)하고, 동시에 ‘타자’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조언하면서 ‘transvers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나는 ‘선배’들의 역사를 다시 보기하면서 페미니스트 유제를 전승하고 동시에 학계/운동/분과학문을 넘나들 수 있는 다수의 거점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논의를 빌어 왔다.

〈 참고문헌 〉

- 강정희·이숙진(1996), “기초여성학: 현실과 전망,” 한국 여성학회 제3차 워크숍 자료집 발표문, 21-33쪽.
- 김은실(1998), “한국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육 개관,” 『여성학논집』, 제14권 1호, 293-300쪽.
- 김승경·이나영(2006), “학제간 학문으로서의 여성학: 여성학(과)의 정체성 및 제도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1호, 35-77쪽.
- 김원(2008), “1987년 이후 진보적 지식생산의 변화: 진보적 지식공동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77호, 33-57쪽.
- 김영선(2010),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인식』, 제34권 3호, 323-399쪽.
- 김태현(2000), “21C 여성학의 과제와 전망: 여성학 협동과정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한국여성연구소(편), 『여성연구논총 창간호』, 203-209쪽.
- 김혜경 외(2009), “지역에서의 여성학 교육의 현재와 특성: 전북지역 및 전북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3호, 151-193쪽.
- 박홍태(1996), “교양과정으로서의 여성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덕여성연구』, 창간호, 27-69쪽.
- 서남수(2010), “한국대학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제4권 제2호, 1-18쪽.
- 손승영(1999), “여성학의 사회과학적 특성과 재구성,” 『동덕여성연구』, 제4호, 93-113쪽.
- 윤택림(1995), “회고와 전망: 역대 회장 초청 간담회,” 『한국여성학』, 제11집.
- 변혜정 외(2011), “여성학 전공자의 재생산과 그 가능성: 여성학 제도화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이기홍(2008), “사회과학에서 생산성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 『경제와 사회』, 제77호, 10-32쪽.
- 이나영·정민우(2010), “한국사회학(과)에서 ‘여성학’하기란?: 페미니스트 학문 후속세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4집 5호, 176-223쪽.
- 이영자(1992), “페미니스트 패러다임의 사회학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학』, 제25집 겨울호, 199-215쪽.
- 이정옥(1996), “여성사회학의 현황과 전망,” 『동덕여성연구』, 창간호, 71-89쪽.
- 이재경(1999), “한국 여성학 교과과정의 현황과 과제,” 『여성학논집』, 제16집, 31-48쪽.
- _____(2000), “사회학에서의 페미니즘의 수용과 영향,” 『여성학논집』, 제17집, 93-114쪽.
- _____(2003), “한국 사회학에서 ‘여성’연구의 성장과 도전: 1964-2002,”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1권, 23-40쪽.
- 이효재(1994), “한국여성학과 여성운동,” 『한국여성학』, 제10집, 7-17쪽.
- _____(1996),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서울: 정학사.
- 장수명(2011), “등록금 투쟁과 대학제도 혁신,” 『경제와사회』, 제91호, 69-102쪽.

- _____(2009), “5·31 대학정책분석: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제77호, 9-49쪽.
- 정일환 외(2003), 『여성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조옥라(1999), “여성학 입문서의 현황과 평가: 연구회와 대학부설 연구소 발간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15권 1호, 215-223쪽.
- 조순경(1992), “여성학의 발전과 한국 사회학의 변화,” 『여성학논집』, 제9집, 85-112쪽.
- _____(1999), “한국여성학 지식의 사회적 형성,”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조주현(1996a), “여성학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한국여성학회 제3차 워크숍 자료집, 3-18쪽.
- _____(1996b),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2권 1호, 139-179쪽.
- _____(2000), “한국 여성학의 지식생산 구조와 향방: 『한국여성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6권 2호, 145-174쪽.
- 조형(1981), “여성지위예의 사회계층론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15집, 9-19쪽.
- _____(1990), “전국 대학 여성학강좌 실시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논총』, 제57집, 199-232쪽.
- 한경희(2006), “이공계 대학특성화의 기회와 제약: 획일화된 다양성,”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157-182쪽.
- 한완상·이기홍(1987), “한국 사회학의 반성: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격,” 『현상과 인식』, 제38호, 171-216쪽.
- 한준(2002), “대학간 경쟁구조,” 『사회발전연구』, 제8호, 1-18쪽.
- Allen, Judith A. & Sally L. Kitch(1998), “Disciplined by Disciplines?: The Need for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Mission in Women’s Studies,” *Feminist Studies*, 24(2), pp. 275-300.
- Blee, Kathleen(2002), “Contending with Disciplinarity,” in Robyn Wiegman(ed.), *Women’s Studies on Its Ow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Brown, Wendy(1997), “The Impossibility of Women’s Studies,” *Differences*, 9(3), pp. 79-101.
- Chang, Pilwha(2008), “Feminist Consciousness and Women’s Education: The Case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AJWS*, 14(2), pp. 7-29.
- Finger, Anke & Victoria Rosner(2001), “Forum: Doing Feminism in Interdisciplinary Contexts,” *Feminist Studies*, 27(2), pp. 499-503.
- Griffin, Gabriele(2005),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Studies in Europe,” in Gabriele Griffin(ed.), *Doing Women’s Studies: Employment Opportunities, Personal Impacts, and Social Consequences*, pp. 89-110. New York: Zed Books.
- Kim, Eun-Shil(2010),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izing Feminist Knowledge: Discussing ‘Asian’ Women’s Studies in South Korea,” *AJWS* 16(3), pp. 7-34.

- Klein, Julie Thompson(1990), *Interdisciplinarity: History, Theory, & Practice*, Detroit, MI: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May, Vivian M.(2002), "Disciplinary Desires and Undisciplined Daughters: Negotiating the Politics of a Women's Studies Doctoral Education," *NWSA*, 14(1), pp. 134-159.
- Messer-Davidow, Ellen(2002), *Disciplining Feminism: From Social Activism to Academic Discours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Romero, Mary(2000), "Disciplining the Feminist Bodies of Knowledge: Are We Creating or Reproducing Academic Structure?," *NWSA*, 12(2), pp. 148-162.
- Slaughter, Sheila and Larry L. Leslie(1997), *Academic Capitalism: Politics, Policies, and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horne, Barrie(2000), "A Telling for Women's Studies," in Judith A. Howard and Carolyn Allen(eds.), *Feminisms at a Millenni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egman, Robyn(2001), "Women's Studies: Interdisciplinary Imperatives, Again," *Feminist Studies*, 27(2), pp. 514-518.
- Yuval-Davis, Nira. 1997. *Gender and Nation*. London: Sage.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여성 또는 젠더와 성평등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는 학회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학술사업과 활동을 기획, 추진하여 연구와 참여학회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활동)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학술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참여학회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촉진
2. 참여학회 공동의 연구와 관련 활동의 기획, 조직과 지원
3. 참여학회 공동의 학술행사 개최와 출판물 간행
4. 국내외 학술정보 교환과 유관기관·학술단체와의 협력증진 사업
5. 그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 협의회는 사무실은 주관학회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참여학회) ① 본 협의회는 참여학회는 여성, 젠더, 성평등에 관련된 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고 대한민국에 소재한 학회로 한다.

② 본 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 참여학회가 되고자 하는 학회는 운영위원회의 가입심사절차를 거쳐 참여학회가 된다.

제6조(조직) ① 본 협의회에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주관학회의 학회장으로 하며, 임기 중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회장의 유고 시에 직무대행은 회장이 소속된 학회 구성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지명된 자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운영사무를 담당한다.

- 제7조(주관학회) ① 본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가학회 중에서 매년 협의회와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집행할 주관학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② 주관학회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③ 주관학회는 운영위원회에 소관업무의 추진계획과 실적,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차기 주관학회를 결정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협의회는 협의회와 설립과 참여학회의 조직, 주관학회의 선임, 제2조의 사업과 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참여학회 당 회장 1명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1명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협의회와 회장이 겸임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와 해산과 정관의 변경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관학회 사무국에 둔다.

제3장 재정

- 제9조 (경비) ① 본 협의회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비,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 ② 주관학회는 경비의 조성과 집행을 주관한다.

제10조(회계년도) 본 협의회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협의회와 해산

제11조(협의회의 해산) 본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정관의 개정) 본 협회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정관의 시행) 본 정관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